

# 제 33 회 한 말 연 구 학 회

## 전 국 학 술 대 회

일시 : 2011년 2월 11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동관 106호(제1발표장)/107호(제2발표장)  
 주제 : 한국어의 이론과 실용적 접근  
 주최 : 한말연구학회

<b>개회식</b>		사회 : 조일규(평택대)	
10:30 ~ 10:50	(등록 및 접수) 개회사 회장 인사		
<b>특 강</b>		사회 : 조일규(평택대)	
10:50 ~ 11:50	조오현(건국대)	근대 국어사에 대한 재해석	
< 점심 식사 >			
	<b>&lt;제1분과&gt; 국어 의미론</b>	<b>&lt;제2분과&gt; 국어 어휘론</b>	
	제1발표장 사회: 최홍열(강원대)	제2발표장 사회: 허원욱(건국대)	
1:00 ~ 1:40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한 기초적 논의 -논항과 슬어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김건희(충남대) 토론: 박동근(건국대)	무단(無斷), '무단(無端)', '무단(武斷)'의 어휘사 발표: 김양진(고려대) 토론: 박형우(한국교원대)	
1:40 ~ 2:20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발표: 이민우(경희대) 토론: 한성일(경원대)	바위와 관련된 지명의 고찰 발표: 조재형(중앙대) 토론: 방운규(평택대)	
2:20 ~ 3:00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발표: 박철우(안양대) 토론: 이준희(경기대)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을 통해서 본 북쪽 국어학 체계에 대하여 발표: 이상혁(한성대) 토론: 허재영(단국대)	
	<b>&lt;제3분과&gt; (한)국어 교육</b>	<b>&lt;제4분과&gt; 국어 음운론 및 국어 교육</b>	
	제1발표장 사회: 강흥구(공주대)	제2발표장 사회: 김용경(경동대)	
3:10 ~ 3:50	맥락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발표: 김혜정(경북대) 토론: 김슬옹(동국대)	16세기 후반-17세기 漢字音의 韻母上의 특징과 변화 발표: 이준환(국립국어원) 토론: 최영미(경동대)	
3:50 ~ 4:30	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관계의 활용 발표: 이동혁(부산교대) 토론: 서중훈(대구 기톨릭대)	음운 현상의 수의성에 대한 몇 문제 -수의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 안병섭(고려대) 토론: 김남미(서강대)	
4:30 ~ 5:10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NPAH습득 양상 발표: 박철웅(한국외대) 토론: 김은영(경기대)	고구려 지명 '上忽'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 발표: 최종호(동의대) 토론: 임병준(건국대)	
5:10 ~ 5:50	한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발표: 박철주(서강대) 토론: 김주연(건국대)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수업 지도 발표: 윤재연(건국대) 토론: 최대희(건국대)	
< 폐 회 >			

# 차 례

## 【특 강】

조오현(건국대)	근대 국어사에 대한 재해석 .....	7
----------	----------------------	---

## 【제1부】

### ■ 제1분과

김건희(충남대)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한 기초적 논의 -논항과 술어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25
박동근(건국대)	토론 .....	34
이민우(경희대)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	36
한성일(경원대)	토론 .....	44
박철우(안양대)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	46
이준희(경기대)	토론 .....	60

### ■ 제2분과

김양진(고려대)	무단(無斷), ‘무단(無端)’, ‘무단(武斷)’의 어휘사 .....	65
박형우(한국교원대)	토론 .....	78
조재형(중앙대)	바위와 관련된 지명의 고찰 .....	80
방운규(평택대)	토론 .....	93
이상혁(한성대)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을 통해서 본 북쪽 국어학 체계에 대하여 .....	95
허재영(단국대)	토론 .....	108

### ■ 제3분과

김혜정(경북대)	맥락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	111
김슬옹(동국대)	토론 .....	133
이동혁(부산교대)	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관계의 활용 .....	157
서종훈(대구가톨릭대)	토론 .....	170
박철웅(한국외대)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NPAH습득 양상 .....	171
김은영(경기대)	토론 .....	181
박철주(서강대)	한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	183
김주연(건국대)	토론 .....	197

### ■ 제4분과

이준환(국립국어원)	16세기 후반·17세기 漢字音의 韻母上의 특징과 변화 .....	202
최영미(경동대)	토론 .....	223
안병섭(고려대)	음운 현상의 수의성에 대한 몇 문제-수의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225
김남미(서강대)	토론 .....	233
최중호(동의대)	고구려 지명 ‘上忽’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 .....	235
임병준(건국대)	토론 .....	247
윤재연(건국대)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수업 지도 .....	252
최대회(건국대)	토론 .....	275

【 특 강 】

# 근대 국어사에 대한 재해석

조오현(건국대)

## 차 례

1. 머리말
  2. 국어 변화에 대한 해석
    - 2.1. 15세기 간행물의 특징
    - 2.2. 표기의 단순화
    - 2.3. 없어져가는 소리의 글자 정리
    - 2.4. 뜻을 분명히 하려는 의식이 강해짐
    - 2.5. 외래어의 수용
  3.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근대국어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와 더불어 한국어사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은 근대국어에 나타난 많은 변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국어 변화에 대한 해석

### 2.1. 15세기 간행물의 특징

15세기는 국어 표기법 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규칙적인 표기법을 가진 시기이다. 15세기 표기법이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안정되고 규칙적일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의 중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훈민정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글자이다. 특히 15세기 우리말의 말소리를 완벽하게 연구하여 그 말소리에 적합하도록 창제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말소리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었다.

둘째, 15세기 표기법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정음 사상과 정성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셋째, 15세기 성운학자들은 세종 24년에 사가독서의 명을 받고 공무에서 벗어나  
진관사에서 오직 학문을 닦은 학자들로 운학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넷째, 15-17세기에 간행된 책은 대부분 왕실 주도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토와 검토를 거듭한 뒤에 간행된 책이었다.

다섯째, 15-16세기에 간행된 책의 대부분은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에  
참여하였던 성운학자들이거나 그들로부터 학문을 배운 집현전과 승문원의 학자  
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섯째, 15세기 간행 사업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는데,  
모든 간행 사업에는 반드시 운학자(언어학자)들이 참여하였다.

## 2.2. 표기의 단순화

그러나 16세기부터 일부 흐트러지기 시작한 표기법은 17세기부터 규칙이 많이 깨어졌다.  
완벽에 가깝던 표기법이 깨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추정 가능한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기법은 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표기법이 바뀐 것을 언어의 변  
화로 본다.<sup>1)</sup>

둘째, 훈민정음은 15세기의 말소리에 맞게 창제되었으나 말소리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완벽한 표기를 하기 힘들었다.

셋째, 15-16세기에 성행하던 운학이 퇴조함에 따라 훌륭한 음운학자들을 배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운학자에서 한학자, 문학자, 중인  
계층으로 변화하였다.

넷째, 17세기 이후에 간행된 책은 지방 관아나 개인의 저술이 많아져 왕실 주도로  
간행되던 15-16세기의 문헌에 비해 표기법이 자유로웠다.

다섯째,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격식을 파괴하고 표기법을 단순화하  
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첫째에 기준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표기법은 저술에 참여한 사  
람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만 기준을 두어 연구하는 태도는 올바  
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7세기에 표기법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위의 여러 요인이 겹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그 실태  
와 원인을 살피도록 한다.

1) 사성점 치기와 성조와의 관계는 다음 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ㄱ) 방점이 찍혀진 시기에 있어서도 성조는 이미 없어졌는데, 종래의 관습상 방점 표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ㄴ) 방점 표기와 성조의 운명은 완전히 같은 때이었다.

(ㄷ) 성조는 유지되어 있었으나 그 분석이 잘 되지 않아서, 방점을 찍지 못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ㄱ, ㄴ의 경우보다 ㄷ의 경우가 더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  
리는 특별한 자료를 발견하기 전에는, ㄷ으로 미뤄잡아 두려 한다. 곧 성조는 임진(1592) 전후에 길리와 같음되  
었다.(허웅 499-500쪽)

## 2.2.1. 방점의 소멸은 성조의 소멸이 아닌 표기법의 단순화

### 2.2.1.1. 성조는 훈련된 운학자들만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15세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연구한 다 음에 그 소리에 맞는 글자로 창제하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창제 문자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과학적이고,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정밀함은 방점 표기에서 절 정을 보이는데 세계 문자 가운데 길이나 높낮이를 나타내는 운소를 문자로 제정한 것은 훈 민정음뿐이다. 그런데 15세기의 표기법에 나타난 방점은, 표기 방식이 매우 정밀할 뿐 아니 라 실제 문자 생활에서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이 정밀성, 정확성, 규칙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나 15세기에 철저히 지켜지던 방점은 16세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 습을 보이다가 17세기 문헌에서는 거의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표기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까지는 방점이 표기법에서 사라진 것을 성조의 소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sup>2)</sup>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생각한다. 방점을 비롯한 모든 표기법을 연구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저술에 참여한 사람의 전문성을 살펴야 한다.

방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저술에 참여한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잘못이라 생각한다. 성조를 비롯한 운소는 음성학이나 음운학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한 음운학자만이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16세기에 나타난 방점 표기의 혼란을 성조가 사라지는 과정으로만 보아온 기존의 연구 태도와 결과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가 옳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보기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 (1) ㄱ. 내·길·조·차·날·회·여·녀·기·들·위·오·노·라·흐·니·이·런·전·츠·로·오·미·더·디·요·라.  
ㄴ. 내길흘조차날호여네여기드려오노라흐니이런전츠로오미더디여라.
- (2) ㄱ. ·우·리·설·흔·사·르·미·각·각·돈·일·씩·곰·내·면·대·도·히·돈·이·삼·천·나·치·로·소·니.  
ㄴ. 우리三十人이各人이一百냥銅錢을내면대되三千냥銅錢이니.
- (3) ㄱ. 서·늘·호·물·호·물·호·물·호·물·갓·가·하·다·니·히·터·운·비·출·저·서·느·느·지·블·즐·기·노·라.  
ㄴ. 서늘호물호물호물호물갓가하다니히터윈비출저서느느지블즐기노라.

(1)ㄱ은 『번역노걸대』에서, (1)ㄴ은 『노걸대언해』에서, (2)ㄱ은 『번역박통사』에서, (2)ㄴ은 『박통사언해』에서 가져온 보기이며, (3)ㄱ은 『두시언해 원간본』에서, (3)ㄴ은 『분류두공부 시언해 중간본』에서 가져온 보기이다.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1), (2)와 (3) 사이에는 차 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506년에서 1517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변노와 변박에서는 방점이 매우 정밀하게 표기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20-30년 앞선 1481 년에 간행된 두시언해에는 방점이 성글다. 왜 뒤에 간행된 것이 더 정밀하고 앞에 간행된 것이 덜 정밀할까? 그 원인은 언해자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점 표기가 정밀한 번

2) 허용(1985:505-506쪽)에서는 방점이 사라진 것을 성조의 소멸로 보고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첫 째는 말의 높낮이가 심하면 거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도시의 사교생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점과 임진란 이후의 사회적인 공포와 불안 상태가 성조 소멸을 가속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노와 번박의 언해자는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인 최세진이고,<sup>3)</sup> 『분류두공부시』를 언해한 사람은 언어학자가 아니다.<sup>4)</sup>

이를 통해, 저술에 참여한 사람의 전문성이 표기법, 특히 운소의 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참여자의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의 실태만을 고려한 다음에, 방점 표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조의 혼란으로 규정했고, 방점이 사라진 것을 성조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생각한다.

성조와 같은 운소는 고도의 이론과 청취훈련을 받은 전문가만 바르게 듣고 표기할 수 있다.

### 2.2.1.2. 운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소리 체계(음운 체계)가 변천하면 그에 따라 운소가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 번 습득한 운소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도 가진다. 특히 언어 습득기에 길들여진 발음은, 세월이 흐르고 언어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 발음 습관은 2세에도 이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경상도에서 어릴 때 서울로 이주하여 50-60년을 산 사람들도 경상도 말투인 높낮이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도 음소를 버리고 서울의 음소로 바꾸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다. 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경상도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2세들이 부모의 말인 경상도 말소리를 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성조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 방점을 무시한 채 ‘훈민정음 어제’나 (1)ㄱ, (2)ㄱ을 녹음하면서 읽고, 다음에 방점을 살피면서 들어보면 우리가 읽은 말의 높낮이와 길이가 방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표기법에서 방점이 사라진 것을 성조의 소멸로 보는 기존의 해석에서 벗어나 방점이 사라진 것은, 표기법이 간소화된 것으로 보고, 표기를 간소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2.2.1.3. 15세기 운학자들은 길러진 전문가였다.

세종대왕 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음운학의 르네상스기이다. 이 시기의 음운학의 연구 업적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이는 우수한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15세기에 그렇게 훌륭한 음운학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을까? 15세기에 많은 훌륭한 음운학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원천은 세종대왕의 음운학에 대한 관심과 용인술과 연구 환경 조성에서 비롯되었다.

세종대왕은 즉위 24년(1442)에 뛰어난 인재를 가려서 사가독서를 명하였다. 사가독서란 세종 2년(1420) 3월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우수한 관원을 뽑아서 공무로부터 벗어나 독서와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게 한 제도인데, 세종 24년에 사가독서를 명한 것에 주목한다. 이때에 사가독서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개이다. 이들은 사가독서를 마치고 집현전에 들어와서 『훈민정음』, 『동국정운』, 『운회번역』, 『홍무정운역훈』을 비롯한 각종 운서 편찬에 참여하였다.

3) 『패관잡기』에 번노와 번박은 최세진이 언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 두시언해의 원간본은 성종 12년(1481) 승려 의침, 유윤겸, 조위, 유희복 등의 주해로 완성되었으며, 중간본은 결상도 관찰사 오숙이 대구 부사 김상복의 도움을 받아서 간행하였다. 이들은 문학가이거나 지방 관현이고 언어학자가 아니다.

사가독서의 명을 받은 시기와 사람들을 통해 세종께서 사가독서를 명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을 때이고, 사가독서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훈민정음』을 비롯한 운서 편찬에 참여한다. 이런 점을 통해 이때에 세종대왕께서 사가독서를 명한 까닭은, 훈민정음 창제를 앞두고 각종 운서에 참여할 음운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때는 사가독서의 명을 받으면 집에서 독서하였으나 이때만은 사가독서의 장소를 진관사로 제한하였다. 이는 아마도 비밀이 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때 읽은 책들은 중국의 운서였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운학자들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또 하나의 일은, 세종 29년(1447)에 치러진 중시이다. 세종 29년에 치러진 중시 합격자는 장원한 성삼문을 비롯하여 박팽년, 신숙주, 김증, 이개인데 이들이 모두 운서 편찬의 중심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중시에 합격한 뒤에도 양대학술 기관인 집현전과 승문원에서 학문 연구와 각종 편찬 사업에 참여한다. 통상적으로 중시에 합격하면 관작을 높여 중요 기관의 관료(중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때만은 양대학술기관인 승문원과 집현전에 소속시켜 왕실의 간행 사업에 집중하게 하였다. 이는 세종대왕의 뛰어난 용인술의 결과이다.

운서에 참여한 9학사들의 소속을 보면 강희안,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개, 이현로, 최항은 집현전 소속 학자였고, 조변안, 김증은 승문원에 소속된 학자였으며, 손수산은 역관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신숙주와 이현로는 승문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양대학술기관에 모두 참여하였다. 15세기의 성운학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성운학에 대한 세종의 특별한 관심과 용인술, 그리고 연구 환경 조성에서 비롯되었다.

#### 2.2.1.4. 15세기의 저술은 융합 학문의 절정이었다.

15세기에 간행된 책을 보면 각기 다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 체계를 이루었다. 운서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은 전공 분야가 모두 달랐다. 각종 운학 편찬에 참여한 9학사들의 전문성을 살펴보면<sup>5)</sup>, 강희안은 문장가, 화가, 서예가이고, 김증은 한음(중국어음) 전문가이며, 박팽년은 서예의 대가이다. 또 성삼문은 한어음 전문가이고 역관인 손수산은 한어음 전문가였으며, 신숙주는 문장가인데 뒤에는 한어, 일본어, 몽고어까지 구사할 정도로 외국어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현로는 풍수학의 대가로 음양철학에 능통하였고, 조변안은 중국어음과 국음의 대가였으며, 최항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조오현 2010:347-377 참조)

세종께서는 편찬 사업에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동으로 참여시켰기 때문에 각종 서적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편찬할 수 있었다. 결국 15세기에서 16세기 중기까지 편찬된 책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융합학문의 결정체였다. 특히 15세기부터 16세기 중기에 간행된 책은 한결같이 운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런 관계로 16세기 전기까지는 정돈되고 정밀한 표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중기 이후의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은 언어학자(운학자)가 아닌 문장가, 지방 관원, 중인 계층이었으며 언어학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16세기 중기 이후의 표기 체계가 흐트러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운학자 이외에 왕실 편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수은, 수미, 서거정, 송처관, 임원준, 강희맹, 한계희, 하위지, 유성원, 성입 등 뛰어난 학자들이 전문 분야에 따라 그때그때 참여하였다.



### 2.2.1.5. 15세기에서 16세기 전기까지의 출판은 왕실 편찬사업이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세종대왕은 운서 편찬을 비롯한 불경언해, 사서언해 등을 왕실 사업으로 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문종, 단종, 세조 등에도 이어왔다. 그런데 왕실에서 간행된 저술 활동에는 관장자를 두었는데 관장자는 대부분 왕자들이었고, 일부는 고위 관직을 가진 중신들이었다. 관장자가 왕자이거나 중신이었기 때문에 표기법을 비롯한 모든 형식이 격식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에 출판된 책이 방점을 비롯한 표기가 정밀하고 규범적인 이유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왕실보다는 지방 관부, 개인이 주관하였다. 이런 관계로 표기가 정밀할 수 없었다. 방점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표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2.2.1.6. 임진란은 기존의 질서와 격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단순하게 하였다.

15-16세기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질서가 안정되었었다. 격식과 형식,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치른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주도층이 양반 중심에서 평민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었으며, 사회 질서도 성리학에서 현실로 옮겨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복잡한 격식과 질서는 자연스럽게 외면받게 되었으며, 간결하고 단순한 것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표기법 가운데 최고의 전문성을 요했던 방점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표기법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쟁을 겪은 17세기에는 전쟁으로 왕실과 백성과 양반, 학자들 모두의 삶이 피폐하여졌고, 학문 연구도 계속할 수 없었다.

## 2.2.2. ㅇ자의 소멸

### 2.2.2.1. ‘ㅇ’자와 ‘ㅁ’자의 차이

세종대왕께서는 ‘ㅇ’자와 ‘ㅁ’자를 글자로 만들고 그 쓰임을 완전히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ㅇ’자와 ‘ㅁ’자의 음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발음기관으로 분류하면,

/ㅇ/은 목구멍소리이고 /ㅁ/은 어금니소리이다.

#### ● 음가의 특성으로 구별하면,

/ㅇ/: “ㅇ聲淡而虛(중성해)”, “初聲之ㅇ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합자해)”

/ㅁ/: “唯牙之ㅇ。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제자해)”, “ㅇ雖在牙而與ㅇ相似。(제자해)”

### 2.2.2.2. ‘ㅇ’자와 ‘ㅁ’자는 토박이말과 한자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랐다.

#### ● 토박이말에서

첫소리에는 /zero/음인 ‘ㅇ’자와 혀뿌리를 닫고 코구멍으로 발음하는 /ŋ/의 글자인 ‘ㅇ’자를 함께 썼고, 끝소리에는 /ŋ/음인 ‘ㅇ’자만 썼다.

첫소리에서

‘ㅇ’ : 金人·이모·르·니(용가,94장), 臣下 | :말아·니드·러(용가,98장)

‘ㅇ’ : ·내:가·리이다(용가,94장), 軍馬 | 드·뵈·니이·다(용가,98장)<sup>6)</sup>

끝소리에서

‘ㅇ’ : 京觀·을·땡·ᄒ·르·시·니(용가,40장)<sup>7)</sup>

● 한자어에서

첫소리 표기에서는 ‘喻’모에는 ‘ㅇ’자를, ‘疑’모에는 ‘ㅇ’자를 썼다. 그리고 끝소리 표기에서는 /ŋ/음이 나는 곳에서는 ‘ㅇ’자를, /zero/음인 곳에는 ‘ㅇ’자를 썼다.

聲에서

‘ㅇ’ : 喻

‘ㅇ’ : 疑

韻에서

‘ㅇ’ : 虛·형·空·공·애·셔·耶·양·輸·승·씩·니·르·샤·디(석보,24권)

‘ㅇ’ : 無·무·量·량·無·무·邊·변·功·공·德·득·을(월천,1장)

위의 쓰임을 정리하면,

**‘ㅇ’자의 쓰임:**

토박이말: 소리가 없는 첫소리에 3분법(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음절의 틀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다.

한자어: 소리가 없는 첫소리에 2분법(聲+ 韻)의 틀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고 끝소리에서는 韻(우리말의 중성+ 종성)의 틀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다.

**‘ㅇ’자의 쓰임:**

토박이말: 첫소리에서 /ŋ/의 음가로 사용되었고 끝소리에서 /ŋ/의 음가로 쓰였다.

한자어: 聲에서 /ŋ/의 음가로 韻에서 /ŋ/의 음가로 사용하였다.

‘ㅇ’자의 경우 토박이말이나 한자어 모두에서 음절의 틀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고 ‘ㅇ’자는 /ŋ/의 실제 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2.2.3. ‘ㅇ’자의 소멸은 표기법의 단순화였다.**

‘ㅇ’자와 ‘ㅇ’자는 15세기에 철저히 구별되어 사용되었으나, 16세기에는 ‘ㅇ’자는 중성에만 쓰였고 ‘ㅇ’자와 혼동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부터는 극히 일부 보수적인 표기를 제외하고는 ‘ㅇ’자에 그 기능을 넘겨주고 완전히 소멸되었다.

6) ‘ㅇ’자를 토박이말의 첫소리로 쓴 것은 러울, 서에, 이야, 바울 등이 있다.

7) ‘ㅇ’자를 토박이말의 끝소리에 쓴 예로는 울창, 부형, 땡글 등이 있다.

- (4) 가. 므슴그를강호느뇨.  
 나. 므슴글을강호느뇨.
- (5) 가. 글사김호기뭇고므슴공부호느뇨.  
 나. 글니르기를뭇고또므슴공부호느뇨.
- (6) 가. 외오니란스승님이免帖호나홀주시고.  
 나. 외오니란스승이免帖호나홀주고.
- (7) 가. 또대귀리수울ㄹ스만관원들히땡근도호수울여라믄병만어더오티엇더호뇨.  
 나. 또內府에술ㄹ음아는官人들의비즌도호술을여라믄병을어더오미엇더호뇨.
- (8) 가. 더어름담는그릇우희호땡잇어름노코.  
 나. 더氷盤에호땡이어름노코.
- (9) 가. 郡王이넛자최를이젧사르미賞玩호느니千秋萬古엇뜨들그장보리로다.  
 나. 郡王이넛자최를이젧사르미賞玩호느니千秋萬古엇뜨들그장보리로다.

두시연해 -越王樓歌-

(4-9가)은 16세기 문헌인데, 종성에 ‘ㅇ’자를 쓴 예이고 (4-9나)은 17세기에 간행된 문헌으로 종성의 ‘ㅇ’자가 모두 ‘o’자로 바뀐 예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해석은, 소리 바뀜<sup>8)</sup>(허웅 1985:372-373), 합류(이기문 1982:192), 문자의 간이화(김형규 1990:428)로 설명하였다.

이미 16세기에 ‘ㅇ’자에만 국한되었고 ‘o’자와 혼동되었던 것인데 임진란 뒤부터는, 17세기 문헌에 간혹 ‘ㅇ’의 용례가 보인다고는 하나, 완전히 ‘o’자에 합류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기문 1982:192)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ㅇ」자의 자형이 「o」로 변한다. 이것은 음운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자형의 변화다. 즉 ㅇ자를 o자로 바꾼 것은 자형의 간이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ㅇ자가 세조 때부터 비점형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앞에 설명했다. 이것도 자형의 간이화 현상이지만, o자에 있어선 사정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ㅇ과 쓴 음운이 서로 달라서 혼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ㅇ종성을 그대로 지켜왔던 것이다. 그런 것을 임진란 후 o자로 간략하게 쓰게 된 것은 큰 용단이요, 또 문자 간이화 현상의 단적인 표현이다.(김형규 1990: 428)

실제로 현재도 받침 없는 한자어에 ‘운’ 표기의 방법으로 쓰이던 ‘ㅇ’을 제하고 현재에도 음가가 바뀐 것 같지는 않다. 토박이말의 첫소리에 쓰이는 ‘ㅇ’자는 여전히 /zero/의 음가를 지니고 있으며, 끝소리에 쓰이는 ‘ㅇ’자는 ‘혀뿌리가 목을 막고 소리공기가 코로 나오는’ /ŋ/의 음가를 지닌다. 한자어의 ‘噓’는, ‘소리가 맑고 비어 있는’ /zero/의 음가를 지니며 한자

8) “뒋 시대에 내려 오면서, 이 두 글자 꼴이 구별이 없게 되어서, 첫소리의 「ㅇ」은 소리 없는 글자이고, 끝소리의 「ㅇ」은 [ŋ]를 나타내게 되었다”(허웅 1985:373)

어의 ‘疑’는, 혀뿌리가 목을 막고 소리공기가 코로 나오는 /ŋ/의 음가를 지닌다. 그리고 토박이말에서 ‘리’나 ‘니’에 뒤따르는 ‘이’는 혀뿌리를 약간 막고 코로 소리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도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 두 음을 ‘ㅇ’ 한 글자로 쓰는 것은 음가의 변화나 합류가 아니라 표기의 간소화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 2.2.3. 격식 파괴에서 오는 표기의 단순화는 높임법에서도 나타난다.

- (10) 가. 년구헝기뭇고글이피헝고글입피뭇고스승님얹피글강헝노라.  
 나. 년구헝기뭇고년구헝기헝고글웁기뭇고스승얹피셔글을강헝노라.
- (11) 가. 나죄다듣거든스승님얹피셔사슬빼혀글외오기헝야.  
 나. 나죄다듣거든스승얹피셔사슬빼혀글외오기헝야.
- (12) 가. 외오니란스승님이免帖헝나홀주시고.  
 나. 외오니란스승이免帖헝나홀주고.

격식과 의식의 파괴는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님’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비록 한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노걸대 언해와 박통사 언해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님’을 일관되게 빼고 사용하였다.

## 2.3. 없어져가는 소리의 글자 정리

16세기까지 쓰이다가 17세기에 사라진 글자로는 ‘△’자와 끝소리의 ‘ㅅ’자이다. 이 두 소리는 16세기에 음가를 잃은 글자이다. /△/은 16세기 말기에는 완전히 음가를 잃었고, 끝소리에 쓰이던 /ㅅ/도 16세기 중기에는 /ㄷ/ 에 합류되면서 음가를 상실하였는데 보수적인 표기에 의해 16세기말까지 사용되었으나 17세기 문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도 표기법의 정리로 보려고 한다.

### 2.3.1. ‘△’ 소멸

‘△’은 두시언해(1481), 여씨향약(1518), 번역소학(1518), 훈몽자회(1527),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등에서 거의 정확히 쓰이다가 칠대만법(1569)에서는 “가끔 ‘△’을 ‘ㅅ’으로 적은, 스시예, ㄱ술히, 겨스레, 어버시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나, 대다수의 ‘△’은 거의 정확하게 옛 모습을 지니고 있다. …… 그러므로 ‘△’은 16세기에 동요되기 시작하여 임진(1592) 이전에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허용 1985:469-470)

/△/이 없어진 까닭은, 음성적 성격이 우립소리이기 때문에 청취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조직과 배치가 고립되어서 더 이상 음소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은 소리가 탈락하여 /zero/가 되거나( ㄱ술>가울, ㄱ습>감, 가스멸다>가으멸다, 거의>거의, 겨술>겨울, 그속헝다>그으헝다, 기습뫼다>기습매다, 니습길>이습길, 두서덜>두어덜, 마술>마을, 피사리>메아리 등), 강화되어 /s/이 되거나(가습>가습, 거쉬>거시, 그스리다>그슬리다, 너습>너삼, 므숫>무슨, 므희엿다>무섭다, 브스럼>부스럼, 벅스다>바수다

등),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ㄹ스라기>까끄라기, 마순>마흔 등) /ㅅ/이 이렇게 소멸된 것은 16세기 말기이다.(허용 1985:505, 이기문 1982:192 참고) 음가를 상실한 ‘ㅅ’이 표기에서 사라진 것은 17세기 초인데 아마도 ‘ㅅ’이 표기에서 사라진 것은 17세기 초에 나타난 표기법의 간소화 경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

## 2.4. 뜻을 분명히 하려는 의식이 강해짐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많은 분규를 낳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란 이후에도 있었을 것이다. 전란 이전에는 대대로 이어오던 질서와 관습이 지배하였고, 이웃 간에는 체면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 등이 지배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분규 없는 생활을 하였을 것은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전란 이후에는 체면이나 관습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분규와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분규와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는 의식이 싹튼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문구 사이에 조사를 넣어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경향이다. 둘째가 어미의 형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가 피도문과 사동문을 분명하게 하려는 경향이었던 것이다.

### 2.4.1. 조사의 쓰임이 확대됨

조사의 쓰임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조사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조사가 생략되던 자리에 조사를 넣어서 문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13) ㄱ. 내北京향하야가노라.  
 ㄴ. 내北京으로향하야가노라.
- (14) ㄱ. 내길조차날회여너기들위오노라하니이런전츠로오미더디요라.  
 ㄴ. 내길홀조차날회여네여기드려오노라하니이런전츠로오미더디여라.
- (15) ㄱ. 내漢兒人의손디글빅호니이런전츠로저그나漢語아노라.  
 ㄴ. 내漢人사람의손디글빅호니이런전츠로저기漢人말을아노라.
- (16) ㄱ. 흑당의노하든지비와밥머기뭇고.  
 ㄴ. 學堂의셔노하든집의와밥머기뭇고.
- (17) ㄱ. 년구하기뭇고글이피하고글입피뭇고스승님얹피글강하노라.  
 ㄴ. 년구하기뭇고년구하기하고글옴기뭇고스승얹피셔글을강하노라.
- (18) ㄱ. 글사김하기뭇고므슴공부하느뇨.  
 ㄴ. 글니르기를뭇고또므슴공부하느뇨.

- (19) 가. 믄안쥬가져오라.  
 나. 저기믄按酒을가져오고.
- (20) 가. 이피셔그구은고기가져오라.  
 나. 이피셔더燒肉을가져오라.
- (21) 가. 이제상들라탕받즈오라탕들리다오라.  
 나. 이제상을들면湯을들일거시니湯들리다오라.
- (22) 가. 둘젯줄열여숫덥시엔쟈믄보도밤안롱당쥬자례지.  
 나. 둘재줄열여숫덥시엔개얏과갓과믄葡萄와밤과龍眼과호도와티지오.
- (23) 가. 셋재줄열여숫덥시엔감즈석류덩향비어스랏슬고굴근링금유황살고유황외엿.  
 나. 셋재줄열여숫덥시엔柑子와石榴와香水梨와櫻桃와슬고와굴근님금과유황슬고와굴근외얏이오.

## 2.5. 외래어의 수용

### 2.5.1. 한자어의 어휘화

15-16세기에는 토박이말이 주를 이루었다. 15세기의 언해문에서 보이는 한자는 대부분 어휘화하지 않은 것으로 한문구에 토를 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보이는 한자어는 어휘화가 완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17세기 이후 문헌에는 토박이말의 한자어 어휘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토박이말이 한자어로 어휘화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사회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외국(중국) 문화의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평민 의식의 확대로 한문 교육이 더 보편화하고 대중화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세기 문헌과 17세기 문헌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노걸대언해류와 박통사언해류를 통해 두 시기의 한자어 어휘의 증가를 비교하였는데 한자어 어휘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 (24) 가. 네뉘일므슴이력흐는다.  
 나. 네每日므슴공부흐는다.

- (25) 가. 뉘일이른새배니러혹당의가스승님씩글듣줍고.

9) 두 시기의 문헌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두시언해가 있으나 두시언해는 새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16세기에 번역한 것을 방점이나 ‘△’과 같이 달라진 표기법을 반영하였을 뿐 어휘는 그대로이다. 따라서 언휘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보기를 들지 않았다.

- ㄴ. 每日이른새배니러學堂의가스승님씩글비호고.
- (26) 가. 어저성주.  
 ㄴ. 當今에聖主ㅣ.
- (27) 가. 너브신복이하늘의ㄹㅌㅌ샤.  
 ㄴ. 큰福이하늘과ㄹㅌㅌ하야.
- (28) 가. 쏘이봄二三月도흔시저를맛나니.  
 ㄴ. 쏘이봄二三月도흔時節을만나시니.
- (29) 가. 우리여러ㄹㅌㅌ숨도히너기논형데ㄹㅌㅌ니들히.  
 ㄴ. 우리여러도흔兄弟들히.
- (30) 가. 더일흠난화원의가흔상화호논이바디를하야.  
 ㄴ. 더有名호花園에가흔賞花호논이바디를하야.
- (31) 가. 모든형데들히의론하저라.  
 ㄴ. 모든兄弟들히헤아리자.
- (32) 가. 전례다이홀딘덴익모만거시어.  
 ㄴ. 前例대로하면언메나주엄즉하관디.
- (33) 가. ㅌㅌ하줄란열여숫덥시에초소.  
 ㄴ. ㅌㅌ하줄열여숫덥시에는菜蔬ㅣ오.
- (34) 가. ㅌㅌ하줄열여숫덥시엔갓ㄹㅌㅌ보도밤안롱당츄자례지.  
 ㄴ. ㅌㅌ하줄열여숫덥시에는개얌과갓과ㄹㅌㅌ葡萄와밤과龍眼과호도와티지오.
- (35) 가. 세갓하줄열여숫덥시엔갓즈석류덩향비어스랏슬고글근링금유황살고유황외엿.  
 ㄴ. 셋하줄열여숫덥시에는柑子와石榴와香水梨와櫻桃와슬고와글근님금과유황슬고와글근외얏이오.
- (36) 가. 가온디논사탕오로중칭의얼굴밍가로니노커나.  
 ㄴ. 가온대는生物을象하여쑤민沙糖이어나.
- (37) 가. 선신이스지타게밍근사탕을노코.  
 ㄴ. 흑스지튼선양으로민근沙糖을노코.
- (38) 가. ㄹㅌㅌ안쥬가져오라.  
 ㄴ. 저기ㄹㅌㅌ按酒을가져오고.

- (39) ㄱ. 이제상들라탕받즈오라탕들리다오라.  
 ㄴ. 이제상을들면湯을들일거시니湯들리다오라.

(24)-(39)의 밑줄 친 말은 16세기에 이미 한자의 어휘를 쓰던 것이다. 단지 한글로 표기하던 것을 글자만 한자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이 보기들은 토박이말의 한자어 어휘화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표기하는 글자를 어떤 글자로 했느냐의 문제이다.

- (40) ㄱ. 더일훈난화원의가훈상화는이바디를훈야.  
 ㄴ. 더有名은花園에가훈賞花는이바디를훈여.
- (41) ㄱ. 우리설은사르미각각돈일씩곰내면대도히돈이삼천나치로소니.  
 ㄴ. 우리三十人이各人이一百냥銅錢을내면대되三千냥銅錢이니.
- (42) ㄱ. 서울술집들해비록하나저젯수를훈야온들엇디머글고.  
 ㄴ. 술은京城에술집이비록만훈나저젯술을가져오면엇디머그리오.
- (43) ㄱ. 대귀리란성이최가외셔리훈야어드라가게훈져.  
 ㄴ. 內府에는姓이崔가外郎으로훈여어드라가게훈라.
- (44) ㄱ. 내그마스래가당상씨니르니즉재맞셔리블러.  
 ㄴ. 내더衙門에가堂上官의게니르니곳當該外郎을블러와.
- (45) ㄱ. 관원들히글위를수울ㄴ스만마숯관원손디맞더.  
 ㄴ. 官人들이文書를술ㄴ음아는署宜의게分付훈여.
- (46) ㄱ. 훈녀고론상펴라.  
 ㄴ. 一邊으로상버리라.
- (47) ㄱ. 세젯줄열여숫덥시엔감즈석류뎡향비어스랏슬고굴근링금유황살고유황외얏.  
 ㄴ. 젯재줄열여숫덥시에는柑子와石榴와香水梨와櫻桃와슬고와굴근님금과유황슬고와굴근외얏이오.
- (48) ㄱ. 도티창즈붓그니와안즌얏핏벗주레보비로수늪노픈곳곳고.  
 ㄴ. 炮秒훈듯희양과席面에는寶粧高頂에곳출곳고.
- (49) ㄱ. 張三이훈야가教坊위여라은樂工과웃듬뎡지신과여러가짓로롯바치들블러오라.  
 ㄴ. 張三으로훈여가教坊司의여러은樂工과院本에여러가지雜技훈느니를블러오라.
- (50) ㄱ. 슬고와이스랏과여러가짓성훈과시를어름다은그릇안해듬가두면ㄴ장보디도훈니라.  
 ㄴ. 슬고와잉도와여러가지鮮果를氷盤에즈가두면ㄴ장보기도훈니라.
- (51) ㄱ. 이피셔그구은고기가져오라.



ㄴ. 이피셔더燒肉을가져오라.

- (52) ㄱ. 첫미수에양므르고오니와 蒸捲씩과.  
ㄴ. 第一道는므르고온羊과蒸捲씩이오.

(40)-(52)은 토박이말이 한자어로 어휘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홍난/有名흔, 설흔사름/三十人, 셔웁/京城, 대궐/內府, 셔리/外郎, 마술/衙門, 글월/文書, 마숩관원/署官, 맛더/分付, 흔녁/一邊, 덩향비/香水梨, 어스랏/櫻桃, 안즌얏피/席面, 로랏바치/雜技흔느니, 성흔과실/鮮果, 어름다믄그릇/氷盤, 구은고기/燒肉, 첫수미/第一道

한자어로의 어휘화를 보인 것인데 덩향비/香水梨, 어스랏/櫻桃 등은 중국의 어휘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 있다. (40)-(52)의 출전은 모두 『박통사언해』이며 『노걸대언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언박은 중·고급용 회화책이고 언노는 초급용 회화책인데 초급용 회화책에서는 어휘화가 보이지 않고 중·고급용 회화책에만 어휘화가 보인다.

- (53) ㄱ. 브름도고르며비도순흐야나라히대평흐고빅성이편안흔시긔.  
ㄴ. 風調雨順흐고國泰民安흔디.

- (54) ㄱ. 사르문일세만사라잇고프른흔 ㅁ술씩장사라잇느니.  
ㄴ. 人生一世 | 오草生一秋 | 라.

- (55) ㄱ. 우리시르믈슬우며답답흔 ㅁ스믈혜와도되엇더흐뇨.  
ㄴ. 우리 消愁解悶흡이엇더흐뇨.

- (56) ㄱ. 우리설흔사르미각각돈일빅골내면대도히돈이삼천나치로소니.  
ㄴ. 우리三十人이各人이一百냥銅錢을내면대되三千냥銅錢이니.

- (57) ㄱ. 쑤도흔슬진쇼흐나사며도티고기원근만사며.  
ㄴ. 쑤 一隻 ㅁ장슬진쇼를사고五十斤豬肉을사고.

- (58) ㄱ. 내그마스 래가당샹의니르니즉재맛셔리블러.  
ㄴ. 내더 衙門에가堂上官의게니르니곳當該外郎을블러와.

- (59) ㄱ. 도티창즈붓그니와안즌얏펫벗주레보비로수민수늡노픈곳곳고.  
ㄴ. 炮秒흔돏희양과席面에는寶粧高頂에곳출곳고.

(53)-(59)의 한자어는 어휘가 아닌 한문구이다. 이것도 언박에서만 보이고 언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휘화의 예와 같다.

### 3. 맺음말

## ■ 참고문헌

- 김형규(1990), 『국어사 연구』, 일조각.
-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세영사.
- 송민(1988), 『전기 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 염광호(1998), 『종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유창순(1990),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기문(1982), 『국어사 개설 개정판』, 탑출판사.
- 이기문(1990),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장숙영(2008), 「<노결대>.<박통사> 언해류에 나타난 한국어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오현 외(2008),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
- 조오현(2010ㄱ), 「15세기 성운학자 계보 연구」, 『한말연구』 27호, pp347~377.
- 조오현(2010ㄴ), 『자료로 찾아가는 국어사』, 박이정.
- 최기호 외(1987), 『국어학 서설』, 정음사.
- 허웅(1984), 『국어학』, 샘문화사.
- 허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 제 1 분 과 】

#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한 기초적 논의

## -논항과 술어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김건희(충남대)

### 차 례

1. 머리말
  2. 문제제기
  3. 분석 대상에 대한 설명
  4. 세종전자사전 형용사 기술의 다의미 1항 술어에 대한 분석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본 논문은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의성 및 다의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접근 방향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외의 많은 선행 연구가 있다. <1> 사전에서의 다의어 표상 및 분할의 원칙(박만규(2002), 박동호(2003), 김현권(2004), 홍재성(1987)), <2> 다의어의 의미 확장(임지룡(2009), 최경봉(1999)), <3> Pustejovsky의 생성 어휘론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 다의어 기술(Pustejovsky(1995), 최경봉(1999)), <4> 다의어에 관한 인지적 접근(임지룡(2009), 임지룡·정병철(2009))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다의성 연구의 핵심은 다의어가 생성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설명하여 그 기제를 찾고 이를 토대로 다의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실제적으로 응용하려는 것이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다의어가 생성 및 확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형용사가 보이는 다의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항과 술어의 결합 관계에 대해 주목하여 형용사가 결합하는 논항들에 의해 다의성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형용사 술어 자체에 다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 2. 문제 제기

논항과 술어의 결합 관계를 다룬 다의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들자면 박만규(2002:207)에

1) 실제적으로 응용한다는 것은 사전에서도 거시적으로는 다의어를 동음이의어와 구별하여 올바른 표제어 배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시적으로는 다의에 관한 세부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연관성 있게 배열하는 것이다. 또한 국어 및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에서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는 기존의 '구체/추상'과 같은 단순한 명사 논항의 선택제약이 비문법적인 연쇄의 생성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G. Gross(1994a)의 '대상 부류'와 같이 자세한 구체적인 자질을 설정하고 소개했다. 이러한 대상 부류는 적정 술어라고 불리는 일단의 어휘 또는 어휘간의 관계, 즉 통사적 관계들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대상 부류 <병>은 N 위치에 오고 대상 부류 <병>에 속하는 해당 어휘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대상부류 <병>

적정 술어

-동사: N-이 있다, N-이 들다, N-에 걸리다, N-이 (나다+ 생기다), N-이 발병하다, N-이 (났다+ 치유되다), N-을 판정을 받다, N-으로 판명되다, N-을 치료하다.

-명사: N(-의) (증세+ 치료), N-에 대한 처방.

-형용사: (심한+ 심각한+ 깊은) N

해당 어휘: 위염, 간암, 간경화, 정신병, 피해망상증, 감기, 오한, 몸살 등

박만규(2002:215)

박철우·남승호(2004:146)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관찰한 결과, '크다/작다'는 '크기'를, '많다/적다'는 '양'을 기본 논항으로 가지지만 '구체물, 추상물' 등의 크기나 양에 대한 서술로 그 형용사들의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크기'나 '양'이라는 의미부류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더 세분될 수 있으며, 그런 속성과 관련하여 평가될 수 있는 대상들도 크게는 '구체물'과 '추상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조사 대상인 형용사들의 의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논항으로 나타나는 명사들의 다양한 의미 차이 때문에 형용사의 의미도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만규(2002) 및 남승호·박철우(2004)는 명사 논항의 다의성에 주목한 것이다.<sup>2)</sup> 즉 '명사'와 '술어'의 결합 차원에서 본 결합 관계에서는 '명사'의 다의성이 술어에 의해 해소된다고 보았고 이때 술어의 다의성은 명사들의 다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만규(2002)의 (1) 대상부류 '병'의 기술에서 '병'과 결합하는 형용사를 관형형 형태로 제시했는데, 기존에 많이 분석된 것처럼 형용사는 관형형과 서술형에서 결합이 허용되는 논항이 다르다. 다음으로 박철우·남승호(2004:146)에서 '크다/작다'는 '크기'와 '많다/적다'는 '양'을 기본 논항으로 하여 의미가 확장된다고 하였는데 '겉쫓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데 '양'과 같은 기본 논항 의미를 정하기 어렵고 또한 의미가 확장되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기 어렵다.

(2) 겉쫓하다

<논항>

콩국이 (겉쫓하다)

말씀씨가 (겉쫓하다)

잔치판이 (겉쫓하다)

각설이 타령이 (겉쫓하다)

<의미>

묻지 않다.

외설스럽다.

음식 따위가 매우 푸지다.

구성지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데가 있다.

2) 이러한 관점은 명사의 구조적인 의미 특성을 잘 포착한 것으로 생성 어휘론도 기능역, 작인역 등이 포함된 논항의 의미표상을 바탕으로 강제유형일치라는 생성적 기제를 작동시켜 다의어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비롯하여 명사 논항의 다의성이 술어의 다의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관점은 주어진 결합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귀납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의미를 중심으로 한 실제 형용사 기술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의성을 논항과 술어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동일한 술어라고 할지라도 동사의 다의성과 형용사의 다의성은 다르다는 점이다. 임지룡·정병철(2009)에서는 문법범주의 특성에 의해 명사는 은유, 동사는 환유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며 명사와 동사의 의미 확장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명사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속성이 유지되는 사물을 원형으로 하는 범주인 반면, 동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적 속성이 변화되는 범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적 속성이 비교적 변하지 않는 ‘속성,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다의성은 명사, 동사의 다의성에 비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 논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 3. 분석 대상에 대한 설명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세종계획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공개된 전자사전 기술 형용사 1916개를 대상으로 3개 이상의 다의미를 가진 형용사 중 1항 술어를 대상으로 분석하겠다. 먼저 세종계획 전자사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른 사전과는 달리 세종계획 전자사전에서는 다의어가 보이는 격틀 구성을 제시한 의미 중심의 사전으로 다의성을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세종>	<표준>
의미	격틀
-격틀1	-의미1
-격틀2	-의미2
-격틀3	-의미3

다음으로 1항 술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의미 형용사들의 상태성을 분석한 김건희(2010)에서 세종전자사전 형용사들을 살펴보았는데 1항 술어인 ‘다의미-소격틀 형용사’는 다항 술어인 ‘다의미-다격틀 형용사’에 비해 고유의미와 전이의미의 상적 차이를 확연히 보여 주었다. 이는 가장 단순한 기본 격틀이 가진 다의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형형과 서술형에서의 논항 결합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전자사전의 의미 분할 방향은 구체물에서 추상물과 같이 선택제약이 달라지면 의미를 분할하였는데 다항 술어를 분석하는 것보다 1항 술어를 분석하면 논항들에 의해 다의성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형용사 술어 자체에 다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1항 술어인지 2항 술어인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기술자마다 다양한 직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종전자사전에서는 ‘크다’, ‘작다’를 모두 2항 술어로 기술하고 있지만 동일한 명제 내용에 대한 격틀 구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크다 Y=N1-에게는|이 X=N0-이 A

작다 X=N0-이 Y=N1-에게 A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결합하는 명사 논항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1항 술어의 다의성에 대해 분석하기로 하겠다.

(5) 다의미<sup>3)</sup>-1항 술어 형용사(괄호는 의미분할된 다의 수)

가볍다(9), 질다(6), 가느다랗다(5), 거칠다(5), 굵다(5), 말짱하다1(5), 맨송맨송하다(5), 메마르다(5), 팍팍하다(5), 가뿐하다(4), 감미롭다(4), 개운하다(4), 경하다(4), 맵싸다(4), 맹랑스럽다(4), 싸하다(4), 짧다(4), 툭툭하다(4), 투박스럽다(4), 투박하다(4), 툭툭하다(4), 간사하다(3), 감감하다(3), 거세다(3), 걸쭉하다(3), 구접스럽다(3), 구중중하다(3), 구질구질하다(3), 급하다2(3), 꾸밈없다(3), 끈적끈적하다(3), 나순하다(3), 납덩이같다(3), 듬직하다(3), 맨송맨송하다(3), 멍멍하다(3), 무름하다(3), 반드레하다(3), 번뜻하다(3), 뻘뻘하다(3), 뻘뻘하다(3), 새파랗다(3), 성기다(3), 성숙하다(3), 순결하다(3), 순정하다1(3), 시꺼멓다(3), 시름없다(3), 아마득하다(3), 알알하다(3), 얼얼하다(3), 얼쩍지근하다(3), 얼찌근하다(3), 영성하다(3), 여무지다(3), 유유하다(3), 유장하다(3), 짜글짜글하다(3), 짹짹하다(3), 짹짹하다(3), 초롱초롱하다(3), 초초하다2(3), 타이트하다(3), 투명하다(3), 퍽퍽하다(3), 허름허름하다(3)

#### 4. 세종전자사전 형용사 기술의 다의미 1항 술어에 대한 분석

다의미 1항 술어에 대해 각 의미(sense)마다 결합하는 구체적인 명사 논항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형용사 다의성 분석이 단순히 결합하는 명사 논항의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의 큰 틀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1> 의미(sense)가 5개 이상인 형용사

1)가볍다	9	짐, 생각, 상처, 몸, 식사, 색, 발걸음, 내용, 일
2)질다	6	파랑색, 안개, 눈썹, 향기, 어둠, 병색
3)가느다랗다	5	목, 펜, 목소리, 빗줄기, 갈대
4)거칠다	5	바닥, 성격, 솜씨, 파도, 일
5)굵다	5	몽둥이, 우박, 물고기, 글씨, 목소리
6)말짱하다1	5	학용품, 정신, 하늘, 피, 행동
7)맨송맨송하다	5	턱, 길, 그림책, 음식, 정신
8)메마르다	5	논, 피부, 공기, 감정, 목소리
9)팍팍하다	5	떡, 흙, 다리, 성격, 세상

<2> 의미(sense)가 4개인 형용사

10)가뿐하다	4	일, 짐, 마음, 몸
11)감미롭다	4	음식, 향기, 선율, 촉감
12)개운하다	4	맛, 몸, 속, 마음

3) 1916개에서 3개 이상의 의미(sense)를 가진 형용사는 102개(5.3%)이고, 2개는 318개(16.6%), 1개는 1496개(78.1%)이다. 본 논의에서는 다의미 형용사를 상위 5%의 3개 이상의 의미(sense)를 가진 형용사로 한다.

13)경하다	4	몸무게, 벌, 행동, 상처
14)맵싸다	4	음식, 바람, 여자, 숨씨
15)맹랑스럽다	4	기분, 이야기, 아이, 일
16)싸하다	4	코끝, 냄새, 날씨, 분위기
17)짧다	4	망치, 시간, 글, 생각
18)톡톡하다	4	옷, 음식, 벌이, 망신
19)투박스럽다	4	질그릇, 숨씨, 말씨, 성질
20)투박하다	4	질그릇, 숨씨, 말씨, 성질
21)톡톡하다	4	옷, 음식, 벌이, 목소리

<3> 의미(sense)가 3개인 형용사

22)간사하다	3	마음, 입맛, 콧수염
23)감감하다	3	소식, 배, 작업
24)거세다	3	바람, 성격, 저항
25)겉쭉하다	3	죽, 이야기, 목소리
26)구접스럽다	3	곳, 사람, 연애질
27)구중중하다	3	길, 몸, 날씨
28)구질구질하다	3	빨랫감, 삶, 날씨
29)급하다2	3	성격, 물살, 산세
30)꾸밈없다	3	아이, 사진, 내용
31)끈적끈적하다	3	몸, 날씨, 시선
32)나순하다	3	매듭, 나사, 정신
33)납덩이같다	3	몸, 침묵, 트렁크
34)듬직하다	3	성격, 나이, 감나무
35)맨송맨송하다	3	숲, 턱, 정신
36)멍멍하다	3	귀, 마음, 어깨
37)무름하다	3	배, 성격, 일
38)반드레하다	3	표면, 얼굴, 걸
39)번뜻하다	3	의자, 아들, 직장
40)뽀질뽀질하다	3	애, 바닥, 태도
41)뽀질뽀질하다	3	애, 바닥, 태도
42)새파랗다	3	하늘, 얼굴, 젊은이
43)성기다	3	털, 산행, 사이
44)성숙하다4)	3	식물, 아이, 시기
45)순결하다	3	빛깔, 영혼, 여인
46)순정하다1	3	원료, 청년, 마음
47)시꺼멓다	3	눈썹, 속, 벌레(떼)
48)시름없다	3	아이, 시골, 얼굴
49)아마득하다	3	곳, 추억, 높이
50)알알하다	3	맛, 몸, 머리
51)얼얼하다	3	맛, 몸, 머리
52)얼쩍지근하다	3	맛, 몸, 머리
53)얼찌근하다	3	맛, 몸, 머리



54)영성하다	3	건물, 책, 사람
55)여무지다	3	열매, 사람 오 리터
56)유유하다	3	지평선, 태도, 강물
57)유장하다	3	강, 세월, 가락
58)짜글짜글하다 <sup>5)</sup>	3	음식, 몸, 마음
59)짹짹하다	3	눈물, 국, 수입
60)짹짹하다	3	모습, 집안, 컴퓨터
61)초롱초롱하다	3	눈, 별, 아이
62)초초하다 <sup>2)</sup>	3	말, 행색, 사람
63)타이트하다	3	옷, 경기, 생활
64)투명하다	3	유리, 기준, 기업
65)퍽퍽하다	3	떡, 토양, 다리
66)허름허름하다	3	옷차림, 옷, 사람

먼저 '1)가볍다'와 계열 관계에 있는 '무겁다'는 왜 '병' 논항과 결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 (6) 가벼운 병으로 입원했다.  
\*무거운 병으로 입원했다.

'병'이라는 명사 논항의 다의성이 '가볍다'와 계열 관계에 있는 '무겁다'와는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술어가 결합하는 논항들에 의해 다의성을 보인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열 관계에 있는 술어의 논항 선택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반의 관계가 [-가볍다]=[+ 무겁다], [+ 가볍다]=[-무겁다]의 표리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 가정에서 술어의 다의성이 단순히 논항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국어대사전> 기술을 제시한 (7), (8)과 같이 '가볍다'의 중심의미에서 전이의미로의 생산적인 다의적 확장에 비해 '무겁다'는 중심의미에서 전이의미로의 다의적 확장이 생산적이지 않아 결합하는 논항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다의적 확장의 관점도 바로 술어 자체의 어떤 다의적인 동력을 제시한 것이다.

(7) 가볍다

- 「1」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
- 「2」 비중이나 가치, 책임 따위가 낮거나 적다.
- 「3」 죄과나 실수 따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 「4」 병세나 상처 따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 「5」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침착하지 못하거나 진득하지 못하다.
- 「6」 몸이나 손발 따위의 움직임이 날쌔고 재다.
- 「7」 노력이나 부담 따위가 적다.
- 「8」 ((주로 '가볍게' 꼴로 쓰여))정도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 「9」 ((주로 '가볍게' 꼴로 쓰여))다루기에 힘이 들지 않고 수월하다.
- 「10」 바람이나 물결 따위의 이는 정도가 약하다.
- 「11」 달는 정도가 약하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로 분류되었다.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음식' 논항과 결합하는 것은 '동사'에서 기술되었고 형용사 기술에서는 '잔주름이 많다'의 의미만 나온다.

- 「12」 소리나 색깔 따위가 밝고 경쾌하다.
- 「13」 세금이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형량, 벌금 따위가 적다.
- 「14」 옷차림이나 화장이 요란하지 않고 산뜻하거나 활동하기에 편하다.

(8) 무겁다

- 「1」 무게가 나가는 정도가 크다.
- 「2」 비중이나 책임 따위가 크거나 중대하다.
- 「3」 죄과 따위가 심하거나 크다.
- 「4」 힘이 빠져서 움직이기 힘들다.
- 「5」 움직임이 느리고 둔하다.
- 「6」 분위기 따위가 어둡고 답답하다.
- 「7」 소리나 색깔 따위가 어둡고 칙올하다.
- 「8」 세금이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형량, 벌금 따위가 부담이 될 정도로 많다.
- 「9」 임신하여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가 어렵다.

본 논문의 논지는 바로 '다의미 형용사'의 다의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점이다. '결합하는 논항들에 의해서 형용사의 다의성이 생기는가?', 아니면 '형용사 술어 자체에 어떤 다의적인 동력이 존재하는가?'인데 '가볍다' 자체의 다의적인 생성에 주목하면 관련되는 결합 가능한 논항이 유사 계열의 술어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 형용사 자체의 다의성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1) 박만규(2002)에서도 '병'에 대한 형용사 결합에서 관형형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형용사는 '18)톡톡하다'와 같이 관형형과 서술형으로 쓰일 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비대칭적'이라 함은 관형형으로만 허용되는 것도 있고, 서술형으로만 허용이 되어 결합하는 논항이 관형형과 서술형에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 (9) \*망신이 톡톡하다.  
톡톡한 망신

문법적인 위치에서 허용되는 결합 논항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sup>6)</sup> 이것은 결합하는 명사의 다의성으로 형용사의 다의성을 포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술어의 논항 결합에 따른 문법적 제약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세종전자사전 형용사 기술의 '9)팍팍하다'와 '65)퍽퍽하다'를 비교해 보자. '9)팍팍하다'는 5개, '65)퍽퍽하다'는 3개의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의 변이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3개의 다의미를 가지는 용례와 용법으로 기술하였다.

- (10) <표준국어대사전> 퍽퍽하다, 팍팍하다
  - 「1」 음식이 물기나 끈기가 적어 목이 땀 정도로 메마르고 부드러워지 못하다.
  - 「2」 삶의 여유가 없고 힘겹다.
  - 「3」 융통성이 없고 꽤 고지식하다.

(10)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융통성이 없고 꽤 고지식하다'의 의미로 기술된 「3」의 용례

6) 이에 대해 박철우·남승호(2004)에서는 형용사의 논항구조에서 내부 논항이 형용사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어휘화되는 방식으로 그 형용사 자체 혹은, 그 형용사의 관형형 또는 서술형이 의미 분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는 '팍팍하다'와는 달리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다. 세종전자사전 형용사 기술에서는 이러한 의미는 '팍팍하다'에서만 기술하고 '퍽퍽하다'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 (11) \*'거참, 퍽퍽한 사람 같으니라구, 영 말이 통하지 않네.  
'거참, 팍팍한 사람 같으니라구, 영 말이 통하지 않네.

모음 변이형으로 나타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일어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이처럼 세종 전자사전 기술 및 일반적인 언어 직관에서는 서로 다른 논항이 결합되는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넷째 세종계획 전자사전 형용사 기술에서 '5)굽다'는 5개의 의미를 가지지만, '굽다랴다'<sup>7)</sup>는 2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또한 '길다'와 '기다랴다'를 비교해 보면,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대표적인 고유어 형용사 '길다'는 전형적인 다의어로 다양한 명사 논항과 결합하지만 '길다'에서 '-랴다'<sup>8)</sup>가 붙어 파생된 '기다랴다'는 기본 의미는 '길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논항 결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 (8) 세월이 길다. \*세월이 기다랴다.  
동짓날 밤은 길다. \*동짓날 밤은 기다랴다.

'길다'와 '기다랴다'가 기본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의 의미 확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면 바로 이것은 형용사 그 자체가 다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명사와의 결합 관계를 토대로 한 형용사의 다의성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형용사의 다의성이 결합하는 명사 논항의 다의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에 몇 가지 관점에서 의문이 제시되었다. 첫째 계열관계에 있는 형용사 술어들이 결합하는 명사 논항이 동일하지 않다. 둘째 형용사 서술형과 관형형으로 쓰일 때 결합을 허용하는 명사 논항이 다르다. 셋째 모음 변이로 동일하게 여겨지는 형용사 쌍(퍽퍽하다-팍팍하다)의 논항 결합이 차이를 보인다. 넷째 원 형용사와 이에 정도를 강화시키는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형용사 쌍(굽다-굽다랴다, 길다-기다랴다 등)의 논항 결합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결합하는 명사 논항이 보다도 형용사 술어 자체가 다의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관찰하였다. 본 논문은 형용사의 다의성 연구에 관한 기초적 논의로 추후 형용사 술어의 다의성에 대해 다양한 이론 및 기제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7) '굽다랴다'는 의미(sense)가 2개로 3개 이상의 다의미 형용사가 아니므로 본 논문 목록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8)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느다랴다/굽다랴다/기다랴다/깊다랴다/높다랴다/잔다랴다/좁다랴다/커다랴다.

## ■ 참고문헌

- 김건희(2010), 다의미 형용사의 상태성(stativity)에 대하여 - 세종계획 전자사전 형용사 기술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7, pp.5-39.
- 김현권(2004), 동사의 다의와 전자사전에서의 표상, 언어학 38, 한국언어학회, pp.89-122.
- 박동호(2003), 다의어 분할의 원칙 - 세종 체언 전자사전의 경우 -, 한국사전학 제1호, pp.100-115.
- 박만규(2002), 다의어의 의미 분할과 의미 부류, 한글 257, 한글학회, pp.201-242.
- 박철우·남승호(2004) 형용사 논항 의미부류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 - '크다, 작다, 많다, 적다'를 중심으로 -, 언어학 38, pp.123-153.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pp.193-226.
- 임지룡·정병철(2009), 의미망 분석과 다의성 판정의 원리, 담화와 인지 제16권 3호, pp.195-216.
- 차재은·강범모(2002), 다의 설정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15집, pp.259-284.
- 최경봉(1999), 단어 의미의 구성과 의미 확장 원리 -다의어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9, pp.307-331.
- 홍재성(1987), 한국어 사전에서의 다의어 처리와 동형어 처리의 선택, 동방학지 54·55·56집, pp. 949-971.
-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stejovsky, J.(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ss: MIT Press.

##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한 기초적 논의

박동근(건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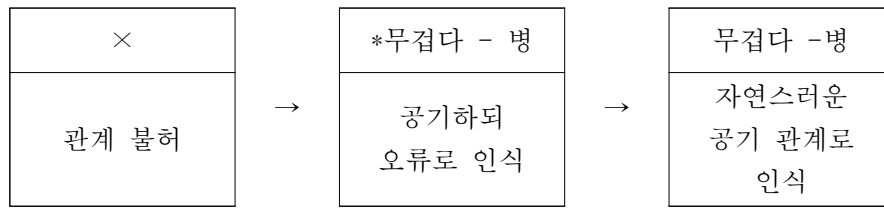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다의어화가 형용사 자체의 의미 분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논항으로 나타나는 명사들의 다양한 의미 차이 때문에 나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형용사 자체가 갖는 다의성에 의한 것임을 네 가지 흥미로운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마침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고전적인 논쟁을 떠올립니다. 동일한 문제를 철학자는 철학적 논증과 사유로 풀려고 할 것이고 생물학자는 진화론적 사실로 접근할 것입니다. 언어학자는 어원으로 해석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토론자 역시 형용사의 의미 변이는 형용사 자체가 갖는 다의성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뼈뺀 성격 때문인지 제시하신 근거 가운데 일부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열 관계에 있는 술어의 논항 선택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다의성이 단순히 논항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7)과 (8)의 ‘가볍다’와 ‘무겁다’ 다의 항목을 수에 차이를 제시하고 ‘무겁다’는 다의적 확장이 생산적이지 않아 결합하는 논항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다의적 확장의 관점도 바로 술어 자체의 어떤 다의적 동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의적 동력’이라는 첫 번째 주장이 다소 막연한 듯합니다(이 부분에서 닭과 계란의 선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또 형용사 자체의 다의적인 생성에 주목하면 결합 가능한 논항이 유사 계열에서 술어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는 의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자체적 동력에 의해 의미가 다의성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합하는 논항이 다의화를 촉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6)에서 ‘가벼운 병’은 가능하지만 ‘무거운 병’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인터넷에서 ‘무거운 병’을 검색하면 무수한 사용예가 나옵니다. 물론 단순히 ‘오류’라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도권 언어의 시각일 뿐이지, 실제 언중들이 차츰 ‘무거운 병’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뚜렷한 사용 양상을 보여줍니다. 즉 ‘무겁다 - 병’의 관계가 잘못된 은유나 환유에서 출발했더라도 언중이 가능한 공기 관계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무겁다’가 새로운 다의성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즉, 형용사의 의미 확장이 자율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상황 의존적(논항 뿐만 아니라 수식어 포함)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모음의 차이를 보이는 ‘팍팍하다’와 ‘퍽퍽하다’가 논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흉내말의 동사/형용사 파생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쌀쌀하다 [춥다] > [냉정하다]

쓸쓸하다 [춥다] > [외롭다]

날씨가/날씨가 쌀쌀하다/쓸쓸하다

그녀는 나에게 쌀쌀하게 군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

셋째, 임지룡·정병철(2009)를 들어 명사는 은유, 동사는 환유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는데 속성,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다의성은 명사, 동사의 다의성에 비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매우 흥미로운 문제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없는 듯합니다.

#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연구

이민우(경희대)

## 차 례

1. 머리말
  2. 선행연구 검토
  3.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관계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이 연구는 합성어 구성요소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기가 형태적·의미적인 결합을 하면서 생성된다.<sup>1)</sup> 합성어에 대한 형태·통어론적 어휘형성은 가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구조적 접근이 용이하지만 의미론적 분석은 이에 비해 쉽지 않다. 합성어 의미 형성은 구성요소 사이의 의미관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기들의 의미 또한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sup>2)</sup>

기존 합성어의 의미형성에 대한 순수한 의미론적 관점의 연구들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미론적 연구들도 구성성분들 간의 의미관계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양상을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통사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관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용되며 언제나 두 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 기능을 관계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의미관계라는 용어 자체의 불명확성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개별 어휘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합성어 내부의 의미관계는 어휘적 의미관계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적 어휘로서의 관계와 합성어 구성요소로서의 관계를 구분해야만 한다. 하지만 합성어에는 개별적 어휘의 관계와 합성어 구성요소로서의 관계가 언제나 공존한다. 이는 마치 하

---

1) 합성어 규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합성어 내부의 의미관계이므로 합성어를 세계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둘 이상의 어기가 결합한 일반적 개념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차원의 연구는 형태·통어적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마리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의 단어가 동시적으로 두 개의 범주적 차원의 해석을 갖는 경우와 유사하다.<sup>3)</sup> 따라서 두 층위의 의미관계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4)</sup>

관계는 의미 인식의 기반이 되며 동시에 의미 생성의 근본적인 기제가 된다. 다우닝(Downing 1977)은 명사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제약은 없지만 언어 사용자들이 몇 가지 관계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관계가 인식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성어들은 대부분 추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합성어를 이루는 두 부분 사이의 관계가 영속적이거나 습관적인 관계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선호도는 가능성의 폭을 줄여서 무의식적으로 화자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청자의 해석에도 도움을 준다(Aitchison 2003: 326-327). 이러한 점에서 합성어 의미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합성어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sup>5)</sup>

## 2. 선행연구 검토

전통적으로 합성어는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대등, 종속, 융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sup>6)</sup> 이러한 전통적 분류에 대해 서정수(1981)는 의미적 기준과 구문론적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등과 종속은 구문론적인 구분이며 융합은 완전히 의미적인 구분이다. 그래서 이들이 중복 분류되기도 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대등이나 종속의 개념은 모두 기능론적이지 의미적인 것이 아니다. 내부 구성 관계를 격 관계로 구분한 정정덕(1982)이나 이석주(1995)의 등위, 부체, 목술, 보술 구조 등의 품사별 구조 분류 또한 통사적 기능으로 구분한 것이었다.<sup>7)</sup>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정동환(1991)은 품사구분 후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자질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계로 구분한다. 시정곤(1994:166-170)은 나이다(Nida 1973)의 의미관계를 이용하여 상보, 근접, 포섭 유형으로 구분한다.<sup>8)</sup> 그는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의미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자질로 설정하여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관계를 구분하는데, 그가 설정한 포섭 유형의 지배관계는 전통적 분류에서 나타난 구문론적 기준의 혼란과 동일한 문제를 보여주며 자질 설정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김일병(2000) 또한 이와 동일한 분류에 반복함

- 
- 3) 대부분의 언어기호는 그것이 단일어이든지, 복합어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의미해석의 과정을 겪는다(이민우 2010: 199). 이는 인간의 사고가 새로운 상황에 유연한(flexible) 반응을 하면서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고도로 구조화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Deane 1988: 325-327)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지룡(1992)이 제안했던 다면어와 같이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우리는 두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어휘소의 의미관계와 합성어 구성 성분의 통합적 의미관계는 동시적으로 인식되며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 4) 합성어에 있어서 내적 구성요소들을 어휘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합성어 성분으로서의 의미관계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휘관계를 기반으로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합성어 의미가 드러나는 양상을 내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설명할 것이다.
- 5) 합성어는 복잡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반영한다.
- 6) 최현배(1966)에서는 벌린 겹씨, 가진 겹씨, 녹은 겹씨로 이희승(1955)에서는 병립, 주종, 혼일 관계로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구분이다.
- 7) 많은 연구들에서 핵과 비핵의 관계를 토대로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결합관계만을 설정하여 계열관계에 대한 관찰을 놓치게 되며 많은 경우의 대등합성어 유형을 제외하게 된다.
- 8) 상보관계는 의미가 배타적이므로 지속성과 일관성을 상정할 수 없으며(논발, 비바람), 근접관계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금비녀, 실개천). 반면 포섭관계는 일관성이 아니라 지배관계가 설정되어 지속성과 일관성이 모두 없다(손등, 고깃배, 봄비, 눈송이).



성을 포함하기 위해 중첩 유형을 추가로 구분하는데 ‘중첩’이라는 형태적 분류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합성어 구성 요소들의 다의화 양상에 따른 구분도 볼 수 있다. 양영희(1994)와 김진해(1998)는 합성어 구성요소들의 다의화 양상에 따라 구분하려고 시도하며 의의들의 지위에 따라 구분한다. 하지만 다의화 양상은 개별 어휘의 의미적 특성이므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합성적 의미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합성어 연구에서 많은 경우 의미관계를 설정하여 합성어 내부 요소들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구성요소들의 결합 양상을 제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 합성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합성어 내부의 의미구성요소에 대한 의미론적 성격과 그 의미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상진(1997)은 합성어 구성은 유기체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의미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종속합성어의 핵과 수식의 결합은 단어의 구성성분에서 파악한 것으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합성어의 구성 요소는 전체 속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요소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성어 구성성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의미는 합성어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sup>9)</sup>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합성어의 확장된 의미를 통합적 의미 생성으로 이해함으로써 합성어 의미 해석에 혼란을 더한 것처럼 보인다. 합성어의 대표적인 예로 ‘밤낮’이 ‘언제나’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밤’의 의미와 ‘낮’의 의미가 융합되었다기 보다는 하루 전체를 ‘밤낮’으로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환유적으로 확장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물’이 ‘이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큰집’이 ‘감옥’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의미는 두 의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이후의 확장된 사용 양상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는 일반적인 단어의 다의화 경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개별 어휘가 확장된 의미들로 결합하는 것 또한 융합합성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위아래’가 인간관계의 상하를 의미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자체적으로 갖는 확장된 의미들 때문인 것이지 두 어휘가 결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구성요소의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 대등 또는 병렬 합성어로 구분하며 이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융합합성어와 구분한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의 합성어를 구분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분류했던 예들이 정말 융합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가? 융합성어는 정말 두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실하고 두 요소가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기존의 의미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유추한다는 점에서 그럴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의미를 추론할 수 없는 것으로 화석화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성어라기보다는 단일어에 가깝다.<sup>10)</sup>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확장’된 의미에 대한 인식 때문으로 만일 융합합성어를 폭넓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지룡(1998)이 지적한 것처럼 두 의미가 결합한 이후 다의화 된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며 기본의미가 아닌 확장된 의미로서 결합한 경우라면 융합이라고 볼 수

9) 새로운 의미를 합성어의 핵심적 특성으로 보게 되면 독자적 의미의 연결을 제외한 합성만을 인정하게 된다. (양영희 1994 참조)

10) ‘쥐머느리’와 같은 예로서 일종의 관용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없다.

합성어 구성성분들이 다의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결합에 따라 구성 성분의 의미 부각이 달라진다는 것이 지적되었지만 이는 김진해(1998)에서 논의한 것처럼 합성의 요소들이 다양한 다의화 양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독립적 어휘소의 문제이지 합성어 내부 구성요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합성 구성의 요소들이 전체 속에서 위치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sup>11)</sup>

최상진(2002)이 지적한 것처럼 합성어의 의미는 단순히 두 구성요소의 의미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독립된 어휘로서의 관계와 합성어 구성성분으로서의 관계는 구분이 필요하다. 적어도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휘적 관계와 합성어 구성요소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구성요소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휘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침투를 받기 때문이다.

합성어에 대한 인식은 독립된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통합적 인식은 구문론적 인식과도 동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상진(1997: 160-161)이 주장한 것처럼 합성어는 구성요소의 의미와 독자적인 인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구체화 혹은 특수화되어 있다. 이는 단일어형의 의미와 합성어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가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사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핵과 비핵의 주종적 관계의 결합이 아니라 두 의미성분이 서로 대등한 차원에서 의미적 공기관계를 이루고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완결된 의미체이지만 구성요소로서 합성어 의미형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분적 의미체로 해석해야만 한다. 그가 주장한 유기체적 관계론에 따르면 유기체적 세계관의 특성은 단선적 인과율에서 벗어난 부분과 전체, 부분과 부분의 연관과 통일이라는 관념체계라 본다. 이 유기체론은 그 유기적 구조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이나 요소의 합과 같지 않으며 요소와 요소의 합보다 크다는 이론이다. 전체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가 된다. 또한 부분과 부분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되며 부분의 합은 전체 그 이상이 된다<sup>12)</sup>.

합성어는 언제나 구분되는 어휘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따라서 어휘적 관계와 통합적 구성요소로서의 관계는 언제나 동시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다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우리는 합성어의 의미관계를 다중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관계

#### 3.1. 의미관계

의미관계는 크게 결합적(syntagmatic) 관계와 계열적(paradigmatic) 관계로 나눈다. 결합

---

11) 이는 합성어 의미 확장의 양상에 따라 통합의 정도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2) 그는 합성어는 어휘소구성소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합성어형 어휘소의 전체의미성분은 어휘소구성소의 부분의미성분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여 통합되고 있고, 합성어는 부분의미성분과 부분의미성분의 결합으로 통합성분 그 이상의 새로운 개념을 생성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유기체적 관계론을 합성어에 적용시킨다.(최상진 1997: 165 참조)

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통사 구조 속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서로 다른 문법 범주들을 포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열적 관계는 동일한 문법 범주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의미관계이다. 이곳에서는 앞서 지적한 통사적 기능 관계와 구분하기 위하여 계열적 관계를 기본적인 의미관계로 설정하고 논의한다.<sup>13)</sup>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의미관계는 언제나 ‘계열적’이라는 점에서 논의되며 합성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것이다.

김광해(1990)는 어휘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언어기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그는 리차드 오그덴이 제안했던 기호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어휘관계를 기호의 세 층위에 적용한다. 어휘관계는 기호 사이의 관계(유의), 개념 사이의 관계(반의) 그리고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상하의, 부분전체, 공유)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언어 기호는 언제나 개념과 지시 대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의미관계를 고려할 때 형태와 개념 그리고 지시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의미관계는 화용적인 개념을 포함한다.<sup>14)</sup>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관계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맥락이다. 여기서 맥락은 언제나 추론의 기반이 되며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를 맥락적 기반 위에서 추론한다. 따라서 합성어 의미 해석은 화용론적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의미관계는 어휘적 관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sup>15)</sup> 합성어는 하나의 통합된 의미체이므로 어휘적 관계라는 개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합성어는 개별적인 두 어휘소의 결합을 통해 생성되므로 어휘관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합성어 구성 성분으로서 의미관계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어휘관계는 두 구성요소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의미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sup>16)</sup>

## 3.2.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 구분

### 3.2.1. 동의관계

동의관계로 결합한 합성어들은 대부분 복수, 혹은 반복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일반

13) 크루즈(1986)는 계열 관계가 어휘의 본질적 의미와 체계를 나타낸다고 본다. 계열적 관계는 무한히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경험된 현실을 범주화하고 이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화자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선택 체계를 보여 준다. 하지만 계열관계와 결합관계가 언제나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합성되는 양상은 계열적 관계뿐만 아니라 결합적 관계도 언제나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계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머피(2008)는 의미관계가 어휘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의미관계들은 언어능력과 관련이 없다. 둘째, 의미관계들은 그들이 존재해 있는 문맥들에 의존한다. 셋째, 의미관계들은 단일의 관계원리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낱말들 사이의 의미관계들은 어휘적 낱말지식 이라기보다는 낱말들에 관한 개념적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이유는 본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둘째 이유처럼 문맥에 따른 가변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 이유는 차이에 의한 ‘구분’이라는 관계의 인식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가 관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최소한의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15) 이민우(2010)는 의미관계를 그 자체로 분리시켜 어휘관계와 구분한다. 이는 의미만의 독자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의 의미관계 개념은 다양한 차원의 관계 적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그는 다의적 의미들을 관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합성어 구성 요소들은 어휘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합성어 형성을 통해 통합적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휘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 임지룡(1985:10)는 낱말연상 실험들의 결과가 유의어, 상하어, 상대어와 같은 의미관계와 밀접하다는 것을 소개한다.

적이다.<sup>17)</sup> 하지만 이와 달리 전형적이지 않은 예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여주는 유표적 기능을 하거나 세분화된 개념을 드러내기도 한다.

- 1) 가. 집집, 골목골목, 마디마디, 몇몇  
나. 둥글둥글, 미끈미끈, 비뚤비뚤  
다. 싱글빙글, 차례차례  
르. 출렁출렁, 깡충깡충  
리. 분(粉)가루  
로. 걱정근심, 흥허물

1가)은 대부분 개체성 명사로서 집합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이재인(1998)이 지적한 것처럼 분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명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체의 범위와 분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합성적 의미 내에서 복수를 구성하기 위한 개별적 단위 요소들로 작용하여 특정한 집합의 양을 보여준다.<sup>18)</sup> 합성어 구성요소들이 개별적 단위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이들의 결합을 통해 1나)은 상태의 연속을 1다)은 사건의 지속을 그리고 1르)은 사건의 반복을 표상한다. 이와는 달리 1리)은 복수나 반복이 아니라 대상을 일반적인 개념과 구분시킨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 종이나 더 세부적인 유형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화하도록 만들기도 한다.<sup>19)</sup> 1로)은 유사한 의미 범주들을 부분으로 통합함으로써 한정된 영역의 전체를 의미한다.

### 3.2.2. 반의관계

합성어의 의미관계가 반의적이라는 점은 의외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낱말 연상 실험에서 상대관계의 낱말들이 연상의 강도가 높다는 점을 밝혔는데(임지룡 1985: 10) 이러한 결과는 반의관계가 개념상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들의 결합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sup>20)</sup> 이들 어휘의 결합은 총체적 인식을 표현하는 예들이 많으며 특정 범주를 아우르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가. 남녀, 밤낮, 안팎  
나. 앞뒤, 아래위  
다. 팔다리, 봄가을, 아침저녁

반의적 결합의 경우 ‘남녀’나 ‘밤낮’ 같은 경우는 양분되는 두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전체를 드러낸다. 이러한 결합은 이분적 인식을 통한 상보적 관계를 보여주며 이들의 결합을 이용해 영역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상보적 관계가 아닌 경우는 이원적 대립을 이용

17) 합성어 구성요소로서 이들은 중첩의 의미효과를 발휘한다.

18) 이들은 분절된 개체인지 연속적 개체인지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집집’과 같이 분절된 개체는 복수, ‘나날’처럼 연속적 개체는 지속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는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의 구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 김지형(2002)은 ‘갈범(虎+虎), 남새(草+草)’ 등과 같이 어원적으로 동의어 또는 동일 어휘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변화하여 화석화된 예들을 보여준다.

20) 임지룡(1985)은 상대적 어휘들의 합성에 의한 개념연합의 실현에 대해 사고의 복잡성에 대한 형태적 반영이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선택으로 본다.

하여 선택된 국부적인 해석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다른 영역들을 배제하도록 만든다.<sup>21)</sup>

### 3.2.3. 부분·전체관계

많은 수의 수식관계로 보이는 예들은 모두 세분화된 지시를 보여준다. 대상의 특정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유사한 다른 대상들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속성이라는 점에서 부분전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sup>22)</sup>

- 3) 가. 꽃봉오리, 집안, 개다리, 쇠고기, 산머리
- 나. 밤나무, 장미나무, 콩밥
- 다. 붕어빵, 밤거리, 봄비

다우닝(Downing 1977)이 제시한 합성어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위범주화가 있다. 하위범주화는 합성어 형성에서 가장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신희삼 2007: 158). 어휘의미론적 관점에서 부분전체관계의 합성어들은 대부분 내재된 특정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부분전체관계 합성어들이 하의적이거나 분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부분전체관계를 이용한 이해는 범주화 원리가 적용될 때 다양한 초점 영역을 이용하도록 만든다. 이때 부분은 윤곽을 부여받아 대상의 유형을 상세하게 명시하게 된다. 윤곽부여는 개별적 실체에 적절하게 적용되며 변화하는 세계의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를 구분하여 합성어를 유형화하고 의미 형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

21) 이러한 합성어의 사용이 ‘남녀’에 대해 ‘사람’ 혹은 ‘밤낮’에 대해 ‘날’이라고 하는 상위 단어로 표현하는 것과 다른 점은 ‘사람’이나 ‘날’과 달리 양분되는 대립적 구성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전체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 핵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식어와 핵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이루게 된다. 최경봉(1998: 235)은 강물, 개다리, 우리나라 등은 의미적 포함관계를 형성하며 보리차, 실바람, 시멘트바다, 소금물 등은 전체와 부분의 의미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포함관계로 구성된다. 소금물은 소금을 포함한 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 대조되는 포함관계를 갖게 된다.

## ■ 참고문헌

- 김광해(1990), 어휘소간의 의미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0, 국어학회, 28-46.
-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의 구조와 형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형(2002), 어휘 화석화와 어원연구, 한국어 의미학 11, 한국어의미학회, 93-117.
- 김진해(1998), 다의화 유형에 따른 합성어 의미 연구, 경희어문학 19집,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9-296.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한글학회, 367-400.
- 시정근(1994), 국어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신희삼(2008), N1+N2의 의미구조 연구,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103-122.
- 양영희(1994) 합성어의 하위분류, 한국언어문학 33, 한국언어문화학회, 47-69.
- 이민우(2010ㄱ), 국어 다중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민우(2010ㄴ), 다중적 의미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193-213.
- 이석주(1995), 복합어 구성성분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47-269.
- 이재인(1998), 국어 반복합성어의 구조, 배달말 23, 배달말학회, 99-119.
- 임지룡(1985), 대등합성어의 의미분석,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87-114.
- 정동환(1991), 국어 합성어의 의미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정덕(1982), 합성명사의 의미론적 연구 - N1 N2 구조를 중심으로, 한글 175, 한글학회, 215-238.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연구, 한국문화사.
- 최상진(1997), 합성어 의미 형성의 유기체적 관계론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155-170.
- 최상진(2002), 합성어 의미형성과 게시탈트(Gestalt), 인문학연구 6,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24.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황화상(2000), 국어형태단위의 의미와 단어형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itchison(2003, 3rd), *Words in the Mind -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Cambridge Massachusetts.(홍우평 역(2004), 『언어와 마음』, 역락.)
-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임지룡·윤희수 옮김(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Deane Paul D.(1988), Polysemy and cognition, *Lingua* 75, 325-361, North-Holland.
- Downing, P.(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 Number 4, 810-842.
- Lyons, J.(1977), *Semantics Voi.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phy, M. L.(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University Press.(임지룡·윤희수 옮김(2008), 의미관계와 어휘사전, 박이정.)
- Nida(1973),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조항범 역(1990), 『의미분석론』, 한신문화사.)

##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연구

한성일(경원대)

이 논문은 국어 합성어의 의미관계를 ‘동의관계’, ‘반의관계’, ‘부분-전체관계’로 구분하여 합성어를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성어의 의미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구성요소들의 결합 양상을 제시하는 것에 치중해서 합성어 내부의 의미구성요소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합성어의 계열적 의미관계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예시 없이 논의가 너무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 1. 연구 대상의 문제

이 연구는 합성어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성어는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합성관형사, 합성부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는 합성명사와 합성관형사, 합성부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합성동사와 합성형용사가 논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이 논문에서 한자 합성어는 ‘남녀’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자 합성어’의 경우도 이 논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발표자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구성요소의 의미가 살아있는 경우 대등 또는 병렬 합성어로 구분하고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경우 융합 합성어로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특히 융합 합성어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분류했던 예들이 정말 융합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가? 융합합성어는 정말 두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실하고 두 요소가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기존의 의미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유추한다는 점에서 그럴 수 없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쉬운 예로 ‘나이’를 뜻하는 ‘춘추(春秋)’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3. 발표자는 3쪽 4번째 문단 4줄에서 “따라서 합성 구성의 요소들이 전체 속에서 위치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고 하였고, 각주(11)에서 “이는 합성어 의미 확장의 양상에 따라 통합의 정도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상진(1997:166쪽)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 ‘구성요소간의 의미성분의 결합의 정도성은 첫째, 구성성분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 채 결합하는 관계, 둘째, 구성 성분 사이의 상호 의미성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관계, 셋째, 구성요소의

의미성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의미성분을 가지는 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을 의미형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최상진(1997)의 견해를 따라 구성요소의 의미성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의미성분을 가지는 합성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상진이 제시한 방법으로 합성어의 의미관계를 유형화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4. 발표자는 3.1에서 합성어의 의미관계를 ‘계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결합적 관계를 배제하고 결합적 관계를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합성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단어들이 합성어처럼 쓰이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잘 쓰이지 않는 데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자가 예로 든 합성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에 등재된 것과는 다른 형태나 의미로 사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지 않은 예 : (1ㄱ) 걱정근심, (3ㄱ) 개다리 (3ㄴ) 장미나무

\*형태가 다른 예 : 예문 (1ㄴ) 미끈매끈 → 미끈미끈(사진), 비뿔뿔 → 비뿔비뿔(사진)

\*의미가 다른 예 : (3ㄱ) 집안 (논문에서는 문맥상 ‘집밖’의 상대어로 쓰인 듯)

사전에 등재된 ‘집안’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쓰임.

6. 3.2의 경우 각 사례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다소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1ㄱ) ‘분(粉)가루’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복수나 반복이 아니라 대상을 일반적인 개념과 구분시킨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 종이나 더 세부적인 유형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화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전의 기술을 보면 ‘분’과 ‘가루’가 동의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분(粉) : 얼굴빛을 곱게 하기 위하여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하나. 주로 밝은 살색이나 흰색의 가루로 되어 있으나 고체와 액체로 된 것도 있다.

분(粉) 가루 : 화장품에 쓰는 분의 가루, 분처럼 하얀 가루

7. 각주 19)에서 제시한 ‘갈범(虎+虎)’에서 ‘갈’과 ‘범’이 어원적으로 동의어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전에 ‘갈(葛)범’은 “‘츨범’의 북한어로 목에 츨덩굴같은 어룡어룡한 줄무늬가 있는 범”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토론자의 무지로 발표자의 노고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논문을 읽게 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박철우(안양대)

## 차 례

1. 머리말
  2. 화시 표현
  3. 화시 표현의 확장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본 연구는 우리말 화시 표현(話示表現; deixis)의 예들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화시 표현이란, ‘나, 너, 지금, 여기’ 등과 같이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 되어 사물을 직접 가리키는 데 쓰이는’ 언어 표현을 이르는 말로 익히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말과 관련된 화시 표현에 대한 연구는 대개 화시 현상에 대한 기본적 소개와 아울러 앞서 언급된 것들과 같은 대표적인 것들 중심의 예시가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화시 표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에 맞추어 우리말의 화시 표현들을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확장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앞에 제시한 화시 표현의 정의를 좀 더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한 뒤, 다양한 국어 낱말들에 대해 화시 표현으로서의 자격을 검토하여 논의된 체계에 따른 범주화를 시도해 볼 것이다.

## 2. 화시 표현

### 2.1. 지칭 표현의 한 유형으로서의 화시 표현

화시 표현은 그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어렵다. 우선, 그 표현의 지칭 대상(referent)이 그

1) 심재기 외(1984:139). 앞의 책에서는 ‘가리킴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화용론이나 언어심리학, 언어철학 관련 분야에서 ‘직시어(直示語)’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석진(1972)에서 ‘화시소(話示素)’라 부른 것을 따라서 기능으로서의 현상에 대해서는 ‘화시’,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화시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각각에 대해 ‘상황지시’(고영근 외 2008), ‘상황소’(노대규 1977)라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어(語)’라는 접미사를 피하고 ‘표현’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은 화시가 단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로, 영어로는 그 현상 자체를 가리킬 때도 ‘deixis’를 쓴다. 화시 표현을 굳이 구별해서 부르려면 ‘deictics(deictic expressions)’라고 쓸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표현들을 각각 ‘indexicality’와 ‘indexicals(indexical expressions)’로 이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Levinson(2004) 참조.

의미인 것으로 상정하려 한다면 그것의 정의가 말해 주듯이 그 지칭 대상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그 값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와 달리, 그 개념의미(sense)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려 해도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에 제시된 문장에서 화시 표현인 ‘나’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면, (1ㄱ)의 ‘화자’는 이 발화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서 적절한 정의가 될 수 없고, (1ㄴ)의 ‘이 발화의 화자’는 정의에 또다시 ‘이’라는 화시 표현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충분한 정의가 되지 못한다.<sup>2)</sup> 그렇다고 해서 (1ㄷ)처럼 ‘이’를 다시 ‘화자에게 가까운’으로 풀이한다고 해도 (1ㄱ)과 마찬가지로 이 발화와 관련성을 놓치고 만다.

(1) 나는 경찰관이다.

- ㄱ. 화자는 경찰관이다.
- ㄴ. 이 발화의 화자는 경찰관이다.
- ㄷ. 화자에게 가까운 발화의 화자는 경찰관이다.

화시 표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시 표현이 일종의 지칭 표현(referring expression)이라는 사실과,<sup>3)</sup> 역시 지칭 표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이름; 일반 명칭과 고유 명칭)이나 조음 표현(3인칭 대명사나 형용어구(epithet)를 포함한 한정 기술구 등)과의 차이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ㄱ. 개는 충직한 동물이다. / 개가 짖고 있다. (일반 명칭)

- ㄴ. 영희가 놀러 왔다. (고유 명칭)
- ㄷ. 어제 한 시장 할머니가 장학금을 기탁하셨다. 그분은 참 존경스럽다. (3인칭 대명사)
- ㄹ. 어제 철수를 보았다. 나는 그 심술꾸러기가 싫다. (한정 기술구)
- ㅁ. 저는 학생입니다. (화시 표현)

(2)에서 볼 수 있듯이, 명칭의 경우에는 그 표현의 의미로서 잠재 지칭(référence virtuell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반으로 실현 지칭(référence actuelle)이 한정될 수 있지만((2ㄱ, ㄴ)),<sup>4)</sup> 조음 표현은 선행어의 잠재 지칭을 기반으로 하여 실현 지칭이 결정되므로 지칭적 자율성이 없다((2ㄷ, ㄹ)).<sup>5)</sup> 이것들과 대비하여 보자면, 화시 표현((2ㅁ)) 또한 선행어 없이 발화 상황 속의 대상(인물, 사물, 장소, 시간 등)을 직접 지칭한다는 면에서 조음 표현과 마찬가지로 잠재 지칭이나 지칭적 자율성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음 표현과 화시 표현은 선행어의 존재 여부에 의해 구별되는 개

2) ‘발화(發話: utterance)’라는 용어는 특정 상황 속에서 실현된 문장을 가리키며 입말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니다. 박철우(역)(2010:22-25) 참조.

3) 본고에서는 이미 ‘지시’로 굳어 있는 ‘reference’에 대해 ‘지칭(指稱)’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demonstration’ 역시 ‘지시’로 옮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시사’라고 하면 ‘demonstrative’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라는 역어를 후자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각 용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지칭’은 국어학에서 흔히 ‘호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본고에서는 ‘지칭’이라는 말 자체는 ‘호칭’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며, ‘호칭’과 대비될 때는 기존의 용법과 같이 3인칭에 한정되는 좁은 개념으로 용어화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4) 잠재 지칭을 그 언어 표현의 표의(denotation)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5) 최재호 외(공역)(2004:460-2) 참조.

념이므로 화시를 담화상의 위치 지칭으로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화시가 조음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조음의 용도로 문법화된 3인칭 대명사과 조음의 용도로 굳어진 지시관형사 ‘그’의 다의적 용법에 대해서는 화시적 표현과 구별되는 조음 기능이 뚜렷하므로 화시 표현과 구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지칭 표현 가운데 화시 표현의 주된 기능, 즉 화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발화 현장의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한 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칭 표현들은 어느 것이나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함을 전제하는데, 명칭은 그 명칭을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가지는 존재를 청자가 찾아서 그 대상을 확인해야 하고, 조음 표현은 담화상에서 언급되었거나 언급될 다른 표현의 지칭 대상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에 접근해야 하는 것인 데 반해, 화시 표현은 발화 현장의 필수 구성 요소 가운데서 지칭 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 현장의 필수 구성요소로는 화자, 청자, 공간, 시간이 상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것들을 바로 가리키는 표현들이 일차적인 화시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

## 2.2. 화시 표현의 확인과 분석

어떤 언어 표현이 화시 표현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표현의 지칭 대상이 화맥(context)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면 된다. 더 정확히 말해서, 화시 표현은 그것의 지칭 대상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 내용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언어 표현이다.

(3) ㄱ. 내일은 토요일이다.

ㄴ. 이쪽으로 오세요.

(3ㄱ)에 주어진 발화가 포함하고 있는 명제 내용이 참이 되기 위해서 그 발화는 금요일인 날에 산출되어야 한다. (3ㄴ)에서 ‘이쪽으로 오다’라는 명제 내용이 성립하려면 청자가--명령문이므로 청자가 주어다-- 자신보다는 화자에게 더 가까이에 있는 장소 쪽을 향해야 하고(‘이쪽’과 관련됨), 또한 그 결과가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이어야(‘오다’와 관련됨) 할 것이다.

그런데 (3)에 제시된 예들은 2.1.에서 일차적으로 제시된 화시 표현의 정의가 보다 정교해져야 함을 보여준다. ‘내일’, ‘이쪽’, ‘오다’ 등은 그 자체로 발화 상황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오늘’의 전날이고 ‘오늘’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 단위들 가운데 하나다. ‘이쪽’은 ‘화자에게 가까운 어떤 위치’가 있는 방향이다. ‘오다’는, 보다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무엇인가가 ‘화자나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서론에서 인용한 화시 표현의 정의에서,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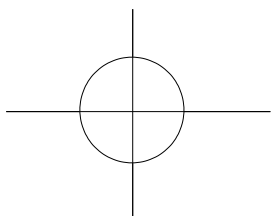
## 2.3. 화시 중심 -- 화시 표현 확장의 토대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화시라는 기능의 본질은 결국 화자와 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

체에 대한 주관적 지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화시 표현은 화시에 의해 그렇게 주관적으로 지칭된 위치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들(화자(‘나’ 등), 청자(‘너’ 등), 발화 시점(‘지금’ 등), 발화 장소(‘여기’ 등))이 핵심적인 것들이 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점과 관련되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준점을 화시 중심(話示中心; deictic center)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 개념은 Bühler(1934)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는 이를 원점(原點; Origo)이라 불렀고, 인간 언어의 지시영역이 이를 표상해야 한다면 ‘여기(hier), 지금(jetzt), 나(ich)’ 세 단어가 (4)의 동그라미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여기-지금-나 시스템(ich-jetzt-hier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지광신 외(옮김) 2008).

(4)



그런데 화자 중심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화시의 주체는 화자이고 화시는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지만 화시 중심이 반드시 화자 중심적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화시 중심은 화자와 청자가 공히 인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물론 화자가 판단하기에 청자도 함께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이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 청자가 각각 가능한 후보가 되고 그들이 공유하는 발화의 현장과 발화 시간이 또한 그 후보로 추가될 수 있지만 그것을 화자 중심적이라고만 표현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sup>6)</sup>

이렇게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는, 우선 평서문일 때와 달리 명령문이나 의문문, 청유문일 때 전형적인 화시 중심이 청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5) ㄱ. 어머니가 편찮으셔. (화자의 어머니)

ㄴ. 어머니 잘 들봐 드리세요. / 어머니 괜찮으세요? (청자의 어머니)

ㄷ. 형, 어머니한테 가 보자. (화자와 청자 모두의 어머니)

6)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인용한 화시 표현에 대한 정의 (i)을 다음 (ii)과 같이 수정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다.

(i)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 되어 사물을 직접 가리키는 데 쓰이는 언어 표현  
(ii) 화자가 의도적으로 그의 하는 발화의 시공간적 입장을 기준점으로 삼아 사물을 직접 가리킬 때 쓰이는 언어 표현

진정근(2009)는 “직시성(화시성)을 도출하는 데에는 지시 대상의 한정성(한정성은 지시의 확인가능성의 전제 조건이다), 청자에 의한 지시 대상의 확인가능성, 발화 시점에서의 화자의 상황의존성 등 세 가지 기준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Herbermann(1988:53)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직시는 특정한(공간적, 시간적, 인칭적 등등의) 대상들에 대한 한정적이고 확인가능성이 확보된 지시이며, 이는 발화의 시점에서 발화자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상응하는 요소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당 대상들을 지칭하는 (부분적으로 제스처가 수반되는) 언어 표현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5)와 같은 구별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는 예들이 충분히 발화 가능할 것이다. (6)을 보자.

- (6) 가. 영이야,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 (청자의 어머니)
- 나. 아주머니, (내)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세요. / (내) 어머니 괜찮으세요? (청자의 어머니)
- 다. 형, (형의) 어머니한테 가 보자. (청자의 어머니)

하지만 (5)가 포착하는 일반성이 언어학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면 우리는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문형에 따른 구별을 문법적 제약으로 일반화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6)과 같은 경우를 아래에서 살펴볼 화시 중심의 상대화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조금 더 부연하자면, 모든 발화에는 화자에 의해 지정되는 화시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발화에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선행 발화에서 이미 표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발화에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굳이 화자에 의해 표시되지 않더라도 화맥 속에 주어진 후보들 가운데서 접근도의 순서에 따라 청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포착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일 발화를 놓고 그 발화의 화시 중심을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평서문이 아닌,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의향법의 문장 유형(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속하는 발화들은 청자가 화시 중심이 될 수 있는 높은 서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청자를 발화 상황의 독립적 요소로 구별하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우리말에서 위치나 방향을 지정하는 화시 표현의 경우 청자가 그것들을 구별하는 독립적인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화자와 가까운 위치나 방향은 ‘이’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합성어들(+ 장소 화시 표현 ‘여기’)이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반면, 청자와 가까운 위치나 방향은 ‘그’나 그것을 포함하는 합성어들(+ 장소 화시 표현 ‘거기’)이 계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인칭 화시 또는 인시소(人示素) 따위의 개념으로 함께 묶을 수도 있지만, 각각을 구별하여 별도의 화시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래 4절의 <표1>에서는 편의상 발화 참여자로 묶은 뒤 각각을 구분하였다.

#### 2.4. 상대화된 화시 표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시 중심은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화자, 청자, 발화 시점, 발화 장소가 그 무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화시 중심이 실제 발화 상황의 화맥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 발화 상황 속에 다른 발화 상황이 내포된 경우에는 그 내포된 화맥에 대해 별도의 발화 상황이 상정된 것이고, 그런 발화 상황의 화시는 실제 발화의 화시 좌표에 따라서 온전히 전체 발화의 화자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화자가 그 내포된 발화 상황의 한 참여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그 참여자의 입장에 자신을 투영하여 화시 좌표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후자의 경우를 ‘화시의 상대화’라고 부른다 (Anderson & Keenan 1985).

- (7) ㄱ. 새롭이는 여기가 혹시 외가 가는 길이 아닐까 하고 잠시 착각에 빠졌다.  
 ㄴ. 그 젊은 운전사는 필시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았다.  
 ㄷ.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  
 ㄹ. 아버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7ㄱ)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에 출현한 발화인데, 화자(소설의 저자)가 소설 속 '새롭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화자가 새롭이로 투영된 입장에서 '여기가 혹시 외가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자신에게 말하는-- 내포된 상황의 발화 장소를 '여기'로 지정하고 있다. (7ㄴ)은 '같았다'의 시제로 볼 때는 과거이지만 화자가 자신이 서술하는 시점을, '그 젊은 운전자'가 '벌을 받고 있는' 시점과 동일시하여 '지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7ㄷ)에서는 내포질의 주어가 실제로는 화자가 아니라 '너'(청자)겠지만 청자의 입장을 화자의 입장으로 재지정하여 '나'로 표현하고 있다. (7ㄹ)과 같은, 직접인용 속에 나타난 발화(간접 담화)는 화시 상대화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7)의 표현들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실제 발화 상황 속에 내포된 발화 상황 속에서 화자 자신이 그 발화의 산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발화의 산출자나 마찬가지로라는 사실을 표현하여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절에서 문형에 따른 전형적인 화시 중심을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이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발화에서든 그것이 언급되는 화맥에서 가장 무표적인 화시 중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 청자, 또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각각 화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3인칭)에 대한 서술에서는 화·청자 이외의 존재를 화시 중심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화시 상대화의 예가 된다.

### 3. 화시 표현의 확장

#### 3.1. 화시 표현의 확장 방식

이 절에서는 화시 표현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화시 표현의 확장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화시 표현으로 논의하는 표현들 가운데에는 발화 상황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 이외에도 그로부터 파생한 다른 표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제시된 '내일', '이쪽', '오다' 등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가 발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발화 상황과 결부되지 않고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화시 중심과 연관된 표현들을 우리는 확장된 화시 표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장된 화시 표현은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방금 제시된 '내일, 이(쪽), 오다' 등과 같이 그러한 화시와 연관된 기능이 그 단어의 본래적 의미 즉, 그 단어의 기본 의미인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가 따로 있는데 화시 중심과 자주 연관됨으로 인해 화시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 단어들이다. 후자로는 '어머니' 등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다. 이러한 후자의 경우, 우리말에서는 생략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통사 현상인 영형 조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우리는 그것이 사전적 의미로 굳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확장된 화시 표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8) ㄱ. 오늘 모임에 못 나가겠어. 어머니가 편찮으셔.

ㄴ. 철수야, 어머니 안녕하시니?

ㄷ. 철수는 서운해 하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서둘러 고향집을 떠났다.

‘어머니’는 각각 (8ㄱ)에서는 화자의 어머니, (8ㄴ)에서는 청자인 ‘철수’의 어머니, (8ㄷ)에서는 3인칭 화제이자 주어인 ‘철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굳어진 것은 (8ㄱ)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화시 중심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관계를 가진 언어 표현이 화시 중심과 결합한 상태로, 또는 그런 상태와의 등가물이 새로운 음성 형식으로 화시 표현을 형성하게 되는 일종의 어휘화 과정이 개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 ㄱ. 오늘 = x(지금)를 포함하는 날

ㄴ. 내일 = x(지금)를 포함하는 날의 다음 날

ㄷ. 이 = x(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ㄸ. 이쪽 = x(화자)에게 가까운 쪽

ㄹ. 오다 = x(화자) 쪽으로 가다

ㅁ. 어머니 = x(화자)의 어머니

(9)에서, 화시 중심은 화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화시 중심을 특정 논항으로 취하는 개념적 의미의 술어가 새로이 하나의 언어 표현으로 어휘화되었다. 우리는 모든 화시 표현에 대해 이와 같은 분석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3.2. 담화 화시 표현

우리는 이상에서 화자, 청자, 발화 시점, 발화 장소를 무표적인 화시 중심으로 제시하였지만 그것은 실제 발화 상황과 관련된 가시적인 세계와 관련된 차원의 논의였다.<sup>7)</sup> 물론 그러한 가시적인 세계와 관련된 체계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언어 자료는 항상 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 언어 자료는 많은 경우 특정 발화 단위 또는 그것의 해석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발화를 구체적인 대상인 사물이나 장소로 간주하는, 또 다른 차원의 화시 표현의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조응을 화시와 구별한 바 있는데, 조응은 근원적으로는 선행 발화 또는 그 일부를 이미 청자에게 전달되어 청자 가까이에 가 있는 사물로 이해하고 청자를 화시 중심으로 삼아 그것을 가리키는 현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화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7)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시간’도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시간 자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 세계 자체의 관찰 가능한 변화를 시간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같은 조응의 기능은 그것이 본래 화사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한번 출현한 표현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별도의 표현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앞뒤의 발화를 연결해 주는 문법 기능으로 굳어져, 더 이상 청자를 화시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칭 대상을 청자에게 확인시키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문어 텍스트의 경우 청자는 변할 수 있지만 누가 청자의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선·후행 발화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응 표현은 화시 표현으로부터 발달한 것이 많지만, 대명사 등 별도의 문법화된 언어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해도 우리는 화시적 용법과 조응적 용법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응을 화시로부터 구별한다고 해도 담화 화시 표현은 별도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후행 발화를 대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 혹은 담화상의 특정 지점을 화시 중심으로 지정하여 다른 발화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 (10) 가. 서두에서, ...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전술한 바와 같이), ...  
 다. 다음으로는, ...  
 라. 여기서는, ...  
 마. 아래에서, ...  
 바. 이상과 같이, ...  
 사. 끝으로, ...

(10)의 표현들은 조응 표현으로 문법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을 대응하기보다는 텍스트나 담화상에서의 위치 자체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에 한해서는 담화 화시 표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3. 사회적 화시의 차원

화·청자 관련 화시 표현들은 종종 화자, 청자, 또는 지칭되는 제3자의 사회적 위상을 표시하거나 그들 상호간의 사회적 혹은 친소성에 관한 정보를 함께 부호화한다.<sup>8)</sup> 이를 종종 사회적 화시(social deixis)로 부르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sup>9)</sup> 본고에서는 이를 화시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화시 자체에 대한 엄밀한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실제로는 화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어에서 사회적 화시 표현으로 가능한 후보를 꼽으라면 다양한 호칭 표현과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님’, ‘-아/야’, ‘-(이)여’, ‘-(이)시여’ 등, 그리고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상대높임의 기능을 포함하는 모든 문말어미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화시 표현의 후보로 고려하게 되는 근거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는 지칭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며 화자나 청자와 같은 화맥 정보와의 연관성 속에서 지칭 대상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시 표현이 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전제 조건은 그것이 지칭 표현이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호칭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님’ 등을 따로 떼어서 화시 표현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님’을 예로 들자면, 그것이 의존명사로 쓰일

8) Anderson & Keenan(1985:270) 참조.

9) Levinson(1979)이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



때든 접사로 쓰일 때든,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 2인칭 청자에 대한 호칭 표현이 됐든 3인칭 지칭 표현이 됐든, 이미 지칭 대상이 결정된 표현 뒤에 붙어 그 대상이 높임의 대상임을 표시해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호칭 표현 전체가 화시 표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물론 그것들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화·청자 관련 화시 표현이다.<sup>10)</sup> 즉 사회적 화시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은 부수적인 현상일 따름이다. 이런 점은 주체 높임의 ‘-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시-’로 높임을 표시할 지칭 대상은 주어를 통해 결정되었고 이미 결정된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높임 의도가 ‘-시-’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시-’ 자체는 지칭 표현이 아니다.<sup>11)</sup>

높임법과 관련된 차원을 시점이나 공간과 같이 화맥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위 ‘사회적 위상(social status)’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칭 대상으로 확인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체가 지칭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지금’이나 ‘여기/거기’가 그렇듯이 말하자면 ‘내 처지’, ‘귀하의 지위’, ‘우리 계급’ 따위의 것이 하나의 표현으로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 자체로 지칭될 만한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대상을 구체적인 실체로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어떻든 소위 ‘사회적 화시’는 화자가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는 자신의 사회적 위상이 있고 청자를 상대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수준에 비추어 높이거나 동급으로 다루거나 낮추거나 하는 일종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첨가하는 방식의 화시에 의존적인 문법 기능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로서 화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화·청자 관련 화시 표현에 높임 관련 표현들을 포함시키는 정도로 처리하기로 하겠다.

### 3.4. 양태 화시의 차원

마지막으로, 양태 화시의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역시 Bühler(1934)에서 인정되었던 것으로 그는 “내가 눈앞에서 지시적으로 so라고 말한다면 청자에게 인지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wie’(어떻게)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청자 앞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거나 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지광신 외 2008)”라고 언급한 바 있고, 진정근(2009:7)은 양태 화시에 대해 Herbermann(1988)을 인용하여 “일정한 형태상의 특질이나, 사건의 진행과 경과 과정이 형성되는 각각의 특정한 양태를 지칭하는 화시의 일종”이라고 정리해 주고 있다.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이것 봐라.

(12) ㄱ.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10) 인칭 화시(person deixis)로 묶여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고에서는 그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11) 발화 시점 화시와 관련된 ‘-었-’에 대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었-’은 과거 시점을 바로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화시 표현이 되기 어렵지만, 발화 시점 ‘지금’과 관련해서 발화에 포함된 사건이 그 이전에 일어났음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확장 화시 표현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었-’에 대한 이러한 처리는 ‘-시-’와 관련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시-’와 일치되는 주체는 언제나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나타나므로 ‘-시-’가 화시의 기능을 온전히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 반면, ‘-었-’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시간은 그 자체가 가리켜질 수 있지만 사회적 위상은 그 자체가 가리켜지는 일이 없다는 점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 ㄴ.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 ㄷ. 내가 그렇게 좋아요?
- ㄹ. 그 일이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 ㅁ. 요즘은 그리 바쁘지 않아요.
- ㅂ.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듣기에 좀 그렇네요.

(13) ㄱ. 왜 이렇게 힘들지?

- ㄴ. 저리 좋을까?

양태 화시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특정 행동이나 방식, 정도, 모양, 형편 등과 같은 유형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앞서 살펴보았던 기본적 화시의 차원과는 구별되는 추상적 차원의 것이지만, 화맥과 무관하게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12)</sup> 양태 화시 차원의 화시 표현에는 주로 ‘이, 그, 저’에서 파생된 용언이나 부사가 해당되며 몇 가지 동일한 표현이 여러 유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 4.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발화 상황의 필수 요소를 좀 더 세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리고 그러한 화시 중심과 일정하게 관련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도 확장된 의미에서의 화시 표현으로 아우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이것들이 국어 화시 표현의 전체를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전체에 대한 윤곽과 그 유형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화시의 기능이 들어 있으면 화시 표현이지만 화시 표현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화시라는 지칭적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속성적 의미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속성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모두 확장된 표현에 넣는다면 순수 화시 표현은 지극히 중립적인 몇 단어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칭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용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를 확장된 표현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표에 제시된 표현들이 언제나 화시적인 용법만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화시와 조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조음의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표에는 조음과 관련된 측면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표현이 다양한 차원의 화시 용법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급적 사전에서 다의어로 구별된 예들은 표에 함께 반영하고자 하였다.<sup>13)</sup>

12) 유형을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화시는 언제나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화될 수 있는 추상화된 차원을 동반할 수 있다. 이것들을 각각 몸짓 화시(gestural deixis)와 상징 화시(symbolic deixis)로 불러 구별할 수 있다. Cruse(2004) 참조.

13) 표 속에 제시된 단어들 오른쪽에 간혹 출현하는 로마자 번호(I, II)나 원문자 번호(①, ②, …)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뜻풀이 속에 다의어 구별 표시이다(로마자 번호는 품사가 나뉘는 경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첨부하였다. 동형어 구별 표시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1>

화시 중심		일차 화시 표현	확장 화시 표현
발화 참여자	화자	나, 저, 본인, 과인, 짐, 본관, 본원, 소녀, 소생, 소신, 소인, 소자, 신, 우리②, 저희, 이년, 이놈, 이쪽②, 이편②, 신등, 당교, 당사, 당국 / 내, 제, 우리③, 폐, 본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 오다, 가져오다, 건너오다, 걸어오다, 나오다, 내려오다, 넘어오다, ... (및 '오다'류 동사들)
	청자	너, 당신, 자네, 그대, 귀하, 자기, 거기, 군, 노형, 임자, 형씨, 네년, 네놈, 너희, 그쪽④⑤, 이년, 여러분, 귀관 / 애, 야, 할머니II①, 할아버지II① (및 모든 호칭어) / 네, 귀	앞에총, 우로어깨총, 좌로어깨총, 우로봐, 뒤로돌아, 앞으로가, 뒤로돌아가, 우향앞으로가, 좌향앞으로가, 우향우, 좌향좌, 좌우향우
	화·청자 공통	우리①	
공간	화·청자-공통	여기, 요기, 이곳, 당처	
	화자-근	여기, 요기, 이곳 / 이, 요, 본, 당	이것(이거), 요것(요거), 이, 이이, 애, 이놈, 요놈, 이들, 이네, 이쪽③④, 이쪽①, 요쪽, 이편①
	청자-근	거기, 고기, 그곳 / 그, 고, 귀	그것(그거), 고것(고거), 그, 그이, 개, 그놈, 고놈, 그들, 그네, 그쪽, 고티
	화·청자-원	저기, 조기, 저곳 / 저, 조	저것(저거), 조것(조거), 저, 저이, 재, 저놈, 조놈, 저들, 저네, 저쪽, 조쪽
시간	발화 시간	지금, 금시, 시방, 당장③, 이때, 이제, 인제, 현금 / 목하, 마야호로	전날, 요즈음(요즘), 이즈음, 요즈막, 지금껏, 여태껏, 여태(입때), 전(예: 조금 전, 사흘 전), 앞, 후, 뒤, 방금, 막, 눈앞(목전), 코앞, 코밑, 오늘, 어제(어저께), 어제저녁, 엿저녁, 그저께, 엿그저께, 내일(명일), 모레, 전전주, 지난주(전주), 금주, 내주(내주일/후주①14)/ 익주①/차주①), 지 지난달(전전달/전전월), 지난달, 이달(금월), 내달, 재작년(그러께/전전해/전전년/지지난해), 지난해(작년/전년/전해), 올해(금년/당년), 내년, 후년, 내후년,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가을, 지난겨울, 당기, 당대, 전조, 전조사, 접때, 나중(이다음/향후) / 이맘때, 요맘때 / 전, 현, 지지난, 지난, 다음, 다음다음, 지지난번(전전번), 저번/지난번, 다음번, 이번, 금회, 차회, 뒤끝 / 당면하다 / '-어 오다' / -었-
담화	화·청자/저·독자 공통	여기	본고, 서두, 초두, 끝, 말미, 다음, 위, 아래, 앞, 뒤, 이상, 이하 / 이, 본 / 전술하다, 후술하다

14) '후주'와 '익주', '차주'에는 '이 주의 바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주의 바로 뒤에 오는 주'를 의미하는 용법이 있다. 그와 같은 용법은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형 대명사를 통한 조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런 용법을 반영한 사전적 의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양태	발화 시 에 화·청 자 에 게 인 지 될 수 있는 행동, 방 식, 정 도, 모 양, 형편 등	이것(이거), 그것(그거), 저 것(저거), 요것(요거), 고것 (고거), 조것(조거)	이만, 그만, 저만, 이리, 그리, 저리, 요리, 고리, 조리, 이다지, 그다지, 저다지, 이리도, 그리도, 저리도, 요다지, 고다지, 조다지, 이렇게, 그렇 게, 저렇게, 요렇게, 고렇게, 조렇게 /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다, 그러다, 저러다
----	--	--	---

<표1>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는 앞에서 대체로 제시되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정리된 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서 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공간 화시는 사실상 발화 참여자 화시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처리하자면 발화 참여자 화시의 확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9)의 분석과도 맞아 들어간다. 하지만 가장 가시적인 차원에서 존재와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니 표에서는 굳이 이러한 기본 요소들의 통폐합을 시도하지 않았다.

화자 관련 확장 화시 표현에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만을 예시하였는데, ‘모친, 부친, 큰(/작은)아버지, (큰/작은)어머니, 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여기서는 <표준>을 대표 사례로 검토함)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문제 제기의 용도로 최소한의 예만 제시하였다. 다음은 <표준>에 제시된 ‘어머니’와 ‘모친’의 뜻풀이와 용례이다.

(14) ㄱ. 어머니01: ①자기를 낳아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용례)우리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 며칠 뒤면 어머니의 회갑이다.

②자녀를 둔 여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용례)영희네 어머니 / ...

ㄴ. 모친: ‘어머니01①’을 정중히 이르는 말. 용례)이 노부인은 선생님의 모친이십니다./그러면 너는 네 모친께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나왔단 말이냐?《문순태, 타오르는 강》

(14)를 보면, ‘어머니’의 뜻풀이에서는 그 뜻풀이 자체에 ‘화자의 어머니’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용례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뜻풀이 ②의 용례도 될 수 있다. 나아가 ‘모친’의 뜻풀이에서는 ‘어머니01①’을 정중히 이르는 말이 라하여 화시적 용법만을 뜻풀이에 수용하면서 그 용례로는 ‘선생님의 모친’, ‘네 모친’ 등 비 화시적인 용법, 즉 ‘어머니01②’와 관련된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기본 입장은 이러한 표현들을 모두 문법의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언중의 인식에 따라 일부 화시 표현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2.3.과 2.4. 참조), 실제 사전적 처리는 화시와 관련된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표1>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춘부장, 자당’ 등에 대해서 청자 관련 확장 화시 표현으로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도 하였는데, <표준>에서 ‘춘부장’의 뜻풀이로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밖에 없었다. 그리고 용례로, '자네 춘부장'와 '아가씨의 춘부장'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 만일 '춘부장'의 한 가지 뜻풀이로 '상대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을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청자 관련 확장 화시 표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자 관련 확장 화시 표현으로는 주로 '군사' 분야의 전문어에 속하는 감탄사(제식 훈련에서의 '구령')들이 주로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들은 모두 청자를 화시 중심으로 상정했을 때 청자를 기준으로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말들이다. 방위/방향과 관련된 표현들('앞, 뒤, 위, 아래, 오른쪽(편), 왼쪽(편)' 등)은 모두 발화 참여자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지만 대체로 앞서 언급한 관계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문 유형에 따라 문법적으로 결정되거나 영형 조응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화된 사례로는 이와 같은 구령들이 남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감탄사로 쓰일 때는 그렇게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동작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 관련 화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시간 화시는 역법에서 주어진 시구간 단위와 시간의 2차원적(선적)인 속성을 어휘적으로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발화 시점(또는 그 시점을 포함하는 시간 단위)를 사이에 두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며, 공간과 유사하게 때로는 위치를, 때로는 방향에 따른 순서를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발화 시점과 관련된 시간 화시 표현을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그 시점과 구별되는 시점과 관련된 표현들은 확장 화시 표현으로 구별하였다.

## 5. 맺음말

## ■ 참고문헌

- 김선희. 1988.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 「목원어문학」 7집. 목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pp. 5-34.
- 노대규. 1979. 상황소(deixis)와 한국어 시제. 「문법연구」 제4집. 문법연구회. pp. 175-235.
- 박철우(역). 2010. 「언어 의미학 개설」. (Griffiths, P. 2006. *An Introduction to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한국문화사.
- 신지연. 1995. 현대국어 지시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 외. 1984. 「의미론 서설」. 집문당.
- 양명희. 1996. 현대국어의 대응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범. 2002. 「영어 화용론」. 한국문화사.
- 장경희. 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2. pp. 167-184.
- 장석진. 1972. 화시소(Deixis)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 8-2. pp. 26-43. (1985. 「화용론연구」 (탑출판사)에 재록).
- 장인봉. 2002. 직시의 화용론. 이성범·장인봉·전혜영·최명원 저, 「화용론 연구」. 태학사. pp. 47-88.
- 지광신·최경은(옮김). 2008. 「언어 이론--언어의 서술 기능--」 (Bühler, K. 1934/1982.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 New York: Fischer.). 나남.
- 진정근. 2009. 독일어의 양태 직시. 「독어학」 19. 한국독어학회. pp. 1-17.
- 최재호·홍종화·김종을(공역). 2004. 「화용론 백과사전」 (Moeschler, J. et A. Reboul. 1994.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 pragma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한국문화사.
- Anderson, S.R., and E. Keenan. 1985. Deixi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Fieldwork vol.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59-308.
- Cruse, A. 2004.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llmore, C.J. 1997. *Lectures on Deixis*. CSLI Publications.
- Grundy, P. 2008. *Doing Pragmatics*. (3rd ed.) London: Hodder Education.
- Levinson, S.C. 2004. Deixis. In L. Horn &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Pp. 97-121.
- Lyons, J. 1977. *Semantics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berg, G. 1993. Indexicality and Deix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Pp. 1-43.

##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이준희(경기대)

본 발표를 접하면서 토론자도 ‘화시 표현, 직시 표현, 조응 표현(deixis, deixiseme)’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 본 발표의 주요 내용은 화시 표현의 체계적 특성, 화시 표현의 확장 및 범주화 시도, 화시 표현의 정의 검토이다. 또한 화시 표현을 ‘지칭 표현’이나 ‘조응 표현’과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발표문을 통해 평소의 생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다.

(1) 서론에서 화시소, 직시소, 직시표현, 화시표현.. 이런 자리를 통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개념 또는 용어에 대해 저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으면 한다. 폭넓은 사용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면 한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2장에서 화시 표현의 기준으로 ‘지칭적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의 기본 의미에 변화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3) 2.1에서는 다음 사항이 궁금하다. 각주에 보면 발화라는 용어와 함께 ‘구어, 문어’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 ‘특정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은 ‘발화’인가 아닌가?

(4) 화시 표현은 자체가 화시 표현의 고유 특성을 지니는 것도 있지만 지시어나 조응어로서의 특성까지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화시 표현은 기능적으로 화시, 지시, 조응이 동시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화시 표현’을 상위로 하고 하위에 ‘화시, 지시, 지시어, 조응어’ 따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면 ‘화용적 행위’는 언어적 행위이지만 언어적 행위는 반드시 화용적 행위일 수는 없다.

(5) 2.2에서 다음과 같이 ‘화시 표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맞는가?

==> 발표문에서는 화시 표현의 기준을 지칭 대상의 화맥에 따른 가변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면 ‘화시 표현’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확장되는 기준점으로 ‘발화 참여자, 발화 시점, 발화 장소’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화시 표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ii) 화자가 의도적으로 그의 하는 발화의 시공간적 입장을 기준점으로 삼아 사물을 직접 가리킬 때 쓰이는 언어 표현

(6) 2.4에서 화시 표현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좀더 명확히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화 속에 포함된 또다른 발화 상황에 따라 지칭성에 변화가 있는 것이 ‘상대적 화시 표현’이라는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 화시 표현의 분류가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7) 조응에는 ‘선행 조응, 후행 조응, 외적 조응’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화시 표현’과 ‘외적 조응’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3.2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화 화시 표현’과 외적 조응의 구분이 궁금하다.

(8) 화시 표현을 ‘발화 참여자, 공간, 시간’ + ‘담화, 사회, 양태’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에서는 ‘사회적 화시’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3.3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높임 관련’ 표현과 연관하여 ‘사회적 화시’는 ‘화청자 관련 화시 표현’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자에 따라 일종의 ‘화청자 관련 화시 표현’의 하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9) 사회적 화시 표현이라는 용어가 어떨지 모르나 이점은 기존에 ‘존대법, 높임법, 대우법’의 차원에서 문법론의 분야에서 다루었던 것을 좀더 확장적으로 화용론의 차원으로 끌어오는 주장이라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동의한다.

(10) 결론적으로 본 발표는 ‘화시 표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화용론에 관심이 있는 토론자의 관점에서는 이 발표는 문법을 형태통사 위주로 보는 것에서 확대하여 화용 차원의 문법론을 위한 또하나의 주장이라고도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 【 제 2 분 과 】

# “무단(無斷), ‘무단(無端), ‘무단(武斷)’의 어휘사”

김양진(고려대)

## 차 례

1. 머리말
  2. 무단(無斷)과 무단(無端)
  3. 무단(無斷)과 무단(無斷)
  4. 무단(武斷)과 무단(武斷)
  5. 맺음말
- 논문초록
  - 참고문헌

### 1. 머리말

한자어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경로로 우리말의 일부로 정착하였다. 그 중심 수입지는 물론 중국이지만 한·중 문화가 처음으로 접촉한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입이 되었다.<sup>1)</sup> 이에 따라 중국 고전에서 사용되던 많은 한자어들이 우리 한자어로 흡수되어 우리말 어휘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 한자어들이 어떤 시기에 우리말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원과 관련한 논의가 고유어 중심의 논의에 그치게 되고 한자어의 어휘사는 국어사의 연구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한사군 설치 이후 한반도의 언어 상황이라든지, 통일신라 이후 당나라의 영향이라든지 원나라 이후 고려 말의 언어 상황, 또 명나라의 절대적 지배 하에 있던 조선 시대의 언어 상황이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중국에서의 중국어의 중심지 이동이나 언어 변화에 따라 우리말에 유입된 한자어의 연원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근대 이후,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말 한자어에 미친 절대적 영향까지를 고려한다면 한국 한자어의 어휘사는 결코 간단히 정리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일본 한자어가 우리 전통 한자어를 대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송민(1989)이나 정광(1989), 신창순(2003, 재판 2007) 등의 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통해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에는 중국 고전에서 사용되다가 우리말에 정착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말에서 새로이 형성된 한자어들과 근대 이후 일본 한자어에서 유입된 것들이 뒤섞여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말 한자어의 역사 가운데 ‘무단’의 동음이의어

1) 심재기(1989), 애산학보 7: 8.

들과 그 파생어 ‘무단하다’, ‘무단히’의 예를 중심으로 이들 어휘사의 편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무단히’의 두 가지 용법(①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②특별한 이유 없이)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무단’의 경우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어와 한국식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와 섞이게 되면서 그 어원이 잘못 인식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무단1(無斷)’, ‘무단2(無端)’, ‘무단3(武斷)’의 어휘사를 밝히고자 한다.

## 2. 무단(無斷)과 무단(無端)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단점거, 무단가출’에서의 ‘무단(無斷)’은 근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소위 일본식 한자어로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근대 이후에 우리는 이 한자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였는데 그 의미가 “까닭없이, 이유없이”의 뜻으로 쓰이던 고려식(한국식) 한자어 ‘무단(無端)’과 혼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말의 ‘무단(無端)’이 일본식 한자어 ‘무단(無斷)’으로 오인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한자어 ‘무단(無斷)’에 대해서 (1)과 같이 풀이하고 “무단 복제”와 “건널목을 무단으로 횡단하다”,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다”와 같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용례로 보아, ‘무단(無斷)’이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1) 무단2(無斷)<sup>2)</sup>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사유를 말함이 없음. ¶무단 복제/건널목을 무단으로 횡단하다/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이 표제어에 (2)와 같이 파생어 ‘무단하다, 무단히’가 부표제어로 달려 있고, 그 의미는 둘다 “사전에 허락이 없거나 사유를 말함이 없음”의 의미로부터 별다른 의미 변화 없이 파생된 것으로 지시되어 있다.

(2) 무단-하다 → 무단2. ¶무단한 일로 말썽을 일으키다/그는 무단한 소리를 해서 남의 비위를 건드린다.

(3) 무단-히 → 무단하다. ¶사람을 무단히 괴롭히다/남의 물건에 무단히 손을 대다/형사는 그러고 나서 만약 무단히 거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용서 없이 구속해 버리고 말겠노라고 위협했다.《손창섭, 낙서족》/무단히 미워하고, 하찮은 일에도 트집을 잡아 구박을 하고 하였다.《채만식, 돼지》

그런데 (2)와 (3)에 쓰인 ‘무단하다’, ‘무단히’의 용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파생의 의미가 어기의 의미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쓰임이 어기인 ‘무단(無斷, 사전에 허락이 없거나 사유를 말함이 없음)’의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을 지닌 ‘무단(無斷)2’은 “무력이나 억압을 써서 강제로 행함”의 뜻을 지닌 ‘무단(武斷)1’과 구별된다. ‘무단정치’ 혹은 ‘무단독제’의 ‘무단’은 ‘무단(武斷)1’의 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한다.

(2)의 용례를 어기로 제시된 ‘무단(無斷)’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맥으로 파악되어야 하나 실제 문장은 그렇게 파악되지 않는다.(사실은 이 단어의 중의성으로 인해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 (4) ① 무단한 일로 말썽을 일으키다 ≠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일(또는 사유를 말하지 않은 일)로 말썽을 일으키다.  
② 그는 무단한 소리를 해서 남의 비위를 건드린다. ≠ 그는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소리(또는 사유를 말하지 않은 소리)를 해서 남의 비위를 건드린다.

(3)에 제시된 ‘무단히’의 용례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은 밑줄을 치지 않은 다른 용례와 의미 차이가 크다.

- (5) 형사는 그러고 나서 만약 무단히 거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용서 없이 구속해 버리고 말겠노라고 위협했다. = 형사는 그러고 나서 만약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거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용서 없이 구속해 버리고 말겠노라고 위협했다.  
(6) ① 사람을 무단히 괴롭히다. ≠ 사람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괴롭히다  
② 무단히 미워하고, 하찮은 일에도 트집을 잡아 구박을 하고 하였다. ≠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미워하고, 하찮은 일에도 트집을 잡아 구박을 하고 하였다.

즉 (6)에서의 ‘무단히’는 (5)의 예문과 달리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유를 미리 말함”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6)의 밑줄 친 ‘무단히’의 의미는 ‘까닭없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4)와 (6)의 예들을 단순히 (1)에 제시된 어기 ‘무단(無斷)’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무단(無斷)’과 다른 단어인 우리 전통 한자어 ‘무단(無端)’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무단’의 파생어 ‘무단하다’가 ‘까닭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의 뜻으로 쓰인 용례를 다음과 같은 민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 <한국의 민요> -고흥 논매는 소리<sup>3)</sup>

에헤라 나아헤헤헤헤에라 방애노자 / 에헤라 나아헤헤헤헤에라 방애노자  
찰떡을 치고 메떡을 쳐서 / 영계잡어 웃짐을 였고  
영계를 잡아서 웃짐을 였고 / 어매네 집으로 다니로 가세  
날 오래난다 날 오래난다 / 산골 처녀가 날 오래난다  
무단한 사람을 오래다 놓고 / 문만 걸고 낮잠을 자나  
세월이 가기는 물과도 같고 /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네

(7)에서 밑줄 친 ‘무단한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 혹은 ‘무관한 사람’의 의미로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에) 연관될 이유/까닭이 없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3) 1990년 전남 고흥군 두원면 관덕리에 사는 앞소리꾼 김오복 씨(당시 68세)로부터 채록한 노랫말. 김오복 씨는 7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던 토박이이며 마을 풍물패의 상쇠이기도 하였다.

<<http://blog.naver.com/ararikim/70002296932>>

‘무단히’가 ‘까닭없이’나 ‘특별한 이유없이’의 의미로 쓰인 예 역시 다음과 같이 쉽게 발견된다.

- (8) ① 첫 여름에 무단히 경찰서로 끌려간 서방님은,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얼토당토 않은 죄에 몰려 괜히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이 지난 뒤에 겨우 놓여 나왔으나, 분풀이는커녕 타고난 천성이라 도둑나무도 못해 오고 꼬박꼬박 사방공사 품팔이나 다녔다.<김동인, >
- ② 네 무단히 산중에 한가로이 놀고 지내는 나를 유인하여 네 공을 나타내려 하니 내 수국에 들어가 놀래던 일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지라<토끼전>

(8①)은 ‘강제로, 억지로’라는 의미와 ‘아무 이유없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나 적어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8②)의 ‘무단히’는 ‘유인하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아무 이유없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문맥이 자연스럽게 ‘강제로, 억지로’의 의미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지 않는다.

‘무단히’가 ‘이유없이, 까닭없이’의 의미로 쓰이는 예는 《세종프로젝트 2007 한민족언어정보화》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의 ‘괜히’ 항목에 다음과 같이 주로 전남 지역의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 (9) ① 무단:시 <전남>
- ② 무단시 <전남>[화순, 함평, 고흥, 진도]
- ③ 무단히 <전남>[장성, 담양, 광주, 화순, 신안]
- ④ 무담:시 <전남>
- ⑤ 무담시 <전남>
- ⑥ 무담씨 <전남>[담양, 광주, 나주, 신안, 완도, 해남, 광양, 보성, 고흥, 순천]
- ⑦ 무담:씨 <전남>
- ⑧ 무담시 <전남>[광양]
- ⑨ 무짚시 <전남>[광양]

《세종프로젝트 2007 한민족언어정보화》(이하 《세종 2007》)의 <문학 작품에 사용된 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도 ‘까닭없이’의 뜻으로 쓰인 ‘무단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용례를 추출해 볼 수 있다.

- (10) ① “무담시 당신이 고상하시게 생겼구만요.” 대문까지 따라나온 아내가 주눅든 것 같은 소리로 말했다.<조정래, 태백산맥, 2001, 1, 163> / 지늬이 뿔갱이 사상을 가졌응게 그 좋은 군정청 통역자리릴 마다했제 무담시 그렸을 리가 있었졌어?<조정래, 태백산맥, 2001, 2, 224>
- ② “이 사람아, 자넨 무단시리 치어죽구 싶은가?”<채만식, 金의情熱, 1987, 489> / 조선문학을 알보고 대단찮아 하고 하기는 할 값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무단시리 들어서, 그것을 멸시를 하고 비방을 하고 하는 데는 결코 유쾌할 수가 없었다.<채만식, 젊은날의한구절, 1987, 69>

- ③ 나 듣는 연애나 말허까, 무단시 비얍맹이로 그 방정맞은 셋바닥 조께 날롱거리지 말란 말이여.<최명희,혼불,1996,1,263>4)

《세종 2007》<문학 작품에 사용된 방언검색프로그램>의 종합설명에서는 이 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하고 있다.

- (11) ① ‘무담시, 무단시’는 주로 전남에서 많이 쓰는 어휘로 표준어 ‘괜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북 출신 채만식의 작품에서는 ‘무단시리’를 쓰고 있다. 최명희의 소설에서 전남 방언 어휘가 많이 보이는 것은 소설에 나타난 언어가 전남과 접촉하고 있는 남원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
- ② ‘괜히’의 의미를 갖는 ‘무담시, 무단시’의 표준어 ‘무단히’는 ‘무단(無斷)하-’에서 파생된 것...

다만 《세종 2007》에서는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여전히 ‘무단’의 뜻을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사유를 말함이 없음.”에서 온 것으로 보아 ‘무단’에서 파생된 ‘무단히’가 구개음화하여 ‘무단시’가 되었다가 다시 ‘무담시’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에 허락이 없거나 사유를 말하지 않는 일”이 “이유나 까닭이 없는 일”로 연결되는 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설명하기에 좋은 예가 《高麗史》에 있어 주목된다.

《高麗史》 <食貨志> 79卷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11) 恭愍王三十一年九月以調度不給增\*歛{斂}於民 大戶米豆各一石; 中戶米豆各十斗; 小戶米豆各五斗名之曰無端米民甚苦之.[無端方言無妨.]

《高麗史》<食貨志>의 위 기사에서는 밑줄 친 ‘無端米’에 대해서 이때의 ‘無端’이 ‘無妨’의 방언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無妨’의 의미를 갖는 고려 한자어 ‘無端’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無端’은 그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내내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던 한자어로 그 의미는 ‘근거나 까닭, 이유 따위가 없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단(無端)’은 고려시대를 포함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에 이르는 국어사의 자료들에서 다음과 같이 폭넓게 확인된다.

- (12) ① 夢覺小庭院冷風漸漸疎雨蕭蕭綺窗外秋聲敗葉狂飄心搖奈寒漏永孤幃悄燭淚空曉無端處是綉衾鴛枕閑過清宵蕭條. 牽情惹恨爭向年少偏饒覺\*??來憔悴舊日風標魂消念權娛事烟波阻後約方遙還經歲問怎生奈得如許無慘.<《高麗史》 71卷 <樂志> 唐樂 臨江仙 條 첫번째 기사>
- ② 出奇 無端<sup>ㅎ</sup>실씩 도즈기 알폴 디나샤 도즈기 뜯 몰라 몬 나니  
變化 無窮<sup>ㅎ</sup>실씩 도즈기 스실 디나샤 도즈기 뜯 몰라 모드니 <《용가》 60, 1447>
- ③ 常이 偈 듣좁고 ㅁ슴 ㅼ디 畁<sup>ㅎ</sup>야 偈 지서 닐오디 無端<sup>히</sup> 知見을 니르와다 相애

4) <세종프로젝트 2007 한민족언어정보화 문학 작품에 사용된 방언검색프로그램>에서는 박경리의 ‘토지’에 찾아 “석이 아부지 정한조라는 사람이 조참관 꼴이 보기 싫어서 진주 땅에 자릴 잡을라꼬 작정하고서 식솔을 데리고 평사리로 갔었는데 무담시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은”의 예를 종합설명에서 더 들고 있다.

着호야菩提를 求호느니 쁘데 一念 아로물 두면 엇데 네 몰로매 건너리오 <<육조법>> 중:081b, 1496>

④ 이시럼 부디 같쌔 아니 가든 못헐소나

無端이 슬터나 남의 毀言을 드럿느냐

저 님아 하 익닭고야 가는 뜻줄 닐너라 <<가곡원류>> 252, 成宗大王>

(13) ① 스둥이 디로호야 꾸지저 곶오디 무단(無端) 노적이 감히 창궐호니 만일 내 병이 니른 고디 너히 반드시 사르잡히미 이시리라<<낙무>> 一:61, 1760>

② 정히 두용을 만나 대매 왈, 무단(無端)호 귀싱녕은 어즈러이고 이제 텃병을 항거 호른 엇디오 <<낙무>> 二:10, 1760>

③ 호물며 累百年 遵行호는 規例오니 만일 約束을 직희지 아니호고 浮沉無常호올작 시면 兩國 사름이 무어슬 의지홀가 시부오니인가 事理가 이러호오매 부디 前日 約束을는 無端이 壞敗치 마오시면 彼此의 多幸호올가 호옵너 <<인어대방>> 8:001b, 1790>

④ 보오되 萬無回聽之意오니 이런 無聊호 일은 업스의 人非堯舜이면 孰能無過리오 호옵거든 그 사름이 호변 잘못홈이 인다 호여도 그만호 일을 허물삼아 無端이 버리기는 알가온 일이옵도쇠<<인어대방>> 10:22b~24a, 1790>

⑤ 나청이 답왈 무단(無端)호 필뷔야 널로 더브러 서르 간섭호미 업거늘 므스일로 감히 와 디덕호는다 호고 창을 드러 마자 싸화 호 함이 못호야셔<<낙북>> 一:11>

⑥ 첩첩한 〃 궁턴지통을 드르니 엇지 참담치 아니며 비분치 아니리오 월환의 부정함을 신누을 삼더니 이제야 꽤 설함을 보리рода 식흥 등 오네 무단니 도주함을 고이 너겨드니 튕의 대절을 잡아 천니 발섭을 감심호도다<18a?양현문1,102>

⑦ 무단이 無端 <<한불자전>>, 1880>

⑧ 무단이 시비하다 無端是非 <<국한회어>>, 1896>

⑨ 西班牙國이 호호 법국과 습호고 荷蘭國人이 호호 米人을 도아 開戰호니 東西 印度와 歐羅巴 海上에 無端히 戰場이 열너 彈雨와 硝煙이 漠漠 蔽天호고 傷者와 死者의 慘酷이 極호는 一片 獨立의 志氣와 球弱의 義氣에 發호야 不得已호 일이라<<소학독>>, 1895>

(12)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에서 ‘無端’이 사용된 사례이고 (13)은 17~19세기에 이르는 근대 국어에서 ‘無端’이 사용된 사례이다. ‘근거나 이유, 까닭 따위가 없음’의 뜻으로 사용되는 ‘無端’의 사례는 명사로서의 용법 이외에도 형용사 ‘無端하다’, 부사 ‘無端히/無端이’ 등의 파생어 형성에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sup>5)</sup>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되던 ‘無端’이 현대 국어에 와서 소멸하게 된 데에는 근대 이후 일본어의 유입 과정에서 ‘無端’과 의미가 유사한 ‘無斷’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로 판단된다.

산세이도[三省堂]에서 출간된 <<다이지린(大辭林)>> 第二版에 따르면 일본어 ‘無斷’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만 19세기 이후에 와서 ‘無端히/無端이’로 용법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14) ① むだん 【無斷】 許しを得ないこと。ことわらないこと。「-で他人の物を借りる」  
「-欠勤」

② むだん [무단] 【無斷】 허락을 얻지 않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음. “~으로 타인의 것을 빌리다”, “~결근”

(14②)는 (14①)에 제시된 일본 한자어 ‘無斷’의 일본어 사전 뜻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단어가 기왕에 사용되어 오던 우리말 한자어 ‘無端’과 혼동을 보인 최초의 예는 문세영(1938)이다. 개화기까지의 모든 어휘집이나 외국어 대역 사전 등에서 ‘無端’으로 인식되었던 이 단어는 일본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語辭典》(1920)에서도 “無端(무단) [名] 理由なきこそ”로 기록되어 있어 이 단어가 근대 이후까지도 ‘無端’으로 올바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선어사전》(1938, 문세영)은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 무단-히 [副] 아무 연통이 없이. 덮어놓고. 無斷.

(15)에 제시된 《조선어사전》(1938)의 ‘덮어놓고’라는 의미로 볼 때, ‘아무 이유없이’ 혹은 ‘아무 까닭없이’의 뜻으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한 이 단어의 뜻풀이에 ‘아무 연통이 없이’라는 의미와 ‘無斷’이라는 한자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전통 한자어의 ‘無端’과 일본 한자어의 ‘無斷’이 혼동을 일으킨 흔적이 뚜렷하다.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로 개명하기 이전)에서 민족의 역량을 모아 편찬해 낸 《조선말 큰사전》 2권(1949 출간, ㄴ~ㄷ)에서 부사 ‘무단히’에 대해 한자를 ‘無端’으로 밝혀 놓고 뜻을 “아무 까닭이 없이”로 해 놓았으며 이희승 편 민중서림판 『국어대사전』(1961)에서도 역시 이 단어의 한자를 ‘無端’으로 밝혀 놓고 뜻을 “아무 까닭이 없이”로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재·김병제의 《표준조선말사전》(1948)과 신기철·신용철의 《새우리말큰사전》(1975) 등에서 ‘무단히’의 한자를 ‘無斷’으로 기록하게 된 것은 문세영(1938)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신기철·신용철(1975, 초판 1974)에서는 그 뜻풀이마저 “아무런 까닭이나 허락없이. 괜히”로 처리하여 ‘아무런 이유없이’의 뜻을 갖는 전통 한자어 ‘無端’과 “허락을 얻지 않음”의 뜻을 갖는 일본 한자어 ‘無斷’의 혼동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데 특히 이 사전에서는 《高麗史》의 ‘無端米’의 예를 사전의 표제어로 포함하여 놓고도 문세영(1938)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無端’에서 근거한 우리말 부사 ‘무단히’를 명사 ‘무단(無斷)’의 부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 사전에 제시된 용례가 “~ 결석하지 말라”인 것을 볼 때, ‘무단 결석(無斷缺席)’의 ‘無斷’과 ‘(어떤 일을) 무단히 ~ 말라’에서의 ‘無端’이 혼동을 일으켰을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애초 이 단어를 ‘무단히(無端-)’로 기록해 두었던 《큰사전》 역시 여러 차례의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말큰사전》(1992)에 와서는 “무단히 [옛] ... 無斷-, 無端-”로 처리하여 마치 이 두 한자어에 쓰인 ‘斷’과 ‘端’이 통용자인 것처럼 처리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재판 1996), 《조선말대사전》(1991) 등으로부터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현대의 국어사전들이 예외 없이 “까닭없이, 이유없이”의 뜻으로 쓰인 ‘무단히(無端-)’를 ‘무단히(無斷-)’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세영(1938)-이윤재·김병제(1948)-신기철·신용철(1975)-금성관 『국어대사전』(1991/1996)-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992)-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999)’<sup>6)</sup>에 이르기까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의 뜻으로 쓰이던 우리말 ‘무단-히’의 한자 ‘無端’이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이던 일본식 한자어 ‘無斷’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현대 국어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무단히’를 ‘無斷’으로 혼동하여 쓰게 된 것이다. 주로 ‘무단한’의 꼴로 쓰이는 ‘무단하다’의 경우도 이러한 혼동의 과정을 거쳐 본래 한자어인 ‘무단(無端)’이 아니라 ‘무단(無斷)’의 부표제어로 기록되게 되었다.

### 3. 무단(無斷)과 무단(無斷)

이상에서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을 뜻하는 한자어 ‘무단(無斷)’이 본래 일본 한자어 ‘無斷’에서 온 것이며 국어사전에서 이 단어의 부표제어로 제시되고 있는 ‘무단하다’와 ‘무단히’의 용례는 대부분 전통 한자어 ‘무단(無端)’에서 기원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준국어대사전』(1999) 등의 사전에 ‘무단1(無斷)’과 ‘무단2(無端)’ 같은 동음이의어로 반영될 때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단’의 파생어 ‘무단하다’와 ‘무단히’의 현대적 용례를 잘 살펴보면 전통 한자어 ‘무단2(無端)’과의 혼동과는 별개의 또 다른 혼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6) 현재 국내에 소몰리에라고 명성을 얻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자신만의 무단한 노력과 열정이 숨겨져 있다.<파이낸셜뉴스, 2007.4.19>

(17) ① 제 컴퓨터가 무단히 자주 다운됩니다. 컴퓨터 쓰지는 3년 정도 됩니다

② 첼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아벨카를 데려오기 위해 무단히 애썼다.<일간스포츠, 2008.2.2>

(16)의 예는 문맥상 ‘부단하다(不斷--)', 즉 “그치거나 끊어지지 않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부단(不斷)하다’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혹은 이 단어에서 ‘무한하다(無限--)’의 의미도 읽히는 것을 보면 이 단어를 ‘그치지 않다’는 뜻의 ‘부단하다’와 ‘한이 없다’는 뜻의 ‘무한하다’의 혼효에 의해 생긴 단순한 오류로 볼 수도 있다.

(17) 역시 비교적 최근의 글들에서 자주 검색되는 용례로써 그 의미는 ‘열심히, 끊임없이’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부단히(不斷-)' 혹은 ‘무한히(無限-)'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 시대 이전의 전통 한문 전적에서 ‘無斷’은 “끊어지지 않음”이라는 한자어의 통사적 용법으로만 사용된 것인데 현대 사회의 글에서 종종 발견되는 “그치거나 끊어지지 않다”의 뜻으로 쓰인 ‘무단한’, ‘무단히’의 용법을 전통 사회의 통사 구성으로 쓰인 ‘無斷’이 어휘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한자의 생산적인 조어력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에서 ‘무단하다’,

6) ‘無斷’과 ‘無端’에 관련한 이러한 문제는 이미 김양진(2008)에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출간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어 있는데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보다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표준성’이 갖는 힘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이 단어의 표준적 대응 한자를 ‘無端’으로 바로잡아 주기 이전에는 민간에서 출시되는 다른 사전들에서 이러한 종류의 잘못을 바로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단히’와 같은 단어에 어근화하여 참여한 새로운 단어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인터넷 환경 등에서 우리말 한자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 의해 ‘무단하다(不斷--)', ‘무한하다(無限--)’의 잘못이나 혼효에 의해 생긴 오류 단어일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치거나 끊어지지 않음”의 뜻으로 쓰인 ‘무단(無斷)’은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이는 ‘무단1-①(無斷)’과는 구별되는 ‘무단1-②(無斷)’로 별개의 표제어로 국어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다.(이 단어가 표준적 용법을 인정받게 되든, 비표준어로 평가되든)

따라서 ‘무단히’는 “그치거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 혹은 “쉬지 않고”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의미상 주로 ‘노력하다’나 ‘애쓰다’, ‘자주’ 등의 단어와 연어를 이루어 쓰이게 된다. 실제로 “무단히 노력하다”를 한국어판 구글(google.co.kr)에서 검색한 결과 3,850개 항목이 검색되었는데, 모든 검색 결과가 “무단히 노력하고”, “무단히 노력을 했다”, “무단히 노력들을 합니다만” 등이 실제 문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無斷に努力する(무단히 노력하다)”를 일본어판 구글(google.co.jp)에서 검색한 결과는 270,000개이나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쓰인 예는 없고, 모두 ‘努力する’의 용례와 ‘むだんで(無斷--)', ‘無斷 転載’ 등에 포함된 ‘無斷’이 서로 상관성없이 함께 검색된 경우가 전부이다. 이는 이러한 용법의 ‘無斷’이 일본어에서 기원한 ‘無斷’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본고의 논리를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4. 무단(武斷)과 무단(武斷)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실제 쓰임에서 ‘무단하다’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발견된다.

- (18) ① 대포동 미사일보다 스위스 축구선수 프라이가 더 무섭다”는 어느 외국 신문의 비아냥거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무단한 걱정이 아니었다. <국민일보 칼럼, 2006.6.25>
- ② 재능 있는 사람, 천재를 부러워했는데 이 상이 주는 의미가 재능은 무단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서울신문, 2010.12.31>
- ③ 너희들이 비록 어리다고는 하나 무단한 절도 행위로써 민폐를 끼치고 경찰관서에 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작은 죄라 할 수 없겠지만 용서를 받았다니 불행 중 다행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성석제, 2004, 아름다운 날들>

(18①)은 ‘까담없는’, ‘괜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무단2(無端)’의 파생어 ‘무단하다(無端--)’의 활용형이다. (18②)는 ‘그치지 않는’ 또는 ‘끝없는’의 뜻으로 쓰인 것이며 ‘무단1-②(無斷)’의 파생어 ‘무단하다(無斷--)’의 활용형이다.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였을 ‘무단1-①(無斷)’의 파생어 ‘무단하다(無斷--)’는 실제 용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서 (18③)의 예는 ‘해서는 안 되는’ 또는 ‘무력을 사용한’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용례로서 이 단어의 한자 대응형은 ‘武斷’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단1-①(無斷)’, ‘무단1-②(無斷)’, ‘무단2(無端)’과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또 다른 동음이의어로 ‘무단3(武斷)’이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무단(武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용례를 보이고 있다.

(19) 무단01 [武斷] ... 무력이나 억압을 써서 강제로 행함. ¶농성 중인 학생들이 총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무단 정책의 일익을 담당한 경찰이 이런 사상범에게 가혹한 고문으로써 대했을 것만은 뻔한 노릇이 아닌가.《황순원, 아버지》

하지만 이 사전에서는 ‘무단(武斷)’의 파생어 ‘무단하다(武斷--)’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③)의 예를 (19)의 ‘무단(武斷)’에서 파생한 단어 ‘무단하다(武斷--)’의 활용예로 보기 위해서는 ‘무단하다(武斷--)’를 별도의 표제어로 선정하든지 (18③)의 밑줄친 용례를 ‘무단 절도 행위’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18③)의 예를 ‘무단 절도 행위’로 바로잡는다면 이 구성에서의 ‘무단’은 “무력이나 억압을 써서 강제로 행함”이라는 뜻의 ‘武斷’과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을 지닌 ‘無斷’의 예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의성은 (19)에 사용된 용례 ‘무단으로 점거하였다’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하지만 어쨌든 (19)의 또 다른 용례 ‘무단 정책’에서는 분명 ‘무단’이 ‘武斷’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단(武斷)’의 의미와 용법 역시 근대 이후 일본 한자어의 유입 과정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예를 든, 산세이도[三省堂] 판 《다이지린(大辭林)》(第二版)에 따르면 일본 한자어 ‘武斷’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ぶだん 【武断】 (名) 슨

①武力を背景にして事を処理したり、政治を行なったりすること。⇔文治

②威力によって勝手な振る舞いをすること。「梟雄の徒富豪の族郷曲に—し/新聞雑誌 40」

(21) ぶだん [무단] 【武断】 (명) --하다

①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정치를 행하거나 함. ⇔문치.

② 위력(威力)에 의해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일. “효옹의 무리 부호의 혈족 향곡에서 ~하고/신문잡지 40”

(21)은 일본어 사전의 뜻풀이 (20)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가운데 (21)② 즉 (20)②의 뜻은 중국의 고전이나 우리의 전통 한문 전적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예이다.

(24) 【武斷】

① 以威勢妄斷是非。《史記·平準書》：“當此之時，網疏而民富，役財驕溢，或至兼并豪黨之徒，以武斷於鄉曲。”司馬貞 索隱：“謂鄉曲豪富無官位，而以威勢主斷曲直，故曰武斷也。”

② 謂妄以權勢獨斷獨行。唐元稹《授劉悟昭義軍節度使制》：“州里行信讓之風，鄉曲除武斷

之患。”宋曾鞏《襄州到任表》：“野有群行之盜，里多武斷之豪。”清蒲松齡《聊齋志異·仇大娘》：“邑人趙閻羅，原漏網之巨盜，武斷一鄉。”

- ③ 只憑主觀作判斷。唐劉禹錫《祭虢州楊庶子文》：“比陽布和，戰地盡闢；壽春武斷，姦吏奪魄。”《兒女英雄傳》第三一回：“那著書的既不會秉筆直書，我說書的便無從懸空武斷。”李大釗《戰後之婦人問題》：“我們中國的女界，對於這世界的婦人問題，有點興趣沒有，我可不敢武斷。”
- ④ 主觀，盲目自信。田北湖《論文章源流》：“吾以古文稱《爾雅》，鮮不疑吾爲武斷，爲狂誕；吾豈無以自信哉？”魯迅《集外集拾遺補編·名字》：“有時也自己想：這實在太武斷，太剛愎自用了。”洪深《這就是“美國的生活方式”》第三幕第一場：“非常傲慢和武斷，是不是？”

- (25) ① 豪強品官，武斷鄉曲，凌虐百姓者，杖一百流三千里(세력있는 품관이 무단으로 향과 부곡에서 백성을 능멸하며 학대하면 장 일백에 유형 삼천리라) <《속대전(續大典)》 5권<형전(刑典)> 금제(禁制) 條>
- ② 今武斷白撰 以爲咬壓之文 仍與初檢官之兩騎作說 爛漫同歸<정약용, 《欽欽新書》 6권 祥刑追儀 自他之分 23>

(24)는 《漢語大辭典》(1994/2001)에 정리된 중국 고전에서의 ‘武斷’의 사례이고 (25)는 국내에서 사용된 ‘武斷’의 사례이다. 미세한 의미차이가 있지만 (25)①은 (24)①②에 해당하고 (25)②는 (24)③④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 한자어에서 ‘武斷’의 뜻에는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의미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하는 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5)①에서처럼 전자는 ‘武斷鄉曲’으로 나타나고 (25)②에서처럼 후자는 ‘武斷白撰’의 사례로 나타난다. ‘武斷鄉曲’이란 “시골에서 세력 있는 사람이 위력으로 백성들을 횡포하게 억압하는 짓”을 의미하며 ‘武斷白撰’은 “글을 제멋대로 짓는 일”을 의미한다. 일본어 (21)②의 예도 이러한 전통적 한자어의 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용례에서 보이는 ‘武斷’의 예들은 근대 이후의 용법에서 나타나는 (19)의 ‘武斷’과 현저한 의미차를 보인다. 현재 쓰이고 있는 ‘무단 통치(武斷統治)’, ‘무단 독재(武斷獨裁)’에서의 ‘武斷’은 일제 통치기에 유입된 일본식 한자어 (19①)의 의미로 전통 한자어인 ‘武斷鄉曲’과 ‘武斷白撰’에서의 ‘武斷’을 밀어내고 국어사전에 자리를 잡게 된 단어이다.

물론 아마도 ‘위력으로’라는 의미를 지니던 전통 한자어 용법의 ‘무단(武斷)’의 용법이 있었기에 ‘무력으로’라는 의미를 지니는 일본 한자어 용법의 ‘무단(武斷)’이 유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위력으로’라는 의미와 용법은 완전히 소멸해 버렸고 ‘무력으로’의 의미와 용법으로 쓰이는 ‘무단 통치’, ‘무단 독재’의 경우만 생산성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는 ‘무단(武斷)’만 등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어대사전이 한국어의 공시적 단어와 통시적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는 종합적 대사전의 개념을 지닌다면 마땅히 ‘武斷’의 역사적 용법 ‘武斷鄉曲’과 ‘武斷白撰’을 포함하는 ‘무단(武斷)’ 역시 표제어로 등재될 만하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 한자어에서 기원한 ‘무단(武斷)’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혹은 ‘군사력으로’의 의미를 지니는 ‘武斷’을 ‘무단3-①(武斷)’로 ‘위력(威力)으로’ 혹은 ‘제멋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武斷’을 “무

단3-②(武斷)<sup>7)</sup>로 구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국어사전에 등재된 한자어 동음이의어 ‘무단’에 대해서 그 어휘사를 논의해 보았다.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국어의 한자어 ‘무단’은 크게 세 가지 동음이의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이는 ‘무단 복제’에서의 ‘무단1(無斷)’이고 다른 하나는 ‘까닭이 없음, 특별한 이유가 없음’의 뜻을 가진 ‘무단2(無端)’이며 마지막 하나는 “어떤 일을 무력으로 함”의 뜻을 가진 ‘무단 통치’에서의 ‘무단3(武斷)’이다. 그런데 현행의 국어사전에서는 대부분 이 가운데 ‘무단1(無斷)’과 ‘무단2(無端)’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대개 이 두 단어는 ‘무단(無斷)’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단(無端)’은 이미 《高麗史》 79卷 <食貨志>에서 분명히 우리말 방언임을 밝혀 둔 바 있는 고려식 한자어로서<sup>8)</sup> 현대 국어에는 전라 방언에 ‘무담시, 무단시, 무담시리’ 등의 형태로 남겨져 있는 ‘무단1(無斷)’과는 전혀 별개의 형태소이므로 표제어를 분리하여 따로 다룰 단어이다.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또 한 가지 논의는 ‘무단1(無斷)’의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이는 ‘무단1-①(無斷)’과 현대 국어에서 새로이 조어되어 “그치지 않거나 끝이 없음”을 뜻하는 ‘무단1-②(無斷)’이 별개의 표제어로 구별되어야 하며 국어의 역사적 단어를 포함하는 종합국어대사전이라면 “어떤 일을 무력으로 함”을 뜻하는 ‘무단3-①(武斷)’과 “어떤 일을 위력으로 함” 또는 “어떤 일을 제멋대로 함”의 뜻을 갖는 ‘무단3-②(武斷)’가 별개의 표제어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논문초록:

‘무단점거, 무단가출’에서의 ‘무단(無斷)’은 근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소위 일본식 한자어로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무단 통치, 무단 독재’에서의 ‘무단(武斷)’ 역시 근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소위 일본식 한자어로 “무력이나 억압을 써서 강제로 행함”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이 단어들과 상관없이 개화기 이전에 이미 우리말에 “이유나 까닭이 없음”의 뜻을 지닌 전통 한자어 ‘무단(無端)’과 “무엇을 위력으로 행함” 또는 “무엇을 제멋대로 함”의 뜻을 갖는 한자어 ‘무단(武斷)’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 이후 일본 한자어 ‘무단(無斷)’과 ‘무단(武斷)’의 영향으로 우리말 속의 전통 한자어 ‘무단(無端)’, ‘무단(武斷)’의 어휘와 용법이 현대 국어에 연결되지 못하여 국어사전의 표제어 자격을 잃게 되었다. 다만 ‘무단(無端)’의 경우, ‘무단히’와 ‘무단한’의 용법으로 ‘무단히(無斷-)’와 ‘무단하다(無斷--)’의 용법 속에 통합되어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근대 개화기 이후 우리말 한자어들이 일본 한자어에 세력을 상실하

7) ‘무단3-②’의 예는 ‘향민무단(鄉民武斷)<추관지>과 같은 다른 예들이 더 있으므로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구 단위를 이루는 어근의 차원에서 표제어로 등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고려 시대 한자어로서의 ‘무단(無端)’에 대해서는 김양진(2008)의 논의를 참조할 것.

게 된 과정의 한 실상을 동음이의어를 이루는 ‘무단(無斷)’, ‘무단(無端)’, ‘무단(武斷)’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대 국어 어휘 연구에서 한자어의 전통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대 국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끝이 없음”이라는 뜻의 ‘무단(無斷)’이 존재함을 보이고 이를 근거로 현대 국어의 ‘무단(無斷)’이 ‘무단1(無斷,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음)’과 ‘무단2(無斷, 끝이 없음. 끝나지 않음)’으로 나누어짐을 보이고 이들 4단어가 서로 동음이의어를 이루며 존재하는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단어를 포함하는 사전이라면 “무엇을 위력으로 행함” 또는 “무엇을 제멋대로 함”의 뜻을 갖는 한자어 ‘무단(武斷)’ 역시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어휘: 어휘사, 한자어, 일본 한자어, 한국 한자어, ‘무단1(無斷)’, ‘무단(無端)’, ‘무단(武斷)’, ‘무단2(無斷)’

## ■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
- 金亮鎭. 2010. “韓國語 속의 漢字語 三國志”, 『語文生活』 152. 사단법인 한국어문화.
- 羅竹風 主編. 1994/2001. 『한어대사전』 . 한어대사전 출판사.
- 문세영. 1938. 『조선어사전』 . 朝鮮語辭典刊行會.
- 박영섭. 1986. 國語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심재기. 1976. “漢字語의 傳來와 그 起源的 系譜”,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
- 심재기. 1989.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애산학회.
- 조선총독부. 1920. 『朝鮮語辭典』 .
- 홍중선·최호철·한정환·최경봉·김양진·도원영·이상혁. 2009. 『국어 사전학 개론』 . 제이앤씨.

## ‘무단(無斷)’, ‘무단(無端)’, ‘무단(武斷)’의 어휘사

박형우(한국교원대)

이 논문은 한자어 유입과 관련하여 그 의미 대응 관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특히 ‘無斷’과 ‘無端’에 대해 일본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개별 단어의 어휘사를 밀도 있게 정리하여 차후의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토론자의 과문함 때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에서 우리의 한자어에 대해 크게 ‘전통 한자어’와 ‘일본 한자어’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일본 한자어를 따로 분류한다면 이전의 한자어들도 각각 다른 계통으로 나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일본 한자어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어가 전통 한자어로 분류된 듯한데 이렇게 되면 ‘전통’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기별 한자어 유입 과정을 고려한다면 근대에 우리에게 유입된 일본 한자어가 매우 제한적일 텐데 ‘무단’을 일본 한자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로 논문에서 ‘無斷’에 대해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사유를 말함이 없음.”이란 사전적 정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음.”으로 그 정의가 바뀌어 있다. 그런데 (6)의 경우 ‘사전에 허락이 없음’이란 의미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유를 말하지 않음’이나 ‘아무 사유가 없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요 등에서 ‘이유/까닭이 없는 : 관계없는 : 무관한’ 등에 관계에 대해서는 의미 파생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허락이 없음 또는 사유를 말함이 없음 : 아무 사유가 없음 : 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미적 파생으로 볼 수 없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실 이 문제는 ‘武斷’과 관련하여 ‘위력으로’와 ‘무력으로’라는 의미차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를 ‘힘에 의해 강제로’ 정도로 설정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셋째로 논문에서 ‘無端’의 의미를 ‘근거나 까닭, 이유 따위가 없음’으로 보면서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의 예인 (12②)의 “出奇 無端호실씩”의 경우에는 허웅(1955:236)과 李胤錫(1994:66)에서는 ‘끝이 없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13③)을 비롯한 몇몇 예는 ‘사유를 말함이 없음’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통 한자어 ‘無端’의 의미를 연구자가 밝힌 의미로 한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전은 아니지만 민중서림의 漢韓大字典에서는 ‘無端’의 의미에 대하여 “① 단서가 없음, 처음과 끝이 없음 ② 뜻밖에, 의외로”로 보고 있다.

넷째로 논문에서 “그치거나 끊어지지 않음”의 뜻으로 쓰인 ‘無斷’을 현대 조어이므로 별개의 표제어로 국어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 한자어라고 보고 있는 ‘無端’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미로 쓰인 예가 이미 15세기 자료 ‘능엄경언해’에서 보이는데(부터와 달오미 업거늘 근업시(與佛無別無端)《능엄 4:33》/이 사르미 근업시 說法

혹은 고대(是人無端於說法處)《능엄 9:10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의미의 표제어를 ‘無斷’이 아니라 ‘無端’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이러한 예는 앞에서 논의한 ‘無端’의 의미를 한정하는 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깊은 연구를 해 오신 발표자께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안을 기대하며 토론을 마친다.



# 바위와 관련된 지명의 고찰

조재형(중앙대)

## 차 례

1. 머리말
  2. ‘바위’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3. 현대 바위 지명 검토
  4. 고대국어 시기의 ‘바위’ 관련 지명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바위’와 관련된 지명을 관찰하고 ‘바위’와 지명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고대지명에서 발견되는 ‘바위’ 관련지명과 대응되는 훈독표기와 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국어에 있어서 지명은 국어사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 지명을 살펴봄으로써 1차적으로는 지명의 명명과정을 살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의 어형을 추측해볼 수도 있으며, 또한 당시 한자의 訓과 音을 재구해 낼 수 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지명은 대개 방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사한 중부지방의 지명과의 비교를 통해 어휘 변천 과정을 통찰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운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 일부 어휘의 고어형태를 재구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본고의 주논의 대상인 ‘바위’ 관련 지명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고대지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현대국어의 바위 관련 지명과의 비교를 통해 ‘바위’의 형태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바위’ 관련 지명을 찾아 바위와 지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바위의 방언형과 표준어인 바위와의 관계를 형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고대국어 시기의 ‘바위’ 관련 지명과의 비교를 통해 왜 그러한 지명을 획득했는가와 ‘바위’의 형태적 변천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바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하며, 3장에서는 현대지명 중에서 ‘바위’ 관련 지명을 다루고자 하며, 4장에서는 2장과 3장을 통해 얻은 소결론을 이용하여 ‘바위’와 관련된 고대지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지명과 지역명은 모두 ‘한글학회編(1991), 한국땅이름큰사전’을 이용하였다. 바위 관련 지명을 조사함에 있어 가급적 ‘한국땅이름큰사전’에서 해당지명의 설명에 ‘바위’를 설명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 지명을 다루었고, 특이한 경우에는 본문에 설명을 추가하였고 ‘바위’와 관련된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땅이름큰사전’에는 남한의 이명만을 다루고 있기에 본고에서 다루는 지명은 남한 지명에 국한되며,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바위 관련 지명을 다 기재하지 못했다. 다만, 가급적 전국적인 분포도를 가진 지명은 그 중 한 지명만 본문에서 제시하였으며 분포도를 보여주기 위해 각주에 일부 지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지명을 제시할 경우에는 ‘지명, 의미, 지역주소’의 순서로 제시하였고 특이한 경우는 ‘지역’ 뒤에 ( )안에 그 이유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해당 지명이 있는 ‘지역주소’의 경우는 현재주소가 아닌 ‘한국땅이름큰사전’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2. ‘바위’에 관한 先行 研究 檢討

지금까지의 ‘바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語形의 變遷 過程에 대한 것이었다.

- (1) ① 紫布岩乎辻希<獻花歌 1>  
 ② 巖房 바회방<龍歌 1:46>  
     巖은 바회라<釋詳 6:44>  
     바회 암巖<訓蒙 上:3>

‘바위’와 관련된 논의는 鄉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小倉進平(1929/1974), 梁柱東(1942), 李鐸(1958), 김선기(1973), 金完鎭(1980)에서는 위 ① ‘岩乎’를 ②의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바위’ 어형인 ‘바회’를 따라 ‘바회’로 해독하였다. 홍기문(1957)은 ‘乎’의 讀音을 그대로 반영하여 ‘바호’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바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解讀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의 고구려 지명표기 ‘波衣, 波乎’에 대해서도 그대로 踏襲한 것으로 보인다.

李基文(1961/1998:46)에서는 고구려어와 중세국어는 顯著한 語彙의 一致를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波乎(파혜), 波衣(파의), 巴衣(巖), 바회(巖)’를 동일 표기로 제시하고 있다. 李正龍(2002:190-194)에서도 ②를 근거로 ‘巖’을 의미하는 ‘波乎’, ‘波衣’가 異表記로 기록된 이유를 ‘語中 /ㅎ/이 弱化 脫落된 음운 현상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記述하고 있으며, 이는 方言的 差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上述한 바와 같이 ‘바위’의 先代形<sup>1)</sup>을 ‘바회’로 제시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후기중세국어의 어형 ‘바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岩乎’의 ‘乎’의 고대국어 시기의 독음을 후기중세국어 시기 및 현재와 동일하게 [호]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sup>2)</sup>

고대국어시기의 한국한자음은 당시 중국 上古音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sup>

1) 대개 고대국어 시기의 어형을 말한다.

2) 李崇寧(1955:75)에서는 신라시대의 한자음과 조선 초기의 한자음은 大差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鄭卿一(2003)에서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韻書인 ‘華東正音通釋韻考’와 ‘奎章全韻’에 收錄된 正音과 俗音을 비

中國 上古音<sup>4)</sup> 時期의 牙音과 喉音에 대해 錢大昕의 ‘古喉牙雙聲說’, 章炳麟의 ‘古音雙聲說’, 黃侃의 ‘深喉淺喉說’, 王力的 ‘見溪群疑曉匣影 喉音說’, 陳新雄의 ‘群紐古歸匣紐說’ 등은 당시 중국어의 아음과 후음이 分化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鄭卿一(2003:47-48)에서도 音韻的 類似性으로 인해 아음과 후음이 音素的으로 뚜렷이 변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다음의 자료는 국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 骨正 一作忽爭<三史 卷2>

위 예에서 ‘骨正’ 과 ‘忽爭’이 동일대상을 音寫한 것이라면 ‘骨 : 忽, 正 : 爭’이 각각 대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骨(골) : 忽(홀)’의 대응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많다. 특히 ‘說文解字’에서는 ‘忽’을 半切로 표기함에 있어 聲母字로 ‘呼’로 제시하고 있다. 즉 ‘呼’의 聲符인 ‘乎’의 상고음의 聲母가 [k/g]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岩乎’는 중세국어 어형인 ‘바회’와 다를 가능성이 濃厚하다.

이런 논의는 일찍이 김형규(1974)에서 시작되었다. 김형규(1974:11)에서는 중간 [g]가 있는 방언이 경상도와 일부 다른 지방에 있는 것을 근거로 ‘바회’의 기원을 ‘\*바구’로 재구하였고, ‘pagu(바구) > pahö(바회) > pa-u(바우)’의 변천 과정을 제시했다. 김정태(2009)에서는 (1)의 ‘岩乎’를 ‘바호’로 읽으면서도 /ɣ/의 음운사를 고려하여 ‘바위’의 기원형으로 ‘\*pako(pakV)’를 재구하였다.<sup>5)</sup> 조재형(2009)에서는 중국 상고음에서의 ‘衣’의 음가를 조사하면서 상고음 시기의 ‘衣’의 성모는 [Ø]가 아님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승용(2003:93-122)에서 /h:/k/ 대응에 內在된 변화가 중세국어 이후의 /h/>/k/가 아니고, 중세국어 이전의 /k/>/h/였다고 지적하면서 /h:/k/ 대응에서도 경상방언의 /k/를 중세국어보다 앞선 단계라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바위’의 방언형 ‘바구, 박, 바기’를 제시하면서 고대국어 시기의 지명 자료에 사용된 ‘波衣’의 ‘衣’의 聲母를 [k]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의 공통점은 ‘바위’의 방언형이 선대형임을 주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로 ‘/k/>/h/’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한편, 兪昌均(1994:262-263)에서는 고구려 지명표기 ‘波衣, 波兮’의 비교 논의를 통해 ‘방고’<sup>7)</sup>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衣’의 中國 上古音 [g]를 내세우고 있다. 즉 ‘衣’의 상고음 성모는 [g], ‘兮’의 상고음 성모는 [ɣ]로 보고 ‘g-(衣)>ɣ-(兮)’의 變遷을 지적하고 있다. ‘兮’의 聲母를 김동소(1998:78-79)에서는/k/로, 김종학(2004:64)에서는 /x/로 재구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고대지명 자료에 나오는 ‘兮’의 음가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교하면서 한국한자음에 중국 상고음이 反映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4) 중국 상고음 연구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태완(1999:35-38)을 참조.
- 5) 김정태(2009)에서 바위의 기원을 ‘\*pakV(바구)’로 재구하면서 향가의 ‘岩乎’를 ‘바호’로 보는 점의 문제점은 ‘ㄱ’ 약화 현상의 시작을 언제로 보는가이다. 국어음운사에서 ‘ㄱ’의 약화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문헌상의 기록을 보았을 때, 이승재(2002:9-29)에서는 구결표기의 변천을 관찰하여 ‘/k/>/h/>/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6) 어중 /ɣ/의 실현 양상은 이상규(1998/2007:101)에서 ‘모래/물개, 시다/시구렵다’ 등을 근거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남방언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음운 현상은 동남방언만의 특징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얼레빔/엷개빔(경기도)’, ‘시렁/실경(전남)’ 등의 형태가 동남지역 외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방언의 ‘수레/술기’, ‘그네/굴기’, ‘머루/멀기, 멀귀’ 등의 형태는 동북방언형이 중세국어형보다 古形態임을 보여주고 있다.
- 7) 兪昌均(1994:262-263)에서는 聲母에 있어서 ‘·-ɣ-’의 대립을 보이거나 보다 이른 시기에 소급하면 ‘·-’는 ‘g-’에 소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日谿縣 本熱兮縣 或云泥兮 景德王改名 今未詳<三史 卷34>

한편, 위 예에서 ‘谿’와 ‘兮’의 대응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최미현(2000:91-93)은 ‘谿’의 상고음 성모 ‘溪/k’-’는 국어에서 [k(ㄱ)]로 반영되며, ‘兮’의 상고음 성모 ‘匣/x’-’도 [k(ㄱ)]로 반영되지만 당시의 신라한자음이 중고음 基層이므로, ‘兮’의 음을 ‘혜’로 把握하였다. 최남희(2003:20-21)에서도 ‘兮’의 상고음 성모 ‘匣/x’-’까지도 [h(ㅎ)]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미현(2000)에서는 ‘兮’의 중고음 성모 ‘匣/x’-’을 국어에서 [k(ㄱ)]로 반영된다고 설명하면서 신라 한자음의 기층음을 왜 중고음으로 보는지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다. 중고음은 중국 隋唐時代의 한자음을 말하는데, 신라의 삼국통일 후, 羅唐 간의 많은 교류로 인해 모든 통일신라시기의 한자음이 중고음을 반영한다는 것과 통일신라 이전의 한자음까지 중고음을 반영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최남희(2003)의 문제는 ‘兮’의 상고음 성모 ‘匣/x’-’까지도 [h(ㅎ)]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波兮, 波衣, 巴衣’의 중세국어가 ‘바희’를 제시하면서 해당 고구려어를 ‘바이, 바희’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추정의 이유를 중세국어 어휘 ‘바희’ 외에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두 논의의 결과를 受容할 수 없다.

한편, 이장희(2003:234-235)에서는 6세기 신라 자료에서 보이는 人名接辭를 논의하면서 ‘支, 兮, 只’의 互用에 대해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4) ① 漢只伐部<雁鴨池 出土 調露二年銘瓦磚680>  
: 漢祇部<三史 新羅1 儒理尼師今 9年>  
② 伎伐浦 一作 只火浦 又白江<三遺 紀異1 太宗春秋>  
③ 支溥縣 本只多村<三史 卷37>, 支牟縣 本只馬馬知<三史 卷37>  
④ 三岐=三支(麻杖)<三史 卷34>  
⑤ 多岐=多只<三史 卷36>  
⑥ 伊伐支縣<三史 卷35>, 伊伐兮停<三史 卷40 雜志9 職官下武官>

위 예를 통해 ‘只 $\alpha$ 祇 $\alpha$ 伎 $\alpha$ 岐 $\alpha$ 支 $\alpha$ 兮’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只, 支’는 전승한자음이 [지]이나 고대국어자료, 향가, 구결 자료에서의 음은 [기]이다. 또한 ‘祇, 伎, 岐’의 전승한자음은 모두 [기]라는 점에서 ‘兮’의 고대국어시기의 한자음이 후기중세국어시기의 한자음 ‘혜’와 동일하다는 최미현(2000)과 최남희(2003)의 논의를 반박할 수 있다.<sup>8)</sup> 한편, 다음의 예도 참조할 만한 좋은 자료이다.

(5) 客連郡 客一作各 一云加兮牙<三史 卷37>

위 예에서 ‘客 = 各 = 加兮’의 대응을 볼 수 있는데 ‘兮’는 ‘客, 各’의 운미[k]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논의를 통해서 ‘兮’의 聲母가 신라한자음에서 [k]이고, 당시에 有無聲音의 변별이 없다는 假定下에 고대국어 시기의 ‘波兮’는 후기중세국어의 ‘바희’와는 다른 音價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이장희(2003:235)에서는 ‘只, 支, 兮’가 牙音系와 호용되는 것은 상고음을 바탕으로 했고 따라서 ‘只, 支, 兮’는 8세기 중엽까지는 상고음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남희(2003:17-18)에서는 ‘岐’의 상고음 성모 ‘群/g’-’는 국어에서 [k(ㄱ)]로 반영되며, 따라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에서의 ‘岐’의 음을 ‘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점은 이장희(2003)의 논의와 비교하여 최남희(2003)의 논의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李基文(1961/1998)의 의견을 좇아 고대국어 시기의 ‘바위’의 어형을 ‘바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고대국어 시기의 ‘바위’ 어형은 ‘바회’보다는 ‘pakV’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언상에서도 ‘바구, 바기, 박’ 등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3. 현대 바위 지명 검토

현대 바위 관련 지명을 검토함에 있어 바위의 방언형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바위의 방언형으로는 ‘바위, 바우, 바오, 바이, 바구, 방구, 방우, 박’<sup>9)</sup>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파우, 파구, 팡구, 팡우’의 방언형은 ‘한국땅이름큰사전’ 자체가 남한지역명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김정태(2006:34-35)에 따르면 지명은 전부지명소(전부지명형태소)와 후부지명소(후부지명형태소)의 구조로 분석될 수 있다. 전부지명소는 지명 명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래를 간직하고 있어 해당지명어의 본 의미와 근원적인 형태를 재구하는데 중요하고, 후부지명소는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인 명명 대상이며 구분된 땅이다. 김정태(2006)의 설명을 ‘바위’ 관련 지명에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바위’ 관련 지명을 분류할 수 있다.

- (6)<sup>10)</sup> ① 전부지명소 + ‘바위’(A형)  
 ② ‘바위’ + 후부지명소(B형)  
 ③ 전부지명소 + ‘바위’ + 후부지명소(C형)

A형은 일반적으로 ‘바위’를 가리킨다.<sup>11)</sup> ‘한국땅이름큰사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A형은 다음과 같다.

- (7) ① 감바위 바위 경기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각시바위 바위 충남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갓바위 바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개바위 바위 충남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거목바위 바위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수청리  
 ② 감바우 바위 강원 강릉시 강문동<sup>12)</sup>  
 ③ 농바구 바위 경남 진양군 진성면 온수리<sup>13)</sup>  
 ④ 벼락방구 바위 경북 청도군 매전면 두곡리  
 벼락방구 바위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⑤ 넙박(넙바위) 바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  
 돌박(회압) 바위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맹끈박 바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송솔박 바위 경남 진주 망경남동

9) 바위의 방언형은 김정태(2006)과 조재형(2009)에서 제시한 형태를 중심으로 취사하였다.

10) 논의상 편의를 위해 ① ‘전부지명소 + 바위’를 A형으로, ② ‘바위 + 후부지명소’를 B형으로, ③ ‘전부지명소 + 바위 + 후부지명소’를 C형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11) ‘한국땅이름큰사전’에서는 ‘바위’를 지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12) 경북 상주군 이안면 아천리, 전북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육곡리 등.

13)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동, 전남 승주군 상사면 용계리 등.

- 안산등박 바위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동
- 오두박 바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 ⑥ 끈지바기 바위 전남 승주군 송광면 삼청리(곤두박힌 모양의 바위)
- 부엉이바기 바위 경남 하동군 아악면 정동리(부엉이가 살았던 바위)
- 애기바기(예기암) 바위 경남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 ⑦ 배락바이 바위 경남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 서바이 바위 경남 통영군 도산면 저산리
- 세바이 바위 경남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7)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형은 ‘전부지명소’가 후행하는 ‘바위’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부지명소’는 후행하는 ‘바위’의 특성, 즉 그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된다. 이는 표준어인 ‘바위’에 국한되지 않고 방언형이 ‘바우, 바구, 방구, 박, 바기, 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A형은 일반적으로 ‘바위’를 가리키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 (8) ① 감바위 마을 경기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 갓바위 마을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 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 개바위 마을 경북 울진군 평해면 거일리
- 거목바위 골짜기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수청리
- 두바위 골짜기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두바위가 있는 골짜기
- ② 감바우(현암) 마을 전남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sup>14)</sup>
- ③ 농바구 마을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리, 전남 순천 옥천동
- ④ 굴방구(운암리) 마을 경남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 돌방구 들 경기 이천군 울면 고당리
- ⑤ 구리박 골짜기 경북 상주군 공검면 예주리
- 돌박 등성이 경북 경산군 압량면 의송동(돌이 박혀 있음)
- 돌박 마을 경북 경주 진현동(돌이 많이 박혀 있음)
- 두루박 고개 경남 거제군 일운면 망티리
- 명마박 골짜기 충북 음성군 금왕면 백야리(명마바위가 있음)
- 벌박 골짜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벌 안에 큰 바위가 있음)
- 선돌박 골짜기 경남 양산군 서생면 서생리(큰 바위가 서 있음)
- 솔두박 골짜기 경남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큰 소나무가 서 있었음)
- 알넌되박 산 경북 경산군 진량면 마곡동(알넌고개가 있음)
- 오솔박 골짜기 경남 양산군 웅산면 주진리(오솔바위가 있는 골짜기)
- 오지박 골짜기 경남 거제군 동부면 학동리
- 장수박 고개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 큰돌박 산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송정박(송장박) 들 전남 승주군 외서면 화전리(송장바위가 있었음)
- 황정박(황정바우, 황정촌) 마을 강원 삼척군 하장면 숙암리(황장나무와 바위가 많음)
- ⑥ 남성바기 산 전남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
- 바래바기 산 경북 영천군 산천
- 바위바기 산 서울 강서구 고덕동
- 잔돌바기 마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남성바기 산 전남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
- ⑦ 솔바이 골짜기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 장군바이 산 경북 경주 보문동

위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A형은 ‘바위’ 외에도 ‘마을, 골짜기, 산, 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모두 특정 바위가 해당 지역의 마을, 골짜기, 산, 들에 있기 때문에 명명된

14)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동(현암), 경남 진양군 미천면 월암리(월암리), 경남 함천군 가회면 둔내리(감암), 강원 신림면 황둔리,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동 등.

것으로 보이며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거북바위’라는 지명은 총 53개인데 그 중 13개가 ‘바위’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전체의 24%이며, ‘굴바위’는 총 90개 중 6개가 ‘非바위’ 지명으로 6%, ‘여시바위’의 경우는 총 90개중 3개로 3%, ‘범바위’는 345개중 39개로 11%에 불과하다. 이런 A형 중에서의 ‘非바위’ 지명은 후술할 C형(전부지명소 + ‘바위’ + 후부지명소)에서 ‘후부지명소’가 생략되거나 ‘전부지명소 + 바위’가 그 의미를 확장하여 ‘후부지명소’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형은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바위’가 후행하는 ‘후부지명소’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B형은 ‘바위 + 후부지명소’의 구조이기 때문에 ‘후부지명소’의 의미에 따라 B형의 의미가 결정된다.

- (9) ① 바위골 마을 강원 원주시 단계동(바위가 많음)  
 바위내 마을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뒷산에 바위가 많고 앞에는 내가 있음)  
 바위늪 늪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굴바위 앞에 있는 긴 늪)  
 바위뒤 들 경기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동동산바위 뒤에 있는 들)  
 바위모퉁이 모퉁이 경기 파주군 문산읍 운천리(바위배기 서쪽에 있는 모퉁이 바위가 박혀 있음)  
 바위뫼 산 경북 산천<sup>15)</sup>  
 바위배미 논 광주 남구 대촌동(바위가 있음)  
 바위뺨 논 충남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바위가 박혔음)  
 바위봉 산 경기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바위가 많음)  
 바위샘 돌샘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바위소구미 소 경기 남양주군 수동면 수산리  
 바위재 고개 경기 고양군 벽제읍 설문리(바위가 있음)  
 바위절 절(암사) 충남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바위 위에 절이 있었다 함)
- ② 바우고개(암치재) 고개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바우골 골짜기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토현리<sup>16)</sup>  
 바우논 논 전남 강진군 옴천면 황막리  
 바우물 우물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바우밀 마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갯나무골 동남쪽 절벽 밑에 있는 마을)  
 바우밭 밭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바우산 산 강원 춘성군 산천<sup>17)</sup>  
 바우실 마을 경북 영주군 장수면 갈산리<sup>18)</sup>  
 바우재 고개 강원 횡성군 둔매면 마암리, 경북 문경군 산북면 소야리
- ③ 바구골 골짜기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바구멀 마을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동  
 바구산 산 전남 광양군 봉강면 신흥리  
 바구실 골짜기 전남 승주군 송광면 봉산리  
 바구재 고개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바구논 논 광주 남구 칠석동<sup>19)</sup>
- ④ 방구꼰 마을 경남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방구동 마을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방구모퉁이 모퉁이 경북 봉화군 봉화면 삼계리  
 방구모퉁이 모퉁이 충북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방구모퉁이 모퉁이 경기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방구모퉁이 모퉁이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율리  
 방구모퉁이 모퉁이 충북 진천군 이월면 가산리

15) 경북 예천군 풍양면 혼효리, 충북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강원 양양군 산천 등.

16)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경북 문경군 문경읍 용연리, 강원 삼척군 하장면 토산리 등.

17) 경기 여주군 산천, 경북 예천군 풍양면 혼효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등.

18)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강원 원성군 소초면 수암리 등.

19) 경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등.

- 방구밭 밭 경기도 야주군 잠동면 창안리  
 방구산 산 전남 함평군 산천<sup>20)</sup>  
 방구섬 섬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바위처럼 생겼음)  
 방구소 소 강원 삼척군 장성읍 철암리  
 방구자리 밭 충북 보은군 회북면 부수리  
 방구재 고개 전남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⑤ 방우골 골짜기 경북 경주 양남면 환서리<sup>21)</sup>  
 방우는 논 경남 울주군 두동면 이진리  
 방우들 들 경북 울진군 평해면 금음리  
 방우매깃골 골짜기 경북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방우밑(암저촌) 마을 경북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마을 뒤에 큰 바위가 있음)  
 방우산 산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방우재 고개 경북 영주군 이산면 신암리  
 방우땃골 골짜기 경북 울진군 울진면 후정리  
 ⑥ 바위피 마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바위아가리 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군자리(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음)  
 바위안 산 대전 서구 흑석동  
 바위우물 마을 서울 마포구 마포동(바위 틈에 있는 우물 박우물)  
 바위재 마을 경기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바위재(밑에 있는 마을)  
 바위재 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초평리  
 바위절 마을 경기 안성군 서운면 동촌리(바위 밑에 절이 있었다 함)  
 바우개(암포) 마을 전북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바위가 많음)  
 바우골(방화동) 마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바우재 마을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곡리  
 바우절 마을 전북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바오굴 마을 전북 옥구군 성산면 둔덕리  
 방구등 산 전남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방구두들 마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바위가 있는 둔덕에 있음)  
 방구머리 모퉁이 경북 문경군 호계면 구산리, 충북 진천군 진천면 신정리

위 (9)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B형은 ‘바위 + 후부지명소’의 구조인데, ‘섬’ 지명만이 바위모양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지명을 획득한 것이고, 대부분의 B형 지명은 ‘후부지명소’에 큰 바위가 있거나, 바위나 돌이 다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자연지형물(바위)이 존재하기에 특정 지명을 획득한 것이다. B형 지명에서도 A형 지명과 동일한 의미형식의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9)의 ⑥의 경우는 ‘지명’이 ‘후부지명소’의 의미와 관련이 없다. 既述한 바와 같이 A형의 ‘非바위’ 지명은 C형(전부지명소 + ‘바위’ + 후부지명소)에서 ‘후부지명소’가 생략되거나 ‘전부지명소 + 바위’가 그 의미를 확장하여 ‘후부지명소’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았는데, (9)의 ⑥은 ‘후부지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후부지명소’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바위 + 후부지명소’가 특정 지명을 가리키다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운 의미의 ‘지명’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20)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대구 북구 국우동, 전남 나주군 공산면 동촌리 등.

21) 경북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등.

22) 한편 B형으로 보이는 ‘과구정(바위 경남 산청군 차황면 양곡리)’이 있다. ‘과구’는 일반적으로 ‘바위’의 방언형으로 어두 ‘바’의 유기음화형이다. 김병제(1980)에 따르면 어두음절 ‘바’의 유기음화형으로 ‘과구, 파우, 팡구, 팡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유기음화현상은 김병제(1980:144-148)에 따르면 주로 북한지역에서만 보이고 있다.

방석 : 광석(황북, 평남, 자강)

변소 : 편소(황북, 자강)

부추 : 푸초(함남, 평북)



다음은 C형의 예이다.

- (10) ① 각시바위고개 고개 충남 보령군 천북면 신덕리  
 감바위나루(감암포나루 감암진) 나루 경기 김포군 김포읍 운양리  
 개바위산 산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농바위굴 골짜기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눈바위물(와암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바위가 누워있는 밑에서 물이 나옴)  
 매바위산(응암산) 산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매바위가 있음)  
 보딩이바위재 고개 경북 영주군 단산면 병산리
- ② 가로진바우재(횡암재) 고개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가막바우소 소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류리  
 가매바우산 산 전북 군산 비응도동  
 각수바우오름 산 제주 서귀포 산천  
 삿갓바우굴 골 경북 상주군 낙동면 상촌리  
 새기바우굴 골 강원 원성군 문막면 동화리  
 새섬바우굴 골 경남 사천군 사남면 계양리  
 생이바우계 들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서덕바우들 들 경기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 ③ 감바구동산 산 제주 제주시 아라2동  
 막바구새미 우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매물바구소 소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자동바구산 산 경남 통영군 산양면 저림리  
 지방바구보 보 전남 승주군 쌍암면 신성리
- ④ 깨방구샘 우물 경북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돌방구산 산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비락방구고개 고개 경북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  
 큰방구계 산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 ⑤ 말뚝방우산 산 경남 밀양군 산이면 엄광리  
 불췌방우새미 우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  
 붉은방우들 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선방우굴 골짜기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 ⑥ 각시박골 골짜기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각시바위가 있음)  
 감박들 들 광주 서구 행암동(감바위 앞에 있는 들)  
 감박산 산 강원 원성군 호저면 만종리(감바위가 있음)  
 감태박골 골짜기 경남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감태바위가 있음)  
 검박골 골짜기 경북 상주군 화서면 봉촌리(검은 바위가 있음)<sup>23)</sup>  
 너림박골(광암) 마을 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리  
 다박골(다박곡 풍암) 마을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마을주변에 암석이 많음)  
 달박골(월암곡) 골짜기 경북 영일군 지행면 서촌리
- ⑦ 갓바이들(입암) 마을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두바이뜸고개 고개 경기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물바이샘 우물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장군바이산 산 경북 경주 보문동

既述한 바와 같이 C형은 ‘전부지명소 + 바위 + 후부지명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A형에 후부지명요소가 결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A형이나 B형보다 필연적으로 어형의 길이가 긴 편이다. 이런 이유로 A형보다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후부지명요소가 사용되지 않은 형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의 예는 A, B, C형의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파구리(波龜里, 바구멸, 마을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동)’라는 어휘도 발견되는데 이는 한자표기에 의한 것이다. 다만, ‘파구정’이 한자표기인지 아니면 어두 ‘ㅂ’의 유기음화형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23) 경기 이천군 설성면 제요리, 전남 진도군 지산면 관마리 등.

- (11) ① 바위바기 산 서울 강동구 고덕동(큰 바위가 박혀 있음)  
 바위배기 산 충남 서산군 운산면 수당리<sup>24)</sup>  
 마을 충남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동쪽에 두꺼비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논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바위가 박혀 있음)  
 들 경기 파주군 교하면 당하리(바위가 박혀 있음)  
 골 충남 아산군 선장면 죽산리(바위가 박혀 있음)
- ② 바우배기 마을 경북 상주군 모동면 이동리(용바우 서쪽에 있는 마을)<sup>25)</sup>  
 들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바위가 박혀 있음)<sup>26)</sup>  
 논 전남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산 전북 익산군 황등면 구자리<sup>27)</sup>  
 골짜기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sup>28)</sup>
- 바우백이 들 전북 익산군 성당면 두동리  
 마을 경북 상주군 낙동면 송곡리
- 바우배기 들 강원 원성군 호저면 만중리
- ③ 방구배기 들 경북 상주군 사벌면 용담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숲 경북 경산군 남산면 평기동  
 마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골짜기 경북 경주 산내면 내일리, 경북 영일군 기계면 고지리(고인돌)  
 논 경북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산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④ 바구배기 산 경남 하동군 청암면 궁향리  
 바오배기 논 전남 해남군 삼산면 충리
- ⑤ 바위배기 바위 전북 정읍군 신대인읍 연정리 가잔산(북쪽에 있는 두루뭉실하게 생긴 바위)  
 바우배기 바위 전북 김제군 금산면 구월리  
 방구배기 바위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11)의 용례에서 보이는 ‘-바기, -배기, -백이, -배기’는 ‘바위’의 방언형인 ‘박’과는 관련이 없는 형태로 보이며, 다음의 예를 참고하면 ‘-박(박다)+ -이’의 형태로 분석할 수가 있다.

- (12) ① 장승박 들 경남 울주군 농소면 신천리(장승이 서 있었음)  
 골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장승이 섰었다 함)
- ② 장승배기 마을 대구 중구 봉산동(장승이 박혀 있었음)  
 들 경기 양평군 지제면 옥현리(장승이 박혀 있었음)
- ③ 소따바기 터 경북 상주군 내서면 노류리(숫대가 서 있었다 함)
- ④ 솔대바기 둔덕 경기 화성군 봉담면 마하리(활쏘는 솔대가 박혀 있었음)

또한, (11)의 ⑤처럼 ‘바위’를 지칭하는 지명의 수가 매우 적은데 비해 ‘마을, 산, 골짜기, 들, 논’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은 A형의 용례 (8)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이 B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용례도 있다.

- (13) 바위배기골 골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바위가 박혀 있음)  
 바위배기내 내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바위배기밭 밭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큰 바위가 있음)  
 바위배기산 산 경기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바위배기터 밭 전북 정읍군 영원면 운학리(큰 바위가 박혀 있었다 함)  
 바위배기느티나무 나무 충남 서산군 운산면 수당리(바위배기마을 북판에 있는 느티나무)  
 바위배기보 보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바위배기들에 있는 보)

24)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경기 용인군 남사면 통삼리 등.

25) 경남 밀양군 상동면 옥산리, 충남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경기 이천군 호법면 송갈리 등.

26) 강원 양구군 남면 송우리 등.

27) 경기 안성군 공도면 송두리 등.

28) 광주 북구 장등동 등.

지명의 한계로 인해 조사한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할 수 없었지만 숫자상으로는 ‘B형 > A형 > C형’의 순서를 보여준다. 지명의 명명 이유와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는 형태는 C형이나 필연적으로 어형의 길이가 길다는 점에서 언중사이에서는 C형보다는 A형이나 B형이 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A형의 용례 (8)처럼 의미가 확장된 경우도 있으나 후부지명소만으로도 지명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B형의 용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B형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지역마다 동일한 후부지명소가 존재할 경우, 후부지명소의 종류에 따라 지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A형의 용례 (8)과 용례 (11)이다. 이 두 용례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에 ‘바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바위’가 포함된 지명을 획득하지만 ‘바위’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 4. 고대국어 시기의 ‘바위’ 관련 지명

3장에서 바위 관련 지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대국어 시기의 지명에서도 바위 관련 지명을 찾아볼 수가 있다.

- (14) ① 孔巖縣 本高句麗濟次巴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史 卷35>  
 ② 鶻鷲城 一云租波衣 一云鶻巖郡<三史 卷37>  
 ③ 松峴縣 本高句麗夫斯波衣縣 憲德王改名 今屬中和縣<三史 卷35>  
 ④ 夫斯波衣縣 一云仇史峴<三史 卷37>  
 ⑤ 平珍峴縣 一云平珍波衣<三史 卷37>  
 ⑥ 三峴縣 一云密波兮<三史 卷37>  
 ⑦ 文峴縣 一云斤尸波兮<三史 卷37>  
 ⑧ 猪鬮峴縣 一云烏生波衣 一云猪守<三史 卷37>  
 ⑨ 偏嶮縣 本高句麗平珍峴縣 景德王改名 今雲巖縣<三史 卷35>  
 ⑩ 童子忽縣 一云仇斯波衣<三史 卷37>  
 ⑪ 童城縣 本高句麗童子忽 一云岫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史 卷35>

(14)의 ①과 ②에서는 ‘巖 : 巴衣, 波衣’의 대응을 알 수 있다. 이는 ‘훈독 : 음독’의 대응이다. 한편, ③~⑧에서는 ‘峴 : 波衣’, ⑨에서는 ‘峴 : 巖’의 대응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李正龍(2002:190-193)에서는 ‘波衣 : 巖’은 훈독에 의한 대응으로 보았고, ‘波衣 : 峴’의 관계는 직접적인 의미로는 파악할 수 없고 다만, ‘바위’는 높은 곳에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크기 때문에 [+높다]라는 의미 자질로 대응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도수희(2003:296)에서는 ‘巖’과 ‘峴’을 의미하는 동음어 관계로 보았고, 김중학(2004:72)에서는 ‘峴’과 ‘巖’으로 漢譯되었던 ‘波衣’가 15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巖’만 의미하게 되는 의미축소과정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장희(2005:94-95)에서도 ‘波衣 : 峴’의 관계는 傳承訓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에 ‘波衣 : 巖’의 관계는 1차적 訓의 관계로, ‘波衣 : 峴’의 관계는 2차적 의미관계의 대응으로 보았다.<sup>29)</sup> 조재형(2009:224)에서는 ‘巖, 峴, 嶺, 山, 嶺’이 서로 호용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은 漢字訓으로는 그 상관관계를 알 수 없고, 대부분 자연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정태(2009:41)에서는 바위의 기원형 ‘pakV’는 바위와 고개를 의미하는 다의어 또는 동음어로 사용되다가 의미분화 과정을 겪으면서 바위만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9) 이장희(2005)에서는 ‘2차적 의미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도수희(2003), 김종학(2004), 김정태(2009)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위, 고개 > 바위’로의 의미축소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조재형(2009)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의한 관계이다.

그런데 3장에서 본고는 A형의 용례 (8)과 용례 (11)을 관찰하면서 특정지역에 ‘바위’가 존재하면서 오히려 ‘바위’의 의미가 확장한 것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前者의 주장을 따르자면 ⑩과 ⑪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⑩과 ⑪을 통해 ‘忽：波衣：城：山’의 대응 관계가 성립된다. 즉 바위가 ‘바위, 마을, 산, 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바위’만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A형의 용례 (8)과 용례 (11)처럼 ‘바위’에서 ‘마을, 고개, 산, 들, 논’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15) ① 三嶺縣 本高句麗三峴縣 景德王改名 今方山縣<三史 卷35>  
 ② 狝嶺縣 本高句麗猪守峴縣 景德王改名 今未詳<三史 卷35>  
 ③ 竹嶺縣 本高句麗竹峴縣 景德王改名 今未詳<三史 卷35>  
 ④ 翼嶺縣 本高句麗翼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史 卷35>  
 ⑤ 鎮嶺縣 本百濟眞峴縣<三史 卷36>  
 ⑥ 文登縣 本高句麗文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史 卷35>  
 ⑦ 仇乙峴 一云屈遷<三史 卷37>  
 ⑧ 牛峯郡 一云牛嶺 一云首知衣<三史 卷37>

또한 (15)의 용례에서 ‘嶺：峴：遷：峯’의 대응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예에서는 ‘바위’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대국어시기의 ‘바위’가 ‘고개’까지 의미했다고는 볼 수 없다.<sup>30)</sup>

상술한 바를 전제로 고대국어 시기에서도 ‘바위’ 관련 지명은 현대의 ‘바위’ 관련 지명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30) 嶺 ㉠고개 ㉡재 ㉢산 이름 ㉣작고 험(險)한 산  
 峴 ㉤고개, 재 ㉥산맥 이름 ㉦산봉우리 ㉧연속한 산 ㉨산마루의 고개 ㉩잇닿아 뻗어 있는 산줄기  
 遷 ㉪벼랑, 낭떠러지  
 峯 ㉫봉우리, 산봉우리 ㉬낭떠러지 ㉭벼랑, 물가의 언덕

■ 참고문헌

- 김동소(1998), 한국어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선기(1973), 옛적노래의 새풀이(鄉歌新釋), 보성문화사.
- 김정태(2006), ‘바위’계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1), 지명학12, 한국지명학회, pp.33-67.
- \_\_\_\_\_(2009), ‘바위(岩)’의 통시적 변화와 방언 분포상의 특징, 한국언어문학70, 한국언어문학회, pp.25-48.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出版部.
- 김중학(2004), 古代 地名語素 ‘巴衣波衣波兮’의 漢譯에 대하여, 지명학10, 한국지명학회, pp.61-75.
- 김태완(1999), 上古漢語聲母研究의 新潮流와 그 展開, 中國語文論譯叢刊 4, 중국어문논역학회, pp.34-66.
- 金亨奎(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都守熙(2003), 百濟語 語彙 研究, 제이앤씨.
- 신승용(2003), /k/>/h/ 變化에 對한 考察, 國語學 41, 국어학회, pp.93-122.
-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 俞昌均(1994), 鄉歌批解, 螢雪文化社.
- 李基文(1961/1998), 國語史概說, 태학사.
- 李相揆(1998), 동남방언,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원.[이상규(2007)에 재수록]
- 이상규(2007), 동남방언. 방언 이야기, 태학사.
- 李崇寧(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 서울대학교논문집 人文社會科學 2, 서울대학교, pp.62-166
- 李丞宰(2002), 「口訣資料의 ‘-ㄱ-’ 弱化·脫落을 찾아서」, <韓國文化>30, 韓國文化研究所. pp.1-31.
- 이장희(2003), 6세기 신라 금석문의 인명 접사 연구, 언어과학연구 26, 언어과학회, pp.227-251.
- \_\_\_\_\_(2005), 고대국어 /h/에 대한 역사적 연구, 語文論叢 42, 한국문학언어학회, pp.87-118.
- 李正龍(2002), 韓國 古地名 借字表記 研究, 景仁文化社.
- 李 鐸(1958), 국어학논고, 정음사
- 鄭卿一(2003), 한국 한자음의 상고음적 특징, 語文論集 47, 민족어문학회, pp.5-30.
- 趙宰亨(2009), 古代國語時期의 ‘衣’의 讀音에 關하여, 한국어학43, 한국어학회, pp.207-232.
- 최남희(2003), 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자질과 그 어휘 연구, 한글 262, 한글학회, pp.5-61.
- 최미현(2000), 신라 지명 표기의 한자음 연구(1), 새얼어문논집 13, 새얼어문학회, pp.85-105.
- 홍기문(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 小倉進平(1929/1974), 鄉歌及び史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亞細亞文化社影印.

## 바위와 관련된 지명의 고찰

방운규(평택대)

이 연구는 '바위'와 관련된 지명을 살피어 '바위'와 지명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토론자의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 몇 가지입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땅이름큰사전』에 오른 바위 관련 지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바위'의 방언형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위, 바우, 바오, 바이, 바구, 방구, 방우, 박' 등의 어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방언형은 논의 과정에서 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언형의 예마다 해당 지역을 밝혀 놓았습시다만, 이에 앞서 '바위'의 방언형을 언어지도로 제시하면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김정태(2006)을 바탕으로 '바위' 관련 지명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①전부지명소 + '바위'(A형), ②'바위' + 후부지명소(B형), ③전부지명소 + '바위' + 후부지명소(C형)가 이에 속하는데, 발표자님은 이 글에서 A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형은 일반적으로 '바위'를 가리키지만 '산, 들, 마을, 골짜기'와 같은 확장된 의미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B형과 C형이 모두 특정 지명만을 지시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가 어떤 현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A형은 이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로 본다면 A형은 1차적 의미(지명)와 2차적 의미(산, 들, 마을,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연구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바위에 관련된 전설이 A형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착안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원도 설악산에는 아주 낮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울산바우'인데, 설악산에 '울산바우'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편의 상 전설의 화소(話素) 앞부분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조물주가 금강산을 잘 빗으려고 전국의 잘생긴 바위를 불러모은다. ②울산에 있던 바위가 길을 떠난다. ③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금강산은 이미 완성된다. ④울산바위는 돌아갈 체면이 없어 설악산에 눌러앉는다. 이러한 전설 화소는, 『한국땅이름큰사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광주바위'(서울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전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바위 관련 전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설로는 '용바우 전설', '쌀바위 전설', '벼락바우 전설', '치마바위 전설', '베틀바우 전설' 등이 있습니다.

전설은 우리 민족의 상상력의 결과물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활기찬 정신활동의 소산물입니다. 또한 값진 무형의 재산이면 정신문화의 보고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창조성과도 밀접하여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은 창조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울산바우'는 값진 상상력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바위'로 이름된 '바위'계 이름은 그 자체가 특정 지명을 나타내면서 여기에 다른 의미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 A형 이름은 또한 전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설 연관성은 A형의 의미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설 연관성은 국어학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에 적용될지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 (8) ⑤의 '오솔박'은 '오솔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뜻하는 이름인데, 여기에서 '오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오솔길'에서의 '좁고 호젓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오솔-'의 형태와 같다면,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 유일형태소로 다룬 '오솔-'은 결합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을 통해서 본 북쪽 국어학 체계에 대하여

이상혁(한성대)

## 차 례

- I. 머리말
- II. 본론
  - 1. <조선어학전서>의 출간과 북쪽의 조선어학 체계
  - 2.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구축과 조선어학 체계
  - 3. <색인>과 <전서> 통해서 본 북쪽 조선어학 체계의 정립
- III. 맺음말
- 참고문헌

### I. 머리말

현재 남북의 국어학 분야는 조선어학과 한국어학으로 양분돼 있다. 남북의 정치적 분단은 학문의 분단을 가져왔다. 같은 Korean을 사용하고 같은 그 Korean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북의 국어학 체계는 그래서 같기도 하지만,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주로 남쪽이 중심이 되어 남북 언어 통합, 혹은 남북 언어 연구의 비교 및 대조, 극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전적으로 남쪽 연구자들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유행처럼 명멸하는 탐색이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최소한 국어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통일된 ‘Koreanology as Korean linguistics’의 통합이 당위론적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은 계속 진행돼 오는 이러한 균열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이라고 하는 두 문헌에서<sup>1)</sup> 북쪽이 보여주고 있는 소위 ‘조선어학’ 체계는 어떠한 것이며, 두 문헌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북쪽 조선어학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남쪽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국어학 체계의 통합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이 발표문은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에 대한<sup>2)</sup>

1) <언어학 연구 논문 색인사전>(2006.10.10)은 종이책으로 공간된 것이 아니라 MS-파일로 존재하는 문헌이다. 북쪽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1249쪽의 방대한 분량에 해당하는 북쪽 언어학 연구 데이터를 목록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파일 말미에 편찬자와 발행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으로 발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된 바는 없다. 그 반면에 <조선어학전서>(2005, 사회과학출판사)는 역시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47권으로 이미 공간돼 남쪽 국어학계에 알려진 문헌이다. 북쪽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2006년 3월 2일 그 발행 및 편찬 소식을 알린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234505> 기사 참조.

2) 본문에서는 <조선어학전서>(2005)와 <언어학연구논문 색인사전>(2006)를 각각 <전서>과 <색인>으로 줄여서 기술하고자 한다.



귀납적 접근을 통한 북쪽 ‘조선어학’ 및 ‘언어학’체계의 탐색에 있으며, 그 안에 담긴 북쪽 국어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경향과 특징도 주변적으로 밝혀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II. 본론

### 1. <조선어학전서>의 출간과 북쪽의 조선어학 체계

#### 1.1 <조선어학전서>의 출간

<조선어학전서>(2005)는 북쪽에서 2005년 1월 20일부터 9월 25일(발행일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발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판은 사회과학출판사, 인쇄는 평양종합인쇄공장으로 돼 있다. 다만 북쪽에서 출간한 47권 말고도 48권-65권에 이르는 문헌도 있는 바, 북쪽에서 이 문헌들에 대한 출간이 이루어진 사실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길이 없다. 권재일(2008)에서는 북쪽 담당자의 말을 빌려 “나머지는 CD에 내용이 입력된 미발간 상태”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1권-47권 사이의 책, 그리고 48권 이후의 책 몇 권이 미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남쪽 박이정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북쪽과 계약을 맺고 출간된 바 있다. 출판 동의서는 2000년 3월이고 출판 합의서는 2000년 10월이며, 출판 계약서는 2001년 5월이다. 이 계약은 남쪽이나 일본 등에서의 유통만을 한정된 계약으로 이미 남쪽에서는 부분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진 <조선어학전서>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남쪽에서 10년 전에 이에 대한 출판에 지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sup>3)</sup> 물론 북쪽에서 <조선어학전서>(2005년)를 간행한 것은 북쪽 국어학계 안에서 유통되는 출간이었다.

결국 <조선어학전서>는 2005년에 총 65권 중 47권만이 북쪽에서 완간된 것이고, 그 문헌의 출간 시초는 비록 부분적인 출간이긴 하나 남북이 2001년에 합의한 시점이 서지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남북의 분단 상황이 초래한 다소 복잡한 부분이다.

#### 1.2 <조선어학전서>의 특징과 조선어학 체계

<조선어학전서>(2005)의 출간과 그 연구 성과에 대한 논의는 이미 권재일(2008)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조선어학전서> 47권의 성격을 권재일(2008)에서는 “규범문법적 이론서”의 총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어학전서>의 서문에서 “전서는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언어이론과 언어정책, 언어구조와 언어발전력사, 언어정보론과 언어공학을 전면적으로 연구체계화하며 언어현실과 언어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 리용하는데 기여하라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문만을 따르다면, 우선 북쪽에서는 국어학 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학 체계의 대분류>

① 언어이론, ② 언어정책, ③ 언어구조, ④ 언어발전력사, ⑤ 언어정보론, ⑥ 언어공학

3) 박이정 출판사 측에 따르면 몇 권이 출간된 후, 남쪽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출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나중에 받고 현재는 남쪽 출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남쪽 정부가 간접적으로 출판에 제동을 건 셈인데 학문과 출판 영역에서 여전히 남쪽도 상당 부분 유통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의 대분류만 보더라도 남쪽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④는 대체로 북쪽의 전통적 조선어학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⑤와 ⑥는 1980년 후반 이후 많은 관심을 둔 영역으로 남쪽의 시각에서 보면 응용 국어학이지만, 넓은 의미의 국어학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권재일(2008)의 분류에 따르면 ⑤와 ⑥은 한데 묶여 있다. ①의 경우도 “주체의 언어이론”, “조선 문화어 건설이론”, “조선로동당 언어정책사”는 북쪽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언어이론이긴 하겠으나, 남쪽과는 이질적이다.

권재일(2008)에서는 위의 분류보다는 다소 하위범주화된 11개의 중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북쪽이 제시한 분류를 인용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조선어학 체계의 중분류>

① 언어이론, ② 어학사, ③ 어휘론, ④ 의미론, ⑤ 어음론, ⑥ 문법론, ⑦ 문체론, ⑧ 명칭론, ⑨ 방언학, ⑩ 언어공학, ⑪ 언어규범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조선어학전서> 47권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 1~3권은 결국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화어 제정 과정의 업적과 조선노동당의 언어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해설하고 있다. 4~13권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말의 역사와 글자 생활사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14~38권은 어휘론, 의미론, 어음론, 문법론, 문체론, 명칭론, 방언학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39~45권은 언어공학을, 46~47권은 조선어규범 관련 내용을 기술해 출간한 것이다. 언어학 편람인 48~63권은<sup>4)</sup>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분류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도 하겠다. 우선 북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학사와 (국/조선)어사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학사의 범주 안에서 국어학사와 국어사를 모두 분류하고 있다. 아래는 전서의 어학사 중분류 저작들이다.

#### <어학사><sup>5)</sup>

4. 조선말력사 1(류렬, 2005.5.15., 423쪽)
5. 조선말력사 2(류렬, 2005.7.15., 671쪽)
6. 조선말력사 3(김인호, 2005.5.15., 335쪽)
7. 조선말력사 4(김인호, 2005.1.20., 367쪽)
8. 조선말력사 5(류렬, 2005.5.15., 359쪽)
9. 조선말력사 6(김인호, 2005.5.15., 255쪽)
10. 조선말력사 7(백운혁, 2005.5.15., 279쪽)
11.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김인호, 2005.4.20., 271쪽)

4) 박이정과의 계약시에는 65권으로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북쪽의 보도 내용을 보면 63권으로 소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234505> 기사 참조.

5) 이 분야를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에서는 ‘언어력사’ 범주 안에서 한데 처리하고 있다. 북쪽에서 국어사와 국어학사의 구분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적 이유인지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쉽게 판단 내리기 어렵다.

12. 조선어학설사(안경상, 2005.2.15., 287쪽)
13. 향가연구(류렬, 2005.9.25., 478쪽)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위의 저술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조선말력사”는 국어사에 해당하며, “조선어학설사”는 국어학사와 대응되며,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 언어 사용자 혹은 수용자 중심의 글자, 활자, 출판 및 인쇄, 글씨체 등의 역사들 다루고 있다. 언중을 중심으로 문자 전반에 기반한 국어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말력사” 및 “향가연구”의 류렬, “조선말력사”의 김인호는 박사 출신이다. 백운혁과<sup>6)</sup> 안경상은<sup>7)</sup> 우리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 출신 연구원들로 백운혁은 신진 연구자로 국어사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안경상은 김병제의 <조선어학사>(1984) 이후 북쪽 국어학사의 계승자로 볼 수 있다. 각각 자신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를 기반으로 <전서> 저술 및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남쪽과는 달리 북쪽의 어휘론은 이론과 실천으로 나뉘어 있다. 중분류 어휘론은 <전서>에서 아래와 같이 하위 분류돼 있다.

#### <어휘론>

14. 조선어어휘론(최완호, 2005.1.20., 303쪽)
15. 조선어어휘통계학(문영호, 2005.1.20., 256쪽)
16.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리기원, 2005.1.20., 375쪽)
17. 조선어어휘정리론(박상훈, 2005.3.15., 287쪽)
18. 조선어단어론(김백련, 2005.5.20., 279쪽)

최완호의<sup>8)</sup> “조선어어휘론”은 전통적 영역으로 우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문영호의<sup>9)</sup> “조선어어휘통계학”은 언어공학과 연관돼 있으며, 리기원의<sup>10)</sup> “조선어말사전편찬론연구”은 <색인>에서는 “언어응용”의 하위범주이다. 리기원의 “조선어어휘정리론”의 말다듬기와 관련된 언어 정책 및 실천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 어휘론에 김백련의<sup>11)</sup> “조선어단어론”이 하위 분류돼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5명의 저자 모두 박사에게 해당한다. 이 저서는 단어 구조의 분석, 조성, 품사를 아우르는 분야로 <전서> 체계 ⑥ 문법론과 통한다. 이 “문법론” 범주에 “조선어품사론”과 “조선어단어조성론”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어어휘론”, 박상훈의<sup>12)</sup> “조선어어휘정리론” 정도가 어휘론의 하위 영역에 들어갈 것으로 이해되지만, <언어학론문색인사전>의 중분류에서 어휘론과 어휘정리론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 <전서>, <색인>의 분류 방식에 차이가 있다. 남쪽에는 없는 “어휘정리론”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국어학 체계의 중요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어

---

6) 백운혁, 《〈송강가사〉, 〈로계집〉, 〈고산유고〉에 반영된 격투에 대한 연구》, 1999년.  
 7) 안경상, 《〈훈몽자회〉에 대한 연구》, 1992년.  
 8) 최완호, 《〈조선말대사전〉의 편찬에서의 올림말문제》.  
 9) 문영호, 《계산기언어학개론》, 1990년, 사회과학출판사.  
 10) 리기원,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 대하여》, 1992년.  
 11) 김백련, 《조선어 음운과 형태》, 1992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2) 박상훈, 《어휘정리론》, 1999년.

회론을 공학적으로, 사전편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전서> 체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어휘론의 영역은 아니지만, 중분류로서 명칭론이 따로 설정돼 있는 점은 남쪽과는 상이한 부분이다. 그러나 명칭론 일반, 지명학을 한데 묶여 조선어학 체계에 묶어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사뭇 흥미롭다.<sup>13)</sup> <색인>에서는 따로 중분류가 돼 있지 않는 부분으로 일반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어휘론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북쪽의 의미론 중분류 안에도 주목할 만한 저술이 있다. <전서>의 세 저술이 아래와 같이 연구 성과로 집필되었다.

<의미론>

19. 조선어어휘의미론(조춘옥, 2005.1.20., 247쪽)
20. 조선어의미구조론(문영호, 2005.1.20., 271쪽)
21. 조선말력사의미론(김인호, 2005.2.15., 287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어휘 의미, (문장)의미구조, 력사의미’가 그것이다. 우리의 어휘의미론과 문장의미론에 해당하는 소분류 저서들이 있으며, 특히 “조선말력사의미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를 전공한 김인호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통시적 시각에서 의미를 접근한 것으로 우리식으로 분류해 본다면 “한국어의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머리말을 보면 “ 의미력사에 관련된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주의가 적게 돌려졌으며...(중략) 어휘사의 어느 한 모퉁에서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서 본다면, 북쪽의 “조선말력사의미론”도 새롭게 정립해 가는 소분류 조선어학 범주로 이해된다. 남쪽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연구 저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북쪽의 중분류 어음론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하류 분류로 <전서>에서 그 저술이 이루어졌다.

<어음론>

22. 조선어어음론(김성근, 2005.1.20., 295쪽)
23. 조선어음운론(김성근, 2005.2.15., 207쪽)
24. 조선어실험음성학(강진철, 2005.4.5., 303쪽)
25. 조선어역사어음론(최정후, 2005.4.15., 303쪽)

위의 분류를 보면서 김성근의 박사논문인<sup>14)</sup> “조선어어음론”은 우리의 음성학, “조선어음

---

13) 명칭론 관련 저술은 다음과 같다.

34. 조선어명칭론연구(방린봉, 2005.3.15., 295쪽).
35. 조선지명학(박명훈, 2005.5.15., 247쪽).
36.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연구(정순기, 2005.7.15., 303쪽).
37. 조선지명연구(조창선, 2005.9.25., 335쪽).

운론”은 우리의 음운론으로 대체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조선어실험음성학”이 있다는 점에서 좀더 천착해 보면, 어음론과 음운론의 내용은 그 목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어음론	조선어음운론
모음과 자음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
음운과 음운의 변종(이음)	음운의 실현(형태음소적 교체)
어음론적 과정(동화/이화)	음운의 결합단위(소리마디-음절)
소리마루(악세트)와 억양	운률 문제

발표자가 나는 ‘어음론’과 ‘음운론’의 차이를 보면 우리의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가 아니다. 북쪽의 어음론과 음운론의 교집합이 오히려 우리의 음운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북쪽의 실험음성학과 어음론의 교집합이 우리의 음성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굳이 “음성학-어음론-음운론”으로 세분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전공자들의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남쪽 중분류의 음운론 영역과 북쪽 중분류의 어음론 영역의 차이지만, 향후 남북이 통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범주이다.

다음으로 북쪽은 대분류의 언어정보론과 언어공학을 언어공학으로 통합하여 나누고 있다. 두 분야가 병렬적 관계가 아니라 언어공학 범주 안에서 하위 분류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서>의 체계 속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 성과들이 출간되었다.

<언어공학>

- 39. 조선어정보론(권종성, 2005.3.15., 303쪽)
- 40. 조선어음성공학(홍석희, 2005.4.20., 287쪽)
- 41. 조선글자공학(최병수, 2005.3.15., 295쪽)
- 42. 조선어정보검색학(김길연, 2005.2.15., 239쪽)
- 43. 조선어문법검사연구(리승길, 2005.7.15., 255쪽)
- 44. 조선어전자사전연구(리승길·방정호, 2005.5.15., 271쪽)
- 45. 조선어확률론(리정용, 2005.7.30., 527쪽)

이러한 분야를 연구한 연구자 중에서 “조선어정보론”의 권종성과<sup>15)</sup> “조선어정보검색학”의 김길연과<sup>16)</sup> “조선어문법검사연구”의 리승길이<sup>17)</sup> 박사 출신이다. 정보론, 혹은 정보처리 일반을 담당하는 권종성은 전통적인 문자학을 기반으로 언어공학으로 전공을 확대한 연구자이다. 김길연은 자신의 박사논문을 변형한 “조선어정보검색학”을 저술한 연구자이며, 리승길은 박사논문이 곧 <전서>43권으로 공간된 것이다. 나머지 홍석희<sup>18)</sup>, 최병수<sup>19)</sup>, 방정

14) 김성근, 《조선어어음론연구》, 1995년, 사회과학출판사.  
 15) 권종성, 《조선어정보처리》, 1994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6) 김길연, 《정보검색체계에서의 자동분석가공》, 1995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7) 리승길, 《조선어문법검사연구》, 2002년. <언어학논문색인사전>의 서지 정보를 반영한 것이다.

호,20) , 이정용은21)자신의 학사논문(우리의 석사논문) 주제를 보충해서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전서>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전서>의 중분류를 통해서 본 북쪽 조선어학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분류 문법론(26~31권) 범주는 소분류가 더 자세히 분류돼 있으나, 남쪽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고, 언어 정책(1권~3권)과 언어 규범(46~47)부분은 이 발표에서 주변적 범주라고 보고 따로 논하지 않았다. <전서> 47권의 저자들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귀납된다.

<전서> 저자	<전서> 저자	<전서> 저자	<전서> 저자
강진철	리기만*	백운혁*	최정후(3)
권종성	리기원	안경상*	홍석희*
김길연	리승길(2)	안순남*	
김동찬(3)	리정용(3)*	장근수*	
김백련(2)	리호경(2)*	장영남*	
김성근(4)	문영호(2)	정순기(3)	
김옥희*	박명훈*	조창선*	
김인호(5)	박상훈	조춘옥*	
류렬(4)	방린봉	최병수*	
리근용*	방정호*	최완호	

<전서>47권의 집필자는 총 32명으로 김동찬, 김백련, 김성근, 김인호, 리승길, 이정용, 리호경, 문영호, 정순기, 최정후인데 이정용과 리호경을 제외하면 모두박사들에 해당한다. 북쪽의 조선어학 박사군은 2006년 <색인> 52명으로 사망한 연구자를 제외하면 이들이 현재 북쪽 조선어학 체계를 이끌고 가는 학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박사, 예컨대 김영황 같은 연구자가 <전서> 편찬 과정에서 집필이나 심사 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북쪽 조선어학의 또다른 특징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조선어학 연구 체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표 연구자들은 학사 연구원으로 우리의 석사학위 연구자들이다. 그러나 북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원들로 향후 북쪽 조선어학을 이끌어 갈 학자군으로 판단된다.

## 2.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구축과 조선어학 체계

### 2.1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구축

이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2006.10.10)도 역시 북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발

18) 홍석희, 《말소리통로의 운동모형과 말소리스펙트럼구조연구》, 1992년.

19) 최병수, 《기계번역에서 결합-예측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20) 방정호, 《현대조선말본문에서 고유어사용의 통계적특성에 대한 연구》, 1998년.

21) 이정용, 《현대조선말본문에서 글자분포의 확률통계적특성과 그 응용에 대한 연구》, 1990년.

행한 것으로 1249쪽의 방대한 분량에 해당하는 북쪽 언어학 연구 데이터를 목록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1장에서 언급한 <조선어학전서>가 조선어학 연구 성과의 집대성이라면, 이 <색인사전>은 조선어학 연구 성과 목록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단행본, 교재, 참고서, 논문집, 사전, 편람 및 자료, 잡지, 학위논문 등의 목록과 일부 주요 연구 성과 내용을 수록한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북쪽 연구 목록 데이터이다. 크게 범주별 색인, 저자별 색인, 서지별 색인, 올림말 색인으로 나누어 분류한 색인 사전이다. 머리말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이 사전의 의의와 목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60돐을 맞으며 내놓게 되는 도서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에서는 언어학자들이 우리의 언어학연구의 실태와 새롭게 힘을 넣어야 할 분과와 과목,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연구사업에 구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방후 6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출판발행된 언어학연구도서들과 논문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그것을 언어학의 개념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sup>22)</sup>.”

이 <색인사전>은 범주별 항목을 기본 올림말로 하고 저자별 색인, 서지별 색인, 올림말 색인이 보충 항목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범주별 항목은 16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언어 응용의 경우 화술, 사전과 논문집, 언어규범, 응용 언어학으로 하위 분류를 하고 있다. 물론 16개 범주별 항목 각각도 하위 분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종이책이 출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종이책으로 출간하고자 구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래와 같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전자 사전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한 흔적 때문이다.

“이 색인사전은 일반리용자와 컴퓨터언어자료기지구축 및 정보검색에서 보편적으로 리용할 출발목록으로 작성한것만큼 제목색인부호와 검색어부호를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색인하였다. 따라서 색인사전은 일반리용자들의 경우에는 자료의 안내정보(주제, 제목, 범주)를 직관적으로 찾을수 있고 컴퓨터자료기지 구축과 자동검색체계개발 그리고 검색어사전작성에서는 자료의 수집, 보충, 수정을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부호목록의 기능을 수행한다.”

## 2.2 <언어학연구논문색인사전>의 특징과 북쪽 언어학 체계

### <북쪽 언어학 체계의 중분류>

<색인>에서는 언어학 체계의 대분류는 없다. 대체로 <전서>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범주가 16개로 나뉘어 있고, 일부 중분류를 소분류로 나눠 전체적인 북쪽 언어학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색인>이 연구 목록 사전에 해당하고, 그리고 전자사전을 염두해 둔 연구 파일이기 때문에 범주별 색인을 중심으로 중분류를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 ① 원전해설자료, ② 주체의 언어사상리론, ③ 언어정책 ④ 일반언어리론
- ⑤ 언어일반, ⑥ 말소리구조, ⑦ 문법구조, ⑧ 의미론, ⑨ 어휘론 ⑩ 어휘정리
- ⑪ 문체론, ⑫ 글자, ⑬ 방언, ⑭ 언어생활, ⑮ 언어응용, ⑯ 언어력사

22)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를 반영하였다. 이하 인용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16개 범주를 모두 <전서>와 비교하여 다룰 수는 없다. <전서>가 개별언어학인 조선어학의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색인>은 일반언어학적 차원에서 북쪽 언어학 전체 체계를 고려한 목록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자 한다.

우선 중분류 범주별 색인의 ① 원전해설자료, ② 주체의 언어사상리론, ③ 언어정책은 제외하고자 한다. 우리와 상이하고 이질적인 내용을 이 발표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며,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북쪽의 조선어학 체계의 일부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전서>에서도 그 맥락을 유지하였다.

<색인>에서 주목할 것은 “④ 일반언어리론”을 범주로 설정한 것이다. <색인> 언어학 연구 논문 목록에 기인한 것이지만, “일반언어학, 현대언어학, 외국학계리론”으로 소분류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이지만 “남조선반동언어리론”이라는 소분류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우리의 언어 이론을 이 범주에 묶고 있다. 북쪽의 조선어학 체계는 아니지만, <색인> 체계에서는 유의미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⑤ 언어일반에서도 ‘조선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등의 언어 일반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언어의 보편성 문제를 <색인>에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⑥ 말소리구조에서는 발음, 자음, 모음, 음운, 소리바뀜, 소리마루(악센트) 등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어음론, 음운론, 실험음성학의 <전서> 체계의 연구 성과를 소분류에 반영하고 있다. <전서>에 있었던 “조선어력사음운론”은 “언어력사”로 분류하고 있다. 언어학 일반의 공시성과 통시성을 구분한 것으로 엿보인다. 타당한 언어학 체계 분류라고 생각된다.

⑦ 문법구조는 “규범문법, 리론문법, 단어형태론, 문장론, 품사론, 단어조성론”의 소분류로 나뉘 목록화하고 있다. <전서>의 문법론의 소분류 저작으로 성과를 낸 “문장성분론과 조선어실용문법” 1차 소분류에는 빠져있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문법구조는 “규범문법, 리론문법, 단어형태론, 문장론, 품사론, 단어조성론”으로만 한정하겠다는 분류 태도라 할 수 있다.

⑧ 의미론은 “의미리론, 의미구조, 의미속성, 의미발전(분화), 의미사용”의 소분류를 통해서 통시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목록화함으로써 <전서>의 체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⑨ 어휘론의 경우, “어휘리론, 어휘부류, 부류별어휘자료”의 순으로 소분류하고 있는데, <전서>의 어휘정리론이 어휘론에 속한 체계라면 이 <색인>에서는 ⑩ 어휘정리가 “어휘정리리론, 학술용어정리, 말다듬기자료” 등의 소분류를 포괄하여 독립된 중분류 체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전서>의 중분류 어휘론의 체계와는 이질적이다.

<색인>의 ⑪ 문체론은 “문체론, 문체, 표현수법, 문체론적 효과, 문풍, 언어분석” 등을 소분류로 연구 목록을 분류하고 있다. <전서>의 “조선어문체론”과 “언어생활론”의 소분류 저술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서>의 “언어생활론”이 <전서> 문체론에서 소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색인>의 소분류 중 “언어분석”의 목록과 내용을 파악해 보면 우리의 텍스트언어학에 해당한다. 이것을 통해서 텍스트언어학이 북쪽에서는 문체론의 하류 부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⑫ 글자에 대한 중분류가 <전서>에는 없었지만, <색인>에서는 “글자리론, 글자개혁, 글자사용, 글씨”등으로 소분류돼 있다. 일반언어학적 차원에서 “문자학”을 독립된 학문 체계로 파악하고자 했던 분류 의식이 드러난다. 중분류 ⑬ 방언에서는 “방언리론, 방언구역, 방언구조, 방언수집(조사)”로 나뉘 목록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서>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색인>의 중분류 ⑭ 언어생활에서는 언어기풍, 언어교육, 출판보도물의 언어, 글짓기(작



문), 입말언어생활, 언어레절, 언어상식, 언어일화 등을 목록과 내용을 소분류 주제로 삼고 있다. <전서>의 소분류 저술 “언어생활론”의 내용이 <색인>에서는 중분류 범주로 나뉜 것이다. 이 점 역시 <전서>와 다른 점이며, 조선어교육론(국어교육론)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⑮ 언어응용은 그 소분류가 “화술, 사전, 언어규범, 응용언어학”의 넷으로 분류되는데, <전서> 중분류 어휘론의 “사전편찬론”과 언어규범, 언어공학의 소분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전서>47에 “화술”과 연관된 저술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서>의 거친 분류보다 좀더 위계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화술의 경우 ⑭ 언어생활에서 분류해도 좋을 듯한데, ⑮ 언어응용에서 분류한 이유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색인>의 중분류 ⑯ 언어력사는 <색인>에서 “조선말력사, 언어구조발달사(어음, 문법, 어휘, 문체 등), 훈민정음, 리두와 향가, 언어학설사, 고어자료, 민족고전”으로 소분류하고 있다. <색인>에서도 역시 국어사와 국어학사의 구분 없이 “언어력사”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북쪽의 의도적인 학문 체계 분류 의식으로 판단된다.

### 2.3 <색인>의 “조선어학” 체계

이상과 같은 <색인>의 범주별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학 체계만의 분류가 아니다. 언어학 체계뿐만이 아니라 그 체계 안의 주제어에 따른 분류이다. 그러나 언어학 연구 논문 성과를 목록화한 <색인>을 통해서 우리는 북쪽의 <색인>식 “조선어학” 체계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귀납해 보고자 한다.

<표1>

	조선어학 범주	조선어학 이론	조선어학 실용	조선어학 규범
공시대	말소리 구조	실험음성학, 어음론, 음운론		
	문법 구조	리론문법, 단어형태론, 문장론, 품사론, 단어구성론		
	의미론	어휘의미론, 의미구조론		
	어휘론	어휘론,	어휘정리론	
	문체론	문체론, 텍스트조선어학		
	문자학	문자학		
	방언학	방언학		
	조선어 생활론		조선어교육론, 조선어화술론	
조선어 응용		사전편찬론, 언어공학론	조선어 규범리론	
통시대	조선말력사	조선어력사어음론 조선어력사문법론		

		조선어력사어휘론 조선어력사문체론		
	조선어학사	조선어학설사		

### 3. <색인>과 <전서> 통해서 본 북쪽 조선어학 체계의 정립

2.1에서 논의한 저술 중심의 <전서>의 조선어학 체계 중분류 11 범주를 2.3에서 제시한 <색인>의 “조선어학” 체계 구조에 넣어서 재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북쪽 조선어학 체계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표2>

	조선어학 범주	조선어학 이론	조선어학 실용	조선어학 규범
공시대	말소리 구조	실험음성학, 어음론, 음운론		
	문법 구조	리론문법, 단어형태론, 문장론, 품사론, 단어조성론	<b>조선어실용문법</b>	
	의미론	어휘의미론, 의미구조론		
	어휘론	어휘론, <b>조선어단어론</b>	어휘정리론, <b>조선어명칭론</b>	
	문체론	문체론, 텍스트조선어학		
	문자학	문자학		
	방언학	방언학		
	조선어 생활론	<b>조선어생활론</b>	조선어교육론, 조선어화술론	
	조선어 응용		<b>사전편찬론, 언어공학론(정보, 음성공학, 글자공학 정보검색학,문법 검사, 전자사전, 확률론)</b>	<b>조선어 규범리론</b>
통시대	조선말력사	<b>조선어력사어음론</b> 조선어력사문법론 조선어력사어휘론 <b>조선어력사의미론</b> 조선어력사문체론	<b>글자생활사</b>	<b>조선어규범변천사</b>
	조선어학사	조선어학설사		<b>조선어정책사</b>

표2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부분은 <색인> 소분류에는 없지만, <전서>47권에는 반영된 저술로 “조선어학”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소분류 학문 범주라고 판단되어 표1에 추가로 넣은 것이다. 남쪽과 비교했을 때, 화용론과 계통론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문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용론은 북쪽 조선어학 체계에서 문체론과 화술론에 근접해 있으며, 계통론은 조선말력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어명칭론, 조선어생활론, 조선어역사의미론 등이 남쪽에서 연구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국어학 연구 범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북쪽 “조선어학” 체계를 다시 귀납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은 남북 국어학 체계의 통일을 위한 기본 작업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Ⅲ. 맺음말

## ■ 참고문헌

### 1. 논문

-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 출판부.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학회>231-266쪽
- 권재일(2008), “북한의 우리말 연구 성과와 <조선어학전서>”, [나라사랑]114집, 외솔회, 150-183쪽.
-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서울: 一潮閣.
-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고려대 출판부.
-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4』, 서울: 녹진.
-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서울: 태학사.
-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환(1996), 『조선언어학사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 김영환·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 김하수(1997). “북한에서 보는 조선어에 대한 일반 언어학적 해석에 관하여.”, 『동방학지』 98, 국학연구원, 509-523면.
- 박재수(19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원.
- 북한언어연구회 편(1989), 『북한의 어학혁명』, 서울: 백의.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 I, II 조선어학사』, 서울대 출판부.
-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고려대 민족어문학회, 5-32면.
- 이상혁(2009), “남북 언어 통합 연구의 향후 과제 -북쪽의 <언어학연구론문색인사전>의 소개와 그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200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이상혁(2011).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75-299면.
- 전수태(2006), “북측의 언어정책”, <겨레말소식>창간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37-39면.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의 언어비교』, 서울: 녹진.
- 조오현 외(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서울: 역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23450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47605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5&aid=0000076404>

### 2. 자료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5), 『조선어학전서1~47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6), 『언어학연구론문색인사전』, 1-1250면.

□ 토론 □

## 〈조선어학 전서〉(2005)와 〈언어학 연구 논문 색인 사전〉(2006)을 통해서 본 북쪽 국어학 체계에 대하여

허재영(단국대)

남북 분단 시대에 북한의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에 관해 연구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따른 자료 확보의 어려움 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조선어학 전서〉와 〈언어학 연구 논문 색인 사전〉이라는 중요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충실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서〉가 남쪽에서 재간행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남북한의 국어학을 비교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가치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에 나타난 몇 가지 사소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목에 들어 있는 ‘북쪽 국어학 체계’라는 용어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분단 시대 국어학계를 포괄하여 ‘남쪽, 북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웬지 학문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좀 더 다듬어 표현하면 어떻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전서〉와 〈사전〉이 북한의 국어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북한의 국어학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실제 북한에서의 국어학 연구가 이 두 자료에 나타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일반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체계에서 ‘국어사’와 ‘국어학사’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북한의 연구 가운데는 ‘국어사’ 관련 연구와 ‘국어학사’ 관련 연구를 구분할 수 있는 성과물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전서〉나 〈사전〉의 국어학 체계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재일(2008)의 선행 연구도 존재하지만, 북한의 국어학 연구가 규범적인 면을 중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전서〉에 포함된 저작자나 〈사전〉 집필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류열이나 김영환같은 분들은 분단 이전부터 국어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고, 이 분들은 규범 문법이나 구조주의 학문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남북한의 국어학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어 연구관(철학)과 남한의 국어 연구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분단 이후 남북한의 국어 연구 흐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국어학사는 ‘구조주의, 생성주의, 사회언어학, 인지주의’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른 스펙트럼도 몹시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전서〉나 〈사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남북한 국어 연구의 스펙트럼 분화 과정을 통하여 훗날 통일을 지향하는 국어 연구의 방향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좋은 자료와 함께 뜻 깊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 3 분 과 】

# 맥락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김혜정(경북대)

## 차 례

1. 머리말
  2. 맥락의 개념과 적용 층위
  3. 맥락의 교육적 적용
  4. 맺음말 및 제언
- 참고문헌

###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언어에 대한 제반 사회적 접근, 예컨대, 화용론, 의사소통론, 텍스트언어학, 사회언어학 등의 영향에 의해서 언어 연구는 언어학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구성 요소들의 분석에만 치중하지 않고, 의미 생성의 기체로서 맥락을 중시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 연구란 인간의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실제적 자료’로서의 말과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이 문장으로부터 의사소통 행위인 ‘말하기의 사건(speech event)<sup>1)</sup>’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여기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텍스트의 역할을 지식 및 사회와 관련지어 논의하게 되었으며, 텍스트를 단순히 구어나 문어로 이루어진 단어나 문장의 연쇄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로 받아들여진다. 즉 텍스트는 언어라는 가상 체계와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면서 적응적 진화를 해나가는 실제적인 체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맥락에 대한 연구도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본고는 먼저 맥락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의 역사적인 개념들 중에 어떤 부분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었으며, 교육과정에 반영된 맥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텍스트를 사건으로 인식한 많은 학자들 중에, Bougrande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말하기 사건이란,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행위들이 수렴하는 의사소통적 사건’으로서, 언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텍스트 연구란 텍스트의 처리과정, 텍스트의 자질, 참여자의 담화 전략 등을 밝히는 것이며, 담화를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관행들과 지식들을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언어 연구는 인간의 평등과 유대를 증진할 수 있으며, 지식과 사회에 접근하는 자유를 지원하는 생태학적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했다(Bougrande, 1997:1-12)

## 2. 맥락의 개념과 적용 층위

### (1) 맥락 연구의 역사<sup>2)</sup>

지난 수십 년 동안 텍스트에 대한 관점의 변화만큼이나 맥락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있어 왔다. 언어와 맥락 간의 관계는 수십 년간 언어 연구의 중심이었다. 언어인류학, 사회언어학, 화용론, 심리언어학, 언어 철학 분야는 언어와 다양한 종류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보들이, 말하기가 발생하는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맥락에 의해 전달되고 심지어는 형상화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화행이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회적 효과, 적절성 이론에서의 신념의 속성과 공식, 대명사, 지시어, 다른 대용 표현들과 같은 직시어의 창조적 사용 등은 언어가 맥락의 구성요소가 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류학에서도 의사소통적 실행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보다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맥락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와 같이, 언어는 대부분의 사회적 삶에서 하나의 요소이며, 언어에 관한 아이디어들은 지난 세기 동안 사회적 이론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의미와 맥락은 구어나 문어 발화의 형성 ‘과정’ 속에서 명료해지며, 특히 맥락은 담화의 생산 요인이자 구속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조는 점차 말하기(speech)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달의 언어학적 의미는 언어학적 체계, 인지적 과정, 언어 사용이 각기 분절적으로 발달하도록 함으로써 설명에 대한 정밀성이 증가되었다는 데 있다.

맥락 연구의 전개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기반한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속하는 이론으로서 먼저, 화행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적절성 조건<sup>3)</sup>과 발화수반적 힘(illocutionary force) 이론을 토대로, 말하기의 형식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Grice의 접근은 말하기란 양, 질, 관계, 태도의 격률을 조건으로 한 협력적 참여라는 가정 하에 추론과 신념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적절성 조건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화에 대해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Grice의 협동 원리, 격률, 그리고 함축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논리적 ‘백과사전적·어휘적 정보’들에 토대를 둔 ‘적절성’이라는 유일한 원리에 의해 추론의 과정을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은 한계이다. 화행론, 함축, 적절성 이론은 모두 언어학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보통 말하기의 과정 중, 발화에 의거하여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사회적 관점을 지닌 인류학적 방법론(ethnomethodology)과 대화분석도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언어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들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인간 사회성의 최초의(원시적인) 맥락이며 언어 관찰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간주한다. 반면, 언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화용론적·추론적 과정에 토대를 두었지만, 각각의 강조점은 달랐다. 대화 분석은 ‘구어 교체’에서의 일시적이고 연속적인 ‘조직, 순서 교대’ 등을 안내하는 절차적 규칙의 존재를 기술했고, 대화 복구의 현상,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미시적 분석 등을 더 강조했다.

한편, 심리언어학자들과 인지언어학자들은 맥락을 상호관련된 공동 지식(mutual knowledge)과 인지적 표상의 문제로 다루어 왔으며, 근본적으로는 정신적 구조(mental structure)로 본다.

지금까지 언급된 접근법들은, 맥락을 구어 발화를 중심으로 한 방사 구조의 끝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집단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맥락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

2) 다음 논의는 W. Hanks의 *language and linguistics*(2006:115-128)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맥락 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견해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본 논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를 발제 요약하게 되었다. 원서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발췌·요약하다보니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다소 평가적인 진술과 은유적인 수사로 표현된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힌다.

3) 역주: 화행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한다. 적절성 이론은 말하기의 중요한 자질로서 추론을 강조한다. 적절성 조건의 하위 조건(예비·진실성·기본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



법론적 개인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사회적 구조로서의 발화를 개인적 행위로 축소시켜 설명하고자 했으며, 맥락은 말하기 생산에 참여하는 발화자의 관점, 적절성, 정신적 표상, 말하기 상황의 순간적 발생 등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맥락은 ‘각각의 말(talk)과 그 상호작용’의 국지적인 수반물(local concomitant)이며, 말하기의 발생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분야들이 실제적 언어 사용에 강조를 두든지 혹은 구조화 된 표본에 강조를 두든지 간에 맥락의 개념과 설명의 틀은 개인적 언어활동과 그 언어활동이 발생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두었다.

이와 달리, 두 번째는 사회·역사적(socio-historical) 접근을 따른 맥락 설명이 있다. 맥락을 국지적 행위로서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것(ephemeral)이 아닌, 더 큰 사회·역사적 영역(scope)을 가진 전국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보는 접근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앞선 접근법들이 언어학, 심리학, 미시사회학에 기반한 것이라면, 후자의 접근은 거시 규모의 사회 이론과 역사에 근거한다. 이들은 ‘발화 생산’이 맥락의 발생적 기원이라고 보는 개인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화 생산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맥락의 설명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 조건 위에 말하기의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규범적 언어학 기술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개인적 사용에 있어서 의미의 명료성은, 논리적으로 말하기의 그 어떤 행위보다 선행하는 언어학적 체계—문법적이며 의미론적인 체계—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을 확장하면, 담화 생산에 관계하는 단위들은 분석적인 추상체(예를 들어, 언어학에서의 이상적인 화자)나 혹은 집합체(공동체, 계층, 사회적 네트워크, 성(gender), 연령, 직업, 주거, 등에 의해 세분화된 종사자의 종류)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담화 생산의 시제는 개인주의자들이 실제 시간이라고 불렀던, 발화와 동시에 전개되는 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집단적 체계(systems)와 역사적 과정(processes)들이 만나는 접합적 시간(conjunctural time)이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전국적 접근들은 오늘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푸코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맥락이 언어에 기본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맥락은 상호작용도 아니고, 언어학자들이 주목하는 텍스트나 말하기의 개인적 부산물도 아니다. 맥락에 대한 개념적 틀은 ‘담론(discourse)’이며, 그 담론은 신념의 거대한 형태이자, 힘(power)의 관계에 의해 보급되고 군중(assemblages)에 의해서 명료하게 인식되는 일종의 범주화 과정을 의미한다. Bourdieu(1993)도 이와 유사하게, 언어 형식과 그 변이형들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자본의 다양한 종류를 내재하고 있는 언어학적 시장(linguistic markets)과 관련하여 분석되어 왔다고 보았다. Foucault와 Bourdieu 둘 다 집합적 사실(collective facts)로부터 출발하여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정반대 관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비판적 담화 분석(CDA)에 따르면, 담화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 언어적 형식을 내재한 텍스트로서, 텍스트가 생산·배급·소비되는 ‘논증적 실천(discursive practice<sup>4)</sup>)’으로서, 그리고 규범성과 헤게모니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다뤄진다. CDA는 정치적 경제적 담화, 민족, 상업, 미디어, 관료주의, 교육과 같은 제도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문맥들을 통해, 언어의 사회적 조건들로서의 힘, 이기주의, 불평등 등을 추적한다. 즉 이러한 효력들(forces)이 개인적 발화 사건에서 드러날지라도, 그 개념의 틀은 그 어떤 주어진 사건보다 더 방대하며, 논리적으로 선행되어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주의적 방법론에서는 당연시 되었던 의미의 근원으로서의 화자의 의도가 오히려 모든 거시적 접근에는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의도성을 강조하게 된다.

4) intuitive의 반대로서, 직관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닌, 논증적이고 추론적인 실천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언어학적 심리학적 미시사회학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은 상보적 관계이다. 전자가 발화와 면대면 상호작용의 국지적 배경이 중심이 된다면, 후자는 전자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문맥의 사회적 정의에 중점을 둔 집합적 사실들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는 종종 잘못된 과장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sup>5)</sup>, 이로 인해 맥락의 서로 다른 수준들(levels)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러한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불분명해지기도 한다. 담화의 어떤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관점 중에 하나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층위의 맥락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 둘은 필연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즉,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집합적 사실들이 개인적 행위들의 부수적 현상임을 주장하고, 반면,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적 발화와 면대면 상호작용들이 더 큰 사회적 효력들의 하찮은 침전물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맥락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반대 입장에 있다.

다만, 맥락에 대한 언어인류학(Linguistic Anthropology)은 예외적으로 통합적 수준을 시도한다. 이는 말하기의 실천이 다양한 층위에서 맥락에 의해 형상화되고 또 동시에 맥락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전술한 두 관점의 설명이 모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것은 맥락화된 자질들의 상대적인 의미(significance)를 왜곡시키고, 하나의 수준 또는 다른 수준을 공백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학제적 접근인 언어인류학은 항상 사회적·역사적으로 정의된 배경 안에서 문법과 실제적 언어사용 양쪽에 관계한다. 말하기(speech)에 대한 강조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사실들의 분석을 언어학적이고 문화기술지적(그리하여 미시적인) 접근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말하기의 문화기술지학은 발화의 문화기술적 배경을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질에 관계시키기 위해 말하기의 사건, 공동체, 발화 목록(verbal repertoires)등과 같은 기술적 단위들을 결합했다. 최근 십년 동안 언어인류학은, 각기 다른 스케일의 현상들과 결부되어 있으면서 언어 이데올로기로 알려져 왔던, 언어와 정치학적 경제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Silverstein, 1979; Schieffelin et al., 1998).

그러나 발화 실행에 대한 형식적 특성과 그 사회적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맥락의 연구는 미시적이고 거시적 수준의 현상들 사이의 통속적인 경계 구분을 거부해야 한다. 문맥은 분명 ‘관계’에 기반한 이론적 개념이다. 그래서 ‘~을 위한 문맥’이나 ‘~에 대한 문맥’이 아닌 문맥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문맥을 다루는 방법은 언어 담화, 발화 생산과 수용, 사회적 실행 등을 포함하는 다른 기본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최근에는 언어를 통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미 생산은 근본적으로 맥락에 의존하며, 나아가 어떤 종류의 맥락이, 혹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맥락들이 언어 기술에 필요한지를 정의내릴 수 없으며, 그래서 모든 연구에 분석·적용할 만한 유일한 모형이나 과정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맥락

5) 둘 간의 관계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계승이 아니다. 사실상 그 연원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담론에 맞닿아있다. : 언어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조였다. 주류 언어학에서 언어 기술은 곧 구조 분석과 동일시되었다.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된 구조주의라는 이름은 언어의 범주를 넘어 문화, 사회, 이데올로기, 정치, 제도, 성, 그리고 미학의 여러 현상과 문제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이러한 반향은 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정치학, 철학, 기호학, 그리고 문학 비평 등의 학문에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구조의 개념이 분열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자, 후기 구조주의들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유희론과 마르크시즘,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비판적 담화 분석 등의 영역에서 구조주의가 간과했던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들은 빈약한 주류 언어학이 담당해왔던, 텍스트와 담화에 대한 ‘구조’라는 절대적 개념을 이동시켜, 풍부한 인간적 맥락을 지향하려고 노력했다. 후기 구조주의는 바로 텍스트에 얽혀있는 간텍스트성, 불확정성, 복잡성 등의 본질적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Bougrande(1997)를 빌자면, 후기구조주의란 구조주의와 상반된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한 메타패러다임으로 간주된다. 즉 언어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합하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조주의라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한 출발점과 그 대체 지점을 이르는 말이다. 이로써 구조주의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절차들은 후기구조주의에서 주관적이고 해체적인 것에 의해 대체된다. 이 때문에 회의주의, 이율배반, 신비주의, 상대주의, 해석학적 순환성이라는 문제를 안게 되기도 한다(고영근 외, 2001:400-412, 재인용 요약).

을 구성하는 관계들의 종류와 원칙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에만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맥락에 대한 연구는 담화 실행에 대한 기호학적 구체화(semiotic specificity)와 그 사회역사적 함의(social-historical embedding), 양자를 밝혀야 한다<sup>6)</sup>. 즉, 실행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엄격한 설명을 위해 요구되는 맥락의 단위들과 수준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각기 다른 맥락적 단위들과 수준을 야기하는 관계와 과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인간이 이 특수하고 복잡한 난맥 속에서 실제적인 맥락을 분석해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 (2) 맥락의 정의

맥락의 개념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맥락을 발생시키는 원인(factor)이 무엇인가 또는 근원(resource)이 어디인가에 따라, 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언어학적(엄밀히, psycholinguistic) 관점과 발화 참여자의 지각(perception)을 맥락 발생의 중요한 계기로 보는 심리학적(엄밀히, cognitive)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문장의 연결체로서 텍스트 속에 내재하는 맥락을 분석해 내려는 분석적·증명적 관점이다. 예를 들어, 글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시각은 하나의 발화 단위로서의 문장을 파악하고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 단위인 명제들이 어떤 개념들을 지칭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들 문장의 연속체, 또는 연결된 문장들을 계속해서 분석해나가면서, 그 결과 파악된 개념들을 텍스트 외부에 재생산(reproduction)한다. 그런데 텍스트에 의해 매개되어 있는 이 재생산된 맥락은 원(原)텍스트와 동시에 발생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는 맥락을 포함한 개체들의 통합체이고, 맥락은 의사소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맥락은 발화되는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맥락적 자질(features)’로 추출될 수 있으며, 언어적으로 기술될 수 있어서 맥락의 실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후자는 맥락을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시 개인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으로 하위 구분된다. 짐작하듯이, 이는 언어에 대한 관점이 담화, 인지, 사회적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과 맥을 같이 하며, 언어에 내재된 인식론적 관점의 변화, 즉 객관주의, 개인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로의 변화와 상통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심리학적 관점에 대한 이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개인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던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으로서의 심리적 실재를 넘어, 실제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면서 역사적으로 그 실체를 형성해 온 구체적인 맥락을 상징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탯줄에 의해 태아와 모체가 연결되듯이, ‘지금 바로 여기 놓인’ 텍스트와의 끊임없는(지속성) 관계맺음(관련성)을 통해 그 존재의미를 획득하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 그것은 엄연히 ‘현재 바로 이’ 텍스트와는 ‘별개로’ 실재하는 사실들의 총체(collective facts)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필연적으로 텍스트와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은 오랜 시간을 관통하여 수많은 ‘바로 그’ 텍스트와 유사한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상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맥락을 일명 제도나 관습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따른 견해들 중 대표적인 예는 각각 Halliday & Hasan(1989)과 Spivey(1997:147-153)을 인용할 수 있다.

**언어적 맥락** : Halliday & Hasan(1989)은 크게 맥락을 ‘언어 맥락’과 ‘언어 외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언어 맥락을 ‘텍스트 내 맥락’과 ‘텍스트 간 맥락’으로, 언어 외적 맥락을 ‘상황 맥

6) 이와 같이, W. Hanks은 맥락 기술에 대한 통합론적 관점을 지향한다. 또한 텍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맥락의 역사적 개념들을 되짚는다.

락'과 '문화 맥락'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내 맥락'은 특정 텍스트 내에서 문법적이고 의미적인 결속 관계로, '텍스트 간 맥락'은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가정으로, '상황 맥락'은 발화의 내용(field), 주체(tenor), 양식(mode) 등의 자질로, '문화 맥락'은 텍스트에 가치를 부여하고 텍스트의 해석을 제한하는 제도적이고 관념적인 배경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맥락** : Sperber & Wilson(1986:21-29)은 청자가 가정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 '심리적 구성체'로 간주했다. 또한 Clark & Carlson(1981:313-330)은 텍스트와 개인이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규정했다(Sperber & Wilson(1986:21-29, 재인용). Widdowson(2004:39-58)은 맥락은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를 투영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기타 Spivey(1997:147-153)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스키마 연구자들의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화용론은 언어분석의 한 요소로서 '맥락'을 재조명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는 여전히 맥락 발생의 근원지를 발화에 둔다. 특히 Sperber & Wilson(1986)의 적절성 이론이 제기되기 전까지, Levinson의 일명 체계지향적 화용론이 팽배했을 때까지만 해도, 화행론에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표내적 행위력(illocutionary force)은 발화된 언어에 기반하여 맥락적 의미를 추리해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맥락은 구체적 발화 상황에 기인하며, 맥락이란 언어 사용의 또다른 '규칙'이라고 보고 이를 기술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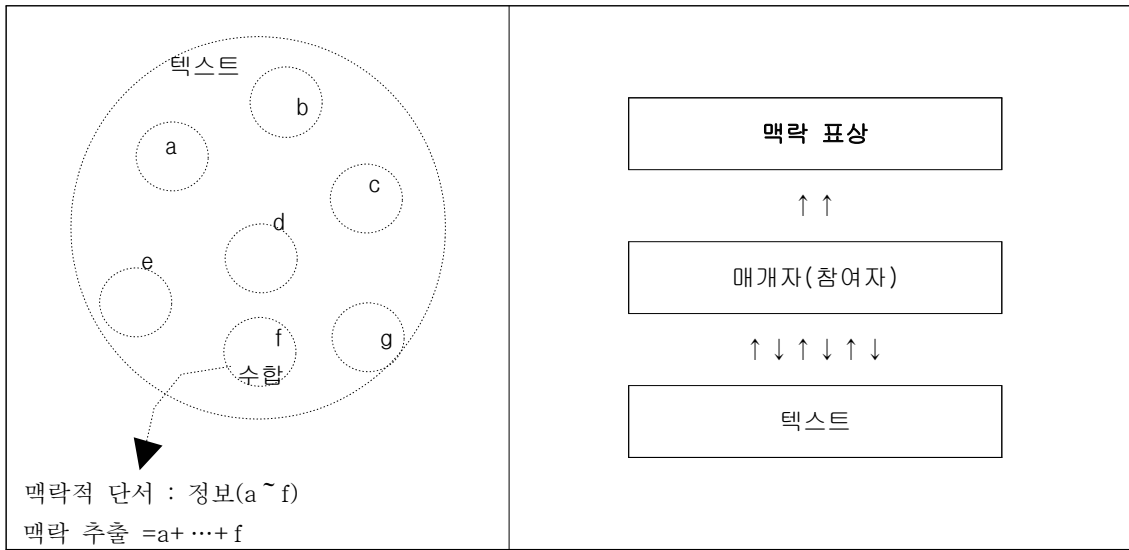
그러나 구성주의적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부터는 화용론에서도 맥락을 화자 또는 참여자의 관여된(이후, '구성된') 지식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Lewis(1969)는 '공통지식(common knowledge)'으로, Schiffer(1972)는 '상호공유지식(mutual knowledge)', Givon(1989)은 '공유된 지식' 등으로 규정한, 이전의 많은 정의들이 재조명된다. 이들은 맥락을 참여자의 머릿속에 재구성된 '지식'으로 규정하며, 맥락을 화자와 청자의 완전한 상호공유지식(mutual knowledge)과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맥락을 기본적으로는 정신적 구조(mental structure)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sup>7)</sup>.

이러한 맥락의 주된 차이는 맥락을 텍스트에 내재된 하위 요소로 보거나 텍스트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단서들로 언어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참여자로부터 표상된 것인지로 구분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둘째는 맥락의 형성 과정에서 맥락이 의미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즉 그 역할(role)에 따라, 체계 지향적인 '반영적' 관점에서부터 기능 지향적인 '적응적'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체계 지향적 관점에서는 맥락을 의사소통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대등하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로 설정하며, 다른 구성요소들이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이나 지위(status)와는 겹치지 않도록 상호 배타적으로 기술된다.

---

7) 후술하겠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상황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러한 인지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있다. 발화 참여자에 의해 포착되고 머릿속에 표상된 맥락이 직접적인 시공간성에 토대를 두느냐, 혹은 거시적인 시공간성에 토대를 두느냐에 따라 각각 상황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관점은 의사소통 상황을 충실히 해석하고 기술하는 데 맥락이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고 직접적이다. 또한 텍스트 해석을 통해 실제 텍스트와 유사한 의미론적 세계로서의 텍스트를 형성하는 데 맥락이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반영적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맥락을 의사소통 상황이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대등한 하나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고<sup>8)</sup>, 의미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하위 맥락들을 설정한 다음, 이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을 지칭하는 포괄적 범주의 맥락일 수도 있다<sup>9)</sup>. 그 무엇이든지 간에 맥락은 텍스트의 언어적 단서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의미를 구성하는 목적에 기여한다. 이는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위해 발생되었으며, 해석자의 의미 구성과 동시에 작용하며, 이미 최종적으로 구성된 의미에 대해 반성적 비판을 가하여 의미를 다시 뒤바꾸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기능 지향적 관점에서의 맥락은 주로 포괄적 규모(scale)로 기술되며, 구성요소(elements)라기보다는 다른 요소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적절한 배경(relevant setting)으로 간주될 만큼 유연성 있게 해석된다<sup>10)</sup>. 비유하자면, 맥락은 텍스트의 상위에 존재하며, 텍스트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맥락이 어떻게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보면, 맥락이 텍스트로부터 텍스트의 의미 세계를 공고히 건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적(global)이고 거시적인 수준(macro-level)에서 의미 구성에 관여한다. 즉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에 의해 텍스트의 성격이나 형식, 텍스트의 해석의 방식이 결정되기도 하고, 나아가,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감추어야만 했던 텍스트의 목적과 의도가 밝혀지기도 한다. 이처럼 후자의 맥락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부지불식간에 강력한 힘으로 독자의 해석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은 의미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텍스트에 대한 전형적인 읽기 방식을 결정하는 강력한 맥락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맥락에 대한 맥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메타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해석공동체 개념(Fish를 빌어)으로도 비유된다. 텍스트로부터 투영된 표상으로서의 의미 세계는 개별적인 독자들의 자유로운 의미 구성이 아니다. 바로 해석공동체로 인식

8) 그래서 첫 번째 분류의 전자도 이에 포함된다.

9) 예를 들어, 말하기의 문화기술지학에서는 배경, 참여자, 목적, 행위, 어조, 전달수단, 규범, 장르(Hymes, 1972), 할리데이와 핫산(Halliday & Hasan, 1989)은 내용, 주체, 형식, 이주섭(2001)은 참여자, 환경, 내용, 유형으로 구분한다.

10) 이는 Bougrande & Dressler(1980)의 텍스트 언어학에서 제기되었던 텍스트성 중의 하나로써, 마치 '수용성'이나 '정보성'과 같은 텍스트의 여러 특질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 하나인, 맥락성(contextu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해석공동체는 해석의 무정부주의를 방지하고 유사한 의미 구성으로 귀결되도록 조정하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견해들 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반영적 맥락** : Hymes(1967, 1972)는 맥락을 상황, 참여자, 텍스트, 사회적 규범으로 보고, 이때 상황은 의사소통의 배경, 참여자, 목적, 행위, 어조, 전달 수단, 규범, 장르를 모두 포괄한다(Duranti & Goodwin, 1997, 재인용). 또한 질적 연구로서의 사회언어학, 특히 문화기술지에서 상황은 언어활동의 일부이며, 맥락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적 틀로 인식한다. 이로써 맥락의 하위 요소로 언어 상황과 사회문화적 요소를 설정한다(Quasthoff, 1997: 733).

**적응적 맥락** : Spivey(1997)는 맥락에는 미시적 차원의 '상황적 맥락'과 함께, 일명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불리는, 체계의 집합, 영향 관계들의 집합, 혹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층위의 또 다른 맥락이 있다고 본다. 즉, 이는 작고 직접적인 상황 맥락 속에 있는 특정한 텍스트 이면에 반영되어 있는 일련의 복합적인 '가치, 믿음, 지식, 기대되는 행위' 등이며, 저자와 그 저자의 의도된 독자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일부이다.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맥락은 실제적인 발화 세계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맥락으로, 명료성을 요한다. 그것은 맥락의 하위 구성 요소들(일명 맥락적 자질들)을 분석하고 빠짐없이 나열 또는 구조화함으로써 맥락이 머릿속에 혹은 실제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의사소통 이론들이 의사소통 상황의 구성요소를 분석해냄으로써 기호학적으로 증명가능한(symbolic-demonstrative) 완전한 맥락의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언어학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또 다른 의사소통적 체계와 규칙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예컨대, 말하기-듣기 영역에서 자주 인용되는 Applbaum et al.(1974)<sup>11)</sup>은 의사소통 상황을 '의사소통자, 메시지, 맥락,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상호작용'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각 하위 요소로, 의사소통자 측면에서는 태도와 동기와 가치관, 인성, 지성, 신념, 지식과 정보, 신상 특성을 들고 있으며,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결속성, 적합성, 갈등, 문제 해결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메시지 측면에서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들고 있다. 이는 언어적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일반 모형을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결국 '수신자-언어(매개물)-발신자'라는 전통적인 평면적 연결 고리에 그동안 '맥락'이라고 분류해왔던 그 나머지 요인들을 '물리적 환경(즉 상황 맥락)'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관계(즉 상호작용)'로 구분하여 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계'맺음으로써 발생하는 메타적이고 전국적(global)인 양상인 '상호작용'측면을 상층에 위치시키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함께 평행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맥락'이 분절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모든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려는 체계론적이고 분석적 입장에 근거한다.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중에 발생하여 의사소통자의 동기나 태도, 메시지의 형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의 적응적 과정이 드러나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맥락이 요소화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반해, 적응적 관점은 맥락이란 담화 참여자에 의해 구성되며, 그 구성의 결과는 다시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적극적인 상호관련성과 지배 관계로 기술한다. 그것은 독자 또는 참여자에게 인식되든지, 혹은 무의식 중에 잠재적으로 작용하든지 간에, 이와 별개로 존재하며,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 포괄적이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맥

11) 박영목(2002:221)에서 재인용. 그림은 생략함.

락은 텍스트의 생산과 별개로 ‘발생(emergence)’되며, 텍스트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과정(process)’을 통해 형상화(shaping)되고 계속적으로 변형되며 의사소통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구조화되는 실체로 본다. 즉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의미 구성의 주체인 의사소통 참여자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스스로를 구성해나가는 메타적인 작용태이다<sup>12)</sup>.

널리 인용되어 있는, Spivey(1997)의 미시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층위의 ‘상황 맥락’의 개념도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이는 의사소통 이론에서 말하는 ‘상황 맥락’이나, 화용론의 ‘상황 맥락’과는 다른 개념이다. Spivey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전국적인 맥락으로서 ‘사회문화적 맥락’인데, 이와 쌍을 이루면서, 참여자가 속한 실제적인 작은 맥락의 다른 층위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 ‘상황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보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작용하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한 것이다. 예컨대, 이 ‘상황 맥락’은 텍스트에 대해 예견된 혹은 관습화된 읽기 방식의 틀을 다시 재조정하게 만드는 맥락이다. 교실 상황이라는 물리적인 상황, 과제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된 읽기의 목적, 교사의 주문과 강조, 동료의 피드백과 관심 등 상호작용하는 많은 맥락들로부터 그 이전의 맥락에 의해 형성된 의미는 다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적응된다<sup>13)</sup>.

이는 나아가,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다 사회 구성주의적으로 맥락을 바라보는 입장에 연결되는데, Alexander, Schallert & Hare(1991)와 같은 경우는 맥락을 ‘사회문화적 지식’으로 간주하고, 경험을 지각할 수 있게 해 주는 여과 장치에 비유한다. 즉 세계에 대한 한 개인의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들(가족, 공동체, 인종 집단, 국가 사회 등)과 공유하고 있는 이해를 통해 걸러진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인식론적 여과 장치를 일종의 ‘방식(way)’으로 비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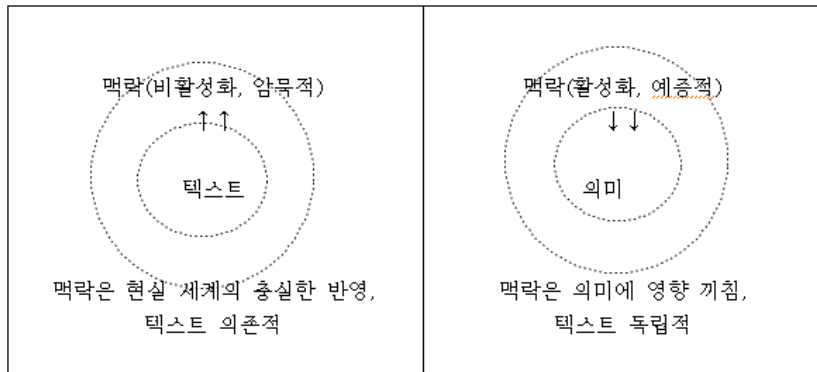
물론, 짐작하다시피, 이러한 관점은 앞서 분류한 인지적 관점의 맥락 개념과 유사하다. 구성적 입장이란 바로 인식 주체가 세계를 인식하여 표상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인식론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바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적응적 관점은 맥락을 구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작용태임을 보다 강조한다는 데 있다. 즉 인식 속에서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재하며 변화하는 것이다.

맥락에 대한 초기의 많은, 그리고 결정적 정의들이 언어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은 언어와 관련된 맥락의 설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함으로써 맥락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언어 준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보려고 했다면, 두 번째 분류는 맥락의 근원지를 단지 언어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언어와는 무관한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sup>14)</sup>까지 확대함으로써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맥락에 대한 많은 설명을 시도한 의사소통 이론의 기여는 바로 맥락을 장(field)으로 설정하고 맥락의 요인(factors)들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연결선상에 있다. 이러한 맥락의 구분을 도식화하여 대별화 하면 다음과 같다.

12) Widdowson(2004: 41)은 맥락을 상황과 차이가 없는 언어 사용 환경이 아닌 좀 더 중요한 무언가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주섭(2001)은 상황이 구체적인 일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맥락은 관련성이나 연계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맥락은 언어 자체도 아니고 상황 자체도 아닌 언어와 언어가 맺고 있는 ‘관계’, 언어와 상황이 맺고 있는 ‘관계’라고 규정한다.

13) 예컨대, 이재기(2006), 임천택(2007), 한민경(2008)의 논의에서 구체화 한 ‘잠재 맥락, 과정 맥락, 실현 맥락’의 구분이나 ‘맥락 탐구, 맥락 표상, 맥락 적용’의 개념 설정은 맥락이 무엇인지, 즉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관계를 중심으로 탐구했다기보다는 맥락의 기능에 주목하여, 맥락의 역동적이고 구성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14) 문화인류학자인 버스위스텔(1970)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비언어적 행동의 역할은 매우 커서 문화적 배경이 서로 같은 사람이 마주보며 말을 할 경우, 65~70%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언어 행동에 의해 전달된다고 했고, 펠러비언(1968)은 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55%, 목소리의 억양이나 톤이 38%이고, 언어에 의한 전달은 겨우 7%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김우룡 외(200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론, 나남 중).



셋째는 단지, 경계와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맥락을 단층적·포괄적 것으로 볼 것인지, 다층위적·제한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맥락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데 반해 제한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른 맥락들과 구분하려는 후자의 입장은 하위에 많은 맥락 요소들을 구분, 기술한다. 이때 설정된 하위의 맥락의 구성요소들(elements or factors)은 사실상 맥락의 유형들(types)로 기술된다. 그만큼 맥락은 본래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성격을 중심으로 유형화 될 수는 있어도, 요소로 확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학자들마다 각기 하위 요소들을 달리 추출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맥락을 ‘맥락 유형’ 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하위 유형들은 전체 맥락 속에서 각각의 역할과 위치를 서로서로 제한하게 된다. 이 경우, 예컨대, Applbaum(1974)에서 설정하려고 했던 ‘상호작용’과 같이 맥락을 발생시키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동적 요인들은 유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요소들 사이에 묻히게 된다. 반대로, 맥락을 요소화(혹은 초점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맥락의 경계나 역할이 끝없이 확장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언급하지 않은 맥락의 다른 작용태까지도 포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견해들은 예컨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층적/포괄적 맥락<sup>16)</sup>** : Sperber & Wilson(1986:15-16)에 의하면, 맥락은 심리적 구성으로, 세계에 대하여 청자가 가정하는 하나의 부분집합이다. 물론 이런 가정들은 세계의 실제 상태라기보다는 발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며, 이런 의미에서 맥락이란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거나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발화에 대한 정보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기대, 과학적 가설이나 종교적 신념, 일반적 기억, 일반적인 문화적 가정들, 화자의 지적 상태에 대한 신념 등도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맥락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된다<sup>17)</sup>.

**다층위적/제한적 맥락<sup>18)</sup>** : Givon(1989:74-75)에 의하면, 맥락에는 세 범주가 있는데, 공유된 세계와 문

15)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구분이 구체성과 추상성의 구분과 꼭 같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제한적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며, 포괄적인 범주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것은 아니다.

16)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었다. 그럼에도 특히 세 번째 분류에서 조심스러운 점은 이런 맥락에 대한 견해들이 단층적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층위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분류를 위해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

17) 이 외에도 Mey(1993: 38)에 의하면, 맥락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서 대화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상호작용의 언어적 표현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넓은 의미의 환경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화용론에서의 맥락을 여전히 언어적 기원에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Mey의 화용론은, Levinson(1983)을 필두로 한 미국의 체계 중심적 화용론과 달리, 포괄적 화용론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오히려 ‘화행의 사-공간인 물리적 배경(setting)’과 참여자들에 의해 바뀌는 추상적이고 내부적인 ‘심리적 배경’으로서의 ‘장(scene)’으로 구분한다.

18) Halliday(1989)를 비롯하여 많은 정의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외에도, Hymes(1972)는 맥락을 네 가지 요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첫째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을 의미하는 상황, 둘째는 참여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목적을 의미하는 참여자,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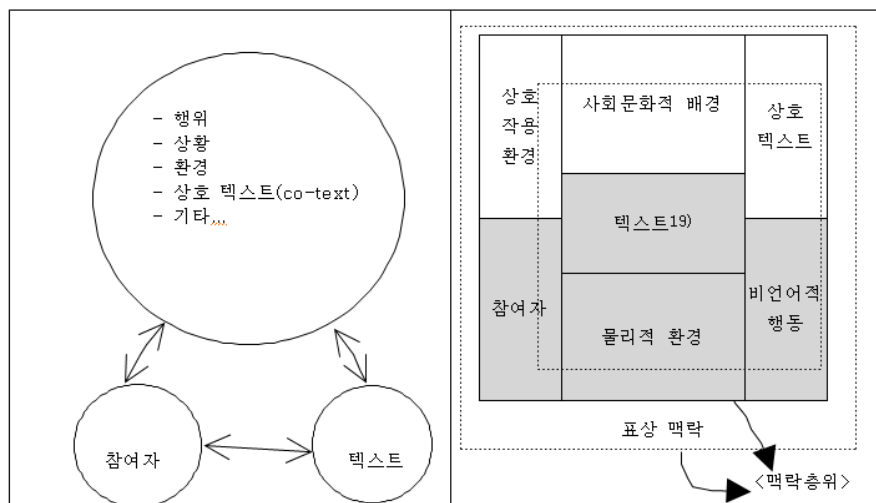


화와 같은 발생적(generic) 초점과 공유된 말하기 상황과 같은 직시적 초점과 공유된 선행 텍스트와 같은 담화 초점이 있다. 발생적 초점은 사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직시적 초점에는 직접적인 말하기 상황이, 셋째, 담화적 초점에는 선행하는 담화에 대한 지식, 담화 양식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또한 Duranti & Goodwin(1992)에 의하면, 맥락은 4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 : 배경(물리적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 행위 환경(비언어적 그리고 동적인) ; 언어(상호 텍스트적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재귀적 사용) ; 기타상황적인(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등), (Marianne Celce-Murcia & Elite Olshtain, 2000:11-15, 재인용)

이상으로 맥락에 대해 몇 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해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학문들이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비록 문맥을 설명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언어학, 의사소통론, 화용론(화행론), 담화 분석 및 텍스트 이론, 사회언어학,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의 기호학 등은 점차 맥락에 대해 정밀한 기술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맥락을 말할 때는, 대화 중에 참여자가 알거나 이해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한다. 텍스트나 발화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통해 추론된 정보까지 모두 맥락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눈빛, 어조와 억양까지 맥락에 포함시킨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개인적 정보나 문화적으로 파생된 모든 정보가 맥락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최근의 경향은 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사물은 담화 중에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환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맥락성을 띠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로소 맥락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Mercer et al.(1988:124, Spivey에서 재인용)는 맥락의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교실 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대화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맥락에 의존하여야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맥락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결론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결국 맥락은 해석자의 지식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허무한 지식론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최근 연구들은 맥락을 개인의 인지적인 구성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현상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그것은 의미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는 메시지의 내용, 형식, 장르, 전달을 의미하는 텍스트, 넷째는 상호작용과 해석을 위한 사회적 규범이 그것이다. 또한 Fairclough(1989)에 의하면, 맥락은 ‘사회조직의 층위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작고 직접적인(immediate) 사회 맥락, 기관적 사회 맥락, 더 광범위한 사회 맥락들이다. 직접적인 사회 환경 층위는 거기에서 담화가 발생하고, 사회적 층위는 특정한 담화 선택을 뒷받침하고 합법화하며, 사회층위는 전체로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Spivey(1997)는, 사회 구성적 관점에서 맥락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는데,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분이 그것이다.

### 3. 맥락의 교육적 적용

#### (1) 맥락의 ‘교육적 적용’ 층위

사회 구성주의적 인식론의 영향으로 국어교육에서도 맥락이 강조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맥락을 ‘적용’하여 기술되었다. 사실상 맥락을 재조명한다는 것이나 특히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마치 모어 화자에게 모어의 문법을 다시 가르치는 현상과 유사하다. 즉, 이미 내재된 문법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말을 잘 구사하고 있는 모어 화자에게 문법을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붙여 다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때 문법은 모어 화자에게는 ‘대상화’된 지식이 되기 쉬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다른 특별한 교육적 목적<sup>19)</sup>을 띠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기호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부터, 맥락은 의미를 확정짓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에서 ‘맥락’을 따로 떼어서 가르쳐보겠다고 하는 것은 맥락을 오히려 객관화된 지식으로 다루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맥락’을 교육 내용의 ‘범주’로 설정한 것이나<sup>20)</sup>, 이를 반영하여 ‘화법, 작문, 독서’ 등 선택 과목에서 ‘맥락’을 개념처럼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맥락이 구현되는 장(場)은 -읽기의 경우,- 구체적인 한 편의 이야기, ‘텍스트’이고, 이 텍스트를 읽음, 즉 경험함으로써 그 맥락은 학습될 수 있다. 따라서 현 교육과정이 ‘맥락’ 혹은 ‘텍스트’ 중심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결국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다른 용어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텍스트 해석에 본질적으로 관여하는 맥락이 강조되는가? 그것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중시되어왔던 ‘기능’이 지나치게 분절적이고 탈맥락화된 경향을 띤 것에 대한 반동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나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접맥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텍스트(세계) 이해에 관여하는 요소였던 맥락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것과 이를 언어 상황마다 해석에 ‘고려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어의 문법을 모어 화자에게 가르칠 때에는, 단어의 배열 규칙을 알아야만 문장을 발화할 수 있는 제2 언어의 학습자의 목표와는 다른 학습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맥락이 텍스트 해석에 본질적으로 관여하지만, 이를 다시 언급해야 할 때는 다른 목적, 다른 언어 전략이 요구될 것이 가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일명 ‘문맥’이니 ‘발화 상황’이니 하는 것들은 새삼스럽게 ‘맥락’을 고려하기 전에도 언제나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맥락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맥락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맥락이 의미 해석에 관여하는 다양한 층위에 따라 다양하게 쓰임을 알기 위해서 맥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Halliday & Hasan(1989)의 구분을 인용한다. 그들은 맥락을 크게 ‘언어 맥락’과 ‘언어 외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언어 맥락을 ‘텍스트 내 맥락’과 ‘텍스트 간 맥락’으로, 언어 외적 맥락을 ‘상황 맥락’과 ‘문화 맥락’으로 세분하였다.

첫째, 텍스트 내 맥락(intratextual context)을 파악해야 할 경우이다. 이때도 우리는 맥락을 파악하여 글을 읽는다고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글에서 ㉠-㉡까지는 일명 문맥이라는 것의 의미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것들이다.

19) 예컨대, 문법을 통해 언어와 세계에 대한 분별력과 그 둘의 관계에 대한 논리와 직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0) 교육과정상에 ‘맥락’은 명목으로만 존재할 뿐, 그것을 기술한 자리는 모호해서, 텍스트 유형을 통해서 궁색하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결국은 텍스트의 실제 맥락을 제시하려는 의도보다는 맥락이 어디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게 했다.

영어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물론 ㉡그것을 배워서 나쁠 것 없고, 영어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다. ㉣한술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화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법적이고 의미적인 결속 관계, 특히 아나포라(anaphora)에 의해 생성된다고 본다. 이 경우 맥락은 분명 발화(문어)와 동시에 발생하며, 언어의 구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맥은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의 맥락을 가지고 맥락의 교육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기 전에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텍스트 간 맥락(intertextual context)을 파악해야 할 경우이다. 이때도 우리는 맥락을 파악하여 글을 읽는다고 한다. 예컨대, 위의 글에서 ㉡과 같은 부분을 해석할 때이다. ‘황소 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범한다’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론 필자가 앞서 언급한 이야기라면 전조응적 지시에 해당하여 앞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자— 바로 앞에 나온 ‘영어를 공용화하자는 주장’을 대응하는 비유적 표현임을 파악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외래종 개구리의 수입으로 인해 토종 개구리들이 죽게 되었다는 텍스트’를 읽거나 듣거나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이 둘의 지시 관계를 확정하게 되고, 비유적 장치의 원관념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텍스트간 맥락이 발생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필자와 독자가 반드시 같은 시공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은 전제가 된다.

이는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와 이전의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일종의 ‘가정’에 기원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시쳇말로 독자가 ‘읽었다고 치고, 또는 안다고 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을 가정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맥락이다. 대표적으로는 신문 기사에 대한 ‘사실’을 읽을 때나 두 개 이상의 글을 상호 비교할 때 또는 하나의 글을 해석하기 위해 다른 글을 읽을 것을 가정할 때 발생하는, 두 글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적 맥락이다. 국어 교육에서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를 가르칠 때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상호텍스트성 원리를 적용한 읽기에서 두 글의 주제나 형식을 비교, 대조하는 수업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이를 맥락에 대한 학습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서사적 텍스트(narrative text), 특히 문학 작품에 드러난 함축적 의미를 지도할 때, 의미의 확정을 위해 다른 작품의 예를 끌어 오는 경우나, 그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었음을 배경지식으로 제시할 때 이러한 맥락이 의미 결정에 관여한다.

셋째, 언어 외적 맥락(exo-textual context)으로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을 파악해야 할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국어교육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부분이다. 이때 ‘상황 맥락’은 발화의 내용(field), 주체(tenor), 양식(mode) 등의 자질로 구성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보다는 경직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화의 주체로서, 혹은 읽기의 주체로서 독자의 성향이나 독자의 읽기 목적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양식이나 유형, 매체의 종류 등도 기계적으로 이해되도록 교육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설득문은 비판적으로 읽도록, 문학적인 글은 감동과 교훈을 찾기 위해 수용적 태도로 읽도록 강요된 측면이 있다. 또한 발화의 내용이 사실이나 허구냐, 논증이나 보도냐 등, 그 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이는 탈맥락적인 읽기의 행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린 왕자’를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읽을 수도 있지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맥락은 발화자의 의도성(intentionality-독자에게 있어서는

acceptability)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독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상 읽지 않으면 상황 맥락은 발생되지 않으며, 어떤 목적으로 읽을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상황 맥락도 인식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다음 예는 글의 특성(mode)이라는 상황 맥락이 독서 방식과 글의 이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가)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임진왜란 발발의 시대적 배경

15세기의 비교적 안정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는 16세기에 이르러 대립이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하여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중종 때의 3포 왜란(1510)이나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과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이르러 국방력은 더욱 약화되고,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봉당 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국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입해 왔다(1592).

(나) 소설

어느덧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한 길에는 하얀 눈들이 소리 없이 내렸다. 그것은 쌓일 기색도 없이 다시 뭉개지고 흙탕물처럼 변해 가고 있지만, 눈발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광화문의 기와와 처마 위에만 고귀한 품새로 살포시 세상에 내려앉았다. 지금부터 10년 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그날에도 이렇게 서글픈 눈이 새색시처럼 곱게 내리고 있었다. 커피숍을 나온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광화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분명 거기서 우연처럼 만났고 오늘 그 같은 언저리쯤 어디선가 다시 우연처럼 헤어질 것을 알고나 있듯이. 휘날리는 눈발이 아니건만 저 흰 것은 눈과 뺨에 맞닿아 겨우 누른 서글픔을 용케도 끌어올리려고 했다. 얼마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힘겹게 억누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래!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품 광고가 아닌, 다음과 같은 매체의 내용이나 종류도 특정한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총구는 결국 나 자신을 겨눈다.>

맥락은 오히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의 교육에서 설명적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에서 강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 구성에 결정적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양식의 글인지를 파악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소통되는 어떤 내용의 글인지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는 것은 상황맥락을 파악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황 맥락 또한 텍스트 해석에 항존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이기는 하나, 교육의 대상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문학작품을 읽거나 지도할 때 문학 텍스트는 거의 탈 맥락적으로 해석된다. 즉 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읽든지 간에 문학 텍스트는 그 텍스트의 고유한 독법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실상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창조적 해석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황 맥락에 전적으로 내맡겨지지 않는 것 같다. 즉 상황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읽혀지도록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황 맥락은 오히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의 교육에서 설명적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에서 강

21) 이체석(2010), 광고천재 이체석-세계를 놀래킨 간판쟁이의 필살 아이디어-, 학교재.

조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는 텍스트 외적 맥락으로 문화 맥락(context of culture)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이다. 문화 맥락이란 텍스트에 가치를 부여하고 텍스트의 해석을 제한하는 제도적이고 관념적인 배경이다. 이는 Halliday(1989)의 용어로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개념은 같으나 교육과정에서 Halliday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Halliday(1994:5)는 후에 문화 맥락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다시 엄밀한 언어적 맥락만을 중시하는 성향을 띤다. 그는 맥락을 사람이 말하고 또는 쓸 때 관여하는 주변 사건들로 기술한다. 간혹 문맥이 약화된 경우나 탈맥락적인 경우에는 담화 그 자체의 형식과 언어학적 기호(code)의 자질들에 의존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담화의 의미는 발화와 함께 생성되는 환경 안에 있는 맥락적 자질들에 의존하며, 담화는 맥락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22)</sup>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Halliday의 문화 맥락을 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현 교육과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Spivey(1997)에서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전술한 맥락의 개념에서와 같이, 체계의 집합, 영향 관계들의 집합, 혹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층위로 설명한다. 즉, 이는 작고 직접적인 상황 맥락 속에 있는 특정한 텍스트 이면에 반영되어 있는 일련의 복합적인 ‘가치, 믿음, 지식, 기대되는 행위’ 등이며, 필자와 그 필자의 의도된 독자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텍스트 해석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은 텍스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의미 구성에 부지불식간에 관여하는 맥락이다. 이는 개개인의 독자에게 포착되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실재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히 지식의 표상이나 사회적 스키마 정도로 취급될 수는 없다.

여하튼 사회문화적 맥락의 도입으로 인해,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 맥락이 이전에 비해 다층적인 것으로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읽기 과정이 다층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모형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1. 기표	2. 기의		
3. 1차적 의미구성 → I. 기표		4. 거시 맥락 → II. 기의	
III. 2차적 의미구성 → i. 기표		3. 미시 맥락 → ii. 기의	
iii. 3차적 의미구성 (→ 다시 기표로)			

독자는 기표와 기의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로부터 일차적인 의미를 구성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함으로써 수정이 이뤄진다. 이러한 의미 구성의 결과는 다시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맥락을 의식함으로써 주어진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재조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구성은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맥락의 관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수정을

22) 이 외에도 Braun, G. & Yule, G.(1983)의 담화분석에서는 대화연속체에서 각각의 발화는 이전 맥락에 의해 형성되며, 다음 발화의 맥락을 형성한다고 본다. 즉 맥락은 발화와 함께 생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3) 이는 체계의 전이로써 텍스트 해석을 시도하는 바르뜨(R. Barthes, 1983:201-202)의 이론, 즉 2차적 기호 체계로서의 ‘신화의 의미작용’에서 응용되었다. 바르뜨는 표현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1차적 체계를 바탕으로 그것에서부터 확장된 2차적 체계를 상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두 체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1차적 체계가 2차적 체계의 표현 국면, 즉 기표가 되는 경우이다. 이는 1차적 체계의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외연(denotation)으로서, 2차적 체계의 기의인 내포(connotation)의 국면과 짝을 이룬다. 기의는 문화, 역사, 지식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환경적 세계가 체계 속에 개입되는 것도 이를 통해서이다.

반복한다. 위의 그림에서, 1차적 의미구성 결과는 기표에 비유되고, 맥락이 관여됨으로써 맥락에 의한 수정된 의미는 다시 기의로서 작용한다. 즉, 맥락은 2차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망(way)’으로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모두 의미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Barthes의 유명한 신화 설명을 예로 들어(그림 참조), ‘1960년 말의 프랑스 신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거나 비꼬기’ 위한 의도로 이 텍스트가 생산된 것이라는 당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해야만이 이 텍스트의 의미(바르트가 말하는 신화의 의미)를 온전히 구성해 낼 수 있다. 그때 이 텍스트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소통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의미 구성에 관여한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텍스트를 지금 현재 읽을 때이다. 즉 텍스트 처음 생산 시점이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공간에서 텍스트를 다시 소통하게 될 경우이다. 이때 맥락은 세 가지로 분화된다.

예컨대, 과거에 이 텍스트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과거의 그 맥락으로 읽혀질 때 이리이러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읽어야 하는지, 혹은 텍스트 초기 발생 시점의 맥락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 텍스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읽혀지고 있는지, 혹은 소통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적 맥락만을 적용하여 읽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를 다 반영하여, 즉 과거의 맥락으로는 이런 의미지만, 현재의 맥락으로는 이러한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이다.

그러나 첫 번째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맥락은 과거의 맥락으로서, 일종의 ‘화석화된 맥락’이며, 텍스트에 관한 지식으로 그 텍스트와 함께 하나의 ‘텍스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맥락은 현재의 맥락으로서, 이것만을 반영하여 읽게 된다면, 우리는 그 텍스트의 역사적 기원과 맥락을 알지 못한 채, 현재적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교육이 ‘교육적이다’고 용납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세 번째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맥락은 가장 절충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역시 텍스트에 대한 지식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이 교육과정에 표면적으로 언급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용어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문학 교육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내가 벼슬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발뵈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라. / 한 글자는 근(勤)이고 또 한 글자는 검(儉)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 부지런함(勤)이란 무얼 뜻하겠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은 저녁때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 한밤중(四更)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집 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 한다. / 검(儉)이란 무얼까?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는 것인데 고운 비단으로 된 옷이야 조금이라도 해지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이 되어 버리지만, 텅텅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며, 곱고 아름답게만 만들어 빨리 해지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곱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 않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중략...) 그러한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처지를 극복하



는 방편만이 아니라 귀하고 부유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나 선비들의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유지해 가는 방법도 된다. 근과 검, 이 두 글자 아니고는 손을 댈 곳 없는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명심하도록 하라.

-국정 국어(상),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 텍스트의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필자와 소통한다.’이다. 그런데 학습 내용은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현재의 독자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텍스트로부터는 도저히 추출할 수 없는 작가와 관련된 배경 지식, 또는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지 맥락이라고 할 수 없다. 당대에 그 편지를 읽는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날 독자에게는 누군가 알려 주거나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배경지식이다. 그런데,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위의 텍스트를 읽고 난 뒤, 필자(정약용)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거나 필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는 학습이 유도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가 미덕인 산업 사회에서 단지 근검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강제하는 정약용에 대해서 오늘날의 독자가 편지를 제대로 쓰게 하거나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생산될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예컨대, 유교적 이념이나 경제 상황, 필자의 개인적 상황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이름하여 맥락이라는 것의 두 가지 다른 개념들이 혼재하게 된다.

즉 필자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첫째이고, 공시대의 독자가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같은 텍스트를 읽게 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둘째 맥락이다. 그렇다면, 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맥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다른 의미로 텍스트화 된, 즉, 화석화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현재적 맥락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 맥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자를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정도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과거에 발생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가 소통하게 된 맥락에 대한 지식 없이 그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상징성이 강한 고대의 텍스트로 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등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단순히 노래나 이야기로만 읽을 수 없는 까닭과 같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의 시공간적 간극에서 생기는 배경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가치, 의미 부여의 문제에서도 의미 구성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연암 박지원의 글은 과거 텍스트가 발생될 시점에서는 여항의 문체를 따랐다 하여 무시되고, 그 의미도 왜곡되기 일쑤였지만, 오늘날 그 텍스트는 각 독자들마다 다양한 의미 구성의 결과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작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자신이 마치 예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다분히 성서 중심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체적 가치가 있지만 오늘날 연애관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 구성이 쉽지 않은 소설일 수 있다. 즉 의미 구성을 위해서는 텍스트 생산 시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분명 차이가 있으며, 어쩌면 그것은 문학에서 말하는 ‘반영론’이나 ‘작가론’, ‘효용론’ 등에 기반한 문학 지식 학습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결국 맥락의 강조가 작품에 대한 지식의 학습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생성해내는 의미는 상황의존적이다. 따라서 유용한 지식이라

함은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한 패턴이 선택되고 또 변형될 수 있는 지식이다. 따라서 배경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활동이라는 목적에 활용 가능한 패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 즉 상호텍스트, 교사, 우수한 동료가 말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수합하는 데(‘assembling of patterns’)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에게 유용한 메시지를 맥락에 따라 선택하는 것(‘choice of patterns according to context’)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읽기는 자신의 일반화된 패턴들을 활동 속에서 맥락에 맞도록 더 구체적이거나 혹은 포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고, 지식의 체계로써 독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험, 즉 활동 속에서 추출된(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은 이러한 패턴들을 형성하고 정교화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2) 교육과정의 적용과 절충

교육과정에 기술된 맥락은 두 가지이다. 주지하다시피, Spivey(신현재 외역, 2004:147-153)<sup>24)</sup>의 논의는 심리학, 지식사회학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물론, 상황맥락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인지적으로 표상된 개념을 전제한다. 이에 따른 2가지 맥락 층위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설정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맥락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맥락’의 개념<sup>25)</sup>이 ‘배경’ 정도로 바꿔쓰기가 가능한, 개괄적인 진술을 지향하고 있어서 맥락이 어떤 개념인지 모호하게 설정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진술이 조금씩 다른데, 예컨대 고등학교 화법 이론에서는 주로 Applbaum et al.(1974)의 의사소통론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10학년까지 공통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Spivey의 맥락 분류에 기초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각기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차원과 거시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으로서 구분되어야지, 편의성을 위해 각기 다른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교육과정 내에서 영역마다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를 보면 국어사용영역에서는 ‘상황 대 사회문화’의 2층위를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문법 영역에서는 ‘의식 대 생활문화’로 2층위를, 문학에서는 ‘주체-사회문화-문학사’와 같이 3층위로 구분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층위가 과연 층위(level)인지, 부분들의 조합(combining of elements)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설령, ‘국어 의식’이 ‘태도나 신념’에 해당한다거나, ‘문학사적 맥락’이 Spivey가 말한 ‘정전화된 맥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이것의 성격은 여전히 맥락과는 구분되어야 할 명제적 지식이나 정의적 지식에 해당하는 성격들을 담고 있다. ‘지식’ 범주가 엄연히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어 생활문화’나 ‘문학사’는 어떤 요소들은 ‘가르쳐야 할/학습되어야 할 지식’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재분류되거나 용어에 따라 재개념화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그의 ‘Constructivist Metaphor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에서 주로 인용되어 왔다.

25) 교육과정은 ‘(마)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은 상황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문법 영역은 국어의식, 국어생활문화를, 문학 영역은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역	국어사용	문법	문학
내용 요소	상황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국어의식 국어-생활문화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특징	1. 맥락과 상황을 다른 것으로 인식, 상황을 맥락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함. 2.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분함.	1. 국어의식(korean awareness)은 언어 지식(language knowledge)과 그러한 언어지식에 대한 심리적 자각(consciousness)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2. 국어생활문화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함.	1. 주체(참여자)와 배경을 분리함. 2. 문학사적 지식을 맥락으로 분류함.
문제 점	- 화용적 맥락(pragmatic context)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됨. - 텍스트 내적 맥락(내용적 맥락)의 중요성 간과.	- ‘국어의식’과 ‘국어생활문화’가 정태적이고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사고방식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지식(개념)’의 속성을 지님 - 맥락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부수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국어와 관련된 ‘생활문화’는 상황과 관련되어(situated-) 있다기보다는 태도에 가까움.	-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이 지식과 맥락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학습해야 할 지식(개념)인지, 학습과 관계없이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떠올려야 할 맥락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는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됨.

이와 같이 기존에 지식으로 분류되었던 ‘필요성, 목적, 상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락’ 범주로 자리만 이동한 듯한 인상을 준다. 요컨대, 교육과정의 맥락 기술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맥락의 틀이나 수준을 동일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토대로 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이 다른 토양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 상에서만큼은 일관된 틀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음처럼 재구성할 수 있다.

맥락 ─ 상황 맥락 - (목적, 과제, 조건 등)

└─ 사회문화적 맥락 ─ 신념 및 태도 ─ 주체성

└─ 국어의식

└─ 지식 및 가치 ─ 문학사적 지식 혹은 정전 지식

요컨대, 맥락이라는 용어를 지칭할 때도 여러 층위가 있지만, 언어 내적 층위에서의 맥락은 대개 ‘결속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텍스트 외적 맥락과 관련된 스키마(지식)의 역할과 작용 양상은 그 중요성에 비해 단순히 ‘경험을 떠올려 보자’는 식의 읽기 전 활동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다. 이 역시 단순한 필요성이나 의의 수준을 넘어 스키마가 어떻게 맥락화 되며, 나아가 사회적 스키마로 형성되며 어떻게 개인적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혼용되는 국어사적 지식이나 국문학적 지식은 단지 ‘맥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쓰기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발화 맥락이거나 수용 맥락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4. 맺음말 및 제언

맥락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현재, 맥락은 읽기 교육에서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로서 읽기 교육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흥미있는 주제이다.

맥락의 정의는 언어적인 것에서 점차 심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것으로 변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맥락을 하나의 언어적 단서로부터 기술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간주하다가 점차 언어 사용자의 심리적 표상으로, 텍스트와는 별개로 항존하는 비언어적인 지식과 상황으로까지 기술되었다. 이는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맥락이 지식의 속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영역마다 다른 배경과 용어로 기술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맥락의 방법론 또한 상세하지 못했다. 교육과정상에서의 맥락의 개념은 영역 내에서가 아니라, 영역 간에 재조정을 통해 개념과 용어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읽기란 맥락을 읽는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그 맥락은 추론을 통해서만 파악되기 때문에 맥락은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의미 구성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지식’의 형태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론상 탈맥락적인 발화나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락적 읽기는 하나의 선택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읽기의 본질에 가깝다. 맥락은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따라서 학습자에게 자각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전략화 되어 가르쳐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교육과정의 한 범주로서 ‘맥락’이 설정된 의의인 것 같다. 읽기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신의 사회문화적 지식과 사회문화에 대한 가치를 확대, 정립해나가는 것이 읽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 ■ 참고 문헌

- 교과부(2008),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 고영근 외(2001), 『한국 텍스트과학의 제 과제』, 역락.
- 김영순·지인영·이정화 역(2002), 『화용론의 이해(Verschueren, Jef(1999), *Understanding pragmatics*)』, 동인.
- 김재봉(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맥락의 수용 문제”, 『새국어교육』 제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69-97.
- 김태욱·이현호(1993), 『인지적 화용론-적합성 이론과 커뮤니케이션-(Sperber, D., & Wilson, D.(1986), *Cognitive Pragmatics*)』, 한신문화사.
- 백설자 역(2002), 『텍스트언어학 입문(Heinemann저)』, 역락.
- 신헌재 외역(2001), 『구성주의 은유; 읽기·쓰기·의미구성의 이론(N.N. Spivey 저)』, 박이정.
- 이성범 역(1996), 『화용론(Mey, J.L.(1993), *Pragmatics*, Oxford: Blackwell)』, 한신문화사.
- 이주섭(2001), “상황 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천택(2007), “새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범주 ‘맥락’의 현장 소통 방안”, 제35회 정기학술대회발표자료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8-46.
- 최상진(2000), 『한국인심리학』, 중앙대학교출판부.
- 한민경(2008), “맥락 중심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현대언어학회 역(1988), 『언어, 의미와 상황맥락(Lyons, J.(1977), *Language, Meaning and Context*)』, 한신문화사.
- Brown, C. & R.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Clark, H. & Carlson, T.(1981), Context for Comprehension, in Long and Baddeley.
- de Beaugrande, R.(1980), *Text, Discourse, and Process, toward a multidisciplinary science of texts*,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ed. Freedle, Roy O., V.6, ALEX Publishing.
- de Beaugrande, R.(1988), *Critical Discourse : a Survey of Literary Theorists*, Norwood, N.J. : Ablex Pub. Co.
- de Beaugrande, R.(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 Cognition,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Knowledge and Society*, Norwood, New Jersey : Ablex Publishing Co.
- Duranti, A., & Goodwin, C.(1997), Rethinking context: an introduction, In Duranti, A., & Goodwin, C., *Rethinking context: language as an interactive phenomen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2.
- Edwards, D., & Mercer, N.(1995), *Common Knowledge-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in the classroo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rtmer, Peggy and Newby, TimothyJ.(1993). Behavior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 Comparing critical features from an instructional design perspective, *Performance Improvement Quarterly* 6(4), pp.51-70.
- Figuroa, E.(1994), *Sociolinguistic metatheory*, Elsevier Science Ltd.
- Givon, T.(2005), *Context as Other Mind*, Amsterdam: Benjamins.
- Green, J. L., & Dixon, C. N.(2002), Context in Literacy, In Guzzetti, B. J.(Ed.), *Literacy in America: an encyclopedia of history, theory, and practice*, ABC-CLIO, Inc, 104-107.
- Gee, J.P. (2000), Discourse and sociocultural studies in reading. In M. Kamil, P.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I*. NJ: LEA.
- Halliday, M.A.K. and R. Hasan. (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London:Edward Arnold.
- W. Hanks(2006),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2nd, Keith Brown, editor)*, Amsterdam ; London :

- Elsevier.
- Hruby, G. G.(2001). "Sociological, Postmodern, and new realism perspectives in social constructionism:implication for literacy research", in *Reading Research Quartely*, Vol. 36, No.1, IRA.
- Marianne Celce-Murcia & Elite Olshtain(2000), *Discourse and context in language teaching ; A guide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 Press. pp. 11-15.
- Mercer, N., Edwards D. & Maybin, J.(1988), 'Putting context into oracy : the construction of shared knowledge through classroom discourse', in MacLure, M(Ed).
- Mercer, N.(2003a), *Words and minds: how we use language to think together*, Routledge.
- Mercer, N.(2003b), *The Guided Construction of Knowledge: Talk Among Teachers and Learners*, Multilingual Matters Ltd.
- Mercer, N., Edwards, D., & Maybin, J.(1988), Putting context into oracy, In McLure, M. Phillips, T., & Wilkinson, A.(Eds.), *Oracy Matters: The Development of Talking and Listening in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122-132.
- Miller, K.(2005), *Communication Theories: Perspectives, Processes, and Contexts(2nd)*, McGraw-Hill.
- Pinnell, G. S., & Jagger, A. M.(2002), Oral Language: Speaking and Listening in the Elementary Classroom, In J. Hood et al.,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2nd)*, New York Erlbaum, 881-913.
- Quasthoff, U. M.(1997), context. I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Netherlands, 730-737.
- Schiffrin, D.(1994),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s.
- Widdowson, H. G.(2004),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ers.

## 맥락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김슬옹(동국대)

토론자는 지난 해 맥락 중심 국어교육론에 대한 박사 논문 “김슬옹(2010)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발표자께서 2009년에 발표한 아래 논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깊이 있는 통찰로 어려운 주제를 파헤치는 선생님 발표에 토론자로 나서게 된 것이 무척 기쁘고 보람입니다.

김혜정(2009).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 21. 독서교육학회. 34-41쪽.

오늘 발표는 위 논문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키면서 구체적인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적용과 응용을 넓혀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론자는 1990년정부터 탈맥락 중심의 주류 언어학(순수 언어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맥락에 대한 첫 논문(김슬옹, 1996)을 쓴 이래 25여년간 고민을 해 왔지만 워낙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여 아직도 배워야 할 것 투성이입니다.<sup>1)</sup>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 질문과 토론을 제안합니다.

W.Hanks(2006)의 맥락 연구사는 선생님의 소개 논문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W.Hanks(2006)의 관점에서의 연구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발표자께서 국내 주요 연구사를 배제하는 것은 W.Hanks(2006)의 연구사 맥락으로 보아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논할 가치가 없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을 알려 주시면 맥락 연구와 맥락 교육에 대한 제 논문 수정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맥락은 인식 틀이나 잣대, 기제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화시키기도 하는 등, 그 자체가 맥락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이런 맥락의 중

---

1) 토론자가 쓴 맥락에 대한 주요 논문은 아래와 같다.(구체적인 서지는 참고문헌)

김슬옹(1996). 담론에 따른 어휘 의미 분석 모색

김슬옹(1997). 개념적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왜 개념적 의미는 담론적 의미인가.

김슬옹(1998). 언어분석을 위한 맥락설정 이론.

김슬옹(1998). 상보 반의어 설정 맥락 비판.

김슬옹(2003). 언어전략의 일반 특성.

김슬옹(2005).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단행본: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김슬옹(2010나).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쟁점에 따른 ‘맥락’ 범주 문제.

토론자의 또 다른 관심사인 세종과 훈민정음에 대한 논의도 맥락 탐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종이야말로 맥락적 접근의 놀라운 통찰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었고, 그 대표적인 업적이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어떤 이들을 토론자가 훈민정음 연구와 맥락 연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저는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대를 왔다 갔다 할 뿐 일관된 학문적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토론자의 논저는 다음 참조.

김슬옹(2007). 28자로 이룬 문자혁명 훈민정음. 아이세움(대한교과서).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층성을 토론자는 [표-49(원 논문의 번호임)]와 같이 종합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특성이 맥락의 중층성 특성을 말함)

[표-49] 맥락의 의미, 구성 요소, 특성, 유형, 가치에 따른 맥락 교육 내용 구성(김슬옹 2010: 가, 160)

갈래		내용
의미	사진 기술 재개념화	어떤 사건이나 일, 또는 생각이나 언어 행위의 연관된 흐름으로, 누군가가 그런 대상(사건, 일, 생각, 언어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담화
	연구자들의 의미 재개념화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체가 고려해야 할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런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 작용과 지식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
구성 요소	주체	-거시 주체/미시 주체 -현실 주체, 텍스트 주체, 상황 주체, 사회 문화 배경 주체, 맥락 주체
	상황	사건 목적, 주체, 내용, 시공간
	사회, 문화, 역사 배경	물리적 배경(국가/권력기관, 제도, 계층, 문화 매체) 정신적 배경(이데올로기/시대이념, 권력, 공동체 가치, 문화행위)
	언어	분절적 언어 단위, 언어 성질, 문체, 표현 양식, 의미
	자료/매체	자료 맥락(언어 자료 맥락, 영상 자료 맥락 등) 매체 맥락(인터넷 매체 맥락, 전화 매체 맥락 등)
특성	주체-사회	구성성, 설정성
	내용-주체	관계성, 일관성
	언어-의미	구체성, 추상성
	의미-인지	총체성, 집중성
	인식-지식	준거성, 지식성
	상황-시공간	역동성, 생성성
	구성-관계	중층성, 상호작용성
유형	주체-관계	주어진 보편 맥락, 공유 맥락
		구성된 생성 맥락
		설정된 설정 맥락
	언어-비언어	비언어 맥락
		언어 맥락
	기능-과정	직접 맥락
간접 맥락		

발표자께서도 ‘맥락의 정의’에서 아래와 같이 맥락의 중층성을 명료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 언어적 맥락과 인지적 맥락
- 반영적 맥락과 적용적 맥락
- 단층적/포괄적 맥락과 다층위적/제한적 맥락

그렇다면 헵크스식 연구사보다는 이런 정의와 직접 연계되면서 맥락 연구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발표자 나름의 연구사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아래와 같은 연구 맥락도 참조될 듯싶습니다.

[표-33] 주요 정의의 대상별 분류(김슬옹, 2010나: 104)

갈래	연구자	정의
----	-----	----

배경이나 환경, 상황	최창렬(1999: 220)	발화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배경
	2007 국어과 교육과정(2008가: 19)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
	박태호(2000a: 63)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환경
	Mey, Jacob L.(1993: 38)	대화(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상호작용의 언어적 표현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넓은 의미의 환경(이성범 옮김 1996: 43)
	Halliday(1985/1994: 5)	사람이 말하고 또는 쓸 때 관여하는 주변 사건들(번역: 김혜정, 2009: 45)
	Quasthoff(1997: 733)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적인 틀(번역, 박창균, 2008: 46)
	임천택(2007: 114-115)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요소나 사회·문화적 요소(또는 관계)
정보나 지식	김재봉(2007: 75)	텍스트(담화/글)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새롭게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이론적이며 심리적인 활성화된 지식
	Clark 과 Carson(1981)	주어진 텍스트를 접한 개인이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
	Lyons(1977b: 572)	언어학자가 실제 상황에서 추상화하고 언어 사건에서의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조직적으로 발화의 형식, 적절성 또는 의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맥락적으로 만드는 조건으로서의 이론적 구성물
	Lyons(1981: 202)	발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 발화한 말의 특별한 사용례(token)의 명제 내용을 결정하는 한 요소(현대언어학회 역, 1984: 171).
	Van Dijk(1978)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가지는 수많은 자질, 특히 여러 발화를 화행으로서 성공하게끔 하는 조건들의 구성요인 자질의 이론적 재구성(정시호 역, 1995: 133에서 재인용)
복합체	이재기(2005: 103)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
	장경희·최미숙(1999: 231)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 문화적 요소_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2008: 231-232).
	Blommaert, J.(2005: 251)	담화가 생산되고, 소통되고 해석되는 조건의 총체성(totality)
심리적 구성체	Figuroa, E.(1994: 150)	지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심리적 구성
	Sperber, D., and D. Wilson(1986: 15-16)	발화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의 실제 상태라기보다, 그 세계에 대해 청자가 가정한 한 부분으로 일종의 심리적 구성
	Widdowson(2004: 39-58)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를 투영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것

[표-30] 주요 사전의 '맥락' 의미 기술(김슬옹, 2010나: 96)

사전 갈래[약어]	의미
표준국어대사전[표]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1999: 2085) *온라인판도 같음.
연세한국어사전[연]	글이나 말의 부분들의 뜻이나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흐름(1998: 679)
동아 연세초등국어사전[연초]	말 글 토론 따위가 일정하게 이어지면서 이루는 내용의 줄기나 흐름(2007: 401)
보리 국어사전[보]	일이나 내용 앞뒤를 이어주는 줄기나 흐름(2008: 470)
Collins Cobuild(1987/2003) <sup>2)</sup> [C1, C2]	1. The context of an idea or event is the general situation that relates to it, and which helps it to be understood. (어떤 생각이나 사건과 관련되어 그 생각이나 사건이 이해되도록 도와주는 일반적 상황) 2. The context of a word, sentence, or text consists of the words, sentences, or text before and after it which help to make its meaning clear. (어떤 단어나 문장,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앞뒤의 단어나 문장, 텍스트)(2003: 30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48/1981)[W1, W2]	1. the parts of discourse that surround a world or passage and can throw light on its meaning(어떤 세계나 구절을 둘러싼 것으로 그것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담화의 일부) 2. the interrelated conditions in which something exists or occurs(1981: 245)(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관련된 조건)
The New Oxford	Whole structure of connected passage in relation of any of its parts: parts which

Dictionary(1478/1978)[O]	immediately precede or follow a written or spoken passage and determine its meaning(1978: 359)(문어나 구어의 어떤 구절 앞뒤에서 의미를 결정해 주는 연관된 구절의 총체적 구조)
--------------------------	--

발표자께서는 맥락의 교육적 적용에서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선구적 업적이면서 국내 국어교육 학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Halliday and Hasan(1989)의 분류틀을 실제 교과서 자료를 통해 검증해 주셨습니다. 세밀한 자료를 통한 검증이라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Halliday and Hasan(1989)의 논의를 비판한 토론자의 김슬옹(2010다, 149-155)의 논의를 축약 재인용해 보겠습니다.

1. 텍스트 : 메타기능 구성물: 생각과 사람들 사이의 복합체로 텍스트 의미를 지닌 것(the text, as a metafunctional construct: a complex of ideational, interpersonal, and textual meaning)
2. **상황 맥락**: 텍스트의 사용역을 구체화하는 내용, 주제, 양식 자질의 배치(구현)(the context of situation: the configuration of field, tenor, and mode features that specify the register of the text)
3. **문화 맥락**: 텍스트의 가치를 부여하고 텍스트 해석을 제어하는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배경(the context of culture: the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that give value to the text and its interpretation)
4. **텍스트간 맥락**: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수행 된 가정(intertextual context: relations with other texts, and assumptions that are carried over therefrom)
5. **텍스트내 맥락**: 텍스트 내적 의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학적 응집성(cohesion)을 포함하는 텍스트내의 통일성(결속성coherence), (the 'intratextual' context: coherence within the text, including the linguistic cohesion that embodies the internal semantic relationship.)\_ Halliday and Hasan(1989: 48-49) \_김슬옹(2010다, 151 재인용)

[표-47] 주요 맥락 분류(임천택, 2007: 8에서 추가 재인용)(김슬옹, 2010나: 152)

구분 연구자	언어 맥락		언어 외적 맥락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최창렬 외(1986)	문맥, 화맥 (언어 맥락)		상황 맥락 (언어 외적 맥락)	
Halliday & Hasan(1989)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문화 맥락
노은희(1993)	언어적 맥락		언어 외적 맥락 (상황 맥락)	
권영문(1996)	언어적 맥락		상황적 맥락	
Rex 외(1998)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텍스트 너머의 맥락
장경희·최미숙(1999)/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위음(1999)	언어적 맥락		상황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주섭(2001)	언어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재기(2005)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
김재봉(2007)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문화 맥락
임천택(2007)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문화 맥락

국내 연구자들은 국어교육 차원에서 Halliday and Hasan(1989)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차용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텍스트 내 맥락과 텍스트 간 맥락을 뺀 맥락을 주요 내용으

2) 네이버 영영 사전은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검색: 2010.6.10).



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문맥으로 환치되는 텍스트내 맥락은 지식 범주나 기능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므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자들의 분류 틀보다는 교육과정 틀이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우리가 맥락을 주요 범주로 끌어들이고자하는 것은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단편적이며 기능적인 언어 인식과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며 실제적이며 역동적인 언어생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표-2]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공통과목 내용별 영역 체계(김슬옹 2010나, 24)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문법	문학	
<b>실제</b> -정보 전달하는 말 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 -설득하는 말 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 -정서 표현의 말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		<b>국어 사용의 실제</b>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b>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b> - 시(시가) - 소설(이야기) - 극(연극, 영화, 드라마) - 수필·비평	
<b>지식</b> -듣기/말하기 ○소통의 본질 ○담화의 특성 ○매체 특성 -읽기/쓰기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	<b>기능</b> -듣기/읽기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말하기/쓰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말하기) ○표현과 고쳐쓰기(쓰기)	<b>지식</b> ○ 언어의 본질 ○ 국어의 특질 ○ 국어의 역사 ○ 국어의 규범	<b>탐구</b> ○ 관찰과 분석 ○ 설명과 일반화 ○ 판단과 적용	
<b>맥락</b>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b>맥락</b>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b>지식</b>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	<b>수용과 생산</b> ○내용 이해 ○감상과 비평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 창작
<b>맥락</b>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b>맥락</b>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b>맥락</b> ○수용·생산의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발표자께서는 각 맥락 유형의 예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텍스트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1) 텍스트내 맥락 자료: 영어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물론 ㉡그것을 배워서 나쁠 것 없고, 영어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다. ㉣한술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화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2) 언어 외적 상황 맥락 자료

(가)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임진왜란 발발의 시대적 배경

15세기의 비교적 안정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는 16세기에 이르러 대립이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하여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중종 때의 3포 왜란(1510)이나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과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이르러 국방력은 더욱 약화되고,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봉당 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국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입해 왔다(1592).

(나) 소설

어느덧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한 길에는 하얀 눈들이 소리 없이 내렸다. 그것은 쌓일 기색도 없이 다시 뭉개지고 흙탕물처럼 변해 가고 있지만, 눈발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광화문의 기와와 처마 위에만 고귀한 품새로 살포시 세상에 내려앉았다. 지금부터 10년 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그날에도 이렇게 서글픈 눈이 새색시처럼 곱게 내리고 있었다. 커피숍을 나온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광화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분명 거기서 우연처럼 만났고 오늘 그 같은 언저리쯤 어디선가 다시 우연처럼 헤어질 것을 알고나 있듯이. 휘날리는 눈발이 아니건만 저 흰 것은 눈과 뺨에 맞닿아 겨우 누른 서글픔을 용케도 끌어올리려고 했다. 얼마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힘겹게 억누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그러나 발표자께서도 다양한 맥락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대로라면 하나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맥락을 검증하고 그 경계선은 어디이며 그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발표 논문 전반부의 맥락의 중층성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논증 텍스트인 최재천님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200고등학교 국어 상, 14-18쪽)의 경우, ‘믿음, 한글’ 등의 어휘 의미 부여와 이해는 문맥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문맥을 분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슬옹(1996)에서 집중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문맥적 지표로 자주 인용되는 지시(직시, dexis), 조응(anaphora), 접속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 관형사, 접속 부사 등도 문맥과 문맥을 지배하는 주제 의식, 저자의 사회적 신념 등과 연계되므로 “텍스트 해석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텍스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다음과 같은 진술은 맥락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텍스트 해석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은 텍스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의미 구성에 부지불식간에 관여하는 맥락이다. 이는 개개인의 독자에게 포착되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실재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지식의 표상이나 사회적 스키마 정도로 취급될 수는 없다. \_김혜정(20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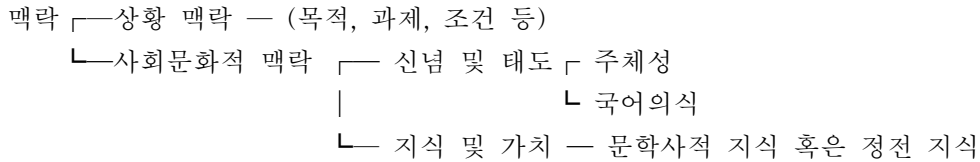
따라서 아래와 같은 도식화는 오히려 맥락의 역동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맥락의 분절적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친다고 봅니다.

[표 28] 읽기 과정의 다층성(김혜정, 2011: 16 재인용, 제목: 토론자 부여)

1. 기표	2. 기의		
3. 1차적 의미구성 → I. 기표		4. 거시 맥락 → II. 기의	
III. 2차적 의미구성 → i. 기표			3. 미시 맥락 → ii. 기의
iii. 3차적 의미구성 (→ 다시 기표로)			

‘기표’와 ‘기의’에 대한 논의는 소쉬르가 촉발한 이해 라깁, 데리다와 같은 탈근대주의자 또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위해 역동적인 문화 분석, 맥락적인 언어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표와 기의가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기표로 전이되는 것인지, ‘거시 맥락’과 ‘미시 맥락’은 단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맥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의 적용과 절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 문제 의식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틀에 대해서는 김슬옹(2010다)에서 토론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인용으로 대신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교육과정 내용 범주별로 다른 맥락의 내용 또는 하위 범주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공감하며 토론자도 그 점에 대해 김슬옹(2009)에서 집중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이하 “김슬옹(2010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83-85쪽.”

문법 맥락의 ‘국어 의식’과 문학 맥락의 ‘문학사적 맥락’을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교육과정의 맥락 분류를 좀더 체계화시킨 장점은 있지만,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좀더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따를 경우 교육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sup>3)</sup> 하나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신념과 태도’는 상황 맥락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또는 “주체성과 국어 의식은 상황 맥락과 상관없는 것인가, 문학사적 지식은 상황 맥락과는 연계되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위와 같은 분류의 문제가 드러난다. 충분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상황 맥락이 지나치게 약하게 설정되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두 가지 문제와 서로 맞물려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거시적 맥락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상황 맥락을 미시적 맥락으로 규정하고 “텍스트의 생산·수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필자와 독자), 주제, 목적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곧 상황 맥락에서의 핵심은 구체적인 언어활동의 ‘주체’다. 그 주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내용, 의도, 과제)의 언어활동을 했느냐이다. 문제는 목적과 내용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을 한다.<sup>4)</sup>

여기서 우리는 상황 맥락에 의한 주체를 ‘미시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한 주체를 ‘거시 주체’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미시 주체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각 개인만의 개성과 욕망을 존중해 주는 주체이고 또 하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이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조건을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찾았다. 그는 주체가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타인에 종속되는 주체가 아니라 자아의 확립과 자기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김웅권 옮김: 2008).

3) 이런 분류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얼마든지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분류 자체가 근본적으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므로 교육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분류는 모호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기술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자의 비판은 특정 논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모호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4) 이창덕 외(2010: 53)에서, 미시 맥락과 거시 맥락의 차이에 대해 “시공간 맥락이란 배경 상황을 의미하는 미시적 개념의 장면인 반면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거시적 개념의 장면이다. 시공간 맥락은 쉽게 변하며 개별적이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은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집단적이다.”라고 구별하였다.

그렇다고 미시 주체성과 거시 주체성을 대립된 주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체성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다.<sup>5)</sup> 누구나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거시 정체성)과 자기만의 개성 중심의 미시 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 정신적 실체를 ‘자아’라 하고, 남과 다른 개성이나 인격체를 정체성이라 한다.<sup>6)</sup> 주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자신이다. 누구나가 정체성은 있지만 주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체성을 지녔는가에 의해 주체성이 구성되고 주체성에 의해 능동적인 정체성이 구성되므로 정체성과 주체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체성’과 ‘국어 의식’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양쪽 다 관련되어 있다. 곧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거시 주체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각 개인으로서의 미시 주체성은 상황 맥락에 관련된다. ‘국어 의식’ 또한 민족주의 차원의 언어 의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하지만, 그로 인한 구체적인 언어 행위, 언어 실천을 위한 의식은 상황 맥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곧 이 때의 ‘국어 의식’은 학습자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능력으로 내면화된 의식으로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도 관련된 의식이기 때문이다. 곧 상황 맥락에 포함되는 ‘국어 의식1’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되는 ‘국어 의식2’가 있는 것이다. 상황 맥락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으로, 언어활동 주체와 그 주체가 겪은 사건으로서의 언어활동으로서의 상황 맥락을 가리킨다. ‘국어 의식’은 단지 관념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가시적인 태도로 표현되거나 태도와 직접 연결되는 역동적인 의식이다.

역동적인 맥락으로 토론에 임하다 보니 토론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펼쳤습니다. 토론에 충실하기 위해 비판적 담론적으로 접근했지만 김혜정 선생님의 논문은 토론자 별명(용달샘)과 같이 어려운 주제로 방황하는 후학들에게 샘물로 힘을 북돋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일깨워 주시고 어쭙찮은 태도가 있었다면 용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논의의 풍성함을 위해 “김슬옹(2010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을 조금 보완하여 그대로 제시합니다.

## ■ 국내 문헌

고영근 외(2001). 한국 텍스트학의 제 과제. 역락.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아르케.

고춘화(2008).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 쓰기의 통합적 접근 모색-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31. 211-240쪽.

권경원(1991). 담화해석과 맥락의 역할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1. 목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53-71쪽.

권순희(2008). 내용 분석과 재구성을 통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운용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36. 박이정. 5-40쪽.

권영문(1996). 맥락과 의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 연구> 2. 서울 대학교 사범

5) 근대적 주체 형성 과정과 근대적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양운덕(1997) 참조.

6) 자아와 정체성을 구별하는 맥락은 에릭슨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Louis Breger(1974)/홍강의·이영식 옮김(1998, 424)에서는 통합적 정체성 차원에서 에릭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에릭슨은 ‘정체성’을 ‘자기(self)’나 ‘자아(ego)’의 개념보다 선호하는데, 이는 자아나 자기가 개인이나 인격의 내면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이다.”

- 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159-175쪽.
- 권정은(2008). 문화교육과 고전시가의 맥락적 정보. <새국어교육> 79호. 5-24.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광해(1995). 언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 연구> 2.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교육 연구 소. 209-254쪽.
- 김국태(2002). 맥락 중심 쓰기 교재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규훈(2008). 공감적 듣기교육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대행 외(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1995). 국어 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7-37쪽.
- 김대행(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5-29쪽.
- 김대행(2006). 국어생활·국어문화·국어교육. <국어교육>. 11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30쪽.
- 김대희(2008).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3. 국어교육 학회. 267-295쪽.
- 김도남(2002).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도남(2002). 텍스트 이해 교육의 접근 관점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127-167쪽.
- 김도남(2007).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내용요소 선정 기준 탐색: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61-89쪽.
- 김동환(2002). 문화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1-22쪽.
- 김동환(2008).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독서 교육. <독서연구> 20-2. 독서교육학회. 111-138쪽.
- 김명순(2002). 인성 발달을 돕는 독서 지도 방안. <독서연구> 7. 한국독서학회. 169-202쪽.
- 김명순(2003). 활동의 개념과 국어교육. <청람어문교육> 26. 청람어문교육학회. 109-128쪽.
- 김명순(2004).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61-81쪽.
- 김명순(2008).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변화와 의미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새 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27-47쪽.
- 김무길(2002). 듀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교육적 시사. <교육철학> 8권 28호. 1-28쪽.
- 김봉순(2004). 독서와 작문 통합 지도의 전망: 비문학 담화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 회. 83-122쪽.
- 김봉순(2007). 읽기 교육을 위한 연구 과제. <국어교육> 123. 한국국어교육학회. 1-29쪽.
- 김상욱(2009).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속 문학 영역의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28호. 한국어교 육학회. 47-72쪽.
- 김성도(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소쉬르 사상의 새로운 지평. 한길사.
- 김성도(2007). 소쉬르 사상의 미완성과 불명성: 소쉬르 사유의 인식론적 스타일에 대하여. <기호학 연구> 21. 월인. 129-158쪽.
- 김성태(1997). 언어·신체·주체 - 중국의 형이상학에 나타난 언어와 주체. <철학사상> 7권. 서울대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김소영(2006). 건의문 쓰기의 지도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19. 357-382쪽.
- 김슬옹(1996). 담론에 따른 어휘 의미 분석 모색. <연세어문학> 28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5-239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재수록(2부 3장).
- 김슬옹(1997). 개념적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왜 개념적 의미는 담론적 의미인가. <담화 와 인지> 4권 2호. 담화인지학회. 51-75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재수록(2부 1장).
- 김슬옹(1998). 언어분석을 위한 맥락설정 이론. <목원어문학> 16.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5-65쪽.
- 김슬옹(2009a).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53-107쪽. 재수록(2장 맥

략 설정과 언어 분석).

- 김슬옹(1998). 상보 반의어 설정 맥락 비판. <한국어 의미학> 3집. 한국어의미학회. 67-95쪽. 재수록:
-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157-191쪽.
- 김슬옹(2003). 언어전략의 일반 특성. 한말연구 13호. 한말연구학회. 85-104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재수록(1부 3장).
- 김슬옹(2005).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43-68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재수록(1부 1장)
- 김슬옹(2009가). 2007 개정안의 '맥락' 범주의 '맥락'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회 제43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09.8.14,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어교육학회. 65-83쪽. (토론자: 김도남)
- 김슬옹(2009나).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맥락' 범주의 핵심 교육 전략.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55-286쪽.
- 김슬옹(2010가).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쟁점에 대하여-맥락은 지식인가, 기능인가, 전략인가. <2010년 동남어문학회 · 한말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동남어문학회 · 한말연구학회. 76-128쪽.(토론: 김혜련, 129-130쪽.)
- 김슬옹(2010나).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쟁점에 따른 '맥락' 범주 문제. <[한]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문법 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한국문법교육학회 1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85-107쪽.
- 김슬옹(2010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시진(2006). 상황맥락을 활용한 어휘력 신장 효과의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민(1997).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사.7)
- 김영진(1994).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와 오스틴의 화행. <철학연구> 34-1. 철학연구회. 241-268쪽.
- 김익환(2003). 맥락의 특성과 언어 사용과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26호.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 김재봉(1994). 맥락의 의사소통적 기능1: 맥락의 선택과 맥락효과. <인문과학연구> 16. 조선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18쪽.
- 김재봉(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맥락의 수용 문제. <새국어교육> 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97쪽.
- 김정란(2008). 사회적 상호작용 말하기를 위한 언어 사용 외적맥락 고찰. <새국어교육> 7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9-120쪽.
- 김정우(2007).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특징. <한말연구> 20호. 한말학회. 101-129쪽.
- 김종문 외(1998).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8)
- 김종철(2007). 학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 122호. 한국어교육학회. 23-44쪽.
- 김종철(2010). 고등학교 국어 '심화 선택' 체계 개편 방향. <국어교육> 131호. 한국어교육학회. 93-117쪽.
- 김태자(1993). 맥락 분석과 의미 탐색. <한글> 219호. 한글학회. 79-113쪽.
- 김관수 · 박수자 외(2000/2003: 2쇄).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9)
- 김현주(2010). 맥락에 기초한 독자의 의미 구성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컨텍스트'이지만, 논문 표기는 '컨텍스트'로 되어 있다.

8) 공저자: 김종문, 강인에, 권성기, 남승인, 송언근, 이명숙, 이원희, 이종원, 이종일, 조영남, 조용기, 최신일, 최창우, 홍기철.

9) 교과별 집필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공저자는 "김관수, 박수자, 심성보, 유병길, 임채성, 허승희, 황홍섭" 등이다.

-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김혜련(2010). 지식의 개념적 성격에 대한 고찰-‘격물치지론(格物致知론)’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와 학문적 쟁점(한국어교육학회 제269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93-112쪽.
-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의 운용실태와 방향. 태학사.
- 김혜숙(2004). 사회언어학 연구의 방법론 고찰.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143-172쪽.
- 김혜숙(2004). 사회언어학의 이론과 전개. <사회언어학> 12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95-122쪽.
- 김혜숙(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교육의 연계성-국어교육에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영향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379-405쪽.
- 김혜숙(2005). 프랑스·독일·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9-88쪽.
- 김혜숙(2009). 사회 방언과 국어교육. <42회 국어교육학회 발표집>. 국어교육학회. 재수록: 김혜숙(2009). 사회문화적 의사소통과 국어교육: 사회 방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 연구> 35. 국어교육학회. 33-63쪽.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정(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141-180쪽.
- 김혜정(2009).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 21. 독서교육학회. 33-79쪽.
- 남정희(2005). 상황맥락을 고려한 말하기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윤홍길 ‘장마’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노명완·이차숙(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
- 노은희(1993). 상황 맥락의 도입을 통한 말하기 지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관식(2005). 상황맥락 탐색 활용을 통한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셸 푸코 외 4인/이정우 편역(1990). 구조주의를 넘어서. 인간사.
- 미카엘 드 생 쉐롱/김웅권 옮김(2008).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 보록: 레비나스 철학과 유대교 사상 사이에서. 동문선.
- 민현식(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갑수 외(2000). 국어 표현·이해 교육. 집문당.
- 박병학(1986). 발문법 원론. 세광.
- 박상진(2003). 컨텍스트의 이론-데리다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0. 현대문학이론학회. 197-225쪽.
- 박상철(2006). 통합교과 교육과정.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초등교육연구> 19-1. 37-52쪽.
- 박수자(1993).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박수자(2007). 구성주의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의. <독서연구> 18호. 한국독서학회. 1-26쪽.
- 박수자(2009). 문맥의 특성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39. 박이정. 157-188쪽.
- 박수연(2004). 상황 맥락 중심 작문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정보전달 글쓰기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목(2002). 독서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접근. <독서연구> 7. 한국독서학회. 1-18쪽.
- 박영목(2005).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국어교육학회 3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47-64

쪽.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박영민(2004). 문식성 발달 연구를 위한 학제적 방법론.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1-42쪽.
- 박영민(2005). 사회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독서의 본질.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229-248쪽.
-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박옥화(1992). 지식분류의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5-45쪽.
- 박은경(2007). 맥락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신경림의 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인기(1994).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인기(1995). 문학 현상과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전략. 최현섭 외 4인 공저.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 박인기(1997). 국어교육학의 생태학적 지평과 발전 전략. <한국초등국어교육> 1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박인기(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1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3-55쪽.
- 박인기(2001).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3-47쪽.
- 박인기(2003).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현실과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69-192쪽. 재수록: 박인기(2003).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현실과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 2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6쪽.
- 박인기(2005).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37-123쪽.
- 박인기(2006).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호. 한국어교육학회. 1-30쪽.
- 박인기(2008). 문화와 문식성의 관계 맺기.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78-98쪽.
- 박정진(2008). 국어수업의 질문활동 연구. 한국문화사.
- 박정진·이형래(2009). 읽기 교육에서의 콘텍스트: 의미와 적용. <독서연구> 21호. 한국독서학회. 9-31쪽. 박정진(2009). 국어교육학 정체성 탐구. 소통. 11장(289-308, 재수록)
- 박정호·양운덕·이봉재·조광재 엮음(1996). 현대 철학의 흐름. 동녘.
- 박창균(2007). 말하기·듣기 수업에서의 맥락화 유형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361-392쪽.
- 박창균(2008).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 설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박태호(2000a).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태호(2000b).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 박형우(2006). 국어 지식 교육 내용의 변천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431-456쪽.
- 박형우(2010).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쟁점에 따른 '맥락' 범주 문제(김슬옹)"에 대한 토론문. <[[한]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문법 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한국문법교육학회 1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08-110쪽.
- 변홍규(1994/1995:증보개정). 질문제시의 기법. 교육과학사
- 부산광역시교육청(2009).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부산: 육일문화사.
- 서혁(2004). 호주의 교육 체제와 자국어 교육과정.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2>. 나라말.



- 손경민(2006). 소설의 사회문화적 맥락 지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병룡(1998). 의사소통에서 맥락의 역할. <영미어문학연구> 14. 영미어문학회. 373-397쪽.
- 손병룡(1999). 맥락의 종류와 발화 해석. <영미어문학연구> 15집 2호. 영미어문학회. 267-290쪽.
- 손병룡(2001). 정보전달에서 맥락의 역할.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영애(2007).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몇 가지 소론. <국어교육> 122호. 국어교육학회. 117-144쪽.
- 송현정(2006). 교육과정 개정 시안 문법 영역의 개정 방향과 과제. <문법 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 송현정(2006).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5-55쪽.
- 송현정(2006).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연구보고 CRC 2006-17).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송현정(2006). 문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 신명선(2003). 지적사고처리어의 특성과 그 국어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고찰.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25-48쪽.
-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245-278쪽.
- 신명선(2008a).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31. 국어교육학회. 357-392쪽.
- 신명선(2008b). 의미. 텍스트. 교육. 한국문화사.
- 신명선(2009). 문법 교육 내용에 관한 담론 분석. <교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을 위한 워크숍-국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1-50쪽.
- 신지연(2007). 시(詩) 텍스트의 일곱 가지 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1-44쪽.
- 신헌재·이재승 편저(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문법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49-72쪽.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183-211쪽.
- 심영택(2002). 국어적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어교육학회. 115-179쪽.
- 심영택(2008). 문식성 교육과 국어 교사의 역할. <문식성 교육 연구> (노명완, 박영목 외 엮음). 한국문화사. 208-223쪽.
- 안지혜(2005). 맥락(Context)에 기반한 시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운덕(1997). 푸코의 권력계보학: 서구의 근대적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제와 사회> 35. 한울.
- 오유리(2009). 맥락 중심 소설 읽기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영(2008). 상황 맥락을 반영한 쓰기 교수·학습 방법-요청하는 글 쓰기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지원(2008). 사회적 소통의 맥락 이해를 통한 고전소설 교육방법 연구 : <임진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2004).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2:캐나다, 미국, 호주, 나라말.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 원진숙(1997). 언어, 언어학 그리고 언어교육.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19-33쪽.
- 원진숙(2001). 구성주의와 작문. <구성주의와 국어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83-106쪽. <한국초등국어교육> 18(2001). 81-106쪽. 채수록.
- 원진숙(2009).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의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개선 방향. <한국초등교육> 19-2호. 서울교육대학교. 21-32쪽.
- 유광찬(2000). 통합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유숙현(2010). 맥락을 활용한 시 교육 방안.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익(1969). contextual Theory와 Prosodic Phonology에 있어서의 Malinowski와 Firth에 관한 소고. <논문집> 5. 대전공업전문학교. 15-27쪽.
- 윤병희(1999). 교육과정학의 학문적 성격 재개념화를 위한 비판적 시론. <교육과정연구> 17권 2호. 393-410쪽.
- 윤재웅(1996). 서정주 시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경화(2008). 텍스트 이해 과정과 맥락의 소통. <문식성 교육 연구> (노명완, 박영목 외 엮음). 한국문화사. 332-354쪽.
- 이경화·김혜선(2008).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상세화 원리 체계화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3. 국어교육학회. 525-555쪽.
- 이관규(2007). 2007년 국어과 문법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과 문법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3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53-80쪽.
- 이광래(2007). 해체주의와 그 이후. 열린책들.
- 이광우 외(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1.
- 이광우 외(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09-10-1.
- 이도영(1998).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도영(2000). 표현 이해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 기능, 전략. 박갑수 외 <국어 표현·이해 교육>. 집문당. 147-172쪽.
- 이미중(2008). 이론적 지식은 왜 가르쳐야 하는가? : 피터즈의 선행적 정당화 논의의 한계와 그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권 3호. 163-191쪽.
- 이삼형(1994). 국어과 교육 내용 설정의 두 축-내용의 합목적성과 수준.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5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삼형(2005).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국어교육학회 3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187-199쪽.
- 이상태(1993). 국어교육의 길잡이. 한신문화사.
- 이상태(2007). 국어과 교육의 환원론적 설계. <국어교육연구> 40. 국어교육학회. 191-212쪽.
- 이성만(2010). 텍스트언어학의 계보, 대상 그리고 경향. <언어과학연구> 52. 119-148쪽.
-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성영(1995). 언어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97-124쪽.
- 이성영(2001). 구성주의적 읽기 교육의 방향. <구성주의와 국어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5-76쪽. <한국초등국어교육> 18(2001). 57-79쪽. 재수록.
- 이성영(2007a). 구성주의 읽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125-155쪽.
- 이성영(2007b).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03-128쪽.
- 이성영(2010). '독서' 과목의 구조.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141-168쪽.
- 이성은(1994). 총체적 언어 교육. 창지사.
- 이수진(2007). 국어과 주제중심 통합 단원의 개발 방안 탐색. <국어국문학> 145호. 국어국문학회. 437-465쪽
- 이원표(2001). 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제. 한국문화사.
- 이은희(1994). 언어 영역의 위상과 내용 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선정어문> 22. 서울대 국어교육과.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기(2005). 문식성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기(2006).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학회. 34-99쪽.
- 이재승(1992). 통합 언어(whole language)의 개념과 국어교육에의 시사점. <국어교육> 79. 한국어교육학회. 73-89쪽.
- 이재승(2002).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층위. <한국초등국어교육> 2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9-162쪽.
- 이재승(2004).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11호. 한국독서학회. 275-299쪽.
-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171-192쪽.
- 이재승(2008). 새 국어 교과서 개발의 쟁점. <한국초등국어교육> 3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73-405쪽.
- 이종열(2003). 국어지식 영역 내용체계의 통합적 재구성 방안.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연구회. 127-160쪽.
- 이주섭(2001). 상황 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창덕 외(2010). 화법 교육론. 역락.
- 이호형(2006). 한국과 호주의 국어교육적 특성 고찰. <대학원논문연구논집> 36. 동국대학교 대학원. 149-196쪽.
- 임선하(1993). 창의성예의 초대. 교보문고.
- 임성우(2005). 맥락과 주변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독일어문학> 31. 한국독일어학회. 335-354쪽.
- 임언 외(2008).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2.
- 임천택(2007). 새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범주 '맥락'의 현장 소통 방안. <청람어문교육> 3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09-141쪽.
- 장경희·최미숙(1999/2008). 맥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2008: 5쇄).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 231-232쪽.
- 장덕순(2009). 맥락 중심의 자기 질문하기가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윤상(2009). 상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Dell Hymes, Willam Labov, 그리고 John Gumperz의 사회언어학 특징 비교 분석. <사회언어학> 17권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33-60쪽.
- 전윤경(2004). 맥락 중심 읽기·쓰기 통합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광숙(2004). 한·미·호 초등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 비교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덕순(2009). 맥락 중심의 자기질문하기가 설명적텍스트의 독해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년(2007a).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 발달. <독서연구> 17-1. 한국독서학회. 139-180쪽.
- 정옥년(2007b). 글쓰기 위한 읽기의 성격과 전략. <작문연구> 5. 작문교육학회. 75-103쪽.
- 정재찬(2006).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국어교육. <국어교육> 120호. 한국어교육학회. 31-70쪽.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 정혜승(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점검. <우리말 현장연구> 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63-188쪽.
- 정혜승(2008a). 문식성 개념 변화와 교육과정적 함의.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169-191쪽.

- 정혜승(2008b). 문식성 교육의 쟁점 탐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1-185쪽.
- 조성오(1994: 개정3판). 철학 에세이. 동녘.
- 조영남(1998). 구성주의 교수-학습. 김종문 외(1998).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51-180쪽.
- 조용기(1998). 구성주의 교육의 구성. 김종문 외(1998).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33-149쪽.
- 조희정(2007). 가상 맥락을 도입한 글쓰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0. 국어교육학회. 501-537쪽.
-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 주세형(2009). 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미. <국어교육> 130호. 한국어교육학회. 173-204쪽.
- 진선희(2007a). 개정교육과정(2007) 국어과 교육 내용 '맥락'의 교재화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77-308쪽.
- 진선희(2007b). 문학 소통 '맥락'의 교육적 탐색. <문학교육학> 26. 문학교육학회. 220-253쪽.
- 진선희(2009). 국어과 교육 내용 '맥락'의 구현 방향.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45-286쪽.
- 진지숙(2007). 협동 학습을 통한 건의문 쓰기 수업 모형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록(1995).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 비교. <청람어문학> 13. 청람어문학회. 316-330쪽.
- 최경봉(2006).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431-463쪽.
- 최규홍(2007).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연구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109-128쪽.
- 최명원(2002). 언어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맥락의 의미. <독일어문학> 19. 477-495쪽.
-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민자(2010). 통섭의 기술. 모시는사람들.
- 최성덕(2006).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과 '계속성'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137-169쪽.
- 최영은(2009). 맥락 단서를 활용한 어휘력 신장 방안.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영환(1995).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77-208쪽.
- 최영환(1995). 언어 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국어교육학 연구> 5. 국어교육학회. 1-22쪽.
- 최영환(1997). 기능과 전략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47-173쪽.
- 최인자(2001). 문식성 교육의 사회·문화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8.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191-220쪽.
- 최인자(2006). 청소년 문학 독서경험의 질적 이해를 위한 맥락의 탐구.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163-197쪽.
- 최인자(2008). 문학 독서의 사회, 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427-449쪽.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118-135쪽. 재수록.
- 최창렬(1983). 맥락과 발화 의미. <어학> 10.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51-63쪽.
- 최창렬(1999). 말과 의미. 집문당.
- 최창렬·심재기·성광수(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 최현섭 외 6인(1996: 2판). 국어교육학. 삼지원.
- 한민경(2008). 맥락 중심 읽기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허재영(2006).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29-40쪽.
- 홍상오(1984). 맥락과 의미결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기동(2007). 초기 맥락의 형성에 대한 연구. <영미어문학연구> 23-1. 영미어문학회. 5-25쪽.

황미향(2009). 국어과 교수·학습 개선 방안-쓰기 '맥락' 체험으로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39. 343-372쪽.

황재웅(2008). 맥락 중심 읽기와 텍스트 유형의 상관성 고찰-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309-337쪽.

■ 외국어 문헌과 번역서

Auer, P and Di Luzio.(1992). *The contextualization of Language*. Amsterdaum: John Benjamins.

Auer, P.(1992). *Introduction: John Gumperz' approach to contextualization*. In Peter Auer and Aldo DiLuzio(eds.). *The Contextualization of Language*: 1-37. Amsterdam: John Benjamins.

Auer, P.(1995). *Content and contextualization*. In Verschueren, J., Ostman, J.-O., and Blommaert, J.(eds.). *Handbook of pragmatics*. 1-19. Amsterdam: John Benjamins.

Austin, J.L.(1962/196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 김영진 옮김.(1992). *말과 행위*. 서광사.

Bakhtin, M.(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trans.)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Univ. of Texas.

Baron.Naomi S.(1994). *Do words have meaning? Dictionaries. definitions. and context*. New Departures in Linguistics. George Wolf(ed).(1992). New York: Garland(Semiotica 99. 1994. Walter de Gruyter에 재수록).

Barthes, R.(1957). *Mythologies*. Paris: Le seuil.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김태옥·이현호 공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 양영각. 김태옥 역(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Benveniste. Emile.(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황경자 옮김(1992). *일반언어학의 제 문제 I*. 민음사.

Benveniste. Emile.(1974).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황경자 옮김(1992).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I*. 민음사.

Berns. M.(1990). *Contexts of Competence: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London and New York: Plenum Press.

Blass, R.(1990). *Relevance Relations in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P.

Blommaert,Jan.(2001). *Context is/as critique*. *Critique of Anthropology* 21/1: 13-32.(special issue on Discourse and Critique, ed. J. Blommaert, J. Collins, M. Heller, B.Rampon, S. Slembrouck, and J. Verschueren).

Blommaert,Jan.(2005). *Discourse: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ommaert,Jan.(ed.).(1999). *Language Ideological Debates*. Berlin: Mouton de Gruyter.

Brinker,K.(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E.Schmidt 이성만 역(199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 Longman. 권오량 김영숙 옮김(2008).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Bruner, J.S.(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nale & Swain.(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ches to Second language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PP.1-47.
- Chierchia. Gennaro and Sally McConnell-Ginet. 1990. *Meaning and Grammar*. Cambridge: The MIT Press.
- Chomsky, N.(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Co. 이승환 이혜숙 공역 (1966). 변형-생성문법의 이론. 범한서적.
- Clark, H. & Carlson, T.(1981). *Context for Comprehension*. in J. Long and A. Baddeley(Eds.), *Attention and Performance*. NJ: Erlabum.
- David R.Russell.(2009). *Texts in contexts: theorizing learning by looking at genre and activity*.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it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pp. 17-30.
- Deleuze, Gilles.(1981). *Difference et repe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상환 옮김(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 Deleuze, Gilles.(1969). *Logique du sens*. Paris: Editions de Minuit. 이정우 옮김(1999). 의미의 논리. 한길사.
- Derrida, Jacques.(1972). *La dissémination*. aux éditions du seuil.
- Diane Macdonell(1991). *Theories of discourse*. Wiley-Blackwell. 임상훈 역(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알튀세 입장에서의 푸코 포스트맑시즘 비판 . 한울.
- Dijk, T.A. & Kintsch.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Inc.
- Duranti, A and Goodwin, C.(eds.).(1992). *Rethinking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gleton, Terry.(1991). *Id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Verso 여홍상 옮김(1994).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 Eco, Umberto.(1984).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diana University Press. 서우석·전지호 옮김(1987 / 1997). 기호학과 언어철학. 청·하.
- Edward O.Wilson.(1999). *Consilience\_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최재천·장대익 옮김(2007). 통섭. 사이언스 북스.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 (ed.).(1992). *Critical Language Awareness*. London : Longman.
- Fairclough, N.(1989). *Language and Powe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Figueroa, E.(1990). *Sociolinguistic Metatheory: An Utterance-based Paradig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Figueroa, E.(1994). *Sociolinguistic Metatheory*. Oxford: Pergamon.
- Firth, J.F.(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p.
- Foucault, Michel.(1966).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이광래(역)(1987).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Foucault, Michel.(1969). *L'arche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이정우(옮김)(1992).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Foucault, Michel.(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이정우(옮김)(1998). *담론의 질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Freedman, A. & Medway, P.(1994). *New Views of Gen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Education*, in Freedman & Medway eds., *Learning and Teaching Genre*, Boynton/Cook Publishers.
- Gee, J.P.(1999).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Theory and method*. London: Routledge.
- Gee, J.P.(2001). *Reading as situated language: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4,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pp 714-725. Robert b.Ruddell, Norman J.Unrau (eds).(2004).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Fifth Edition) 1-4*.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pp.116-132.
- Gert Biesta.(2009). *Pragmatism's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learning-in-context*.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61-73.
- Gibbs, Raymond.W.Jr.(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on, T.(1989). *Mind, Code and Context*. Essays in Pragmatic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oodman, Y. M. (1989). Roots of the whole-language m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ume 90.
- Göran Therborn.(1980).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Verso Edition and NLB 괴란 테르본/최종렬 옮김(1994).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 백의.
- Gumperz, J.(1972). Introduction. In Gumperz, J., and Hymes, D.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1-25*, London: Blackwell.
- Gumperz, J.(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mperz, J.(1992). *Contextualization revisited*. In Auer, P., and DiLuzio, A. (eds.), *The Contextualization of Language*. pp.39-53.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liday, M.A.K and Ha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lliday, M.A.K and Hasan, R.(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1985/1994: 2nd ed).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2002/J.Webster ed.). *Linguistic Studies of Text and Discourse*. Continuum: London and New York.
- Hanks, W(2006),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2nd, Keith Brown, editor)*, Amsterdam ; London : Elsevier.. 일부 번역: 김혜정(2009).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 21. 독서교육학회. 34-41쪽.
- Harris, Roy.(1990). *On redefining linguistics*. In *The Foundation of Linguistics Theory*. N.Love(ed). London: Routledge.
- Harvey, Stephanie · Goudvis, Anne(2007). *Strategies That Work: Teaching*

- Comprehension for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Stenhouse Publishers 스테파니 하비·앤 구드비스/남택현 옮김(2009). 독서 몰입의 비밀. 커뮤니티.
- Havermas, J.(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London: Heinemann.
- Hayakawa. S. I.(1964/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Hjelmslev.Louis/Trans by Francis J.Whitfield.(1961).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Hunt E.(1994). *Problem Solving*. in Steinberg R.J. 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London: Academic Press Ltd.
- Hymes, D.(1964). *Introduction: Toward ethnographies of communication*. In the communication, (eds). J.J.Gumperz and D.Hymes.Washington.D.C: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pp.1-34.
- Hymes, D.(1966). *Two types of linguistic relativity (with examples from Amerindian ethnography)*. In Bright, W. (ed.), Socio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UCLA Sociolinguistics Conference, The Hague: Mouton. pp. 114- 158.
- Hymes, D.(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Irene C. Fountas, Gay Su Pinnell.(2001). *Guiding Readers and Writers Grades 3-6*. Heinemann.
- Jakobson, Roman.(1963).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Minituit 권재일 옮김(1989/1994). 일반언어학이론. 민음사.
- Jean-Jacques Lecercle.(2002). *Deleuze and Language*. Newyork: Palgrave Macmillan.
- Joseph. John. · Talbot J.Taylor.(1990). *Ideologies of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te Miller.(2009). *Implications for researching learning contexts*. Edited by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62-172.
- Katz. J.J.(1972). *Semantic Theory*. Harper & Row.
- Kempson. R.M.(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허광일·이석주·박양귀 공역(1980). 의미론. 한신문화사.
- Kristeva, Julia.(1974). *La Révolution Du Langue Poetique*. Paris: Editons du Seuil. 김인환 옮김(2000).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York*.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 옮김(1994). 인지 의미론. 한국문화사.
- Leech. Geoffrey.(1974/1981). *Semantics*. Harmondworth: Penguin Books.
- Lobov, W.(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ouis Althusser.(1965/1986). *Pour Marx*. Ed. La Decouverte. 고길환·이화숙 역(1990/1992). 마르크스를 위하여. 백의/Trans by Ben Brewster.(1977). For Marx.



- London(NLB). The Penguin Press.
- Louis Breger.(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entice-Hall,Inc. 홍강의·이영식 옮김(1998). 인간 발달의 통합적 이해: 본능에서 정체성으로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udwig Wittgenstein.(1953). *Philosophische Untersuchung*(2001. Blackwell). 이영철 옮김(2006). 철학적 탐구. 책세상.
- Lyons.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J.(1977a). *Semantics.(1.Vol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J.(1977b). *Semantics.(2.Vol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J.(1981). *Language, Meaning and Context*. London: Fontana. 현대언어학회 역(1984). 언어, 의미와 상황맥락. 한신문화사.
- Lyons.J.(1995). *Linguistic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K.Halliday and Ruqaiya Hasan.(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M.K.뮤니츠 / 박영태 옮김(1997). 현대 분석 철학. 서광사.
- Malinowski, B.(1923). *The Problem of Meaning in primitive language*. Appendix to C.K. Ogden and I.A.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Kegan Paul.
- Martin Jonghak Baik.(1995). *Language, Ideology, And Power, English Textbook of Two Koreas*. Seoul: Thaehaksa.
- Martin, J. R.(1985). *Process and text: two aspects of semiosis*. In Benson,J.and Grevas,W.eds. *Systemic perspectives in discourse*. Vol 1. Norwood,NJ: Ablex, pp. 248-274.
- Martin, J. R.(2000). *Close reading: Functional linguistics as a tool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Unsworth, L. (ed.), *Researching Language in schools and Communities: 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s: 275-302*. London: Cassell.
- Mary Jett-Simpson. Lauren Leslie.(1997). *Association, Authentic Literacy*, Wisconsin Reading. 원진숙 역(2004). 생태학적 문식성 평가. 한국문화사.
- Mary Thorpe and Terry Mayes.(2009). *The implications of learning contexts for pedagogical practice*.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eds).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49-161.
- Mathewson, G. C.(2004). Models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uddel & Unrau(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5th).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431-1461. Newark, DE.
- McConnell-Ginet. Sally.(1989). *The sexual (re)production of meaning: a discourse-based theory*. In Frank and Treichler.
- Mey. Jacob L.(1993). *Pragmatics*. Cambridge: Blackwell. 이성범 옮김(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Michael Polanyi.(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표재명·김봉미 옮김(2001). 개인적 지식. 아카넷.
- Michael Toolan.(1996). *Total Speech: An Integrational Linguistic Approach to Language (Post-Contemporary Interventions)*. Duke University Press.

- Michel Pêcheux/Trans by Harbans Nagpal.(1975).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Francois-Maspero.
- Mills, Sara.(1997). *Discourse*. New York: Routledge. 김부영 역(2001). *담론*. 인간사랑.
- Milroy and Milroy.(1990). *Language in Society: Sociolinguistics*. Collinge.
- Milroy, L.(1983). *Comprehension and context: successful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ve breakdown*. Edited by Peter Trudgill. *Applied Sociolinguistics*. Academic Press. pp. 7-31.
- Myers, J. W.(1993). *Making Sense of Whole Language*. Bloomington: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N.N.Spivey.(1997). *The constructivist metaphor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신현재 외 옮김(2002/2004: 개정판).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의미구성의 이론. 박이정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Wellington: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 Nunan. David.(1993). *Introducing Discourse Analysis*. London: Penguin.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DeSeCo)*. OECD Press.
- Osgood. C.E. Suci. G.J.&Tannenbaum. P.(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almer. F.R.(1981). *Semantics(2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현대언어학연구회 옮김(1984). *의미론*. 한신문화사.
- Paris,S.G., Lipson,M.Y., & Witson,K.K..(1983). *Becoming a strategic reader*.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8.293-326.
- Pêcheux. Michel.(1971). *La Semantique et La Coupure Saussurienne: Langue. Langage. Discours/Choisis et Presentes Par Denise Maldidier*.(1990). *L'inquietude Du Discours*. Editions Des Cendres.
- Pêcheux. Michel.(1975). *Les verites de La Palice*. Francois-Maspero/Trans by Harbans Nagpal.(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 Quasthoff.U.M.(1997). *context*. I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Netherland. pp. 730-737.
- Quine,W.V.(1960). *Words and Object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Rapoport. Anatol.(1950). *Science and the Goals of Man*. Harper & Brothers. 안동환 옮김(1977). *과학과 인간의 목표*. 한국문화사.
- Rex.L,Green.J,Dixon.C.(1998). *What Counts When Context Counts?: The Uncommon "Common" Language of Literacy Research*,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0(3). pp.405-433
-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Communities. Activit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ichard Edwards.(2009). *Introduction: Life as a learning context?*.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3.

- Robert b.Ruddell, Norman J.Unrau (eds).(2004).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Fifth Edition) 1-4*.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Roland Barthes.(1973). *Le Plasir de texte*. Paris: Seuil. 김희영 옮김(1997).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 Roland Barthes.(1984). *Le bruissement de la langue*. Paris: Seuil(Translated by Richard Howard.(1989). *The Rustle of Languag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nblatt, L. M.(1978).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Carruthers Illinois university Press.
- Ryle, Gilbert.(1949).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nson's University Library. 이한우 역(1994). 마음의 개념. 문예출판사.<sup>10)</sup>
- Ryle, Gilbert.(1994). *Plato's progress*. Bristol: Thommes Press.
- Saussure/Edited by Bally. Charles and Sechehaye. Albert.(1972).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yot. 최승언 옮김.(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 Schaff. Adam.(1967). *Die Sprache und das menschliche Handeln*. <Essays über die Philosophie der Sprache> 윤명노 역(1987). 언어와 인간행위. <철학 오늘의 흐름>. 동아일보사.
- Schegloff, E.(1997). *Whose text? Whose context?* Discourse and Society 8: 165-187.
- Schiffrin. Deborah.(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Blackwell.
- Smith, .P.L: Ragan.T.J.공저/김동식·정옥년·장상필 공역(2002). 교수설계이론의 탐구. 원미사.
- Sperber, D., and D. Wilson.(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Second edition 1995). 김태옥·이현호 옮김(1993/2010). 인지적 화용론-적합성 원리와 커뮤니케이션 . 한신문화사.
- Sternberg, Robert J., ed.(1994).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cademic Press.
- Steve Fox.(2009). *Contexts of teaching and learning: an actor-network view of the classroom*.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31-43.
- Tamsin Haggis.(2009). *Beyond 'mutual consitution': looking at learning and contex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ity theory*.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44-60.
- Taylor. John.(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조명원·나익주 옮김(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언어학과 원형 이론. 한국문화사.
- Terry Eagleton.(1991). *Ideology: An Introduction*. Verso/여홍상 옮김(1994).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 Tomas, G. P.(1986). *Mutual Knowledge: A Theoretical Basis for Analyzing Audience*, College English 48.6
- Toolan. M.(1997). *What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why are people saying such terrible things about it?* Language and Literature 6: 83-103.
- V.N.Vološnov.(1929). *Marksizm I filosofija jazyka*. Lenigarad/Trans by Ladislav

---

10) 번역 책은 "Ryle, Gilbert.(1984).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Barnes&Noble'판을 옮긴 것이다.

- Matejka and I.R.Titunik.(1986).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Harvald University Press / 송기한 역(198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훈겨래./송기한 옮김(2005).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 Van Dijk.(1978/1980)<sup>11</sup>/정시호 옮김(1995). 텍스트학. 민음사.
- Van Dijk.(1997). *What is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In Blommaert, J., and Bulcaen, C. (eds.). *Political Linguistics*: 11-52. Amsterdam: John Benjamins.
- von Glaserfeld,E.(1991). *Constructivism in Educat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urriculum. Oxford: Pergamon Press. pp.31-32.
- von Glaserfeld,E.(1995).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Teaching*. Constructivism in Education 1. P.Steffe&J.Gale,ed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3-15.
- Vygotsky, L.S.(1934)/Edited and translated by Eugenia Hanfmann and Certrude Vakar.(1962). *Thought and Language*. THE. M.I.T.PRESS. 신현정 역(1985). 사고와 언어. 성원사.
- Widdowson,H.G.(1977).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ddowson,H.G.(1979).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Widdowson,H.G.(1995). *Discourse analysis: A critical view*, *Language and Literature* 4: 157-172.
- Widdowson,H.G.(1996). *Reply to Fairclough: Discourse and interpretation: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anguage and Literature* 5: pp.57-69.
- Widdowson,H.G.(1998).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pplied Linguistics* 19: 136-151.
- Widdowson,H.G.(2004).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ers.
- Witte, S. P.(1992). *Context, Text, Intertext: Toward a Constructivist Semiotic of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9(2). pp.237-308.
- 마페졸리·르페부르 외(1989), *Current Sociology*(vol.37: 1, 1989)의 특집 "Sociology of Everyday Life"외/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역(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11) 이 책에서는 '반 다이크라 부름. 이 책은 다이큐의 1978년 네덜란드어 저술에 대한 독어판(1980)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정시호 역자 서문).

# 국어교육을 위한 어휘 관계의 활용

이동혁(부산교대)

## 차 례

1. 머리말
  2. 교육과정의 어휘 관계 교육 내용
  3. 어휘 관계에 대한 관점
  4. 어휘부에 기반한 어휘 관계의 특성과 기능
  5. 어휘능력과 어휘 관계의 상관성
  6. 어휘 관계의 교육 내용
  7.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 ○ 연구 목적

- 국어교육에서 어휘 관계의 활용 가치는 꽤 크다. 그러나 어휘 관계는 의미 관계로만 국한되어 다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그 의미 관계도 단어의 의미 파악과 어휘의 양적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교육적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 글은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어휘부의 관점으로 이동하여 의미 관계를 어휘 관계로 확장한 뒤, 어휘 관계의 특성과 기능이 국어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 2. 교육과정의 어휘 관계 교육 내용

### ○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관계 관련 내용

【2-문법-(3)】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등의 개념 이해하기
- 낱말들 간의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어휘 더 알기
- 낱말들 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에 관심 가지기

이 성취 기준은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여 ① 낱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학습자들의 어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낱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도록 지도하되 낱말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여러

낱말들에 흥미를 가져 ② 더 많은 낱말들을 알게 지도한다. 가능하다면 유의어, 반의어쌍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교수·학습 자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③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낱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상하 관계 등에도 관심을 갖게 지도한다. 어떤 글을 읽은 뒤 글에 나오는 중요 낱말들을 골라 해당 단어의 유의어나 반의어를 찾는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④ 유의어나 반의어를 넣어 짧은 글을 쓰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낱말

‘밤낮’, ‘좋다 싫다’, ‘해 태양’ 등 학습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낱말을 언어 자료로 선택한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낱말을 선택하여 학습자들이 여러 분야의 낱말들을 접하게 한다.

#### ○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 ■ 의미 관계 설정의 이유

- ①로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하고, 학습자들의 어휘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어휘의 의미 관계를 설정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 ■ 문제 제기

- 의미 관계로 어떻게 어휘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 낱말과 낱말 간의 의미 관계로 어떻게 어휘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것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문제라기보다 학자나 교육자의 책임이다. 이들에게는 어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의미 관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 의미 관계로 신장시킬 수 있는 어휘능력은 더 없는가: ②의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히 어휘의 양적 능력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 의미 관계의 목록을 다양화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이 의미 관계를 어휘 관계로 확장할 수는 없는가: 어휘가 꼭 의미적 관계로만 체계화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어휘 교육 내용에는 오직 어휘의 의미 관계만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미 관계의 종류가 많을 텐데 ③으로 보면 그것도 유의반의상하 관계로만 국한되어 있다.

#### ○ 참고: 교과서에 서술된 의미 관계 관련 내용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읽기> 셋째 마당 ‘슬기로운 눈으로’

① 학습 목표: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안다.

② 학습활동: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설명)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면,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 뜻이 서로 반대 되는 낱말,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거나 다른 낱말의 뜻에 포함되는 낱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면, 더 쉽고 재미있게 낱말의 뜻을 익힐 수 있다.

(설명) 책을 읽다가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자. 그리고 뜻이 비슷한 낱말들, 뜻이 반대 되는 낱말들,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거나 다른 낱말의 뜻에 포함되는 낱말들을 찾아보자.

### 3. 어휘 관계에 대한 관점

####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된 관점: 구조주의 이론의 의미 관계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으로 의미 관계를 바라본다.
  - 이런 입장은 어휘론이나 의미론 개론서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Singleton(2000)에서는 5.3절에서 의미 관계를 ‘의미에 대한 구조주의적인 시각(structuralist perspectives on meaning)’에 넣고 서술하였다.
- 구조주의 의미론의 특징(최호철 2006:39-40)
  - ① 어휘의 공시적 분석이 통시적 분석에 선행한다.
  - ② 어휘는 무질서한 요소 목록이 아니라 구조화된 망상 조직이다.
  - ③ 어휘의 의미 분석은 언어 내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④ 어휘의 의미 가치는 관련 어휘의 대립으로 기술된다.
  - ⑤ 어휘의 의미 관계는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를 포괄한다.
-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의미 관계의 역할
  - 단어의 의미는 언어 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고, 단어의 의미 가치는 그 단어와 계열적으로든 결합적으로든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와의 대립을 통해서 기술된다(이동혁 2009:54). 즉, 관련된 단어들 속에서 단어의 의미 가치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 구조주의 이론의 의미 관계에 대한 비판적 생각
  - 언어 내적인 구조로서의 의미 관계에 대한 비판: 학습자의 능력보다는 언어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에 기반한 의미 관계가 되어 버렸다.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얻게 될 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자가 얻게 될 능력’이란 언어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보다는 어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요한다(주세형 2005 참조).
  - 의미 관계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어 있다. 어휘 교육에서 의미 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 이론에 기반한 의미 관계로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관련된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 의미 관계의 목록이 다양하지 못하다. 동의 관계(또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정도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휘는 꼭 의미적인 관계로만 연결될까?

#### ○ 관점의 이동: 어휘부 또는 머릿속 사전

- 어휘부 논의의 필요성(구본관 2010:200)
  - 인간이 언어로 말하는 이상, 누구나 어휘부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된다. 어휘 능력을 잘 갖춘 학습자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어휘부를 가진 학습자를 말한다.
  - 최근 언어학에서의 화두의 하나는 어휘부학이다. 어휘부의 범위가 확장되어 문장이나 담화 형성에 어휘부가 기여하는 바가 논의되고 있다.
  - 어휘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어교육에서 관련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이 가장 반영되고 있는 분야이며, 한 개인의 어휘부가 평생동안 계속 성장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인 구성주의적 관점으로도 이어진다.
- 어휘부의 특성
  - 어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거대한 어휘망(lexical network)을 이룬다.
  - 어휘는 의미적 동기뿐만 아니라 음운적 동기, 형태적 동기, 통사적 동기, 화용적 동기로 서로 연

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휘망은 다차원적이다. ⇒ 연결주의(connectionism)

-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어휘가 연결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미에 기초한 연결이다(Aitchison 2004; Bybee 1985).

#### 4. 어휘부에 기반한 어휘 관계의 특성과 기능

##### ○ 어휘 관계의 형성

###### ■ 유사성에 의한 어휘 관계의 형성

- 단어가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를 활성화함을 뜻한다. 연결의 매개, 즉 노드(node)는 어휘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다. 유사성은 음운, 형태, 의미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되는데,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미에 기초한 연결이다(나은미 2008:180).

###### ■ 대립에 의한 특정한 어휘 관계의 형성

- 유사성에 의해 관련된 단어들은 어느 한 기준에 대해서 최소로 다를 때 의미 관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서 Murphy(2003)에서 '대립에 의한 관계(Relation by Contrast)'라고 하였다. "한 집합의 원소들 모두가 하나를 제외하고 문맥적으로 관련된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면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그 원소들 사이에 대립 관계가 적용된다."
- 최소로 다른 그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어휘 관계의 종류가 결정된다(Murphy 2003).

관계	관련시킴	유사성	비양립성	보기
동의관계	단어들	의미, 통사범주, 언어사용역	단어 형태	COUCH=SOFA=DIVAN=SETTEE=DAVENPORT
반의관계	단어들	의미범주, 범주화 층위, 언어사용역, 형태론 등	의의	RISE/FALL HAPPY/SAD LIFE/DEATH
범주 대립	범주들	의미장, 범주화 층위	범주화 기준	RISE/GO DOWN HAPPY/SAD HAPPY/ANGRY
하위관계	범주들 이 나 범주들의 명칭	의미범주	범주화 층위	BIRD>{ROBIN/SWIFT/SWAN ...}
부분·전체관계	범주들 이 나 범주들의 명칭	동일 대상물	완전함의 층위	HOUSE>{WALL/ROOF/FLOOR/DOORS ...}
문법 계열	단어들	어휘소, 굴절범주 유형	굴절	DRINK - DRANK - DRUNK

##### ○ 어휘 관계의 특성

###### ■ 의미 관계의 특성(Murphy 2003)

- 생산성(productivity): 낱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 고리가 생성될 수 있다.
- 이분성(binarity): 몇몇 관계는, 비록 낱말들의 더 큰 집합들이 그 관계를 위하여 의미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낱말 쌍들만 관련시킨다(예: black/gray/white라기보다는 black/white).
- 가변성(variability): 한 특정한 낱말이 어떤 낱말과 관련되는가는 그 낱말의 어떤 의의가 사용되는가와 그 낱말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변한다.



- 원형성과 규범성(prototypicality and canonicity): 일부 낱말 집합들은 다른 낱말 집합들보다 어떤 관계의 더 좋은 보기를 제공하고, 일부 낱말 집합들(특히 일부 반의어 쌍들)은 어떤 관계의 규범적 보기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 같다.
- 반의미성(semi-semanticity): 낱말들의 의미 특성은 낱말들을 관련시키고, 의미관계를 판단하는데 작용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 불가산성(uncountability): 의미관계 유형의 수는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 위의 특성을 정리하여 어휘 관계에 적용해 보면,
  - 여러 요인에 의해 어휘가 연결된다. ← 반의미성, 불가산성
  - 어휘망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할 수 있다. ← 생산성
  - 어휘 관계는 맥락에 연동된다. ← 생산성, 가변성
  - 그렇지만 특정한 단어쌍이 다른 단어쌍보다 어휘 관계의 관습성이 클 수 있다. ← 이분성, 원형성과 규범성

### ○ 어휘 관계의 기능

- 의미 확정
  - 다른 어휘소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해 어휘소의 의미를 확정한다.

Ⓜ 임흥빈 편저(1993). 《뉘앙스풀이를 겸한 우리말사전》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낫다 : 아물다

(가) 낫다 - 병이나 상처나 이상이 치유(治癒)되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에 두루 쓰인다.

(나) 아물다 - 병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으며, 상처가 치료되어 이전의 상태로 또는 이전의 상태에 가깝게 되는 것을 뜻한다.

(1) 상처가 이제는 다 나았다/아물었다.

(2) 병이 다 나았다/\*아물었다.

↳ 이는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설명한 것이고, 사전의 뜻풀이 방식이 그러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여름’의 정의: 봄과 가을 사이이며, 낮이 길고 더운 계절로, 달로는 6~8월, 절기(節氣)로는 입하부터 입추 전까지를 이른다.

- 사용 환경의 차이를 안다. → 주로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가 이에 해당한다.

죽음 [death]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삶 또는 생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의학·생물학·철학·종교·법률학·심리학 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된다. 의학적으로, 특히 임상적 죽음은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멈추었다는 확증이 있을 때를 말한다.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주검이 매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등 장례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면서 종교의 ‘죽음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종교의 상제에 대한 관심과 비중도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서구에선 ‘태어나고 혼인하고 죽을 때만 교회에 간다’는 유행어가 나온 지 오래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선 관음(관세음보살)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 들어 사후를 관장하는 보살인 지장 신앙이 번창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례 풍습의 변화도 종교의 상제 문화를 퍼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전엔 장례를 친척과 마을공동체가 담당했으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종교가 이를 대체해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의 경우 성당에서 엄과 입관,

장례식까지 일체를 봉사하며, 사찰과 교회도 장례 봉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장례 봉사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찾는 이들이 많다. 죽음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 종교의 사후관을 알 수 있다.

바티칸에서 교황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의 장면이 공개되는데, 이별에 대한 아픔이 당연한 것이지만 원래 가톨릭 쪽은 곡을 하며 우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과는 사뭇 다르다. 가톨릭에서 신자는 운명 전에 사람들을 물리친 뒤 신부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성사를 하고, 종부성사를 받는다. 죽음이 다가오면 임종경을 읽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때 옆에서 큰소리로 통곡을 하거나 흐느끼게 되면 당사자의 마음에 불안을 주게 된다고 울지 않고 거룩한 기도문이나 성가를 들려주도록 한다. 가톨릭에선 이런 과정을 거친 죽음에 대해 ‘성사를 받아 대죄가 없는 상태에서 복되게 끝나친다’는 뜻으로 선종(善終)이라고 한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뜻의 소천(召天)을 쓰거나 ‘세상과 이별한다’는 별세를 쓰기도 한다.

불교와 원불교에선 열반, 입적, 적멸 등으로 쓴다. 모든 미혹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세계에 이른다는 뜻이다. 불교에선 죽는 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내생에 천상, 인간, 지옥 등 어느 세계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 결정된다고 본다. 열반은 견성 성불해 이런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

민족종교인 천도교에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며 ‘환원’이라고 한다. 모든 생명은 바로 한울님 곧 이 우주라는 커다란 생명에서 온 것이며 동시에 죽게 되면 이 우주의 커다란 생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말에선 사람이 죽을 때, 본래 회귀를 뜻하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 모든 것이 녹아든 말이다.

한 가톨릭 신부는 “마지막을 뜻하는 ‘선종’보다 오히려 ‘영혼한 생명을 받아 하느님께 돌아갔다’는 것이 훨씬 가톨릭적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5-4-7)<sup>1)</sup>

■ 추론의 경로를 제공한다.

A: 내가 너에게 뭘 줄 테니 뜨지 말고 좀 감아봐.

B: “어디를 감아?”

↳ A의 발화에서 ‘뜨다’와 ‘감다’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뜨다/감다’의 연어 관계로 추론할 수 있다.

↳ B의 발화가 A와의 대화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까닭을 ‘감다’의 연어 관계로 추론할 수 있다.

■ 응결성을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 응결성: 응결성은 흔히 ‘결속구조’로도 번역되는 텍스트다음의 언어적 조건이다(고영근 1999:141).

□ 응결성 장치(고영근 1999)

- 자소론적 응결 장치
- 음운론적 응결 장치
- 형태론적 응결 장치
- 통사론적 응결 장치
-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댄 응결 장치
- 기능상의 등가성에 기댄 응결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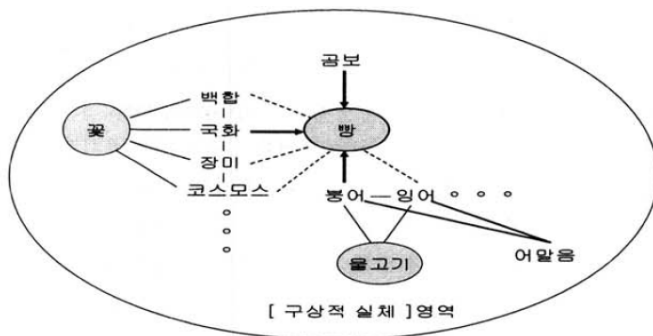
형태론적 응결 장치의 예(김중신(2010:158)에서 가져옴)

1) 밑줄은 필자가 가한 것이다.

경상도 할머니: 왔데이.  
 미국인 남자: 먼데이.  
 경상도 할머니: 버스테이.  
 미국인 남자: 해피버스테이.  
 경상도 할머니: 마을버스테이.

의미상의 등가성에 기댄 응결 장치의 예(고영근(1999:156)에서 가져옴)  
 낭떠러지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낭떠러지 위에는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강쪽으로 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 단어 형성과 이해에 관여한다.
  - 어휘의 구조적 유사성을 유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해석할 수 있다(나은미 2008:183).
    - ↳ 예: ‘꽃’과 상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빵’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물고기’와 상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빵’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나은미(2008:182)

- 통사 구성의 형성과 해석에 관여한다.
  - 특정한 구문을 형성하는 데 어휘 관계가 관여한다.
    - ↳ 'X-거나 Y-거나' 구문 형성에 관여하는 반의 관계(예: 철이는 영이와 문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걸어갔다.)
    - ↳ 주격 중출 구문 형성에 관여하는 상하 관계(예: 생선이 조기가 가장 맛있다.)
- 텍스트 생성과 해석에 관여한다.

(17)에서 보듯이 『국어』나 『문법』 교과서에는 지속적으로 언어, 구체적으로 단어의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자의성(arbitrariness)’을 띠고 있다는 기술을 해 왔다. 그 결과 교수자나 학습자들은 언어의 특성으로서 자의성을 중요한 원리 또는 전제 사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7)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단어의 형식과 의미는 항상 자의적인가? 실제로 단일어의 ‘손(手)’, ‘목’, 그리고 ‘불다’는 그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합성어 ‘손목’은 ‘손’과 ‘목’, 그리고 파생어 ‘불그스름하다’ 및 ‘빨강’은 ‘불다’와 형태적으로 닮아 있다. 이처럼 언어 기호의 형태가 의미를 반영하는 속성을 ‘도상성(iconicity)’이라고 한다. 단어의 형식과 의미는 자의성뿐만 아니라 도상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의성이 주로 단일어에 국한되는 성질인 반면, 복합어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는 도상성을 띠므로써 이 둘은 상보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하겠다. 언어의 자의성과 도상성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다. 곧 자의성은 기호의 형태가 의미에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써 단어, 특히 단일어를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반면, 복합어의 도상성은 언어의 형태와 의미의 연계가 유사성이나 어떤 동기에 기초하므로 기호의 형태에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한층 더 쉽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때, 어휘 탐구에서 자의성뿐만 아니라 도상성의 원리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균형된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임지룡 2010:14-15)

↳ 위의 글에서는 반의 관계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단어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자의성 대 도상성', '소리/형식/형태 대 의미', '단일어 대 복합어', '교수자 대 학습자'

■ 비유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기반이 된다.

- 우리가 맥락과 상관이 없이 기억하고 있는 어휘 관계는 관습성이 높다. 이렇게 관습성이 높은 어휘 관계를 의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비유적인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관습적인 어휘 관계의 대표가 바로 연어 관계이다. 이 관계를 의도적으로 어김으로써 비유적인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

↳ '개와 '짓다'는 연어 관계에 있다. 이 관계가 의도적으로 깨짐으로써 비유적인 의미가 생성된다. (예: "그 친구는 계속해서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짓어댔다.")

○ 어휘부에 기반한 어휘 관계의 함의

- 의미 관계에서 어휘 관계로 확장하여 어휘 체계를 논의할 수 있다.
- 언어 내적인, 폐쇄적인 어휘 구조 속에서 논의되던 어휘 관계를 인지적인 관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
- 어휘소와 어휘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작용을 어휘 관계로 이어진 어휘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어휘 관계의 기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어휘 관계의 동적인 작용으로 어휘 능력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5. 어휘능력과 어휘 관계의 상관성

○ 어휘력과 어휘 관계의 상관성: 문제 제기

학교에서의 어휘 지도 즉, 국어과에서의 어휘 지도는 일차적으로 어휘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어휘력은 단어의 형태, 통사, 의미 및 화용에 관련된 제측면의 지식을 말한다. (중략)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의미에 대한 지식 및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어가 가지는 섬세한 의미의 차이나 어감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손영애 2000:55).

↳ 어휘력의 개념: 단어의 형태, 통사, 의미 및 화용에 관련된 제측면의 지식(손영애 2000:55). 어휘에 대한 지식(이영숙 1997:193).

↳ 이런 개념은 사실 '어휘력'이라기보다는 '단어력'에 가깝다. 이는 단어 교육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어휘 교육에 관한 논의라고 볼 수 없다. 어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단어와 어휘는 명백히 구분된다. 개별 단어들의 지도의 합이 어휘 교육이 될 수는 없다(신명선 2004:275).

○ 단어 교육보다 어휘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신명선 2004a)

- 단어의 의미가 ‘단어의 속성 정보’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단어와 관련된 지식의 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어 어휘들이 가지는 국어교육적 가치에 기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교육적 가치란 ‘국어 문화 능력 함양’이나 ‘언어 의식 고양’, ‘국어적 사고력’과 같은 거대 목표와 관련이 있다.
  -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어휘 교육의 목표는 단어를 넘어선 어휘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때의 단어와 어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로서, 우리는 개별 단어들의 누적적 지도를 넘어서 어휘들의 역동적인 사용을 목표로 하는 ‘어휘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 이러한 이유에 부합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어휘 관계’이다.

○ 어휘능력과 어휘 관계의 상관성

- 어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정교화될수록 상징 능력은 발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결국 어휘능력 발달의 기반이 될 수 있다.<sup>2)</sup>
- 그렇다고 ‘어휘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어휘 관계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휘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어휘 관계를 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또한 어휘 관계는 지시 능력의 발달과도 상관성이 있다.
  - ‘지시 능력’은 매우 맥락적인 상황 하에서 화자(필자)가 어떤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신명선 2004; 2009). 이 때 표현의 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는 맥락의 요소들은 다양하다. 신명선(2009:105)에서는 메타적 차원, 거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메타적 차원: 문화 맥락

거시적 차원: 장르(내용 구조 포함), 화·필자의 입장이나 상태, 청·독자의 특징, 화제와 주제, 상황 맥락, 발화글의 목적이나 성격 등.

미시적 차원: 음운, 형태, 통사 정보, 음성·문자 언어적 특성 등

↳ 어휘 관계가 미시적 차원의 맥락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선은 역시  $\alpha$ 가 맛있어.”와 같은 주격 중출 구문에서 이  $\alpha$ 에 들어갈 단어를 결정하는 맥락은 ‘생선’과 맺는 상하 관계이다.

2) 신명선(2004)에서는 어휘능력의 구성요소를 크게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상징 능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들을 정교화시키고 체계화하는 능력으로서, 머릿속 사전의 정교화 및 체계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시 능력은 매우 맥락적인 상황 하에서 화자(필자)가 어떤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각 능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한 게 있어서 참고가 된다(신명선 2004; 2009).

상징 능력	⇔	지시 능력
주로 단어(어휘)의 형식과 내용과의 관계 탐구 → metalinguistics		주로 단어(어휘)의 내용과 세계와의 관계 탐구 → metapragmatics
정확성, 체계성, 과학적 개념 중시		적절성 중시, 비체계적, 일상적 개념
탈맥락적(의사소통 상황과 일정한 거리 유지)		맥락적(의사소통 상황 중시)
형태론,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등과 주로 관련		의미론, 화용론 등과 주로 관련
궁극적으로는 CALP 추구, 언어 의식(language awareness) 고양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BICS 추구

- ‘어휘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휘 관계와 관련된 지식의 틀을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지식의 틀을 이용해 국어의 표현과 이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신명선(2009:99-100)에서는 이 ‘지식의 틀’을 Fillmore(1982:111)에서처럼 도식, 스크립트, 시나리오, 인지 모형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 ‘지식의 틀’은 굳이 어휘가 전제될 필요가 없어서 순수하게 개념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휘 관계도 ‘지식의 틀’로 기능할 수 있는데, 보통은 상하 관계, 그리고 부분-전체 관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유 현상이다. 환유는 상하 관계 혹은 부분-전체 관계를 지식의 틀로 하여 활성화되는 인지 작용이다. 가령, “수도를 그렇게 세게 틀면 금방 고장나잖아.”의 예에서 ‘수도’는 ‘수도꼭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금방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도’와 ‘수도꼭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어휘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휘 관계를 통해서 국어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실제로 신명선(2004b)에서는 유의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활동을 메타언어 활동(metalinguistic activity)이라고 하고, 이 활동이 ‘사고력’ 및 ‘언어 의식’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 6. 어휘 관계의 교육 내용

### ○ 어휘 관계의 교육 내용을 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 어휘 학습이 단지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어휘망이 확장됨과 동시에 학습자의 사고 체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신명선 2010:220).
- 어휘 교육에서는 개별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가지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관련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언중이 의미를 자유롭게 확장해 나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세형 2005 참조).
- 정리하면,
  - 단어는 머릿속에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들과 다양한 층위에서 관련성을 맺은 채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데 어휘 관계가 역할을 할 수 있다.
  - 단어와 문장과 텍스트 등 언어 표현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어휘 관계가 역할을 할 수 있다.
  - 학습자의 사고 체계를 확장하는 데 어휘 관계가 역할을 할 수 있다.

### ○ 단어 간 관계 알기

- 두 개의 단어를 내어 놓고 이 두 단어 간의 관계 알기
  - ↳ (예) ‘차다’와 ‘뜨겁다’의 어휘 관계는 무엇일까?
- 그 결과, 단어는 다른 단어와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어휘는 체계를 이루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안다.

### ○ 관계어 알기

- 특정한 어휘 관계에 있는 단어 알기



↳ (예) ‘답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가족오락관’의 스피드퀴즈에서 “엄마’ 말고 뭐지?”

- a와 a' 사이의 관계를 b와 b'에 적용해 보기

↳ (예) ‘답다’와 ‘출다’의 관계는 반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 쌍에는 무엇이 있을까?

- 그 결과, 단어는 다른 단어와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는 체계를 이루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안다. 이로써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음을 안다.

### ○ 유사어의 차이 이해하기

- 유사어란?

□ 의미적으로뿐 아니라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화용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두 개 이상의 어휘들의 집합(유현경강현화 2001:247)

↳ (예) 유의어의 차이 이해하기 : 서술을 이용한 유사 어휘군 정보 제시의 실효(유현경강현화 2001:265)

‘두껍다’와 ‘두텁다’

‘두껍다’는 물체의 두께가 보통 정도보다 크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형태가 있는 물건의 두께를 나타낼 때 쓰인다.

‘두텁다’는 믿음이나 신앙 등의 심리적인 상태가 굳고 깊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물건의 두께를 나타낼 수 없다.

예) 책이 두껍다(○)/두텁다(×), 신앙이 두텁다(○)/두껍다(×)

- 그 결과, 학습자의 사고력과 언어 의식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 ○ 어휘 관계 응용하기

- 어휘 관계와 관련된 단어 형성과 해석, 텍스트 형성과 해석을 이해하기

↳ (예) ‘노래방’과 ‘DVD방’과 ‘비디오방’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러한 관계에 있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예) 광고 텍스트의 생성과 해석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뿔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 그 결과

□ 어휘 교육과 문법 교육, 어휘 교육과 쓰기 교육, 어휘 교육과 읽기 교육의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다.

□ 새로운 단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텍스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 ○ 어휘 관계 유연화하기

- 관습적인 a와 a' 관계를 해체해 보고 a와 b 사이에 관계를 맺어 보기

↳ (예) ‘뭇’은 ‘박다’와 ‘나무’는 ‘심다’와 어울려 각각 ‘뭇을 박다’와 ‘나무를 심다’로 쓰인다. 그런데 ‘뭇을 심다’와 ‘나무를 박다’와 같이 서로 서술어를 바꾸어 본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자.

- 그 결과, 학습자의 사고 체계를 확장할 수 있고, 창의력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7. 맺음말

-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에 반영된 어휘 관계는 구조주의 이론에 기반한 의미 관계 중심이다. 그래서 학습자의 능력보다는 언어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에 기반한 의미 관계가 되어 버렸다. 또한 의미 관계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관계의 목록도 다양하지 못하다.
- 어휘부에 기반한 어휘 관계로 관점을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어휘 관계의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어휘 교육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어 교육이 아니라 어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어휘 관계에 관한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어휘 관계는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의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 관계와 관련된 틀을 이용해 국어의 표현과 이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휘 관계를 통하여 국어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 이러한 면을 실현하기 위한 어휘 관계의 교육 내용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서울: 아르케.
- 구본관(2010).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회 47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김용석(1991). “어휘지도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9, 91-115.
- 김중신(2010). “어휘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회 47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나은미(2008). “유추를 통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학》 40, 177-202.
- 손영애(2000). “국어과 어휘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국어교육》 103, 53-78.
- 신명선(2004a).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3, 263-296.
- 신명선(2004b). “語彙에 관한 메타언어 활동의 意義에 대한 연구: 類義語들의 意味 辨別 活動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2-4, 377-398.
- 신명선(2007). “‘단어에 대한 읽’의 의미에 기반한 어휘 교육의 방향 설정 연구.” 《국어교육》 124, 349-386.
- 신명선(2009). “국어 표현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휘 사용 기제와 그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91-131.
- 신명선(2010). “국어 어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회 47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정보를 활용한 어휘교육 방안.”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27, 243-269.
- 이영숙(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 《선청어문》 25, 189-208.
- 임지룡(2010). “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방향.”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0년 한국어문교육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 주세형(2005). “국어과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독서교육》 14, 373-399.
- 최호철(2006). “전통 및 구조 언어학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31-49.
- Aitchison, J.(2004).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Oxford: Basil Blackwell.
-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 Fillmore, C. J.(1982). “Frame Semantic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Murphy, M, L.(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론 □

## 국어교육을 위한 어휘 관계의 활용

서중훈(대구 가톨릭대)

모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분야가 어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어휘 관계를 몇몇 의미 관계로 단정 짓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 관점을 어휘부 또는 머릿속 사전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십 수 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국어 어휘 교육에 대해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도를 본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의미관계에 바탕을 둔 어휘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어휘부학, 인지언어학적 관점, 어휘망, 연결주의, 의미에 기초한 연결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각기 어휘를 교육하는 데 주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모국어 어휘 교육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토박이말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거나, 혹은 사투리로 남아서 이제는 거의 잊혀져 가는 소중한 우리 민족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박이말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작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고려한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담아 낸 순수 토박이말들에 대한 문제는 공시뿐만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공히 다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소 본고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지만, 본고가 지향하는 어휘 교육의 방향에 토박이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떤 식으로든 결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관계와 어휘관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된 차이와 대립의 관계가 어휘관계를 지엽적인 의미관계로밖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고 제시하시는데, 그렇다면 어휘관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는 그런 구조주의적 관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어휘도 그 기본은 의미의 차이와 대립에서 오는 어휘망을 구성하고, 나아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고정시키는 데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NPAH습득 양상

박철웅(한국외대)

## 차 례

1. 머리말
  2. 본론
    - 2.1. 일반적 명사구 접근성 위계 이론의 특성
    - 2.2. 한국어의 경우
    - 2.3. 태국어의 경우
  3. 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통한 가설 검증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본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구접근 가능성 위계(NPAH-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의 유효성 정도에 따른 한국어와 태국어의 유형 대조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을 생성해내는가에 초점을 두고 태국인 학습자가 어떠한 구조를 선호하고 어떠한 구조를 회피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과정과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계절을 만들 때 모국어인 태국어의 영향을 받아 태국어 어형에는 맞지만 한국어 어형에는 맞지 않는 문장을 선택하거나 한국어에는 문법적인 문장이 태국어권 학습자들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ong은 Linguistic Typology(2001)에서 형태론과 유형론을 소개하면서 관계절에 대해 소개하였고 유형적 분석을 위한 네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진경(2006)과 전영아(2004)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형 어미의 오류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진경(2006)에서는 오류를 누락, 대치, 첨가 등으로 유형화하고 오류의 원인을 언어간 전이보다는 한국어 관형형의 문법적 복잡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전영아(2004)에서는 영어권 학습자의 관형형 어미의 오류를 조사하여 오류항목이 교재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민명숙(2007)에서는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관계관형절 습득에 관한 연구로 핵의 위치 운용자의 이동 여부 및 시제 표현에 대한 언어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김성수(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간의 관계절을 비교하여 유형적 보편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요국가 중국, 일본, 영어권 학습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동남아권 학습자들의 언어유형은 다루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을 두고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태국 학습자들의 모국어 언어유형과 중간언어 생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일반적 명사구 접근성 위계 이론의 특성

먼저 명사구 접근가능성 위계(NPAH)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NPAH는 Keenan&Comrie(1977)에 의해 50여개 언어에 적용한 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구 분포의 특성을 연구하여 접근가능성 계층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는 아래와 같다.

Accessibility Hierarchy : AH(Keenan&Comrie 1977:66)

주어(SU) > 직접목적어(DO) > 간접 목적어(IO) > 전치사의 목적어(OBL) > 소유격(GEN) > 비교급의 목적어(OComp)

이러한 계층은 명사구에 따라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일정한 함축적(implicational)위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함축적 위계란 어떤 언어에 전치사의 목적어(IO)가 존재하면 그 언어는 위계상 주어와 직접 목적어, 간접목적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렵게 습득이 된다는 것으로 왼쪽이 무표적(unmarked)으로 습득이 용이하고 오른쪽이 유표적(marked)으로 학습자들이 습득이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 2.2.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경우 태국어와 달리 핵명사가 뒤에 놓이게 되는데 태국어는 한국어와 반대로 앞에 놓이게 되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많은 혼동을 낳게 된다.

한국어의 관계 관형절은 관형형 어미 '(으)르', '-(으)ㄴ', '-는'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 a. 책을 읽는 철수
- b. 철수가 읽는 책
- c. (내가) 철수에게 읽은 책

위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핵명사가 후행을 하는데 다시 말해 관계 관계화 하는 핵명사의 왼쪽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명사구 접근은 아래와 같이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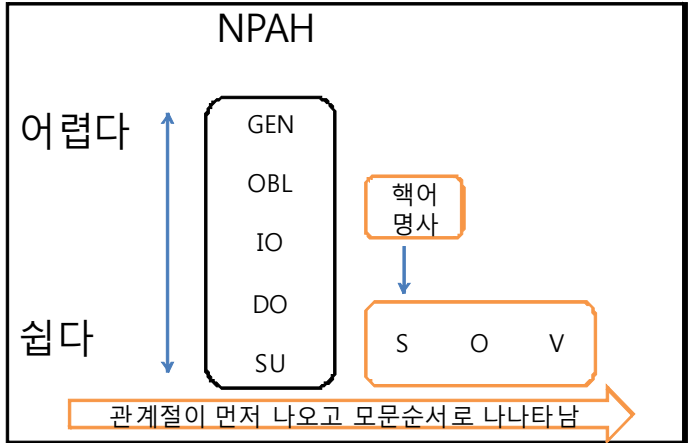
- (2) a. 도서관은 지금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빈다.
- b. [야영 갈] 사람들은 미리 신청하시오<sup>1)</sup>.

---

1) 송경안 외(2008:60) 참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NPAH에 따른 한국어 관계화 순서와 난이도



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어의 관계절은 관계화하는 핵명사의 왼쪽에 놓이게 되고 관계절은 시제에 따라 '(으)르', '-(으)ㄴ', '-는'에 의해 실현된다.

먼저 관계절의 분류를 하기 위해 관계화가 일어나기 전의 문장으로 되돌린 후 핵명사에 부착되는 조사를 넣어 문법적 역할을 결정한다. 아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예1) ㄱ. [학교에서 밥을 먹는] 남자 (SU)  
 ㄴ. 남자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예1)에서 보듯이 (ㄱ)은 관계화 변형이 일어나기 전의 문장인 (ㄴ)에서 발원되었다고 보았다. (ㄴ)은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핵명사) '남자'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주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으로 (SU)로 분류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2)DO관계절, (예3) IO관계절, (예4)OBL관계절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예2) ㄱ. [내가 어제 산] 연필 (DO)  
 ㄴ. 내가 어제 연필을 샀다.  
 예3) ㄱ. [여자가 선물을 준] 남자 (IO)  
 ㄴ.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예4) ㄱ. [철수가 살고 있는] 집 (OBL)  
 ㄴ. 철수가 집에 살고있다.

Keenan&Comrie(1977)에 따르면 한국어는 Ocomp를 제외한 SU, DO, IO, OBL, GEN까지 관계화가 가능한 언어에 속한다고 했다. 본고에서는 OBL까지만 분류를 해보는 것으로 하였다.

### 2.3. 태국어의 경우

태국어의 관계절을 알기 전에 간단히 태국어의 문장형식을 살펴보면 태국어의 문장 형식은 크게 세 가지의 기본형식으로 나타난다<sup>2)</sup>.

#### 태국어의 문장형식

##### (제 1형식)

주어 + 자동사<sup>3)</sup>

(1) **ฝน ตก** <sup>4)</sup>

(2) [fon tok]<sup>5)</sup>

(3) 비 떨어지다<sup>6)</sup>.

(4) 비가 온다.

##### (제 2형식)

주어 + 타동사 + 직접 목적어

(1) **ครู เขียนจดหมาย**

(2) [kru kian zotmai]

(3) 선생님쓰다 편지

(4) 선생님이 편지를 쓰신다.

##### (제 3형식)

주어 + 이중 목적어 동사 + 직접 목적어 + 간접 목적어

(1) **นักเรียนถามปัญหาครู**

(2) [nakrian tam panha kru]

(3) 학생 묻다 문제 선생님

(4) 학생이 선생님에게 문제를 묻는다.

2) 이한우(2002:247-255) 참조.

3) 아래의 (1), (2), (3), (4)는 태국어 태국어, 발음, 한국어 해석, 한국어 정문순으로 한다.

4) 태국어는 원래 띄어쓰기가 없으나 본문에는 구분을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함

5) Thai Romanization(1967, Thai government)를 사용하여 자, 모음을 표시한다.

<http://www.arts.chula.ac.kr/~ling/tts/> 타이어 Romanization 변환프로그램 참조.

6) 어순대로 한국어로 표시.

이와 같이 태국어의 단어는 한국어나 영어 같은 일부 언어의 단어와 달리 한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의 인칭이나 성, 수, 격 및 시제 등에 따른 어형 변화가 전혀 없는 용어이다. 이러한 단어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문장 안에 배열해 감으로써 문장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태국어의 문법은 단어의 위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태국어의 명사구를 보면 태국어에서 명사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고 핵명사는 선행한다.

(1) **หลัง ใหญ่**

- (2) [rang        yai]
- (3) 집            크다
- (4) 큰집

태국어의 문장에서 핵명사는 항상 앞서서 나타나게 된다.

(1) **คน เกาหลี ส่วนมาก**

- (2) [kon    kaoli        suanmak]
- (3) 사람    한국        대부분
- (4) 대부분의 한국사람

위의 한국어의 경우를 다시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태국어 문장이 생성된다.

- 예1) ㄱ. [학교에서 밥을 먹는] 남자 (SU)
- ㄴ. 남자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ㄱ'. **คน ที่ กิน ข้าว ใน โรงเรียน**

[kon    thi    kin    kau        nai    rongrian]  
 남자    관·대    먹다    밥        전치사    학교

ㄴ'. **คน กิน ข้าว ใน โรงเรียน**

- 예2) ㄱ. [내가 어제 산] 연필 (DO)
- ㄴ. 내가 어제 연필을 샀다.

ㄱ'. **คินสอ ที่ ผม ได้        ซื้อ เมื่อวาน**

[dinsaaw    thi    phom    dai            seuu    mueawan]  
 연필        관·대    나        과거조동사    사다        어제

ㄴ'. **ผม ได้        ซื้อ คินสอ เมื่อวาน**

예3) ㄱ. [철수가 살고 있는] 집 (OBL)

ㄴ. 철수가 집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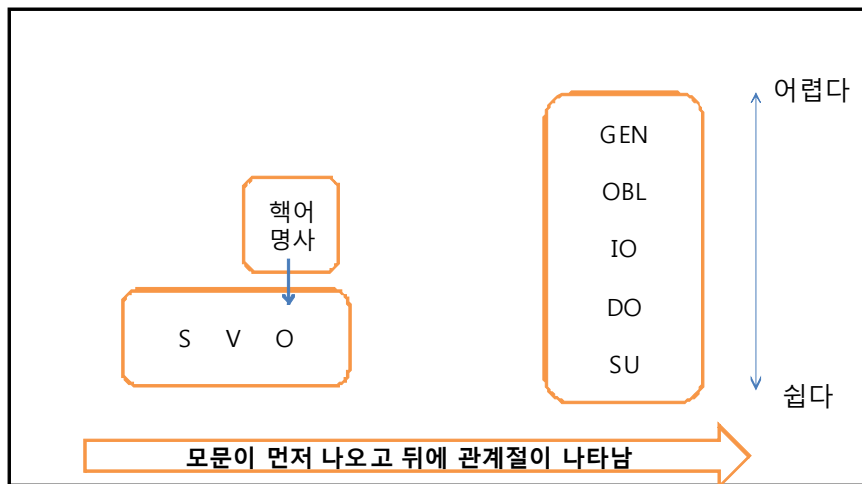
ㄱ. บ้าน ที่ 철수 อาศัยอยู่

[ban thi 철수 aasaiyu]  
집 관·대 철수 살다

이에 관계절을 나타낼 때 복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한 문장 안에 본문인 주절이 앞서 있고 주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고 소형 속문인 종속절이 와서 이 본문의 일부를 수식하거나 융합, 서술하는 관계문장으로 태국어의 관계문은 앞의 핵명사를 뒤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7).

### NPAH에 따른 태국어 관계화 순서와 난이도



###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경기도내 직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6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미 습득된 한국어의 관계절을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들 보다 자연스러운 언어습득을 좀 더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1년 이상 생활하며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고 읽기와 쓰기가 초급이상이 되는 태국인을 모집대상으로 했다.

7) SUSAN M. BRAIDI. 최숙희·김양순 옮김(2001:153), 김성수(2009:80) 참조.



이름	나이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성별
나라완	47	2년 6개월	1년	여
아피밧	38	1년 9개월	6개월	남
솜폰	30	1년 3개월	6개월	남
월라완	32	1년 3개월	6개월	남
위라씩	33	2년	1년 3개월	여
아누찻	29	1년	6개월	남

문법성 판단시험(GJT)를 사용하여 총14문항으로 유형별 제시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나타내었다<sup>8)</sup>.

목표어와 모국어사이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로 한국어습득에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관계절을 제시했다.

- ① 모국어와 유사한 비문법적 관계절(N-RC-는)
- ② 문법적인 관계절 (RC-는 -N)

### 3. 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통한 가설 검증

태국어 모국어학습자들의 관계절 습득순서를 알아보기 위하여 태국인 근로자6명으로Pilot 테스트를 간단히 조사하였고 태국어 모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각 문항별 2개씩의 문항을 선택하게 하였다.

설문자료는 아래와 같다.

#### 설문자료

다음 중 맞는 문장을 찾으세요.

##### 1. S+S형

-친구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그 친구는 운동을 좋아한다.

- (1) 나에게 책을 준 그 친구는 운동을 좋아한다.
- (2) 친구가 나에게 좋아하는 운동을 책은 주었다.

- 남자가 밥을 먹는다. 그 남자는 학교에 있다.

- (1) 학교에서 밥을 먹는 남자가 있다.
- (2) 남자는 학교에 밥을 있는 먹는다.

8) 학습자가 어떤 유형화된 일관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각 문항 별로 섞어서 제출.

2. S+DO

-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한다, 가족이 동생을 축하해 주었다.
  - (1) 가족이 대학교에 입학한 동생을 축하해 주었다.
  - (2) 동생이 가족을 대학교에 입학한 축하해 주었다.

-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선생님은 그 학생을 사랑한다.
  - (1)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사랑한다.
  - (2) 학생이 선생님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랑한다.

4. DO+S

- 나는 어제 색연필을 샀다. 그 색연필은 좋다.
  - (1) 내가 어제 산 색연필은 좋다
  - (2) 어제 내가 색연필을 산 좋다.

- 내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는 태국영화입니다.
  - (1)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태국영화입니다.
  - (2)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태국영화입니다.

3. S+IO

- 형이 학교에 간다, 누나가 도시락을 형에게 주었다.
  - (1) 누나가 학교에 간 형에게 도시락을 주었다.
  - (2) 형이 간 학교에 누나가 도시락을 주었다.

5. IO+S :

- 내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철수는 친구의 동생이다.
  - (1) 내가 책을 준 철수는 친구의 동생이다.
  - (2) 철수는 내가 친구의 책을 준 동생이다.

- 선생님은 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대학교 학생입니다.
  - (1) 선생님이 편지를 쓴 학생은 한국대학교 학생입니다.
  - (2) 학생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한국대학교 학생입니다.

6. S+OBL

- 태국은 아주 더워요, 나는 태국에 가고 싶어요.
  - (1) 나는 더운 태국에 가고 싶어요.
  - (2) 나는 태국에 가고 싶은 더워요.

- 노래방이 회사 안에 있다, 아이들이 노래방에 갔다..
  - (1) 아이들이 회사 안에 노래방에 있는 갔다.
  - (2) 아이들이 간 노래방은 회사 안에 있다.

#### 7. OBL+S

- 동생이 가방에 책을 넣었습니다, 그 가방은 아주 무겁습니다.

- (1) 동생이 책을 넣은 가방은 아주 무겁습니다.
- (2) 가방은 동생이 책을 넣은 아주 무겁습니다.

- 사장님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제 것 입니다.

- (1) 사장님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제 것입니다.
- (2) 카메라는 사장님이 사진을 찍은 제 것입니다.

위의 비문들은 태국어의 어순과 유사하게 핵명사가 관계절을 선행하도록 만들어 태국인 학습자가 혼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 4. 맺음말

이론적 배경으로 Keenan&comrie의 가설에서 태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계절 구조는 SU>DO>IO>OBL 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의 결과로 설문지의 응답율로 봤을 때 SU>OBL>DO>IO로 나타나게 되어 명사구 접근가설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이는 아직 모집단의 수가 작고 예문 역시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몰라 차후 연구에 미루기로 한다.

## ■ 참고문헌

- 강현화(2006)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연구. 18. 국어교육학회
- 김부자(2006) 핵 후행언어 학습자의 영어 관계절 구문 습득에 대한 연구. 영어 영문학연구
- 김상수(2009) 한국어 학습자 발화의 유창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2009), 유형적 보편성을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사용 양상연구, 계명대학교
- 김창구(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연구. 부경대학교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민명숙(2010),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관형절 습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우형식(1987) 국어의 관계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 15.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진경(2006)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홍식(1990) 현재국어 관형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환승(1998), 태국어 명사구 위치에 관한 연구, 제6회 한국태국학회 연례 학술발표회
- 최인철·2009) 명사구 접근성 위계와 영어 관계절 습득관련성 연구. 현대문법연구, 현대문법학회
- Braidi, S. M.(1999)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Syntax, Arnold Publisher.(최숙희, 김양순역(2001), 제 2언어 통사론 습득, 동인)
- Prajuap Yinsen(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 대조분석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NPAH 습득 양상

김은영(경기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에 집중된 중간언어 연구에서 벗어나 타언어권의 중간언어 연구로,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궁금한 점과 의견을 달리 하는 바가 있어 발표자에게 몇 가지를 질의하고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첫째, 실험 연구에서 설문 자료는 연구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조작될 수 있음을 연구자에게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작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설문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셨는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문 자료에서 만들어진 문장으로는 연구자가 서론에서 기술한대로 태국인 학습자가 어떤 문장 구조를 선호하고 회피하는지 또는 실패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정확한 중간언어 양상을 얻기 위해서는 태국인 학습자가 만들어진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하기 부분에서(예를 들어 인터뷰상황에서 NPAH가 나오도록 유도)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기록하여 분석하거나 직접 쓰기에서 나타나는 언어 형태로 중간언어 습득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어떨지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연구자도 지적하셨다시피 실험 대상이 적어 실험 결과를 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자가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는 실험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왔다고 간략하게 기술하셨는데 실험 대상이 적긴 하지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자께서는 Keenan & Comire가 제시한 보편적 순서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것이 있다면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PAH에 따른 한국어 관계화 난이도나 태국어 관계화 난이도 상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언어상에서는 어순에서만 차이가 났는데 이것이 중간언어으로써 한국어 NPAH 습득이나 생성에 관련이 있는지 논리적인 근거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인 학습자가 모어에 영향을 받아 관계절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문장과는 상관없이 조사가 발달한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인칭, 격, 수, 시제가 없는 태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서 중간언어도 오류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간언어가 언어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들어 한국어 학습에서는 의사소통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창성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양상에 대해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 대상이 학문을 목적으로 한 학습자가 아니라 태국인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난 중간언어 양상을 가지고 추후에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와 태국어를 비교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언어를 살핌으로써 학습자의 내적 언어에 대한 체계를 밝힐 수 있다는 연구자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한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박철주(서강대)

## 차 례

1. 한류와 대중문화
  2.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3.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교육
  4. 뮤직 비디오를 통한 한국어 교육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한류와 대중문화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된 것은 1996년의 일로서 그 당시에는 그 여파가 크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시발로 하여 중국의 대륙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치솟아 하나의 열풍이 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음반도 뒤이어 진출하여 중국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러한 급작스런 현상에 대해 중국의 언론에서는 2000년 2월 이를 ‘한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류는 중국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의 열기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각국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 열풍은 대중문화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음식과 언어 및 공산품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에 포괄적인 의미로서 한류는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열기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한류 중에서 한국어하고도 관련된 대중문화인 드라마와 음반(뮤직 비디오)으로 범위를 국한하여 이를 통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2.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이며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텍스트에 의한 교육이 될 것이다. 박수정(2008)에서도 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을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단지 단어 학습을 위한 텍스트가 아닌 한국의 문화를 내

제한 텍스트로써 한국어를 교육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이용하면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도 아울러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요지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학 텍스트이지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학습자보다도 교육자가 먼저 문학 텍스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육 방법에 의하면 아무리 훌륭한 문학 텍스트일지라도 학습자가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이의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단지 텍스트만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뮤직 비디오와 같이 시청각 교육용 자료가 잘 발달된 요즘에 있어서 한국어 외에 한국의 문화도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굳이 문학 텍스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느 누구든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뮤직 비디오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흥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학습에 활용한다면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 학습만 이루어지는 읽기, 쓰기와 같은 학습에 비해 학습 효과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김선주(2008)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김선주(2008)에서는 시청각 자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학습자의 학습 특성에 대하여 분석해보이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정확히 알고자 하며 최대한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다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한국말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한국어 학습에 있어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 한다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뮤직 비디오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역시 예측대로 김선주(2008)는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로 된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를 많이 청취하며 한국의 노래나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길 즐기는 경향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역으로 이해하자면 한국어로 된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또는 한국 노래나 영화 및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성공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뮤직 비디오 등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이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자를 배출하는데 있어 상당히 적합한 교육 방법이라 할 것이다.

TV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임은 김경미(2007)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김경미(2007)는 TV 드라마로 한정하여 이의 매체가 한국어 학습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의 연구에서 김경미(2007)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TV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일본인 학습자들은 TV 드라마를 통하여 일상적인 한국어 회화를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익히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TV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에 효과적인 교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전지수(2006)에서는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교수안을 제시해보이고 있다. 그는 이의 연구에서 ‘드라마 영상을 이용한 교육방법’, ‘드라마 대본을 이용한 교육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 ‘드라마를 이용한 문법 교육방법’, ‘드라마를 이용한 문화 교육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그는 이러한 교육방법을 통해 읽기, 듣기, 쓰기, 문법,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의 연구에서는 모국어 화자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대화 상황 판단하기, 실용 회화 익히기, 상황별 역할 익히기, 숙어 익히기, 전문 용어 익히기, 비표준어 구분하기, 발음 교정하기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김재영(2004)은 한국어에 대한 교육 방안으로써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TV의 뉴스·드라마·광고·뮤직 비디오의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안과 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TV의 뉴스 텍스트를 이용하여 읽기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뉴스 아나운서와 같은 표준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TV 드라마·광고·뮤직 비디오 텍스트 및 웹을 활용하면 한국의 문화 및 사회를 익히게 할 수 있으며 관용어·어휘문형의 학습 및 글짓기 수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웹의 경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4가지 언어 기능에 대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의 연구에서도 대화 상황 판단하기, 상황별 억양 익히기, 전문 용어 익히기, 비표준어 구분하기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한국어답게 한국어하기에 대한 교수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외에 영화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경지(2001)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들 매체가 어휘·문법·듣기·문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의 연구에서도 전지수(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모국어 화자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대화 상황 판단하기, 실용 회화 익히기, 상황별 억양 익히기, 속어 익히기, 전문 용어 익히기, 비표준어 구분하기, 발음 교정하기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한국어 교수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와 음반 즉, 한국 뮤직 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육 방법과 더불어 앞선 연구의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3.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교육

#### 3.1. 드라마에 의한 학습 효과

정보의 기억력에 있어서 귀로만 들은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20%만 기억한다고 한다. 그리고 눈으로 본 정보는 30%를 기억해내고, 귀로 듣고 눈으로도 본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50% 기억해낸다고 한다. 여기에 말까지 해보았을 경우에는 80%의 정보를 학습자는 기억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까지 했을 경우에는 학습한 정보 중 90%를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한다.<sup>1)</sup> 따라서 매체를 활용한 듣기, 보기, 말하기 간접 체험하기 등과 같은 학습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유지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교육에 있어 드라마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대화의 구문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듣고 또한 이를 말해봄으로써 대화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는 단지 눈으로만 또는 귀로만 아니면 눈과 귀로만 학습을 하였을 때에 비해 학습 효과는 월등히 높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발적 학습 효과와 높은 집중력을 가지게 한다.

1) 김현숙(2004:23)

## 3.2.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쓰기 학습 방법

### 3.2.1. 쓰기 학습

#### ① 드라마 줄거리 쓰기

드라마를 보고 그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의 내용에 대해 써본다.

- \* 이는 내용의 기승전결을 파악하는 훈련과 더불어 이를 요약 정리하는 훈련을 위한 학습 방법이다.

#### ② 드라마 시청소감을 문화적인 면에서 쓰기

드라마를 보고 느낀 생각을 문화적인 면에 비추어 써본다.

-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훈련을 겸한 한국 문화 학습 방법이다.

#### ③ 대사 만들어 보기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본래의 대사 외에 자기 나름대로 대사를 써서 대화를 깔끔하게 이어본다.

- \* 대화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체험하고 이에 적합한 대사를 찾아 쓰는 훈련을 위한 학습 방법이다.

#### ④ 다음에 이어서 나올 대사 유추하여 써보기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다음에 나올 대사를 유추하여 써본다.

- \* 대화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 및 진행되는 대화에 대응하는 훈련을 위한 학습 방법이다.

### 3.2.2. 발음 학습

- 자신이 읽은 대본의 발음과 드라마에서의 나오는 인물의 발음 간 차이에 대해 확인해 보기

- \* 드라마를 통한 발음 학습이다.

### 3.2.3. 듣기 학습

- 드라마의 대사를 듣고 이를 그대로 써보기

- \* 말을 정확히 듣는 훈련이다.

### 3.2.4. 억양 학습

- ① 드라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일반적인 말투를 흉내 내어 말해보기

- \* 평상시의 대화 구문에 실리게 되는 감정의 이입 부분을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 ② 사랑을 고백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또는 화내는 등 극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를 그대로 흉내 내어 말해보기

- \* 극적인 감정이 살아있는 말하기를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 3.3. 학습활동의 예

	<p>대장금을 시청하고 줄거리 및 시청 소감문 써보기</p>
	<p>겨울연가를 시청하고 줄거리 및 시청 소감문 써보기</p>
	<p>아이리스의 한 장면이다. 다음에 나올 대사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말해 보라.</p> <p>이병헌 : 사우야</p>
	<p>정준호 :</p>
	<p>아이리스의 한 장면이다.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올 것인지 유추하여 맞춰 보라.</p> <p>김태희 : 빈손이야?</p>
	
	<p>이병헌 :</p>

- ◆ 다음 아이리스의 대본을 읽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의 발음과 비교하며 자신의 발음을 수정해 보시오.



김태희 : 와! 진짜 좋다. 현준씨! 이리 좀 와 봐! 호수가 다 보여! 현준씨! 뭐야?  
 이병현 : 아~! 나 피곤해! 잠 좀 폭 잤으면 좋겠다.  
 김태희 : 그럼, 먼저 씻자!  
 이병현 : 같이?  
 김태희 : 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음~ 응큼하긴!  
 김태희 : 일어나!

- ◆ 다음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듣고 그 대사를 그대로 써보시오.(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보여 줌)



- ◆ 다음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말해보시오.



정준호 : 너 이 자식아! 니 평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잖아! 대학원에서 만난 옛날에!  
 이병현 : 그게 승희다.  
 이병현 : 너한테 처음 말하는 것이니까 비밀 지켜야 한다.  
 정준호 : 나야 입 다물겠지만 사내 연애가 쉽겠냐?

- ◆ 다음 아이리스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에서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서 말해보시오.



이병현 : 사우야! 내 말 듣고 있지! 지난 2년 동안 널 생각할 때마다 내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 진사우니까 그럴 수 있다. 원칙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니까. 그게 진사우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널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니 심정이 어땠을까? 널 죽이려는 너보다 너한테 그런 명령을 내린 백산과 아이엔에스를 원망하면서 복수를 다짐했어! 처음 니가 아이리스일거라고는…

정준호 : 원래부터 그랬어 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지!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너 때문에 내가 뭘 포기했는지, 너 의식조차 못했어! 언제부터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난 널 죽이려고 했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넌 없었어!

이병현 : 사우야!

### 3.4. 드라마를 통한 학습에 있어서의 문제

#### 3.4.1.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언이나 욕설 또는 외래어나 통신언어 및 전문용어에 대한 문제

드라마에서는 방언이나 욕설 또는 외래어나 통신언어 및 전문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드라마 작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쓰이는 것일 경우에는 이 역시 대화에서 살아 숨 쉬는 어휘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 교육시키도록 한다.

#### 3.4.2. 드라마 작가가 창안해낸 어휘나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휘에 대한 문제

어휘의 경우는 한국어 고유의 어휘가 아닌 일개 개인이 소통시킨 어휘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어휘는 교육시킬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어휘가 많이 그리고 자주 나오는 작품은 피하도록 한다.

예) 빵꾸똥꾸

(학습 실례 자료) 읽기와 쓰기 과목에서 창작 연극을해보이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



## 4. 뮤직 비디오를 통한 한국어 교육

### 4.1. 뮤직 비디오에 의한 학습 효과

뮤직 비디오에 의한 학습의 경우에는 보고 듣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역시 드라마에 의한 학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듣고 보고 말하기와 같은 학습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뮤직 비디오에 의한 학습에서도 드라마에 의한 학습과 마찬가지로 간접적 체험에 의한 학습의 효과가 발생된다. 뮤직 비디오에서 나오는 가사는 어휘와 문형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한국어의 어휘와 문형을 익히는 데에 있어 상당히 효율적이다. 또한 학습자가 원하는 노래를 보고 듣는 것이므로 자발적 학습 효과를 가지며 나아가 학습에 높은 집중력을 갖게 한다.

### 4.2. 뮤직 비디오에 의한 학습 방법

#### 4.2.1. 어휘 학습

다음은 이효리의 'Hey Mr. Big'이란 뮤직 비디오이다. 이의 가사에서 보이는 어휘를 학습한다.

① 동일 유형 어휘

가득한, 따분한, 따듯한, 반듯한, 아득한, 잘난 척, 강한 척

② 반복 어휘

남자, 여자, 입술, 사랑, 세상, 보이다, 말하다

③ 기타 어휘

미래, 자존심, 시계침, 제자리, 자신감, 어깨, 생각, 훌쩍, 이제, 날마다, 넓다, 깊다, ...

#### 4.2.2. 문형 학습

이효리의 'Hey Mr. Big' 뮤직 비디오에서는 '~하는 ~로 ~을 말하다'라는 문형이 반복되고 있다. 이의 문형을 노래로써 학습한다.

◆ 반복 문형 :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Hey Mr. Big(이효리)

Hey listen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et the man

사랑만 가득한

날마다 따분한 미래가 아득한 소년들이여

가슴이 따뜻한

생각이 반듯한 조금은 차분한 남자가 돼 줘

1분1초 바쁘게 시계침은 숨가쁘게

도는데 왜 늘 제자리 jump jump

자존심은 no 자신감으로

무거운 큰 산처럼 자라나줘

Hey listen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et the man

Hey get up mr. big

홀쩍 넓어진 어깨로

죽어도 지켜줄 여자를 안길

you know real man



남자의 두 눈이  
세상을 삼킬 듯 빛나면 너무나 멋지게 보여  
남자의 싸움은  
힘 아닌 희망이 커질 때 언제나 승리가 보여

Hey listen mr. boy  
강한 척하던 용기로  
원하는 소원을 향해 널 던져  
burning, runing, man

Hey get up mr. big  
세상을 가진 맘으로 새롭게 태어나  
i'm waiting for you let's go mr, big

Hey listen mr. boy  
잘난 척 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et the man

hey get up mr, big  
홀쩍 넓어진 어깨로  
죽어도 지켜줄 여자를 안길  
your know real man

#### <연습문제>

다음은 원더걸스의 노바디이다. 이의 노래에서 동일 유형 어휘와 반복 문형 및 기타 어휘들을 추출하시오.





## No Body(원더걸스)

You Know I still Love You Baby. And it will never change.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난 싫은데 왜 날 밀어내려고 하니 자꾸 내말은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날 보내려 하니 어떻게 이러니

날 위해 그렇단 그 말 넌 부족하다는 그 말 이젠 그만해 넌 나를 알잖아 왜 원하지도 않  
는 걸 강요해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난 좋은데 난 행복한데 너만 있으면 돼 더 바랄게 없는데  
누굴 만나서 행복하란 거야 난 널 떠나서 행복할 수 없어

날 위해 그렇단 그 말 넌 부족하다는 그 말 말이 안 되는 말이란 걸 왜 몰라 니가 없이  
어떻게 행복해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don't want no body body body . I don't  
want nobody body body

나는 정말 니가 아니면 니가 아니면 싫단 말야 아~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I want  
no body no 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니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Back to the days when we were so  
young and wild and free

모든 게 너무나 꿈만 같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려 해  
why do you push me away. I don't want no body no body No body no body but  
you.

### 4.3. 뮤직 비디오에 의한 학습의 한계

뮤직 비디오에서 가사는 음률을 따르므로 구문에 따른 감정 이입의 연습이나 발음 연습을  
할 수 없으며 구문의 어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문형이나  
다양한 어휘를 학습 할 수 없다. 따라서 뮤직 비디오로 학습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보완  
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4.3.1. 뮤직 비디오에서 나오는 영어가사 및 무의미한 가사에 대한 문제

뮤직 비디오에서는 영어가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대중가요에 대  
해 'K-POP'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본 학습에서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므로 노래의 가사 중에서 영어는 제외하고 한국어 가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하도록 한  
다. 그리고 음률을 위한 무의미한 가사의 경우도 역시 한국어 학습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  
또한 학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학습 실례 자료) 읽기와 쓰기 과목에서 창작 뮤지컬을 해보이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



## 5. 맺음말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9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되고 현재는 관심을 넘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열기가 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늦게 시작된 연유로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어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할 것이다. 그래도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 한류의 붐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한류를 이용하는 경우란 한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TV 드라마와 소위 K-POP으로 불리는 한국 가요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수법을 말한다.

TV 드라마와 한국 가요를 활용하면 능동적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학습은 물론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학습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졌고 또한 이를 이용한 교수법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화면과 음성이 나오는 매체의 특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습안 연구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때문에 모국어 화자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대화 상황 판단하기, 실용 회화 익히기, 상황별 억양 익히기, 숙어 익히기, 전문 용어 익히기, 비표준어 구분하기, 발음 교정하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V 드라마와 한국 가요의 뮤직 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교수안을 제시해보았다. 다만 본 논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킬 수 있음을 시험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수정 및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경지. 2001.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주. 2008.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영. 2004.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매체를 활용한 문화 통합 교육-」,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미. 2007. 「한류로 인한 문화적 친근감이 한국어 학습 효과에 미친 영향 연구-TV 드라마를 이용한 일본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숙. 2004.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재창조 교육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정. 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학텍스트와 문화교육 활용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지수. 2006.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김주연(건국대)

1990년대부터 한국어 교육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팽창한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발전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같은 요인도 있겠으나 한류에 의한 한국 문화 콘텐츠 열풍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군을 형성하고 초보적 단계의 학습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보고 들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패션을 따라하거나 그들이 사는 나라에 가 보고 싶어 하며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는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류를 낳은 한국의 대중문화 즉, 드라마와 뮤직 비디오를 활용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즐겁게 한국어를 학습할 것을 기대하며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드라마나 뮤직 비디오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목표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선정하신 드라마는 ‘대장금’, ‘겨울연가’, ‘아이리스’이고 뮤직비디오는 이효리의 ‘Hey Mr. Big’과 원더걸스의 ‘노바디’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한류 드라마나 뮤직 비디오를 선정하신 것인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나 연령, 국적, 언어 내용, 길이, 작품의 내용 등도 고려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교육에서 제시하신 특정 대본의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둘째,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쓰기 학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쓰기와 같은 기능별 학습을 하기 전에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쓰기 전 단계 학습이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쓰기 학습 방법의 하위 학습 내용으로 발음 학습, 듣기 학습, 억양 학습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학습 내용을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다른 기능과 연계 시킬 수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특히, 발음이나 억양 학습의 경우는 쓰기 기능보다는 듣기나 말하기 기능과 연계된 보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 제시가 아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 후의 평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뮤직 비디오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뮤직 비디오를 통한 학습 방법은 드라마와는 달리 어휘 학습, 문형 학습으로 구성하셨는데 어휘 학습의 하위 분류나 문형

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휘 학습의 경우 품사나 이해 어휘, 표현 어휘 등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인 어휘 교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일 유형 어휘로 분류하신 ‘-(으)ㄴ/는 적하다’의 경우는 어휘 보다는 문법이나 표현으로 분류하여 학습을 한다면 학습 수준이나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 논문이 한류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니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드라마나 뮤직 비디오에 나타난 구체적인 한국 문화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다양한 시각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문화와의 비교 등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수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 제 4 분 과 】

# 16세기 후반·17세기 漢字音의 韻母上의 특징과 변화

이준환(국립국어원)

## 차 례

1. 머리말
  2. 현실한자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및 본고의 논의 방향
  3. 운모별 대응 관계
  4.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의 운모상의 특징 및 변화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본고는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의 운모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세국어 한자음과 비교하여 체계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에서 일어난 한자음의 변화를 고찰하고 기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구체적으로 한자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한자음 내적인 요인, 고유어의 영향, 외래적인 요인과의 관련성을 포착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인다. 16세기 후반 자료를 17세기 자료와 같이 묶어 다루는 것은 16세기 후반의 한자음 자료의 특징이 口蓋音化, 圓脣母音化 등에 있어서 이미 근대국어의 특징을 상당히 보여주므로 근대국어 자료로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sup>1)</sup>

본고의 검토 대상이 되는 시기의 한자음은 기본적으로는 중세국어 한자음의 틀을 이어받았으면서도 근대국어시기에 일어난 음운 변화의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는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다른 다양한 음성적인 실현 형태를 보여 주는 예들이 나타난다. 이 중 후자는 곧바로 음운론적인 연구에 이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는 단순히 방언의 영향이 아닌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다른 경로로 전승되던 한자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거나 古形의 한자음을 유지한 것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한자음 추출 문헌은 크게 다음과 같이 諺解類, 字釋類, 諺簡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諺解類는 모두 17세기 문헌이며, 字釋類는 경기도 安城 七長寺에서 나온 한자 학습용 교재로 모두 17세기 자료인데 경기 남부의 방언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諺簡 중에서 『순천 김씨 묘 출토 언간』은 16세기 후반의 충청도

1) 본고에서는 16세기 후반·17세기를 前期 近代國語 時期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흔히 壬辰倭亂을 기점으로 하여 近代國語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소 이른 것이다. 宋敏(1986)에서는 전기 근대국어를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중엽까지로 보았는데 이것은 /·/의 非音韻化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18세기 한자음 자료를 중엽과 후엽으로 나누어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편의상 18세기를 중기 근대국어로 19세기를 후기 근대국어로 다루는 태도를 취한다.



(청주)의 언어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가계도를 볼 때에 서울과 경상도 방언의 영향도 다 같이 고려해야 하는 자료이며, 17세기의 『진주 하씨 묘 출토 언간』은 경상도의 언어를 반영한 것이다.

문헌 종류	문헌명(괄호 안은 앞으로 쓰게 될 略號임)
諺解類	『女訓諺解』(인조, 여훈), 『馬經抄集諺解』(인조, 마경), 『痘瘡經驗方諺解』(현종, 두창), 『警民編諺解』(효종, 경민)
字釋類	『七長寺 千字文』(칠천), 『七長寺 類合』(칠유)
諺簡	『순천 김씨 묘 출토 언간』(순천), 『진주 하씨 묘 출토 언간』(진주)

[표] 본고의 논의 대상 한자음 추출 문헌명

## 2. 현실한자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및 본고의 논의 방향

그간 한국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한자음 전반에 관한 연구도 있으나 주로 중세국어 한자음에 대한 연구에 많이 치중되었고, 근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서의 한자음에 대한 연구나 개별 문헌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 한자음 전반에 관한 연구로는 河野六郎(1968), 남광우(1973), 신아사(2006) 등이 있고, 중세국어 한자음에 집중한 연구로는 이돈주(1979, 1995), 이윤동(1988, 1997), 권인한(1997, 2006), 伊藤智ゆき(2002) 등이 있으며, 근대국어 한자음에 집중한 연구로는 정경일(1984, 1989, 2004, 2006), 이승자(2003), 최미현(2006), 이준환(2003, 2008) 등이 있다. 그런데 근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여태까지의 연구는 주로 운서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이준환(2008)은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 연구이기는 하나 운모에 관해서는 제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 덕택에 근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은 잘 파악되었으나 현실음이 반영되어 있는 문헌들의 다양한 실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작업은 부족했던 탓에 현실 한자음의 전반적인 양상과 편차를 잘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개별 문헌의 한자음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개별 문헌의 한자음에 대한 연구 성과가 통합되어 근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논의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구개음화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운서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ㄷ구개음화는 설상음과 설두음의 양상이 달랐다고밖에 기술할 수 없는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 한자음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둘이 聲母의 종류를 구별하고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정 음운 조건에서 일어난 고유어와 동일한 차원의 음운 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 음운 현상이 최소 16세기 후반 자료에서부터는 그 모습을 보이며 점진적인 확산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ㄱ구개음화 및 ㅎ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운서만을 가지고서 논의를 할 경우에는 연구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나 현실 한자음을 가지고서 논의를 할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실음이 반영되어 있는 여러 문헌들에서 나온 한자음을 전통적인 한자음 분류법에 따라서 정리하고 그 양상을 귀납하여 근대국어 한자음의 특징을 기술하고 중세국어 한자음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근대국어 한자음으

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음성적 차원의 변이 양상 및 문헌이나 지역에 따른 편차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근대국어의 역동적인 양상과 부합하는 근대국어 한자음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운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대된다. 즉 /·/의 변화, 脣子音 아래에서의 圓脣母音化 현상, 口蓋性 子音(齒音) 아래에서의 j계 상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의 구개모음화 현상 등의 양상이 현실한자음을 기반으로 한 논의에서는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자음의 변화 양상이 체계와는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가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 3. 운모별 대응 관계

韻母別 대응 관계는 『廣韻』의 206韻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각 攝別로 나누고 각 韻의 韻目을 기준으로 하여 聲母를 적당히 안배하여 각 韻에 소속된 漢字音의 실현 양상을 제시한 후 논의하도록 하겠다. 206韻은 四聲相配에 따라 平上去入의 순으로 나열하도록 한다. 각 韻의 오른쪽에 있는 再構音은 기본적으로 平山久雄(1967)을 따르도록 하는데, 다만 入聲의 再構音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口蓋性 介音의 경우 甲類는 -i-로 乙類는 -ɪ-로 표기하고, 口蓋性 介音과 圓脣性 介音의 결합의 경우 甲類는 -y-로 乙類는 -ɻ-로 표기하도록 한다.

#### 3.1. 通攝

- 東董送屋1 -ɫuŋ<sup>2)</sup> ⇒ 옹: 公궁, 通통, 籠룽, 蒙몽, 鬢중, 摠총, 送송, 鴻홍, 翁옹  
 ⇒ 옥: 穀곡, 讀독, 卜복, 蓬복(平)<칠유>, 木목, 鏃족  
 ⇒ 옹/오: 送송<순천> / 木목<진주>
- 東董送屋3 -iɫuŋ ⇒ 옹: 中똥, 忠똥, 隆룽, 衆중, 充충, 崇송, 戎융  
 ⇒ 옥: 竹똥, 蓄똥, 逐똥, 衄똥, 粥죽, 蹙축, 祝축, 肅숙, 育육 ~ 혹<여훈>  
 ⇒ 유/옥: 竹똥<진주>, 六똥 / 祝축<진주>
- ɪɫuŋ ⇒ 옹<sup>3)</sup>: 弓궁, 宮궁, 風풍, 豐풍<여훈>  
 ⇒ 옹/옥(脣音): 鳳봉 / 目목, 伏복, 服복  
 ⇒ 옹/운: 風풍<칠유>, 楓풍<칠유>, 豐풍<칠유> / 風훈<순천>  
 ⇒ 옥/옥: 菊곡, 麴곡, 燠옥, 郁옥, 燠옥 / 服복<경민>, 目목<여훈>
- 冬潼宋沃1 -auŋ ⇒ 옹/옹/웅: 攻궁, 農농, 綜중<여훈>, 宗중 / 農농<순천> / 膿농<두창>  
 ⇒ 옥/오: 篤독, 毒독 / 鶴고<칠유>
- 鍾腫用燭3 -iaŋ ⇒ 옹/오: 寵똥, 縱중, 松송, 誦송, 蓉용, 勇용 / 松소<진주>  
 ⇒ 옹: 重똥 ~ 중<진주, 두창>, 胸홍, 凶홍  
 ⇒ 옥/옥/요: 浴욕, 躅똥, 足족, 屬속, 續속, 辱욕 / 屬속<진주> / 褥똥<칠유>  
 ⇒ 옹/옥/옥: 恭궁, 封봉, 逢봉, 雍용 / 曲곡, 玉옥, 綠록, 促축, 束속 / 局곡

2) 이에 상배하는 入聲은 [-ɫuk]이 되어 核母音은 같고 韻尾만 다르므로 특별히 표기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

3) 개음 -ɪ-가 요음성이 약한 비구개성 음인 탓에 핵모음에 흡수된 결과로 甲類와 달리 반영되었다.

(1) 東韻1과 冬韻은 /ㄱ/로 핵모음이 대응하여 구별되지 않는데 이는 중세한자음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東韻1 가운데 ‘送’은 『순천』에서 ‘송’으로 나타나 口蓋性 介음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口蓋音化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 /ㄱ/의 口蓋性和 관련된 현상이다.

(2) 東韻3은 甲類는 /ㅍ/, 乙類는 /ㅌ/로 모음이 대응하여 口蓋性 介음의 強弱에 의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乙類에서 唇音 聲母字 가운데에는 /ㄱ/로 대응하여 母音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대응 양상은 東韻1 및 冬韻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東韻1 및 東韻3의 唇音字에서는 모음이 [u>(u)o]로 바뀌었고 冬韻의 모음은 [uo]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권혁준 2009 참고).<sup>4)</sup>

(3) 鍾韻은 甲類는 /ㅍ/, /ㄱ/로 대응하나 /ㄱ/가 우세하고 乙類는 ‘局국’을 제외하고는 /ㄱ/로 대응한다. 이는 鍾韻의 핵모음이 [o]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것과 대체로 부합하는 특징이다. 甲類의 글자 중 모음이 /ㅍ/로 대응하는 것들은 日本漢字音에서 吳音은 ㄱ단과 ㄷ단으로 반영된 것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예: 種シュウ, 從ジュウ, 龍リュウ, 燭屬ソク, 欲ヨク 등) 漢音은 ㄷ단으로만(예: 重チョウ, 鍾種從ショウ, 龍リョウ, 燭粟續シヨク 등) 반영되어 있음을 볼 때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4) 中世漢字音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칠유』에는 東韻3 乙類의 ‘風·楓·豐풍’과 같이 ‘웅’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있는데 /·/가 合口韻인 東韻3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중세국어에서 /·/가 /ㄱ/와 圓唇性에 의한 대립의 짝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선행 자음이 /ㅍ/로서 唇子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운론적으로는 ‘\*풍’ 정도에 해당하는 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唇音 聲母字 아래에서의 양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예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服복<경민>, 目목<여훈>’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고려할 때 誤記일 가능성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誤記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이 글자가 唇音 聲母字라는 점과 /-/와 /ㅌ/가 圓唇性에 의한 대립 짝을 지닌 것으로 본다면 [u>(u)o]에서 변화 이전의 단계인 [u]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2. 江攝

江講絳覺2 -auŋ ⇒양/악 : 講강, 絳강, 撞당, 邦방, 庌방, 雙쌍~쌍, 缸항, 肛항 / 角각, 穀각, 啄탁, 濁탁, 剝박, 璞박, 雹박, 邈막, 嶽악, 樂악  
⇒왕/양/옥: 肛황<마경> / 雙쌍~쌍<마경> / 學학

(1) 江攝은 ‘學학’을 제외하고는 핵모음이 /ㅌ/로 반영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江攝의 핵모음이 /ㅌ/로 대응하는 것은 唐의 長安音이 [-ɔŋ]-auŋ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 지적된 바 있다(李敦柱 1995, 권인한 1997). ‘學학’에 대해서는 중고음 이전의 고음인 [-ɔŋ/-ɔk]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음이 논의된 바 있는데(권인한 1997), 日本의 吳音에서 ‘幢ドウ, 窓ソウ’와 같이 ㄷ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는 것도<sup>5)</sup> 그 가능성을

4) 권혁준(2009)에서 제시된 근거로는 高田時雄(198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9-10세기 西北方言을 반영하는 漢藏對音에서 東韻 3등은 티베트어에서 [u]로 대응하나 東韻1과 冬韻은 [o]에 대응한다는 것, 일부 鍾韻의 唇輕音 글자가 ‘奉(馮容反), 鋒(敷容反/捧容反), 封(風用反)’과 같이 鍾韻의 非唇音字를 反切下字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鍾韻[o]와 관계가 가까웠음으로 보여 주는 것 등이 있다.

5) 또한 推古期遺文에서 비록 常用假名은 아니고 解讀에 어려움도 있으나 ‘巷’이 聯合假名으로서 ‘ㄱ’甲에 대응하

보낼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sup>6)</sup>

(2) 中世漢字音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肛’이 『마경』에서 ‘황’으로 반영된 것은 원인 불명이나 단순한 圓脣性 介音 /-w-/의 첨가되어 있다. ‘雙’은 『마경』에서 ‘쌍~쌍’과 같이 모음이 /ㅍ/로 대응하여 口蓋性 介音が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선행 자음인 /ㅍ/이 口蓋性 變異音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 3.3. 止攝

- 支紙寘3 -ieI/-ieI ⇒이/의: 忌기<진주>, 知디~지, 智디, 池디, 離리~니, 膩이, 臂비, 痞비, 彼피~비, 皮피, 糜미, 枝지, 肢지, 齒치, 移이 / 奇기, 綺기, 忌기  
 ⇒으/아: 滓즈, 紫즈, 雌즈, 刺즈, 此즈, 差즈, 斯스, 賜스, 巳스, 耜스, 篩스, 兒으 / 紫자<순천>  
 ⇒익: 梓지, 滓지, 巳식<순천>
- yeI/-yeI ⇒위/외: 危위~위<마경>, 僞위, 委위 / 衰쇠  
 ⇒우/유: 累루~누, 淚루~누 / 規규, 窺규, 淚류, 累류, 錐츄, 髓슈, 虧휴  
 ⇒웨/위: 毀훼, 跪괘 / 贅취<칠유>, 翠취, 吹취  
 ⇒이: 避피~비, 靡미, 尾미
- 脂旨至3 -iei/-iei ⇒이: 棄기, 地디~지, 遲디~지, 雉티~치, 尼니, 比비, 鼻비, 指지, 尸시, 示시  
 ⇒의: 器기, 肌기, 飢기  
 ⇒으: 資즈, 姿즈, 姊즈, 恣즈, 自즈, 次즈, 私스, 死스, 四스, 肆스, 師스  
 ⇒야/애: 資자<순천> / 恣재<순천>  
 ⇒에/예/익: 暨계<여훈> / 悸계<마경> / 寐미
- yei/-yei ⇒유/위/웨/웨: 類류, 推츄, 雖슈, 遂슈, 水슈, 綏유 / 醉취 / 瘁취<마경> / 机괘, 瘁취<마경>  
 ⇒예/외: 癸계, 季계 / 愧괴, 櫃괴<순천>  
 ⇒이: 悲비, 費비, 美미, 媚미
- 之止志3 -iɪI/-iɪI ⇒의: 起기, 基기, 其기, 居기<진주>, 意의, 疑의  
 ⇒으: 茲즈, 仔즈, 子즈, 慈즈, 字즈, 絲스, 思스, 司스, 筍스, 嗣스, 飼스, 寺스, 辭스, 似스, 姘스, 祀스, 士스, 仕스, 事스, 史스  
 ⇒이/의: 痴티, 恥티, 里리, 柿시, 史시<진주>, 詩시, 始시, 侍시, 而이, 耳이, 疑이<칠유> / 侍식<진주>, 喜희, 醫의  
 ⇒익/아/야: 笞티, 子지<순천> / 子자<순천, 진주>, 事사<순천> / 事사<순천>
- 微尾未3 -ɪɪI  
 ⇒의/이: 既기, 氣기, 祈기, 稀희, 依의 / 氣기<순천>  
 -ɻɪI ⇒위/외/웨: 龜귀, 歸귀, 暉휘, 輝휘, 胃위, 威위 / 畏외 / 卉훼(중세)  
 ⇒이: 匪비, 浬비, 妃비, 肥비, 味미, 尾미, 飛비

(1) 止攝은 支脂之微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慧琳音義』의 음계와 일치한다(권인한 1997). 특징적인 것은 齒頭音과 齒上音 아래에서는 핵모음이 /·/로

는 것은(大野透 1962 참고) 江攝이 古音에서는 後舌母音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6) 그러나 이는 /·/가 漢語와의 대응에서 中舌母音의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姜信沆 1978, 李準煥 2010)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도리어 吳音에서도 ‘學’이 ㄱ로 대응하는 것을 볼 때에는 [-ɔŋ]→[-aŋ]의 변화의 중간 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응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開口韻에서만 나타난다. 이에 대해 上古音을 반영했다는 說도 있으나(박병채 1971, 최남희 2006) 借字表記의 양상을 고려할 때 近代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7)</sup> /·/를 上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볼 때에는 鄉歌의 ‘兪史(즈시), 深史隱(기프신)’과 같이 ‘史’가 주격 조사와 존경법 선어말 어미에 쓰인 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2) 合口韻의 경우는 支韻과 脂韻은 /ㅍ~폐~계/로 微韻은 /기~계/로 반영되어 있는 양상은 중세한자음과 동일하다. 그러나 脂韻에서는 『마경』의 ‘瘳補’처럼 중세한자음과는 달리 /폐/로 반영되는 예들도 있고, 微韻에서는 ‘畏외’와 같이 /시/로 반영된 예들도 있다. 이들은 『全韻玉篇』에 각각 ‘취俗補’, ‘위俗외’로 주기되어 있는데 전자는 국어의 音節形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蟹攝 灰韻의 諧聲字나 字形이 유사한 글자들(예: 猥, 隈, 巍, 嵬 등)에 의해 유추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8)</sup> 따라서 이들은 음운론적인 대응 관계를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合口韻 가운데 支韻의 ‘避피~비, 靡미, 尾미’, 脂韻의 ‘費비, 美미, 媚미’, 微韻의 ‘匪비, 浬비, 妃비’ 등과 같이 唇音 聲母字 아래에서는 合口性이 탈락한 채 핵모음이 /ㅣ/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은 한국한자음에서 唇音 聲母字 아래에서 合口性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과 공통적이다.

(3) 之韻의 ‘쯔티, 子지<순천>’ 등은 모음의 대응 양상이 蟹攝의 咍韻과 동일하다. ‘쯔티’는 中世漢字音에서도 그 음이 ‘티’였는데 이는 聲符인 ‘臺티’와 諧聲字 ‘苔티, 怠티’ 등에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子지’는 『순천』의 ‘은지도(銀子+도)’에서 출현하는 예이다. 그리고 乙類로서 中世漢字音에서는 모음이 /-ㅣ/였던 것 가운데에서 일부 문헌에서는 甲類와 동일하게 모음이 /ㅣ/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支韻의 ‘긔기<진주>’, 之韻의 ‘擬이<칠유>’, 微韻의 ‘氣기<순천>’가 있다. 이들은 중앙어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들인데, 일부 한자음에서 甲乙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口蓋性 介音의 탈락이 보이는 예들이 있다. ‘累’는 中世漢字音에서도 口蓋性 介音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나 ‘淚’는 ‘류’로서 그렇지 않았던 예이다. 그런데 ‘류>루’가 될 음운론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淚’에 ‘루’란 음이 전승되던 어떤 경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齒頭音과 齒上音 아래에서 /·/로 대응하던 것들 가운데에서 ‘紫자<순천>, 子자<순천, 진주>, 事사<순천>나 ‘資자<순천>, 事사<순천>’와 같이 모음이 /ㅈ/나 /ㅉ/로 반영된 예들이 있다. /·/에 대해서 /ㅈ/로도 반영된 예들이 있는 문헌이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의 언어를 반영한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상 非語頭音節에서 /·/ > /-/와 거의 겹친다. 따라서 이 두 모음 사이의 음성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순천』에서 /ㅉ/로 대응하는 예도 있음은 이미 이 문헌에서 口蓋音化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과 口蓋性 子音 아래에서 口蓋性 介音의 탈락과 첨가가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모음이 /ㅈ/인 ‘자’나 ‘사’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口蓋性 介音의 첨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 권인한(1998)에서 琉球語 /u/[w]:/·/의 대응 및 『조선관역어』에서의 /j)/i:/·/의 대응례를 들고 있음을 참고.

8) 이처럼 ‘위俗외’로 俗音이 주기되어 있는 글자들을 보면 微韻의 ‘巍, 魄’가 더 있다.

### 3.4. 遇攝

模姥暮1 -uΛ	⇒오/요: 孤고, 姑고, 吾오, 都도, 圖도, 土토, 奴노, 露로, 補보, 蒲보, 布포, 鋪포, 慕모, 租조, 祚조, 蘇소, 呼호, 虎호, 烏오, 惡오 / 墓묘 ⇒우/와: 故구<진주>, 杜두<마경>, 肚두<마경>, 妬투, 簿부, 粗추<마경>, 酥수 / 苳과<칠유>
魚語御3 -iΛ/-iΛ	⇒여/예: 著더, 貯더, 女녀, 閭려 慮녀, 趙져, 杵져, 覷처, 處처, 胥셔, 徐셔, 響여, 預여<여훈> / 猪데, 除데<칠유>, 諸제, 預예, 響네<칠천> ⇒어/오/외: 車거, 居거, 舉거, 巨거, 語어, 筋저<<더>>, 鋤서, 暑서<칠천>, 庶서<칠유>, 虛허, 許허 / 阻조, 初초 / 初최<순천> ⇒야/이: 煮자 / 慮니<순천>
虞麩遇3 -yΛ/-yΛ	⇒유/위: 蛛듀, 廚듀, 株주<마경>, 鬚슈, 殊슈, 乳유, 兪유 / 聚취, 取취 ⇒우/위: 駒구, 瞿구, 矩구, 區구, 愚우, 寓우, 夔루, 夫부, 扶부, 無무, 巫무, 蕪추, 于우, 羽우 / 縷늬<마경> ⇒오: 迂오<경민, 두창>

(1) 模韻은 /ㄱ/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고 /ㄷ/로 대응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ㄷ/로 대응된 것들은 近代漢語의 [u]에 대응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권인한 1997) 舊層을 반영한 /ㄱ/와 新層을 반영한 /ㄷ/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墓묘’는 模韻의 글자 중 유일하게 口蓋性 개음이 첨가된 예이다. 『칠유』의 ‘苳과’는 모음이 /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假攝 麻韻의 ‘瓜과’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판단되어 음운론적 대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2) 魚韻은 甲類는 /ㄱ/나 /ㅋ/, 乙類는 /ㄷ/나 /ㄱ/로 대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中世漢字音과 차이가 없다. /ㄱ/로 대응하는 것들은 聲母가 牙喉音에 속하는 것들이 대다수이며, 齒音 가운데에는 正齒音 3등에 속하는 것들에서만 그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鋤서’는 『全韻玉篇』의 ‘조俗서’란 기록을 볼 때 俗音으로서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므로 일단 제외된다. 乙類 가운데 /ㄱ/로 대응하는 것이 있어 그 양상이 模韻과 유사한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阻(莊母), 初(初母)’와 같이 齒上音에 속하는 예들이다.<sup>9)</sup> 특이한 것으로는 『순천』의 ‘初최’가 있는데 이는 ‘최시(初試)헛가’에서 관찰되는 예이다. 후행하는 한자음의 모음이 /ㅣ/인 것에 의해 모음 /ㅣ/가 덧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ㅈ/로 대응하는 ‘煮자’는 『全韻玉篇』에 ‘저俗자’란 기록을 참고하여 볼 때 假攝 麻韻의 ‘者자’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炙자’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음운론적인 대응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모음이 /ㅣ/로 대응하는 ‘慮니<순천>’는 ‘념니(念慮)를’에서 확인되는 한자음으로 방언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均如鄉歌에서 ‘呂’가 ‘리’를 나타내는 데에 쓰인 점을 고려할 때 遼代 이후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虞韻은 甲類는 /ㅍ/~ /ㅍ/, 乙類는 /ㄷ/로 그 음이 대응하는데, 中世漢字音과 동일한 것이다. 乙類 가운데 ‘縷’는 『마경』에서 ‘늬’와 같이 모음이 /기/로 대응하고 있다. 특이하게 /ㄱ/로 모음이 대응하는 예가 있는데, 『경민』과 『두창』의 ‘迂오’가 이에 해당한다.

9)이렇게 운모가 /ㄱ/로 대응하는 것은 齒上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예들을 보면 生母의 ‘梳소, 疋소, 疎소, 疏소, 疎소, 所소’, 崇母의 ‘鉏조俗서, 鋤조俗서, 齟조, 助조’, 莊母의 ‘阻조, 阻조, 詛조’, 初母의 ‘楚초, 礎초’가 있다.

### 3.5. 蟹攝

泰1	-ai	⇒애/익: 巧개, 蓋개, 奈내, 貝패, 沛패, 蔡채, 害해, 艾애 / 帶디
	-uai	⇒외: 塊괴, 外외, 膾회, 賴뢰(開口), 最최, 會회
哈海代1	-Λi	⇒익/애: 改기, 該히, 殆티, 來리, 哉지, 才지, 醜히, 哀이 / 乃내, 才재<순천>
灰賄隊1	-uΛi	⇒외/왜: 堆퇴, 推퇴, 雷뢰, 耒뢰, 悔회, 茴회, 煨외, 槐괴 / 碎쇄 ⇒익: 內늬, 戴디, 對디, 貸디, 胎티, 盃비, 杯비 枚디, 每디, 再지, 財지 ⇒애: 佩패, 悖패, 財재<순천>
佳蟹卦2	-ar	⇒애/익: 賣매, 叉채 / 派픽<순천>, 買미, 差칙<진주> ⇒왜: 洒쇄<칠유>, 灑쇄<여훈>, 晒쇄<마경> ⇒아: 擺과, 派과
	-uar	⇒왜: 卦과
皆駭怪2	-ei	⇒익/애/예: 皆기, 揩히, 拜비 / 介개 / 階계, 戒계 ⇒의: 豺식
皆駭怪2	-uei	⇒외/워/왜/익/애(脣): 怪괴(중세), 愧괴/ 贖획 / 歪왜 / 拜비/ 涖패 ⇒오: 怪고<진주>
夬2	-ai/-uai	⇒애/왜: 掎개 餽애/ 快쾌, 夬괘
祭3	-iai/-rai	⇒예/여: 弊패, 祭제, 勢세, 藝예 例례 / 勢셔<여훈, 진주> ⇒에: 揭개, 憇계, 祭제<순천>, 勢세<순천>
	-yai/-yai	⇒예/워/위: 稅세/ 蹶괘 / 衛위
廢3	-rai/-yai	⇒예/워/예: 父예/ 喙획 / 穢예 ⇒애/예: 穢애<칠유> / 廢폐(합), 吠폐(합)
齊薺霽4	-ei/-uei	⇒예: 雞계, 稽계, 低데<칠유>, 梯데, 啼데, 逮데, 閉폐, 濟제, 洗세, 翳예 ⇒지: 齊지<경민>, 奚히 ⇒웨/워: 砌획<칠유>(開口), 贅획<여훈> / 贅획<여훈> ⇒여: 係겨<순천, 진주>, 計겨<순천>, 低더, 底더, 麗려, 西셔, 逝셔, 誓셔 ⇒이: 髀비<마경>, 迷미, 米미, 泥니 ⇒유: 圭규, 奎규, 畦규

(1) 泰韻은 開口韻은 /ㅈ/, 合口韻은 /ㄴ/로 대응되는 것이 추측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帶디’와 같이 /·ㅈ/로 대응하는 예가 있는데 河野六郎(1968)에 따르면 /·ㅈ/는 /ㅈ/보다는 舊層에 속하는 것이되나 인접한 哈韻의 경우는 대개가 /·ㅈ/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新舊의 차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고(권인한 1997: 290-291), 哈韻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賴뢰’와 같이 開口韻인데도 合口韻과 동일하게 /ㄴ/로 대응하는 예도 있는데, 漢語音韻史에서 이 글자가 合口韻에 해당하는 성격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선행 자음인 /ㄴ/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2) 哈韻은 대개의 글자가 /·ㅈ/로 대응하고 일부 /ㅈ/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 중 ‘乃내’는 哈韻의 핵모음이 /-ㄴ/ 혹은 /-ㄹ/로 재구되는 것이라는 점과는 맞지 않고 佳韻과 유사하게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는 哈韻이 대체로 佳韻 및 皆韻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지어 논의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才재’는 『순천』에서만 보이는 예인데, 앞서 止攝의 ‘紫자, 子자, 事사’와 같이 /·ㅈ/가 /ㅈ/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로 생각된다.

(3) 灰韻의 경우는 /니/, /·니/, /ㄱ/로 대응하는 것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 중 /·니/와 /ㄱ/는 습口性이 겹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ㄱ/로 대응하는 것들은 『순천』의 ‘財재’를 제외하고는 唇音字 聲母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니/로 대응하는 것들은 舌音, 唇音, 齒音에서 그 예가 널리 관찰된다. ‘內닉’은 일찍부터 北京方言에서도 습口性이 탈락한 채 [nei4]로 전승되었고, 藏漢對音에서는 [de'i]로 실현된다. 이를 高田時雄(1988)에서는 /-w-/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伊藤智ゆき(2002)에서는 이른 단계로부터 습口性을 탈락시킨 것으로 보았다. 舌音에서 습口性이 탈락하는 것은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국한자음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두기로 한다.

(4) 佳韻의 경우 開口韻에서는 모음이 /ㄱ/로 대응하는 것과 /·니/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많고 唇音字 聲母 아래에서는 ‘擺과, 派과’와 같이 모음 운미가 탈락된 채 실현되어 假攝의 麻韻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다. 이에 반해 ‘派픽<순천>, 差척<진주>’의 예는 운미의 탈락을 보여주지 않는다. ‘賣매’와 ‘買미’는 핵모음의 대응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去聲인 ‘賣’보다는 上聲인 ‘買’는 핵모음의 上昇으로 인해 애매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는 탓에 /·/로 반영되었으리라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伊藤智ゆき 2002).

(5) 皆韻의 경우 口蓋性 介음이 첨가된 /ㅋ/로 대응하는 ‘階계, 戒계’가 있는데, 이들을 河野六郎(1968)에서는 d층에 배분해 놓고 있다. 漢語에서 이들 글자에 拗音이 발생하여 모두 口蓋音化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음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豺식’과 같이 모음이 /니/로 대응하는 예가 있는데 『全韻玉篇』에서는 ‘지俗식’으로 주기된 것을 통해서 볼 때 다른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대응 예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6) 祭韻의 경우 乙類의 경우는 ‘揭계, 醵계’와 같이 口蓋性 介음이 탈락하였다. 그리고 甲類의 글자 가운데에서도 ‘祭제<순천>, 勢세<순천>’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口蓋音化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ㅋ/가 아닌 /ㅋ/로 대응하는 ‘勢셔<여훈, 진주>’가 있는데 齊韻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예이다. 廢韻에서 ‘廢폐, 吠폐’는 습口韻인데도 圓唇性 介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唇音 聲母字 아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7) 齊韻의 경우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다. 먼저 ‘齊직<경민>, 奚히’와 같이 /·니/로 대응하는 것들은 유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齊직’은 佳韻의 ‘齋’에 의한 유추로 보이며, ‘奚히’는 『全韻玉篇』의 ‘혜俗히’를 볼 때 유추의 가능성이 높으나 그 원인이 되는 글자는 분명히 알기 어렵다. 다음으로 祭韻과 마찬가지로 口蓋性 韻尾가 탈락한 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에는 韻尾 탈락형만을 보이는 예와 운미 보존형과 탈락형이 병존하는 공존한다. 그리고 ‘髀비<마경>, 迷미, 米미, 泥니’와 같이 모음이 /니/로 대응하는 것은 대체로 唇音 聲母字에서 나타나나 舌音 聲母字도 있다. 이들은 李敦主(1995: 333-33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근대 중국음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sup>10)</sup>

### 3.6. 臻攝

痕很恨沒1 -an	⇒은/은/안: 恩은, 痕흔, 根근 / 恨흔, 懇근<경민>, 吞툰 / 懇간<순천>
魂混混沒1 -uan	⇒은: 溫은, 穩은, 渾혼, 孫손, 尊존, 論론, 豚돈, 鈍돈, 敦돈, 困곤, 昆곤
	⇒운/인/은: 門문, 臀둔<칠유>, 困곤<순천, 진주> / 悶민 / 門문<마경>
	⇒울/을/을/울: 卒졸, 骨골, 忽홀 / 勃뵐(중세음)/ 忽홀<경민>, 笏홀<칠유>

10) 참고로 이 글자들의 現代 漢語에서 운모가 모두 /니/로 대응되고 있고, 같은 韻에 속하는 다른 글자들도 모두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 訥(중세음)

- 眞軫震質3 -ien || -ien ⇒ 인: 巾긴<순천>, 緊긴, 鎭딘, 塵딘, 陳딘 ~ 진, 鱗린, 賓빈, 殞빈<진주>, 蘋빈, 貧빈, 親친, 津진, 振진, 薪신, 娠신, 刃인, 因인, 引인  
 ⇒ 잉: 檳빙<마경>, 殢빙<진주>, 嘸빙<칠천>, 貧빙<칠유>, 親칭<여훈>, 叩잉<진주, 마경>  
 ⇒ 언/안/얀: 巾진/ 因안<경민>/ 因안<경민>  
 ⇒ 운/은: 窘군 / 銀은, 襯촌  
 ⇒ 일/을: 吉길, 窒딜, 必필, 疋필, 疾질, 漆칠, 蟋실<칠유>, 溢일, 窒딜 / 叱즐<칠유>, 膝슬, 乙을
- 臻櫛3 -ien ⇒ 인/은/을 : 莘신 / 襯촌 / 瑟슬
- 諄準稕術3 -yen ⇒ 운/운: 均균, 椿춘, 俊준, 準준, 筍순, 順순, 脣순, 閏운, 尹운 / 遵준  
 ⇒ 율: 橋굴, 尢출, 倫륜, 律률, 栗률, 出출
- yen ⇒ 운/운/율: 麴균 / 窘군/ 汨을
- 欣隱焮迄3 -IAN ⇒ 은/을/얼: 斤근, 謹근, 欣흔 / 疙흄, 訖흄 / 乞걸
- 文吻問物3 -YAN ⇒ 운: 君균, 裙균, 分분 ~ 픈<두창>, 粉분, 墳분, 紋문, 熏훈, 云운, 運운  
 ⇒ 은/은/은: 分분<두창> ~ 픈<두창> / 分픈<두창> / 蘊은, 運운<순천>  
 ⇒ 율/을: 屈굴, 不불<마경, 여훈, 경민>, 佛불, 鬱울, 蔚울 / 不블<순천, 진주, 마경, 여훈, 경민, 칠천, 칠유>, 弗블<여훈, 칠천>, 拂블<칠유>, 物물, 勿물

(1) 痕韻은 /-/로 대응하는 것과 /·/로 대응하는 것이 공존하는데, /·/인 것들이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권인한 1997). ‘懇군’에 대하여 『순천』에서는 ‘懇간’으로 나타나는데, 진술한 바와 같이 /·/ > /-/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2) 1등의 습구韻인 魂韻은 대개가 모음이 /-/ 또는 /-/로 대응한다. 이 이외에 /|/로 대응하는 ‘悶민’이 있는데, 『全韻玉篇』에 ‘문俗민’이라고 주기되어 있음을 볼 때, 眞韻의 ‘悶민, 憫민’ 등에 의해 유추된 결과 형성된 음으로 파악된다. 3등의 습구韻인 文韻은 대개가 /-/로 대응하고 /-/ 및 /·/로 대응하는 예들도 상당히 나타난다. 그런데 文韻의 ‘不불, 拂불’을 보면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달리 모음이 /-/로 대응하고, 魂韻의 ‘門문<마경>’과 文韻의 ‘분분 ~ 픈’과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달리 모음이 /-/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脣子音 아래에서 圓脣母音化 내지는 非圓脣母音化 현상이 있었던 것과 관련지어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현상은 순수하게 국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근대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검토 대상이 된 문헌에는 그 용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勃불’은 습구性이 탈락되어 있는데 이는 脣子音 아래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가 /-/와 圓脣性을 축으로 하여 대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入聲에서 모음이 /-/로 대응하는 것은 ‘忽흄, 笏흄’처럼 喉音 聲母字에서 나타난다.

(3) 眞韻에서는 甲類는 /|/로 乙類는 /-, /-/로 나타나서 구분이 된다. 眞韻의 甲類에서는 韻尾가 /o/으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는 韻尾가 /-ŋ, -k/와 같이 口蓋性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韻尾 자체의 특성 못지않게 핵모음이 /|/로서 강한 口蓋性을 지니고 있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乙類 가운데 ‘巾진’처럼 /-/로 대응하는 것은 주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다는 古形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巾진’처럼 /|/로 대응하는 것은 近代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諄韻에서도 /-/로 대응하는 ‘乞걸’은 古形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寤韻(反切下字: 殞)’과 같이 /ㄷ/로 대응하는 것은 開口韻인 眞韻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聲符인 ‘君’에 유추된 결과로 보인다.

(4) 臻韻은 眞韻 乙類와 거의 같으나 ‘莘’과 같이 모음이 /ㅣ/로 대응하는 예가 있다는 점이 차이를 보이는데, 齒音 성모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다(권인한 1997).

### 3.7. 山攝

寒旱翰曷1 -an	⇒안/은/아: 干간, 嘆탄, 難난, 殘잔, 罕한, 安안 / 安은<순천> / 懶나 ⇒알: 葛갈, 渴갈, 割할, 擦찰
桓緩換末1 -uan	⇒완/왈: 冠관, 翫완, 歡환, 丸환 / 撮찰, 活활 ⇒안/알: 斷단, 短단, 卵란, 亂란, 般반, 拌반, 判판, 慢만, 饅만 / 奪탈, 鉢발, 拔발, 沫말, 豁할
刪澆諫黠2 -an	⇒안/알: 顏안, 版판, 瓣판, 獮잔 / 捌팔, 殺살
-uan	⇒완/왈/안/알: 關관, 頑완 / 刮괄, 滑활 / 班반 / 八팔, 拔발
山產禡黠2 -en	⇒연/은: 覓현 / 限흔 ⇒안/알: 簡간, 爛란 / 刹찰(중세)
-uen	⇒완/왈/안: 綸관(중세) / 刮괄 / 扮반
仙獮線薛3 -ian    -ian	⇒연/연: 纏던, 連련, 便변, 扁편, 湔전, 淺전, 鮮선, 然연 / 淺전<칠유> ⇒열: 悅열, 徹털, 列렬, 別별, 滅멸, 折절, 泄설, 設설 ⇒언/열: 乾건, 諺언 / 孽열
仙獮線薛3 -yan    -yan	⇒연/열: 絹견, 川천, 穿천, 轉던 / 雪설 ⇒원/인: 卷권, 圓원, 員원 / 圓인<칠천>
元阮願月3 -ian    -yan	⇒언/안: 翻번(合), 番번(合), 煩번(合), 軒현(開) / 反반(合), 萬만(合) ⇒알/열: 髮발(合), 罰벌(合), 襪말(合), 謁알(開) / 伐벌(合), 歇혈(開) ⇒완/왈/원/월: 阮완, 蜿완 / 曰왈 / 遠원, 萱환, 怨원 / 蕨꺽, 越월
先銑霰屑4 -en    -uen	⇒연: 堅견, 牽견, 顛던, 田던, 天던, 年년, 邊변, 眠면, 兩면, 千천, 淵연(合) ⇒열: 鐵털, 蔑멸, 節절, 竊결, 穴혈(合) ⇒언/인/일: 牋전<칠천>, 千천<칠천> / 咽인<마경> / 桔길, 迭딜, 跌딜

(1) 寒韻, 刪韻 開口韻, 山韻 開口韻은 /ㅏ/로 대응하여 韓國漢字音에서는 1등운과 2등운의 구별이 없음을 보여 준다. 이들 韻의 合口韻은 舌音, 脣音에서는 合口性 介音이 탈락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 仙韻 甲類, 先韻은 /ㅑ/로 대응하며, 仙韻 乙類, 元韻은 /ㅓ/으로 대응하여 1·2등운과는 핵모음의 대응 양상이 다르다. (1)과 (2)의 이와 같은 대응 양상은 『慧琳音義』와 일치하는 양상이다. 元韻 가운데 脣音 聲母字에서는 合口韻인데도 合口性 介音이 탈락되어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聲母에서는 合口韻의 경우는 合口性 介音의 반영이 뚜렷하다. 仙韻 合口韻에서도 ‘絹견, 川천, 穿천, 轉던, 雪설’과 같이 合口性 介音의 탈락이 아주 뚜렷한데 合口性 介音을 탈락시키지 않은 것들은 ‘卷권, 圓원’과 같이 口蓋性 介音을 탈락시킨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의 음절 구조의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권인한 1997 참고). 이런 양상은 先韻의 ‘淵연, 穴혈’과 같이 合口字에서도 나타난다.

(3) 元韻은 /ㅓ/, /ㅏ/로 대응하는 예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어/ 계통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ㅏ/는 古音의 반영일 수 있다(권인한 2006). 이에 관련해 韓國漢字音 도입 당시 元

韻이 仙韻에 합류되어 가는 단계였다는 설이 제기된 바도 있다(伊藤智ゆき 2002: 213).

(4) 山韻의 ‘限흔’은 伊藤智ゆき(2002: 204)에서는 痕韻의 ‘狠흔, 恨흔’의 유추로 본 바 있으나 痕韻의 글자들 대다수가 /-/로 나타나는 것이 중설적인 /-ə/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는 古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山韻도 古音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 각 韻의 일반적인 대응 양상에서 벗어난 것들 가운데에는 그 원인이 유추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먼저 山韻에서 ‘覓현’은 이 글자를 反切下字로 하는 被切字(예: 閒, 綻, 襴 등)들이 핵모음을 /ㅏ/로 한다는 점에서 聲符인 ‘見’에 의한 유추를 생각할 수 있다. 先韻의 ‘咽인’은 眞韻의 ‘因인’, ‘桔길’은 質韻의 ‘吉길’, ‘迭딜, 跌딜’은 『全韻玉篇』의 ‘덜俗딜’을 볼 때 質韻의 ‘秩딜’에 의해 각각 유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口蓋性 介音が 탈락된 예들이 상당히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仙韻의 ‘淺천<칠유>’ 先韻의 ‘淺전<칠천>, 千천<칠천>’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口蓋性 子音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3.8. 效攝

豪皓号1 -au	⇒오/외/우: 膏고, 熬오, 刀도, 惱노, 腦노, 老로, 寶보, 褒포, 帽모, 遭조, 草초, 掃소, 好호, 奧오 / 腦뇌<진주>, 草최<순천> / 帽무<진주>
肴巧效2 -au	⇒요/오: 交교, 巧교, 豹표, 鮑표, 抄초, 孝효, 凹요 / 較교<진주>, 包포, 飽포, 鮑포<진주>, 瀑포, 貌모, 巢소, 凹오<마경> ⇒우/유: 巧구 / 巧규<순천>
宵小笑3 -iau/-rau	⇒요/오: 嬌교, 朝도, 鈔도, 超도, 表표, 照조, 焦초, 消소, 燒쇼, 擾요, 夭요 / 朝조, 趙조
蕭篠嘯4 -ieu	⇒요/유: 窳교, 澆요, 梟효, 彫도, 釣도, 條도, 尿노, 遼료, 皎교 鳥도 堯요 曉효, 堯요 / 窳규<두창>

(1) 豪韻은 핵모음이 /ㅏ/로 대응하고 肴韻은 /ㅑ/로 대응하여 口蓋性 介音が 첨가되어 있다. 이는 原音에서 豪韻은 핵모음이 후설 모음 /-a/이나 肴韻은 전설 모음 /-a/인 것과 관련을 맺는다.

(2) 肴韻에서 /ㅏ/로 대응하는 것은 대개가 唇音 聲母字들이다. 이들 이외에 ‘較교<진주>, 凹오<마경>’와 같이 非唇音 聲母字들 가운데에도 口蓋性 介音의 탈락이 눈에 띈다. 그리고 ‘巧’와 같이 핵모음이 高母音 /ㅓ/로 대응하는 예들도 눈에 띄는데 『순천』에서와 같이 ‘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口蓋性 介音이 탈락한 것도 있다. 이렇게 高母音으로 대응하는 예를 蕭韻의 ‘窳규<두창>’에서도 나타나는데, 『全韻玉篇』에 ‘교俗규’임을 볼 때 널리 사용되고 있던 음임을 알 수 있다.

(3) 豪韻에서는 ‘腦뇌<진주>, 草최<순천>’와 같이 口蓋性 韻尾가 첨가된 예들이 눈에 띈다. ‘腦뇌’는 전승한자음으로 정착된 것이지만 ‘草최’는 ‘지최도(芝草+도)’에서 나오는 예로 형성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 3.9. 果攝

歌哿箇1 -a	⇒아/애/와: 可가, 鵝아, 多다, 大다<진주>, 他타, 糯나, 羅라, 左자<칠천>, 蹉차, 呵하, 阿아 / 箇개 / 可과<순천>, 佐좌, 左좌
---------	--

戈果過1 -ua ⇒와/왜/왈: 過과, 菓과, 臥와, 痲좌, 坐좌, 靴화, 窩와 / 鎖쇄 / 剝꺾<마경>  
 ⇒아: 波과, 播과, 摩마, 磨마, 坐자<여훈>  
 ⇒이/오: 跛피 / 鑣소<마경>  
 戈3 -ia/-ya ⇒아/와: 茄가 / 靴화

(1) 果攝에는 모두 세 운이 있는데 이들 모두 핵모음이 /ㅏ/로 대응한다. 戈韻 3등은 乙類에 해당하는 것으로 口蓋性 介音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볼 때 原音의 後舌母音 /-a/에 국어의 /ㅏ/가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歌韻과 戈韻에는 ‘箇개’, ‘鎖쇄’와 같이 /ㅏ/로 대응하여 口蓋性 韻尾가 첨가된 예들이 있다. 이 중 ‘鎖’는 중세한자음에서 ‘쇄<훈몽>~쇄<유합>’와 같이 운미가 없는 형태와 운미가 첨가된 형태가 교체를 보이는데, ‘쇄’가 후대의 문헌에 출현하고 있다.

(2) 歌韻 가운데에는 ‘可과<순천>, 佐좌, 左좌’과 같이 ㅅ口性 介音이 첨가되어 있는 예가 보이는데 ‘佐좌, 左좌’의 경우는 『中原音韻』에서 이들의 음이 [tsuo4]인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可과’는 『순천』의 ‘과부(可否)호소’에서 나타난 예로 戈韻1의 이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坐자<여훈>’은 圓脣性 개음이 탈락되어 있는데, 이는 歌韻의 ‘佐, 左’ 등에 대한 과도교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戈韻 가운데에는 脣音 聲母字에서는 ㅅ口性 개음이 탈락한 예들이 탈락하여 다른 攝들의 글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모음이 특이하게 대응하는 ‘跛피’와 ‘鑣소<마경>’는 각각 ‘皮’와 ‘巢’에 유추되어 형성된 음으로 보여, 음운론적인 대응을 보이는 예는 아니다.

### 3.10. 假攝

麻馬禡2 -a || -ua ⇒아/야/으: 加가, 牙야, 叉차, 差차, 紗샤, 下하, 巴과, 芭과, 琶과 / 紗샤<진주> / 下하<순천>  
 ⇒와: 寡과, 誇과, 瓦와, 花화, 蛙와  
 麻馬禡3 -ia ⇒야/아/으: 者쟈, 借차, 且차, 寫샤, 卸샤, 謝샤, 野야 / 嗟차 / 謝샤<진주>

(1) 假攝은 핵모음이 /ㅏ/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앞의 果攝과 구별되지 않으며, 麻韻 ㅅ口字의 경우 합구성 개음의 반영이 잘 관찰된다.

(2) 麻韻2에서는 ‘下하~하’와 같이 『순천』에서는 /ㅏ/가 /ㅏ/로 대응하는 예들이 보이며, 麻韻3에서도 ‘謝샤~샤’에서 보듯이 『순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紗샤~샤’, ‘嗟차~차’에서 보듯이 齒音 聲母字 아래에서 구개성 개음이 첨가되거나 탈락한 예들이 보여 口蓋音化 관련 음성적 특성을 보여준다.

### 3.11. 宕攝

唐蕩宕鐸1 -aŋ || -uaŋ ⇒양/왕: 岡강, 當당, 囊낭, 浪랑, 榜방, 忙망, 藏장, 蒼창, 行항, 旁방(합), 傍방(합) / 光광, 荒황, 篋황  
 ⇒약/왁: 各각, 託탁, 度탁, 樂락, 薄박, 幕막, 昨작, 柞작, 鑿착, 索삭, 鶴학, 旁박(합) / 郭곽, 鑊학, 獲학  
 ⇒양/암: 囊낭<칠천>, 蒼창<두창> / 囊남<칠유>  
 陽養漾藥3 -iaŋ || -iaŋ ⇒양/약: 釀양, 張당, 杖당, 兩냥, 涼량, 漿장, 障장, 倡창, 相상, 想상, 祥상,

象상, 常상, 壤양, 享향, 鄉향 / 嚼작, 着탁, 削삭, 約약  
 ⇒양/약: 薑강, 仰양, 創창, 狀장(崇母), 央양, 場장<순천>, 兩냥<여훈>, 相상<마경>, 想상<칠천>, 祥상<진주>, 常상<진주> / 若약<여훈>, 脚각  
 ⇒야/영: 象사<칠유> / 響형<칠유>  
 陽養漾藥3 -yaŋ ⇒왕/양(脣音): 匡광, 往왕, 旺왕 / 房방, 芳방, 放방, 忘망, 罔망  
 ⇒악/약(脣音): 躡곽(중세), 彊확(중세) / 縛박

(1) 宕攝은 후설모음 /-a/를 핵모음으로 하는 것인데 江攝과 유사한 대응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開口韻은 /ㅏ/로 습口韻은 /ㅑ/로 대응한다. 그런데 습口字 가운데 순음 성모자의 경우에는 합구성 개음이 반영되지 못하고 개구자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2) 陽韻 開口에서는 甲類와 乙類의 구별이 뚜렷하여 乙類에서는 구개성 개음이 탈락되어 있다. 『여훈』의 ‘若약’과 같이 甲類인데도 구개성 개음의 탈락이 나타난 예도 있다.

(3) 陽韻 開口에서 口蓋性 개음의 탈락을 보이는 예에는 ‘場장<순천>, 兩냥<여훈>, 相상<마경>, 想상<칠천>, 祥상<진주>, 常상<진주>’ 등의 예들이 있는데 이들 중 ‘場장’은 구개음화와 직접 관련된 예이고, 나머지 것들은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齒音의 口蓋性으로 말미암아 구개성 개음이 수의적으로 탈락한 변이 양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 3.12. 梗攝

庚梗映陌2 -aŋ || -uaŋ ⇒잉: 羹깁, 坑깁, 烹핑, 膨핑, 傍빙(합), 猛밍(합), 生싱, 杏형, 鶯잉  
 ⇒익: 客깁, 宅택 百백, 魄백, 脈믹(합), 麥믹(합), 責척, 冊척, 索식, 額익  
 ⇒영: 精정, 衡형, 形형  
 ⇒역/익: 格격, 膈격, 摘택 / 號획(합), 獲획(합)  
 耕耿諍麥2 -eŋ || -ueŋ ⇒잉/영/익/역: 爭징, 幸형, 萌밍(합) / 耿경, 莖경 / 策척, 責척, 麥믹(합) / 革혁  
 淸靜勁昔3 -iaŋ || -yaŋ ⇒영/영: 淸경, 迎영, 貞정, 淸경, 正정, 淸청 / 貞정<칠천>  
 ⇒역/익/익: 役역, 積적, 炙적, 隻척, 石석, 亦역 / 腋익 / 益익  
 庚梗映陌3 -raŋ || -yaŋ ⇒영/역: 京경, 禎정, 兵병(합), 桴평, 明명(합), 名명, 淸청, 性영, 省성, 兄형(합), 嬰영, 影영, 穎영(합) / 辟벽, 璧벽, 闢벽, 跡적, 斥척, 惜석  
 ⇒옥: 戟극, 屐극  
 靑迥徑錫4 -ieŋ || -yeŋ ⇒영: 頂정, 庭정, 寧녕, 屏병, 醒성, 惺성, 馨형, 形형, 熒형(합)  
 ⇒역: 倣택, 滌택, 陟택, 歷력, 歷력, 壁벽, 霹벽, 寂적, 慇척  
 ⇒익: 喫깁, 溺닉

(1) 梗攝은 /·i/와 /ɨ/로 대응하는 것이 대세인데, 2등운인 庚韻2와 耕韻, 3등운 淸韻 入聲字에서는 /·i/가 우세하고 3등운인 淸韻과 庚韻, 4등운인 靑韻에서는 /ɨ/가 우세하다. 이런 양상은 『慧琳音義』의 음계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i/는 原音과는 달리 핵모음과 운미 사이에 구개성 개음 /i/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핵모음과 구개음 운미 /-ŋ, -k/를 연이어 발음할 때에 생긴 轉移音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2등운에서 ‘精정, 衡형, 格격, 膈격, 耿경, 莖경’과 같이 /ɨ/로 대응하는 예들은 近代漢語(『中原音韻』에 -iæŋ/-iæk로 대응)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권인한 2006).

(2) 습口韻은 庚韻2의 ‘號획, 獲획’과 같이 원순성 개음을 반영한 예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예들이 더욱 많다. 庚韻2의 ‘傍빙, 猛밍’과 같이 脣音 聲母字 아래에서 이와 같은 양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庚韻3의 ‘兄형, 穎형’, 靑韻의 ‘熒형’과 같은 후음 성모자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3) 庚韻 3등에서 牙音 성모자 아래에서는 ‘戟극, 屐극’과 같이 핵모음이 /ㅡ/로 대응하여 乙類인 이 운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4등운인 靑韻에서는 ‘喫긱, 陟딕’ 등과 같이 핵모음이 /ㅣ/로 대응하는 예들도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은 3등과 4등 핵모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3.13. 曾攝

- 登等證德1 -aŋj ⇒ 응/옹/웅/옹: 肯궁, 等등, 燈등, 騰등, 能능, 朋봉, 鵬봉<칠유>, 增증, 贈증, 僧승 / 恒홍 / 等동<여훈> / 朋봉<경민>  
 ⇒ 옥/육/육/역/익: 克극, 得득, 勒륙, 北북, 墨묵<칠유>, 默묵, 則즉, 黑흑 / 北북<마경> / 刻극, 賊즉<진주> / 德덕, 墨먹<칠천>, 賊적 / 刻긱<순천, 진주>, 塞식
- uaŋj ⇒ 응/옹/윙/잉/응: 蕘홍(중세) / 弘홍 / 肱굉(중세) / 惝冥(중세) / 弘홍<여훈>  
 ⇒ 옥/육: 國국 / 或혹, 惑혹
- 蒸拯證職3 -iaŋj || -iaŋj ⇒ 응/잉/인: 矜궁, 凝응<마경>, 凌릉<칠천>, 棚봉<마경>, 症증, 乘승, 膺응, 興흥 / 徵딩, 冰빙, 憑빙, 稱칭, 孕잉, 剩잉 / 仍인, 孕인<마경>  
 ⇒ 옥/익: 極극, 卽즉, 側측, 測측, 仄측 / 仄측<칠천>, 色식, 塞식, 穢식  
 ⇒ 익/역/역/입: 直딕, 勅딕<칠천>, 稷직, 息식, 式식, 翫익 / 抑억, 憶억 / 力력, 息석<순천> / 逼핍
- 蒸拯證職3 -yaŋj ⇒ 잉/역: 氷빙(중세) / 埴벽(중세), 闕역(중세)

(1) 登韻과 蒸韻은 /ㅡ/로 대응하는 예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蒸韻에서는 /ㅣ/로 대응하는 예들이 보여 차이점이 분명한데, 핵모음에서 기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2) 登韻에서 /·/로 대응하는 ‘恒홍, 刻극, 賊즉’의 예들은 主層이 /ㅡ/로 대응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德덕, 墨먹<칠천>, 賊적’과 같이 /ㅣ/로 대응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들도 古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賊즉>적’을 볼 때에는 /·/가 /ㅣ/보다는 더욱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순음 성모자의 핵모음이 /ㅡ/로 대응하는 것은 위와 같은 曾攝의 대응 양상을 볼 때 정칙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 登韻의 ‘朋봉<경민>, 北북<마경>’, 과 같은 예는 핵모음이 /ㅍ/로 대응하는데 이런 대응 양상이 중세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圓唇母音化 현상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된다.

(4) 蒸韻의 ‘逼핍’은 『奎章全韻』에 ‘벽俗핍’으로 주기된 것을 볼 때 俗音임을 알 수 있는데 정칙 대응례가 아니므로 음운론적 논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3.14. 流攝

- 侯厚候1 -au ⇒ 우/으/오/유: 溝구, 斗두, 樓루, 否부, 戊무, 奏주, 叟수, 後후 / 否브<순천>, 不브<순천, 진주> / 兜도, 頭도<진주>, 豆도<진주>, 痘도<진주>, 母모, 牡모<마경>, 某모<칠유>, 嗽소<마경> / 奏쥬<진주>
- 尤有宥3 -iau || -iau ⇒ 유/위/웨: 尤구, 晝듀, 紬쥬, 紐뉴, 留류, 周쥬, 州쥬, 秋쥬, 秀슈, 搜슈 <순천, 진주>, 柔유, 休휴, 攸유, 又유<여훈> / 州쥬<순천, 진주>.

就취, 醉취, 甞취<진주> / 臭취<마경>

⇒우/오(明母): 鳩구, 救구, 臼구, 牛우, 洲주<마경>, 秋추, 搜수<순천, 마경>, 優우, 又우 / 麴모<칠유>, 謀모

幽黝幼3 -ieu ⇒유/우(明母): 糶구, 彪표, 幽유 / 繆무(중세), 謬무(중세)

(1) 流攝은 開口韻인데 원음의 핵모음이 원순성 운미 /-u/와 결합한 결과 한국한자음에서는 핵모음이 원순모음인 /ㄱ/, /ㄴ/로 대응하고 있는데, /ㄱ/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尤韻에서는 /ㄴ/로 대응하는 것은 明母에 국한되나, 侯韻에서는 明母뿐만 아니라 舌音과 齒音의 글자들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ㄴ/로 대응하는 것은 遇攝의 模韻과 흡사한 양상으로 唐代에 模韻과 侯韻의 음이 상당히 가까워졌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박병채 1971, 권인한 2006). 그런데 이 중 ‘頭도, 豆도, 痘도’와 같이 『진주』에서 ‘도’로 나타나는 것들이 漢語와 관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2) 尤韻에서는 甲類와 乙類가 口蓋性 개음의 유무를 기준으로 그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搜수~슈, 奏주~쥬, 又우~유’와 같이 구개성 개음의 첨가가 일어났거나 ‘洲주~주’와 같이 탈락한 예들이 있는데, ‘又’는 그 원인이 불명이나 齒音에 대해서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3) 侯韻의 ‘冚부~브, 不부~브’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핵모음이 /ㄱ/로 대응하는 것이 전승한자음이었는 데 인간 자료에서는 핵모음이 /-/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본래 원순모음으로 대응하던 것이 비원순모음으로 표기된 것으로서 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원순모음화현상이 일어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3.15. 咸攝

覃感勘合1 -am/-ap ⇒암/음: 柑감, 芡담, 耽담, 暫잠, 參참, 三삼, 菴암 / 簪증(精母), 蠶증(從母), 蚤증(從母)

⇒압/읍/읍: 踏답, 塔탑, 雜잡, 습합 / 습흡 / 습흡

談敢闞盍1 -am/-ap ⇒암/압: 甘감, 擔담, 覽람 / 蛤합, 答답, 蠟랍, 臘납, 盍합

咸賺陷洽2 -em/-ep ⇒엄/염: 監감, 巖암, 站참, 斬참, 讒참, 三삼, 杉삼, 頷함, 咸함 / 賺검(중세)

⇒압/엽/읍: 插삽 / 峽협(중세), 陝협(중세) / 恰합

銜檻鑑狎2 -am/-ap ⇒암/압/아: 監감, 鹹함 / 甲갑, 匣합<여훈> / 甲가<진주>

鹽琰豔葉3 -iam||-iam ⇒엄/엽: 粘점, 廉렴, 漸점, 尖점, 瞻점, 織섬, 閃섬, 染염 / 獵렵, 接접, 摺접, 睫점, 妾첩, 攝섭, 涉섭

⇒엄/암/음/음/엽: 檢검, 驗험, 靄점, 蟾섬<칠유>, 奄엄 / 奄암<칠유> / 驗음<진주> / 潛증 / 扱점(중세)

嚴儼釅業3 -iam ⇒엄/엽/엽/암/음: 險험, 嚴엄, 儼엄 / 怯점, 業업 / 脇협 / 俺암(중세), 掩암(중세) / 杵흙<마경>

凡范梵乏3 -yam/-yap ⇒엄/엽/입: 劔검, 凡범, 範범 / 法법 / 乏핍

添忝栝帖4 -em/-ep ⇒엄/엽/엄: 兼검, 點덤, 添템, 恬념, 念념, 簞덤, 嫌협 / 頰협, 蝶덫, 貼덫, 夾협, 夾협<마경>, 俠협, 狹협, 狹협 / 點덤<두창>

(1) 咸攝은 대체로 1·2등운은 /ㅏ/로, 3등 감류와 4등운은 /ㅑ/로, 3등 乙類는 /ㅓ/로 대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대체로 『慧琳音義』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 중

咸韻에서 ‘엽/엽’으로 대응하는 예들이 보이는데, 聲符에 의해 형성된 俗音이거나 『東國正韻』 한자음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권인한 2006).

(2) 覃韻 가운데 齒頭音 聲母字는 主層과는 달리 ‘음’으로 대응하는데 原音의 핵모음을 고려할 때 古音を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鹽韻 乙類字 가운데에도 ‘潛즙’과 같이 /·/로 대응하는 예가 있는데 유추에 의해 형성된 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覃韻과 咸韻에는 ‘습흡’, ‘합흡’과 같이 /-/로 대응하여 咸攝의 통상적인 대응 양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미상이다. ‘합흡’에 대해서는 『奎章全韻』에 ‘겹俗흡’으로 주기되어 있음이 참고된다.

(3) 鹽韻 乙類와 嚴韻에서 /ㅏ/로 대응하는 ‘奄암<칠유>, 奄암(중세), 掩암(중세)’은 覃韻과 동일한 음형을 갖는다. 이들 모두 乙類라는 점에서 구개성 개음의 탈락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핵모음이 /ㅏ/로 대응하는 것은 유추 내지는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嚴韻의 ‘欸흡’도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深攝 侵韻의 ‘歆흡, 欽흡’과 같은 諧聲字에 유추된 결과로 보인다. 嚴韻의 ‘脇협’은 중세한자음에서는 ‘협<훈몽>~협<유합>’의 교체를 보이는 것이었는데, ‘협’은 현실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은 규범적인 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은 聲符 ‘夾협’이나 諧聲字에 의해 유추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鹽韻의 ‘蟾섬<칠유>’은 중세한자음이 ‘섬’으로 『칠유』에서 ‘섬’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 구개성 활음의 탈락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16. 深攝

侵寢沁緝3 -iem ⇒임/입: 金김, 朕딤, 砧딤, 臨림, 浸침, 心심, 尋심, 深심, 壬임 / 轄집, 執집, 十십, 拾십, 入입  
 -iem ⇒음/움/읍: 今금, 金금, 欽흠, 歆흠, 音음 / 稟품<마경, 여훈>, 音음<진주> / 急급, 泣읍, 揖읍, 汁즙, 習습, 濕습, 拾습, 邑읍, 吸급  
 ⇒음/읍: 箴즙(章母), 森습, 參습, 滲습 / 澁습

(1) 侵韻 甲類는 /ㅣ/, 乙類는 /-/로 대응한다. 乙類에서는 ‘稟품’과 같이 모음이 /ㅏ/로 대응하는 예들이 있는데, 侵韻이 開口韻임을 고려할 때 이는 /-/로 대응되어야 하는데도 /ㅏ/로 대응하는 것은 선행 자음인 唇上音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2) 侵韻 乙類에서 齒上音 글자들은 모음이 /·/로 대응하는데 이는 중세한자음과 일치하는 특징이다. 다만 ‘箴즙’은 章母로 正齒音인데도 /·/로 대응하는데, 이 글자는 『奎章全韻』의 ‘침俗즙’에서 볼 수 있듯이 正音은 ‘침’으로 유추에 의해 형성된 음이다.

## 4.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의 운모상의 특징 및 변화

### 4.1. 운모상의 특징

#### 1) 漢字音의 層位 문제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은 대체적으로 중세국어 한자음과 마찬가지로 『慧琳音義』(783-807)의 音系와 유사한 양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 시기의 한자음이 중세국어 한자음을 이어받은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慧琳音義』는 唐代 가운데에서도 中唐



이후의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中古音 후기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전에 반영되어 있는 音系와 중세 및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韓國漢字音의 主層은 長安音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主層 이전과 이후의 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 한국 한자음의 重層性을 보여준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古層과 新層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古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

① 通攝 鍾韻의 甲類에서 /π/로 대응하는 ‘重똥, 胸흉, 凶흉’은 日本의 吳音과 漢音의 양상을 볼 때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② 江攝의 ‘學혹’은 古音 [-ɔk]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日本 吳音에서 江韻의 글자들이 ㄷ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③ 臻攝의 痕韻에서 /·/로 대응하는 ‘懇곤, 呑툰’ 등과 眞韻 乙類에서 /ㄱ/로 대응하는 ‘巾건’은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④ 山攝 元韻에서 ‘反반, 萬만’ 등과 같이 /ㅏ/로 대응하는 예들은 /ㄱ/로 대응하는 예들보다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山韻의 ‘限흔’은 이 운의 대다수의 글자들이 /ㅡ/로 대응함을 볼 때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⑤ 曾攝 登韻에서 /·/로 대응하는 ‘恒흥, 刻국’ 등의 예는 主層이 /ㅡ/임과 이韻의 핵모음을 고려할 때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ㄱ/로 대응하는 ‘德덕, 賊적’과 같은 예도 主層보다는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⑥ 咸攝 覃韻에서 /·/로 대응하는 齒頭音 聲母字들 ‘簪즈, 蠶즈, 蚤즈’은 이韻의 핵모음을 고려할 때 古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新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

① 止攝에서 齒頭音과 正齒音 아래에서 모음이 /·/로 대응하는 예들은 近代漢語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를 古音의 반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렇게 볼 경우 借字表記 자료의 用字들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② 遇攝 魚韻에서 ‘慮니<순천>’는 방언의 영향이 아니라면 均如鄉歌에서 ‘呂’가 ‘리’를 나타내는 用字임을 고려할 때 遼代 이후 한자음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③ 蟹攝 2등운인 皆韻에서 ‘階계, 戒계’와 같이 구개성 개음이 첨가된 것은 近代漢語의 拗音의 발생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④ 蟹攝 4등운인 齊韻에서 ‘髀비<마경>, 迷미, 米미, 泥니’와 같이 모음이 /ㅣ/로 대응하여 止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近代漢語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⑤ 眞韻 乙類에서 /ㅣ/로 대응하는 ‘巾건’은 近代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⑥ 果攝의 歌韻에서 ‘佐좌, 左좌’와 같이 合口性 介음이 첨가되어 있는 예는 『中原音韻』의 양상을 고려할 때 近代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3等韻의 甲乙의 구별 문제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은 대체적으로 중세국어 한자음과 마찬가지로 3登韻에서 甲乙에 의한 모음의 실현 양상이 현저하게 구별된다. 즉 甲類는 구개성 개음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서 乙類는 구개성 개음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 3) ㅅㅁ韻에서의 圓脣性 介音의 탈락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은 ㅅㅁ韻의 경우는 圓脣性 介音이 반영되어 있으나 유독 脣音 聲母字에서는 ‘拌반, 萬만, 伐벌, 房방’과 같이 원순성 개음이 탈락된다. 그런데 脣音 聲母字가 아닌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예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淵연, 穴혈, 兄형, 穎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더욱 연구가 되어야겠으나 국어의 음절구조상 圓脣性 介音を 반영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4.2. 한자음 변화의 특징 및 변화의 요인

### 1) 口蓋性 子音 아래에서의 口蓋性 介音의 탈락 또는 첨가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에서 중세국어 한자음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 구개성 개음이 탈락하거나 첨가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탈락한 경우로는 仙韻의 ‘淺전’, 先韻의 ‘戔전, 千천’, 麻韻3의 ‘嗟차’, 陽韻의 ‘場장, 兩냥, 相상, 想상, 祥상, 常상’, 尤韻의 ‘洲주’, 咸攝 鹽韻의 ‘蟾섬’ 등이 있고, 첨가된 경우로는 東韻1의 ‘送송’, 江韻의 ‘雙쌍~쌍’, 麻韻2의 ‘紗샤’, 尤韻의 ‘搜슈, 奏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들 예가 출현하는 자료에서 ㄷ구개음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齒音이 口蓋音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다. 한자음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그 양상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구개성 개음의 탈락과 첨가가 수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전개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口蓋性 개음의 탈락 및 첨가로 인해 중세국어 한자음에 비해서 대응 양상은 한결 복잡하게 되었고, 개음에 의한 甲乙의 구분이 혼란스럽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

### 2) 圓脣母音化 관련 현상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脣子音 아래에서 모음이 /ㅡ/로 대응하던 것들이 /ㅈ/로 대응하는 예들을 갖게 되고, /ㅈ/로 대응하던 것들이 /ㅡ/로 대응하는 예들을 갖게 되는 현상이 널리 관찰되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 文韻의 ‘不불, 拂불’, 登韻의 ‘朋봉, 北북’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예로 魂韻의 ‘門문’, 文韻의 ‘分분~폰’, 侯韻의 ‘否브, 不브’ 등이 있는데, 전자는 平脣母音이 圓脣母音으로 대응한 것이고, 후자는 圓脣母音이 平脣母音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국어의 圓脣母音화와 이와 관련된 非圓脣母音化 현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자음의 교체 양상이다. 즉 공시적으로 圓脣母音화와 非圓脣母音화가 공존하면서 圓脣母音化 현상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당 운의 모음의 대응 양상이 복잡하게 되었다.

### 3) /·/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

이 시기 자료에서는 모음이 이전 시기에는 /·/로 대응하던 것들 가운데에서 /ㅈ/로 대응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止攝의 ‘紫자<순천>, 子자<순천, 진주>, 事사<순천>’, 蟹攝 哈韻의 ‘才재<순천>’, 臻攝 痕韻의 ‘懇간<순천>’ 등이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假攝 麻韻2에서는 ‘下하<순천>’와 같이 /ㅈ/로 대응하던 것이 /·/로 대응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들은 구어가 대폭 반영되어 있고 각각 충청도와 경상도 방언을 반영한 언간 자

료에서만 나타나는 제한된 분포를 보이기는 하나 /·/가 /ㅏ/와 음성적으로 동일하게 발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소한 16세기 후기부터는 이런 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齒音 聲母字 아래에서는 止攝의 ‘資자<순천>, 事샤<순천>’와 같이 /·/가 /ㅏ/로 대응하거나 假攝 麻韻3의 ‘謝스<순천>’와 같이 /ㅏ/가 /·/로 대응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는 구개성 자음 아래에서 이미 구개성 개음의 첨가 내지는 탈락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점과 복합된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 ‘\*資즈>자>자, \*事스>사>샤’, ‘\*謝샤>사>스’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 4) 止攝에서 /니/>/ㅣ/ 현상

止攝에 속한 漢字 중 聲母가 牙喉音字이고 韻母가 開口韻 乙類에 속하는 것들 중에는 모음이 /니/로 대응하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ㅣ/로 대응하여 甲類와 같은 음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支韻의 ‘忌기<진주>’, 之韻의 ‘疑이<칠유>’, 微韻의 ‘氣기<순천>’를 들 수 있다. 이 중 之韻의 ‘疑이’는 현대에까지는 전승된 음은 아니나 나머지 것들은 근대국어시기를 거치고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니/>/ㅣ/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17세기부터 牙喉音字들의 모음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서 甲乙의 구분이 약화되는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의 운모상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중세국어 한자음의 대응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전보다는 한층 복잡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큰 틀은 유지되었으나 여러 변화가 생김으로써 대응 양상이 복잡해진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자음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과 아울러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 한자음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실현 양상이 반영된 데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성격 면에서 중세국어 한자음 자료는 중앙어 중심의 것이고 상당히 정제된 자료인데 비해서 근대국어 한자음 자료는 중앙어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고 정제되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실린 것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서 중세국어 한자음 자료에 비해서는 한층 다양한 16세기 후반·17세기 국어 한자음의 실상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韓國漢字音의 層位 문제를 생각하기에 도움을 줄 만한 자료의 출현도 적지 않게 있었으며, 한자음의 교체 양상 및 변화 양상도 널리 관찰되었다. 이 중 한자음의 교체 및 변화 양상은 대개가 근대국어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과 관련을 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로서 근대국어시기의 한자음의 변화와 고유어와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더욱 파고들어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이 정도로 논의를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후고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姜信沆(2003),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 權仁瀚(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 연구』, 태학사, 83-344.
- 權仁瀚(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 태학사.
- 권인한(2006), 「중세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57-94.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 출판부.
- 김동소(2007), 『한국어 역사』, 정림사.
- 김무림(2006), 「현대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177-214.
- 南廣祐(1973), 『조선(이조) 한자음 연구 - 임란전 현실 한자음을 중심으로』, 일조각.
- 朴炳采(1971), 『고대국어의 연구 - 음운편』, 고려대 출판부.
- 송 민(1986), 『전기 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탐출판사.
- 송 민(1990), 「한자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46-156.
- 申雅莎(2006), 『韓漢音研究』, 北京大學 博士論文.
- 안병호(1996), 『조선 한자음체계의 연구』, 한국문화사.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탐출판사.
- 李敦柱(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 이승자(2003), 『조선조 운서 한자음의 전승양상과 정리규범』, 역락.
- 李潤東(1988), 『中期 韓國漢字音의 研究』, 牛骨塔.
- 李潤東(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 형설출판사.
- 李準煥(2003), 「三韻聲彙 漢字音 聲母體系 考察」, 성균관대 석사논문.
- 이준환(2008),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성균관대 박사논문.
- 이준환(2010), 「/·/의 音價 究明을 위한 考察」,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54.
- 鄭卿一(1984), 「奎章全韻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 鄭卿一(1989), 「華東正音通釋韻考 漢字音 聲母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 정경일(2004), 『조선후기 운서 한자음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정경일(2006), 「근대국어 한자음」,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95-176.
- 최미현(2006), 「한국 한자음의 이중음 연구」, 동의대 박사논문.
- 최희수(1986), 『조선한자음연구』, 목단강: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 王 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한국어 역: 權宅龍(1997), 『중국어 음운사』, 도서출판 대일).
- 李珍華·周長楫(1999),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 高田時雄(1998), 『敦煌資料による中国語史の研究-9·10世紀河西方言』, 東京: 創文社.
- 大野透(1962), 『萬葉假名の研究』, 東京: 明治書院.
- 賴惟勤(1957), 『中國音韻論集』, 東京: 汲古書院.
- 馬瀧和夫(1971), 『國語音韻論』, 東京: 笠間書店.
- 三根谷徹(1972), 『越南漢字音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 三根谷徹(1993), 『中古漢音と越南漢字音』, 東京: 汲古書院.
- 沼本克明(1986), 『日本漢字音の研究』, 東京: 東京堂.
- 有坂秀世(1936), 「朝鮮漢字音について」(재수록: 『國語音韻史の研究』, 東京: 三省堂).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 1』, 東京: 大修館書店, 112-166.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 天理時報社.

□ 토론 □

## 16세기 후반·17세기 漢字音의 韻母上의 특징과 변화

최영미(경동대)

이 논문은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 운모와 광운 운모의 대응관계를 살펴,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의 기층을 설명하고 한자음의 토착화 과정에서 한국한자음의 변화를 설명하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읽어 가면서 떠오른 문제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헌자료(언간 포함)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대상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언간 자료는 전라(충청)방언과 경상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16세기 후반·17세기의 방언 차이를 고려할 때, 연구대상에 언간 자료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참고 자료

서명	간행시기	간행지	대방언권
『여훈언해』	17세기 초(인조)		중부방언
『마경초집언해』	17세기 초(인조)		중부방언
『두창경험방언해』	17세기 말(현종)		중부방언
『警民編諺解』	17세기 중엽(효종)		중부방언
『七長寺 千字文』	17세기 초(1661)	경기도 안성시	중부방언
『七長寺 類合』	17세기 중엽(1664)	경기도 안성시	중부방언
『순천 김씨 묘 출토 언간』	16세기 말	충청도 청원군	전라(충청)방언
『진주 하씨 묘 출토 언간』	17세기 초	경상도 진주시	경상방언

둘째,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대국어의 시기를 구분할 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학자들은 대부분 17세기 초를 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각주 1에서 필자가 밝혔듯, 전기 근대국어를 임란을 기점으로 잡아야만 하는 근거로, 18세기 한자음 자료를 중엽과 후엽으로 나누기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 한자음 자료를 중엽과 후엽으로 나누기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국어사 시대구분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또한, 근대국어의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기술이 전기와 후기로 양분한 기술보다 국어사 기술에서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 참고

- ㄱ. 김형규(1955) 근대어 1592-1893
- ㄴ. 박병채(1989) 근대국어 임란종결-갑오경장
- ㄷ. 최범훈(1989) 근대국어 임란종결-갑오경장

- ㄹ. 이기문(1961) 근대국어 전기 17세기 초-18세기 후반  
근대국어 후기 그 후
- ㅁ. 홍윤표(1994) 근대국어 전기 17세기-18세기 중반  
근대국어 후기 18세기 중반-19세기 말
- ㄴ. 송 민(1997) 근대국어 전기 17세기 초-18세기 중반  
근대국어 후기 18세기 중반-19세기 말

셋째, 구개성 자음 아래서 구개성 개음의 첨가와 탈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인한(1997:315-325)에 따르면, 후기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선행자음이 구개성 자음이면 구개성 개음(i, 갑류)과 대응되고, 선행자음이 비구개성 자음이면 비구개성 개음(ɪ, 을류)와 대응되는 것이 매우 정연합니다. 그런데 근대국어 한자음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복잡해져서, 구개성 자음 아래서 비구개성 개음의 첨가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ㄷ-구개음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치음이 구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를 보면, 3.1. 통섭에서 促축, 束속 ; 3.2. 우섭에서 筋저(<더>), 鋤서, 糶서<칠천>, 庶서<칠유>, 虛허, 許허 / 阻조, 初초 / 初최<순천>; 3.5. 해섭에서 祭제<순천>, 勢세<순천>; 3.11 탕섭에서 祭제<순천>, 勢세<순천>으로 /ㄷ/ 구개음화로 인한 것은 1개의 예가 있습니다.

한편, 김주필(1985)에 따르면, 고유어에서 치음 /ㅈ, ㅉ/ 아래서 /j/계 이중모음(선비)과 단모음(선비)의 혼기를 보이는 것은 16세기 초기(1단계), 17세기초~19세기(2단계)가 일어나고, /ㄷ/ 구개음화는 18세기 전기(김주필 1985, 허용 1985, 필자의 구분상 후기근대국어)에 일어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구개성 자음 아래서 구개성 개음의 첨가와 탈락의 원인을 /ㄷ/ 구개음화로 설명하는 것보다 /ㅈ, ㅉ/의 구개음화 또는 치찰음 뒤에서 j의 분포의 변화와 관련짓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원순모음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두현(1992:230, 경상도 문헌대상)에 따르면, 같은 시기 고유어에서 원순모음화는 순행 원순모음화와 역행 원순모음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한자음에서도 제시한 순행 원순모음화와 함께 역행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운모의 대응관계에서 제시한 3.16. 심섭에서 가져온 아래의 예 1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3.16. 深攝

侵寢沁緝3 -iem ⇒ 음/움/읍: 今금, 金금, 欽흠, 歆흠, 音음 / 稟품<마경, 여훈>, 音음<진주>  
/ 急급, 泣읍, 揖읍, 汙읍, 習읍, 濕읍, 拾읍, 邑읍, 吸읍

다섯째, /·/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기문(1998:210)과 백두현(1992:271)에 따르면, 어두 음절에서 /·/ > /ㅏ/로 변한 시기는 18세기 후기(말)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응관계를 살펴본 한자음은 모두 1음절이므로 어두로 볼 때, 경상도나 충청도 방언의 어간에서 나타나고, 16세기 후기부터 어두에서 /·/와 /ㅏ/가 동일하게 발음되었다고 하심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에 경상도와 충청도 방언에서 이미 어두에서 /·/ > /ㅏ/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음운 현상의 수의성에 대한 몇 문제

- 수의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

안병섭(고려대)

## 차 례

1. 머리말
  2. 수의적 현상인가 수의적 규칙인가?
  3. 수의성은 필수성의 반대 개념인가?
  4. 수의적 실현은 규칙 적용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가?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언어 법칙의 보편성을 가정한 생성 이론이 그러했듯이 초기의 생성 음운론은 말소리 법칙의 보편성을 가정하고 음운 현상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 설정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음운 규칙의 설정과 규칙순을 밝히는 작업이 국어 음운론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 개별적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병행되기도 하였으며, 관련 음운 규칙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적 현상을 규칙 설명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음운 규칙이 음운론적 환경과 도출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했다. 그에 따라 음운 규칙의 적용과 비적용이 있을 뿐이며, 동일한 조건의 환경에서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규칙은 규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신승용, 2006). 이러한 연구 태도는 생성음운론이 지향한, 언어 개별성보다 보편성을 중시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규칙성은 언어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말소리의 비규칙적 현상을 수의적 현상으로 지칭해 왔다.

수의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언어 변화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수의적 음운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필요성이 이진호(2005), 신승용(2006)에 의해 제기되었고, 수의적 음운 현상만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의적 현상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연구 방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대규모 구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지면서 국어 연구가 정제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에서 실제 발화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

1) 물론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최적성 이론은 생성 음운론에서 다른 규칙 적용의 문제를 제약의 위계 설정과 제약의 위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적성 이론은 무수한 후보군 가운데 적형의 출력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약의 위계 설정과 제약 위배 과정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정에서 규칙으로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 많은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음운론 분야에서는 수의적 음운 현상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의적 음운 현상이란 음운 규칙의 필수적 적용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돼 왔다. 그래서 어떤 형태 또는 형태 결합 과정에서 특정 음운 규칙이 적용 받기도 하며 받지 않기도 하는 현상을 통칭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적 음운 현상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수의적 현상을 다룬 연구는 많지만 수의성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진호(2005)와 신승용(2006)이 전부인 듯하다. 그런데 수의적 현상이 음운론 분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최근의 경향을 염두에 두면,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모호하게 사용해 온 수의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수의성’의 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기로 한다<sup>2)</sup>.

- 수의적 음운 현상인가 수의적 음운 규칙인가?
- 수의성은 필수성의 상대적 개념인가?
- 수의적 실현은 규칙 적용 여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가?

## 2. 수의적 현상인가 수의적 규칙인가?

일반적으로 음운 현상은 언어 자료 그 자체이고 음운 현상 중 일반성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을 형식화한 이론적 장치가 음운 규칙이라는 점에서 음운 현상과 음운 규칙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신승용 2006, 이진호 2006). 다시 말하자면 음운 규칙은 말소리 현상 가운데 그 일반성과 세력성을 확보하여 환경, 입력, 출력으로 설명되는 음운론적 도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음운 현상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수의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음운 현상으로 범주화하는 경우와 음운 규칙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한데, 전자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sup>3)</sup>. 하지만 수의성의 개념을 논의하는 작업에서 그 기본 범주를 음운 현상으로 할 것인가 음운 규칙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의적 현상을 바라보는 출발점을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의성 논의에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논의를 진행시킨다면 두 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서로 평행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수의성’ 개념의 범주를 음운 규칙으로 한정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의성’ 논의를 음운 현상으로 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

2) 수의성 연구와 관련해 논의할 문제가 많다. 수의적 현상의 공시성 문제나 수의적 현상의 조건들, 수의적 실현의 변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수의적 현상과 현상의 공시성 문제, 수의적 현상의 조건들에 대한 문제는 수의성 개념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다만 필자의 연구가 미진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발표 이후로 미루어 추후에 보강하기로 한다.

3) 음운 규칙에 한정해 수의성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이 형태음소론적 연구이며, 대표적인 경우가 이진호(2005)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수의성’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사용해 온 과정에서 이진호(2005)는 음운 현상의 수의성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진호(2005)는 적용 환경이 만족될 때 반드시 적용되는 필수적 음운 규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음운 규칙의 수의성을 정의하였다.



‘수의성’을 음운 규칙에 한정에 논의한 이진호(2005)에서는 수의적 음운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수의적 음운 규칙(이진호 2005)

적용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경에서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음운 규칙을 수의적 음운 규칙이라고 한다. 적용 환경이 만족될 때 반드시 적용되는 필수적 음운 규칙에 대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국어의 수의적 음운 규칙으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위치 동화, 활음화와 활음 첨가, 으 탈락 등을 제시하였다.

(2) 가. 놓--+ -으면→노:면~노으면, 낳--+ -으니→나:니~나으니 등

나. 꽃--+ -보다→꼇뵤다~Ⴣ뵤다, 안--+ -고→안꼬~앙꼬 등

다. 끼--+ -어서→끼어서~껴:서~끼여서, 놓--+ -아서→노아서~놉:서~노와서 등

라. 날--+ -으면→나르면~날면, 갈--+ -으면→갈으면~갈면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의성 판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의성의 기본 조건으로 공시적 음운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과 형태 결합에 의한 교체, 다시 말해 형태음소론적 규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수의성의 정확한 범주를 음운 규칙의 수의성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국어에 존재하는 수의적 현상으로 자주 거론된 위치 동화의 경우를 보자.

(3) 가. 산보→산뵤~삼뵤, 솔밥→솔뵤~솅뵤

나. 안--+ -고→안꼬~앙꼬, 관광→관광~광광

이 경우 (3 가)는 양순음화 규칙, (3 나)는 연구개음화 규칙과 관련돼 있다. 만약 이를 음운 규칙의 수의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3 가)는 양순음화의 수의적 적용으로, (3 나)는 연구개음화의 수의적 적용으로 보아 별개의 것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입력형이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기제를 본다면 (3 가)와 (3 나)를 별개의 규칙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음운론적 수의성에 대한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진호(2005)에서나, 이보다 포괄적으로 수의성을 논의한 여러 연구에서나 (3)의 경우를 별개로 보지 않고 동일한 현상으로 처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규칙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의적 실현을 야기한 기제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3 가)와 (3 나)가 수의적으로 실현된 기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의성의 개념을 음운 규칙의 수의성으로 한정할 때 다음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활음 /j/ 탈락(차재은·안병섭 2003)

가. 차례→[차례]~[차례], 폐기→[폐기]~[폐기]

나. 노예→[노예]~[노예], 무예→[무예]~[무예]

차재은·안병섭(2003)의 실험에 따르면 (4)의 경우는 발화 속도, 음절 위치, 선행 자음의

유무에 따라 활음 탈락의 경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발화 속도가 빠를수록, 1음절 위치보다 2음절 위치에서, 선행 자음이 있을 경우 활음이 탈락하는 경향이 강하다<sup>4)</sup>. 이 중에서도 선행 자음의 유무가 활음 탈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sup>.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음운 규칙의 수의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4)의 경우, 활음 탈락의 음운론적 환경이 다양해 음운 규칙으로 일반화해 명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활음 /j/ 탈락은 음운 규칙이 아니라 음운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그럴 때 (4)는 음운 현상을 범주로 한 수의성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3)과 (4)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의성’의 개념을 규칙의 수의성으로 협소하게 접근한다면 언어 현실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다양한 양상을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입력형이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수의적 규칙이 아닌 수의적 현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3. 수의성은 필수성의 반대 개념인가?

수의성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음운 현상의 수의성은 필수적 적용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 왔다. 이 의미라면 음운론적 수의성은 특정 음운 현상을 전제하고, 그 현상이 반드시 적용되는냐, 적용되지 않기도 하느냐의 문제로 인식해 온 듯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수의성의 개념은 특정 현상(또는 규칙)의 수의적 적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 (5) 가. 신문→신문~심문, 안--고→안꼬~앙꼬  
 나. 날--으면→날으면~날면, 들--으니→드르니~드니

(5 가)는 위치동화가 수의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며, (5 나)는 용언 활용 과정에서 어미의 ‘으’ 탈락이 수의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입력형에 대해 두 개의 출력형이 존재할 경우는 ‘수의성’이 ‘필수성’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보면 음운 현상의 수의성이 반드시 특정 현상 하나만을 전제로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규칙의 필수적 적용의 반대 개념으로 ‘수의성’의 개념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가. 기--어서→기어서~기여서~겨:서~겨서  
 보--아라→보아라~뵤:라~뵤라~바라,  
 나. 피--어서 : 피어서~피여서~피:서

(6)의 예들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적 현상이다. 모음으로 끝난 어간과 모음

4) 이밖에도 수의적 실현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발화의 격식성, 빈도 효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5) 차재은·안병섭(2003)에서는 이 가운데 선행 자음의 유무가 활음 탈락에 절대적인 원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표면음성계약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가. 우리말의 표면 음성에서는 양순 자음[ㅁ, ㅂ, ㅍ]와 [w]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 우리말의 표면 음성에서는 자음과 [je]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비음절화를 겪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6)의 형태 결합은 하나의 입력형이 여러 개의 출력형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네 개의 출력형으로, (나)의 경우에는 세 개의 출력형으로 실현된다. 물론 그에 따라 여러 음운 현상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입력형 ‘기--+ -어서’가 출력되는 과정에 적용된 음운 현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 가. [기어서] : 음운 규칙 적용되지 않음
- 나. [기여서] : 활음 /j/ 첨가
- 다. [겨:서] : 비음절화로 인한 활음화, 보상적 장음화 적용됨
- 라. [겨서] : 비음절화로 인한 활음화, 보상적 장음화 적용되지 않음

(7)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 -어서’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는 세 개의 규칙이 관여하고 있다.

‘활음 /j/ 첨가’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여서]~[기어서]가 수의적 관계에 해당된다. [기여서]는 이 규칙이 적용된 경우이며, [기어서]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된다. 그리고 ‘비음절화로 인한 활음화’ 규칙 적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견 [기어서] 대 [겨:서], [겨서]형이 수의적 관계에 놓인다. 보상적 장음화라는 규칙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겨:서]와 [겨서]가 수의적 관계를 형성한다.

하나의 입력형에 대해 네 개의 출력형이 수의적으로 실현되지만, 이 네 개의 출력형이 갖고 있는 수의적 관계는 규칙의 필수적 적용의 반대 개념으로는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규칙순을 적용해 설명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설명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

(8) ‘기--+ -어서’의 도출 과정

입력형	기--+ -어서			
활음 /j/ 첨가	×	○	×	×
활음화	×	×	○	○
보상적 장음화	×	×	×	○
출력형	기어서	기여서	겨서	겨:서

그러나 ‘활음 /j/ 첨가’가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출력형 [겨서]와 [겨:서]는 활음 /j/ 첨가와 관계 없으므로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활음화’의 적용이 수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출력형 [기여서]를 논외로 할 수밖에 없으며, ‘보상적 장음화’의 적용이 수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출력형 [기어서]와 [기여서]는 논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8)의 입력형에 대해 활음 첨가와 활음화는 불완전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필수적 적용의 반대 개념으로 수의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 적용 여부를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하나의 입력형에 대해 여러 개의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여러 개의 출력형이 서로 수의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필수성의 반대 개념으로 수의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입력형에 대해 두 개의 출력형이 존재하지만 수의성을 규칙 적용에 대한 필수성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발견된다.

(9) 가. 선릉 : [선릉]~[설릉]

나. 온라인 : [온라인]~[올라인]

(9)의 수의적 관계에서 각각의 전자는 비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이며, 후자는 유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선릉]과 [설릉], [온라인]과 [올라인]의 수의적 관계는 특정 규칙의 수의적 적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비음화 규칙의 수의적 적용이라면 (가)는 [선릉]과 [선릉]으로, (나)는 [온라인]과 [올라인]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유음화 규칙의 수의적 적용이라면 각각은 [선릉]과 [설릉], [온라인]과 [올라인]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언어 현실은 이와 다르다. 이것은 한 규칙의 수의적 적용 여부가 아니라 두 개의 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와 같은 경우 각각의 출력형은 특정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규칙이 적용되었는가와 관련돼 있다. (6, 7, 8)과 (9)의 예를 통해서 음운 현상의 수의성이 필수성의 반대 개념이라고만 할 수 없다.

#### 4. 수의적 실현은 규칙 적용 여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가?

이 문제는 3장의 논의와 맞물리는 문제로, ‘수의성’의 개념을 규칙 적용의 여부로 바라본 시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의적 실현을 보이는 많은 예들이 규칙 적용의 여부에 의해 수의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한편에는 규칙(또는 현상)의 적용 여부로 설명되지 않는 수의적 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0) 가. 선릉→[선릉]~[설릉], 온라인→[온라인]~[올라인]

나. 읽-+-지→[익찌]~[일찌], 뱀-+-지→[뱍찌]~[밭찌]

(10 가)는 두 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실현된 발음형이 수의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이다. 여기에 관여한 규칙들은 ㄴ비음화 현상과 유음화 현상이다. 하나의 형태소에 대해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출력형이 다르게 실현된 예이다.

반면에 (10 나)는 동일한 음운 현상을 적용받지만 그 출력형이 수의적인 예이다. (10 가)의 예가 ㄴ이 연쇄할 수 없다는 표면음성제약이 동인이 되어 선택 가능한 두 규칙 가운데 어느 규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출력형들이 수의적 관계를 형성했다면, (10 나)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지만 상반된 출력형이 실현된 경우이다. 이 예도 규칙(또는 현상) 적용의 여부로 수의적 관계가 형성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자음군 단순화라는 현상을 규칙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출력형에 대한 상세한 도출 과정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읽-’과 ‘뱀-’의 경우 종성에 ‘ㄹ’이나 ‘ㄱ’이, ‘ㄹ’이나 ‘ㅂ’이 선택된 음운론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의 두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음운 규칙의 적용 여부는 수의적 실현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 만약 ‘수의성’의 개념을 규칙 적용의 여부로만 규정한다면 (10)과 같은 예들을 수의적 현상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 5. 맺음말

수의적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언어 변화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으로의 언어 변화 방향을 예측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수의적 음운 현상에 대해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해 온 ‘수의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의성’의 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이 치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발표문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거나 정리되지 못한 내용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종규(2006) 「음운현상의 수의성과 음장」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18~48면.
- 김 현(2003)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의 구분에 대하여」 『국어교육』 112.
- 소신애(2006) 「수의적 교체를 통한 점진적 음운 변화: 함북 육진 방언의 진행 중인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학』 48. 국어학회. 101~124면.
- 신승용(2006) 「수의적 음운 현상의 종류와 그 특성」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137~160면.
- 이문규(2009) 「음운 규칙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글』 285. 한글학회. 71~96면.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203~207면.
- 이진호(2006)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39~64면.
- 차재은·안병섭(2003) 「수의적 활음 탈락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79~303면.
- 최명옥(1988) 「국어 ULAUT의 연구사적 검토: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63~83면.

## 음운 현상의 수의성에 대한 몇 문제

- 수의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남미(서강대)

음운론 영역에는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난제들 중에 ‘수의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수의성이 무엇인지, 또 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에 관련된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의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안병섭 선생님의 논의는 음운론의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의미를 갖는다. 안병섭 선생님께 듣고자 하는 견해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엮어보려 한다.

1. 선생님께서 인용하셨듯이 이진호(2005)에서 수의적 규칙을 논의한 것은 ‘수의적 실현을 야기한 기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신승용(2006) 등의 논의 또한 음운 규칙의 일반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수의성’에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논의들에서 ‘수의성’을 “음운규칙의 수의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 많은 기존 논의들에서 ‘음운규칙의 수의성’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의 논의를 보면 ‘수의성’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음운규칙의 수의성’, ‘음운규칙 적용의 수의성’, ‘음운규칙과 별개의 수의성’이 논의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출력형의 수의성, 입력형의 수의성, 제약 준수의 수의성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공시성 통시성이 관여할 때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 2장에서 보이신 것과 같이 “하나의 입력형이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수의적 규칙이 아닌 수의적 현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데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포괄적인 범위로 묶어 표현하는 것이 다차원적인 수의적 양상을 설명하는데 어떤 유효성이 있는지요.

3. ‘음운규칙의 수의성’보다 포괄적 범위의 ‘음운현상의 수의성’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셨는데,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음운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다루신, ‘자음군단순화’나 ‘활음화’, ‘비음절화’ 등의 현상들은 생성음운론에서 ‘규칙’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음운규칙’ 자체의 용어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4. 주1)에서 밝히셨듯이 ‘최적성 이론’은 “생성음운론에서 다룬 규칙 적용의 문제를 제약의 위계 설정과 제약의 위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과 선생님께서 보이신 ‘수의적 음운현상’이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의 역할을 맡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수의성’에 관련되는 음운론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고구려 지명 ‘上忽’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

최중호(동의대)

## 차 례

1. 머리말
  2. 연구 대상의 분석과 음가
  3. ‘上’과 ‘車’의 음운 대응 관계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地名은 일상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地名을 통해서 우리는 땅이라는 거대한 문화권에 속해있는 민중들의 의식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거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地名은 사람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여 왔다. 地名은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 우리나라의 古地名 역시 화석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거듭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sup>1)</sup>

地名의 접근은 종합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명이 1차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古代地名에서는 借字表記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古代地名의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고구려 지명표기 자료의 중심은 <三國史記>권35와 권37이다. 권35의 기록은 통일 신라 이후 경덕왕 16년(A. D 757)에 구 고구려 지역의 모든 郡縣의 이름을 한문식으로 고친 것이고, 이에 비하여 권37의 고구려 지명 부분은 동일 지명을 ‘一云·或云·一作’의 형식으로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복수 표기를 하였다.<sup>2)</sup>

1) 유창균(2007:166)에서는 이들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지명에도 世代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둘째, 地名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지리적, 역사적, 민속학적, 원시종교적 제요소들과 결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동과 같이한다는 점에서 생명체적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2) 고대국어 지명 표기에서 사용된 이표기들의 양상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郡(縣) 本□□郡(縣) 景德王改名 今○○ ② ○○郡(縣) 今未詳 ③ ○○郡(縣) 本□□郡(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④ ○○郡(縣) 景德王改州郡(縣)名 及今並因之 ⑤ ○○郡(縣) 今○○ ⑥ ○○郡(縣) 本□□郡(縣) 景德王因之 今○○ ⑦ ○○郡(縣) 本□□郡(縣) 憲德王改名 今○○(이장희, 2006:2) 이러한 유형 중에서 고대국어를 재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차적 자료는 ①, ③, ⑥, ⑦이다. 한자로 개명된 지명과 본 지명 관계의 대응 양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데 그 자료가 ①, ③, ⑥, ⑦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구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용례들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오각’과 ‘오기’에 대한 문제, ‘탈각’의 문제, ‘피휘’에 관한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서 본고에서는 후일을 기약할 따름이다.

이들 자료에 의지하여 우리는 고대 국어의 단면을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겨진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축적된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파악해 나가야 한다. 이들 연구를 기반으로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천해 옮겨야 할 것이다.

본고는 고구려 지명 ‘上忽’의 음운론적 특성을 밝히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의 방법론을 살펴보면서 가장 타당한 음운론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 2. 연구 대상의 분석과 음가

(1) (ㄱ) 上忽 一云 車忽<三國史記 지리4 고구려>

(ㄴ) 車城縣, 本高句麗 上(一作 車)忽縣, 景德王改名, 今龍城縣<三國史記 지리2 신라>

(ㄷ) 龍城縣 本高句麗上忽縣[一云車忽] 新羅景德王改名 車城爲唐恩郡領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 來屬<高麗史 지리1>

(1ㄱ, ㄴ, ㄷ)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① 차자표기의 호용 관계는 ‘上’ : ‘車’, ‘忽’ : ‘城’, 그리고 ‘忽’ : ‘忽’로 성립됨을 알 수 있다. ② ‘上忽’과 ‘車城’의 호용 관계는 적어도 景德王(?~765) 재위 시절의 기록이고, 그 당대 한자음의 영향을 받아 차자 표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반면 ‘上’과 ‘車’의 호용 관계는 (ㄱ)과 (ㄴ), (ㄷ)의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고구려의 멸망이 668년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의 기록일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응 양상은 ‘上忽’과 ‘車忽’이다. ‘忽’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하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上’과 ‘車’의 대응 양상이 어떤 관계인가의 주된 논점이 된다.<sup>4)</sup>

### 2.1. 지명연구의 해석

천소영(1990:35)에서는 ‘上忽’의 해석을 ‘수리(봉우리)’ 정도로 해석하였다. ‘上’과 ‘車’의 대응 관계를 훈차의 관계로 보았다. ‘上’과 ‘車’의 대응 관계는 인정하나 두 차자 표기자를

3) 권인한(2008)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한자음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고민하였다. 단계별로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① 音讀 異表記例의 確保 ② 音讀 異表記例의 時代性 確認 ③ 時空에 맞는 音韻史 및 關聯 音相 情報를 活用한 漢字音의 再構 ④ 古代韓國語 語形의 再構 또는 關聯 音韻現象의 究明]

4)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忽’의 음가 및 의미는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가 대동소이하다. 본고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忽’이 등장하는 고구려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首尔忽 > 戌城縣(사기 35), ·買忽 > 水城(사기 35), ·奈兮忽 > 白城郡(사기 35), ·沙伏忽 > 赤城縣(사기 35), ·伏忽郡 > 寶城郡(사기 36), ·買忽 = 水城(사기 37), ·非達忽 = 大豆山城(사기 37), ·乃勿忽 = 鉛城(사기 37), ·內米忽 = 池城 = 長城(사기 37), ·買旦忽 = 水谷城(사기 37), ·甲忽 = 穴城(사기 37), ·漢忽 = 息城 = 乃忽(사기 37), ·母城郡 = 也次忽(사기 37), ·臂城郡 = 馬忽(사기 37), ·冬音忽 = 鹽城(사기 37), ·淺城郡 = 比烈忽(사기 37)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忽’의 의미는 ‘城’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上忽’의 신라 改名 역시 ‘車城’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양상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두 혼차로 인식하였다. 의미는 씨족이나 부족의 통치자가 기거하는 “으뜸가는 마을” 곧 首邑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천소영(2003:105)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약간의 의미적 추가는 있지만 천소영(1990)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 정수리[頂]의 의미가 추가되었지만 꼭대기나 으뜸을 뜻하는 고유어로서 주변에서 가장 큰 마을[首邑 혹은 大邑]의 풀이는 천소영(1990)과 천소영(2003)이 일치를 하고 있다.

유창균(1980:293)에서는 ‘上’과 ‘車’를 모두 혼차로 판단하며 ‘峰’에 해당하는 ‘sur’로 읽었다.<sup>5)</sup> 그러나 유창균(1991:91)에서는 ‘上忽’과 ‘車城’의 대응에서 ‘上-車’의 호용이 訓借로 해석할 수 있고, 音借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냐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최남희(2005:356)에서는 「上」은 혼독자로, 「車」는 혼차자로 보았다. 「上」의 중세국어는 「우충·마디」이고, 「車」의 중세국어는 「술위」이다. 따라서 두 글자의 대응으로 보아, 「우충·마디」는 거리가 멀고, 고구려어의 「수리(sūri)」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유창균(1980), 천소영(1990, 2003), 최남희(2005) 등은 ‘上忽’과 ‘車城’을 모두 「首」 또는 「峯」의 의미로 파악하고, ‘수리’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上’과 ‘車’의 호용 관계를 혼차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上’과 ‘車’의 호용 관계가 訓借에 있다는 객관적 근거의 제시는 불충분하다. 특히 ‘上’의 혼차가 「술위」, 「수리」, 「수르」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2) [上]

- (ㄱ) 웃 상<千字文>, 우 상<新增類合>, 마디 상<訓蒙字會>, 마디 상<千字文(光州)>, 마디 향, 상<백련초언해>
- (ㄴ) 上은 우히라<月印釋譜 16b>

‘上’의 음과 뜻을 살펴보면 (2ㄱ)과 (2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음은 ‘상’, ‘향’, ‘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6)</sup> 훈은 ‘마디, 우’ 등으로 나타난다.

## (3) [車]

- (ㄱ) 술위 거<訓蒙字會>, 술위 거<新增類合>, 車輪 술위박회<동문해>
- (ㄴ) 술위 차<千字文>, 술위 차<新增類合>

‘車’의 훈은 ‘술위’로 나타난다. 이는 ‘술위>수레’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술위’는 앞선 연구에서 주목했던 ‘上忽’의 해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上’과 ‘車’를 비교 분석하면 일치점을 찾을 수는 없다.

## (4) 上曰頂<鷄林類事>

5) 유창균(1980:293)에서는 ‘上忽’의 해석을 借訓의 가능성만으로 해독한 것은 아니다. 借音의 가능성과 借訓의 가능성 모두를 생각하고 있다. 借音의 가능성은 ‘上’의 음가가 吏讀에서 「자, 차」 등으로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上’과 ‘車’의 대응 관계를 「자, 차」로 읽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단지 古音의 영향으로 읽었을 때의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6) ‘上’의 음이 ‘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백련초언해>에서만 보인다. 그런데 <백련초언해>에서도 ‘상’음이 같이 나오고 있고, 대다수 자전류의 음가가 ‘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향’의 음가는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준의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유추는 <鷄林類事>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鷄林類事>의 내용에서 유추해보면 ‘上’을 ‘頂’으로 읽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頂’이 ‘上’의 음가를 표기한 것인지, 또는 의미를 표기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頂’의 송대음은 ‘tiəŋ’ 정도로 재구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뎡’, ‘더’로 음이 실현되고, 의미는 ‘뎡바기’로 나타난다.<sup>7)</sup>

그러나 지명표기에 나타나는 ‘車’의 훈과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頂’의 훈을 비교한다면 일치된 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시대적 변천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술위’와 ‘뎡바기’의 공통점을 재구한다는 점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 2.2. 이두와 구결의 해석

박희숙(1984:53, 63-64)에서는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上’의 이두음을 ‘자’ 또는 ‘차’로 읽고 있다. <大明律直解>의 ‘捧上’을 ‘받자’, ‘받즈’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上下’의 이두음이 다른 문헌에서 ‘차하’, ‘차아’, ‘자아’로 나타나는 것에 감안하여 ‘자’ 또는 ‘차’로 읽었다. 이것은 古音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무림(1999)에서는 순독구결에 나타나는 용자의 음가를 ‘자’로 파악하였다. ‘上’의 음가가 ‘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古音, 즉 上古音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中古音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김무림(2010)에서도 보인다.

‘上’의 음가는 ‘(上古)zjaŋ/zjang/dhjang/djang>(中古)zjaŋ>(近代)ɕjaŋ>(現代)ɕaŋ’와 같은推移를 겪었으므로 ‘上’이 古代國語 漢字音으로는 ‘장’이나 ‘상’이 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았다. 다만 禪母/z/는 ‘스’으로 나타나는 것이 通例임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여 김무림(1999)과 동일한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백두현(2005)과 남정란(2005)에서는 ‘上’에 대응하는 구결자를 음독으로 파악하고 ‘데/자’로 파악하고 있고, 이승재(1992), 박성중(1996), 남풍현(2000), 장세경(2001), 배대운(2003)에서는 각각 ‘자/즈/차/상’으로 음독하고 있다.(김무림 2010:46-47)

口訣과 吏讀에 나타나는 ‘上’의 음가를 정리하면 ‘자/차/즈/상/데’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음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吏讀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口訣 및 吏讀의 借音에 의한 讀音이 本字의 漢字音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讀音과 漢字音이 그대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즉, 口訣 및 吏讀의 讀音은 당시의 國語의 形態가 기준이므로, 해당 形態에 꼭 맞는 漢字音이 없을 경우에는 變異의 수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무림 2010:53)

(5) 捧上받자<吏讀彙編>, 上자還上捧上外上皆曰자<高麗吏讀>, 外上외자<吏讀集例>

(5)를 중심으로 본다면 吏讀 표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준의 음가는 ‘자’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를 ‘上’의 음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sup>8)</sup> 본 논문에서 밝혀야 할 ‘上’과 ‘車’의 대응을 /자/라는 음가가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上’의 음가를 /자/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의 해결 과정을 밝혀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된 음가가 ‘上’의 고구려 한자음일 확률

7) 頂은 머릿 뎡바기 <1459월인석,02,064b>, 뎡바기 뎡<1527훈몽자,상,013a>, 頂 뎡바기 뎡 <1576신유합, 上,020b> 더바기 뎡 頂. <1664유합원,013a> 뎡받기 뎡 (頂) <1664유합철,013a>

8) 5)의 예문은 이장희(2005)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이 높기 때문이다.

- ① /자/와 /즈/에서 모음 /·/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 ② /자/와 /차/에서 유기음의 대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③ /자/와 /상/에서 처음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④ /자/와 /상/에서 종성의 자음 /ㅇ/의 문제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 2.3. ‘上’과 ‘車’의 음가 분석

(6) 上 (古音)禪陽 (廣韻)時掌切, 禪養開三上宕

正齒音(正齒 3등)에는 照/ʈe-/ , 穿/ʈe'-/ , 神/dz-/ , 審/ɕ-/ , 禪/z-/이 있다. 여기에서 照母는 /ʈ-/으로, 穿母는 /ʈ'-/으로, 기타 3개 성모는 /s-/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禪母의 경우는 전승 한자음에서 /s-/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남희(2005)에서는 중고음 禪母를 /s-/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돈주(2003:231)에서는 <全韻玉篇>의 正俗音 漢字音を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禪母의 변이음으로 /ɣ/(1회), /tɕ/(1회), /ʈ/(4회)가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sup>9)</sup>

陽/-aŋ/는 /-iɑŋ, -iɑŋ, -iɑŋ, -iɑŋ/ 등으로 재구할 수 있다. 상고음은 핵모 -a-의 영향으로 개모는 소멸되므로, 중고음 핵모는 「아(a)」로 반영되어 핵모 -a-가 개모 -i-와 합체가 되어 /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음과 중고음에 나타난 운모음의 차이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7) (ㄱ) 車 (古音)昌魚 (廣韻)尺遮切, 昌麻開三平假

(ㄴ) 車 (古音)見魚 (廣韻)九魚切, 見魚開三平遇

(7ㄴ)의 ‘車’는 見母/k-/이다. 중국 운서의 牙音 계열은 見/k-/ , 溪/k'-/ , 群/g-/ , 疑/ŋ-/이 있다. 牙音의 見/k-/ , 溪/k'-/ , 群/g-/는 한국 한자음에서 /ɣ/ 초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칙이다. 이 경우는 ‘上’의 聲母와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제외한다.<sup>10)</sup>

‘上’의 聲母와 대응이 가능한 것은 결국 (7ㄱ)에 보인 ‘車’의 聲母이다. (7ㄱ)‘車’은 ‘上’의 聲母와 비교하면 모두 正齒音에 속한다.

9) 이돈주(2003:230-231)에 나타나는 正俗音を 밝히면 다음과 같다. 嗜(시욕기), 瑞(슈욕서), 擅(선욕천), 移(세욕테), 蜀(속욕축), 枕(심욕침) 등이다. 俗音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ɣ/, /tɕ/, /ʈ/으로 나타나지만, 正音은 모두 /s/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 외에도 앞서 吏讀의 음가 방식에도 보인 바와 같이 /ɣ/을 가진 음가는 없었으므로, 제외한다.

七音		清濁		全濁	次清	全清	全濁
		全清	次清				
脣音		幫p	滂p'	竝b	明m		
舌音	舌頭	端t	透t'	定d	泥n		
	舌上	知t	徹t'	澄d	娘n		
牙音		見k	溪k'	群g	疑ŋ		
齒音	齒頭	精ts	清ts'	從dz		心s	邪z
	正齒	莊tʂ	初tʂ'	崇dz		生ʂ	俟z
		章tʃ	昌tʃ'	船dz		書c	禪z
喉音		影ʔ	曉x	匣ɣ	喻(三)ɣj		
半舌音					喻(四)∅		
半齒音					來l		
					日ŋ		

<표 53> 중국 36자모표(최영애, 2000:112)

이를 바탕으로 ‘上’과 ‘車’의 음운 대응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 3. ‘上’과 ‘車’의 음운 대응 관계

#### 3.1. 치음의 대응

한어 중고음에서는 치음 계열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이 된다. 치두음(精清從心邪), 치상음(莊初崇生), 정치음(章昌船書禪)이 치음 계열이 된다.<sup>11)</sup> 치음은 한어(漢語)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한자음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고음에서 치음은 사모(邪母)를 제외한 치두음 계열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치상음과 정치음 계열의 존재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sup>12)</sup>

한국 한자음에서도 치음 문제는 한자음 수용 시기에 연관되어 있어 간단한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고대 국어 한자음에서 치음은 ‘ㄷ’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유창균(1960)에서는 고대국어의 치음 계열에 /s(s)/, /ʃ(tʂ)/, /dz/의 세 음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기문(1972)과 김무림(1998)에서는 /s/, /ʃ/, /ʃ/의 세 음소를 인정하고 있다.

박병채(1971)은 중세의 한국 한자음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하여 고대 국어의 치음 계열에 /ʃ/, /s/의 두 음소를 인정하고 있다. 박병채(1971)에서는 한국 한자음에서는 한어중고음의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무시되었고, 청탁의 구별도 무시되었으며, 차청자의 대응에 규칙성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조규태(1986), 박동규(1995), 김동소(1995)는 고대 국어의 치음 계열에 /s/ 하나만이 존재했다고 보는데, 근거로는 고유 명사 자료에서 /s/과 /ʃ/ 그리고 /ʃ/의 혼용을 보이는 것을 예로 들었다.

11) 치음의 종류에 관해서는 정치음을 조3(照3) 계열이라고 하며, 치상음을 조2(照2) 계열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는 장계(莊系)와 장계(章系)로 구별하기도 한다.

12) 치음 성모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견해로는 B.Karlgren과 董同龢의 견해를 들 수 있다. B.Karlgren은 장계(莊系)의 치상음 계열과 정치음 계열에서 정치음의 직전 단계인 설상음을 인정한 반면, 董同龢는 정치음 장계(장계)에 대하여 설상음과 서모(書母)/c/와 선모(禪母)/z/를 인정한다.

(8) (ㄱ) 佐魯縣, 本上老<三國史記 地理4 百濟>

(ㄴ) 都督府一十三縣, 嶠夷縣, 神丘縣, 尹城縣, 本悅已, 麟德縣, 本古良夫里, 散昆縣, 本新村, 安遠縣, 本仇尸波知, 賓汶縣, 本比勿, 歸化縣, 本麻斯良, 邁羅縣, 甘蓋縣, 本古莫夫里, 奈西縣, 本奈西兮, 得安縣, 本德近支, 龍山縣, 本古麻山<三國史記 地理4 百濟>

(ㄷ) 長沙縣, 本百濟上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國史記 地理3 新羅>

백제 지명의 예이다. 비록 고구려 지명과 백제 지명의 차이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지명 표기의 ‘술위’ 류의 의미나 ‘덩바기’ 류의 의미를 유추하기는 힘들다. (8ㄱ)에서는 지명 차자 표기 ‘上’은 ‘佐’의 대응이고, (8ㄷ)은 ‘長’과의 대응이 보인다.<sup>13)</sup>

(8ㄱ)의 명칭은 (8ㄴ)을 참고할 때, ‘上老’ 지명은 서기 660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4)</sup> (8ㄷ)은 景德王(?~765) 재위 시절의 기록이고, 그 당대 한자음의 영향을 받아 차자 표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백제 지명에서는 (8ㄱ)의 ‘佐魯’와 ‘上老’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8ㄷ)에서는 신라시대 改新 지명인 ‘長沙’와 ‘上老’의 대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8ㄷ)의 경우는 음 대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뢰할 수준의 호용 사례는 (ㄱ)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9) (ㄱ) [佐](古音)精歌 (廣韻) 則箇切 精箇開一去果, /좌/ <석·유>, /자/ <진>

(ㄴ) [長](古音)端陽 (廣韻) 知丈切 知養開三上宕, /당/ <석·유>, /장/

‘佐’는 齒頭音 精母/t͡s-/에 해당한다. 齒頭音은 精/t͡s-/ , 淸/t͡sʰ-/ , 從/dz-/ , 心/s-/ , 邪/z-/이다. 이중 精, 從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ㅈ/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칙이다. ‘佐魯縣, 本上老’의 대응은 ‘上’ : ‘車’의 대응과는 성모의 대응 양상이 다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佐’와 ‘車’는 모두 齒音 성모에 해당하지만, ‘佐’는 齒頭音, ‘車’는 ‘正齒音’에 해당한다.

(9ㄴ)의 ‘長’의 경우는 舌音 端母/t-/에 해당한다. 따라서 치음 聖母에 해당하는 ‘上’과 유사성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上’과 ‘車’의 대응은 치음 성모에 한정할 수 있다.

② ‘上’과 ‘佐’의 대응에서 전승 한자음 /좌/와 /자/의 실현을 알 수 있다.

### 3.2. 유기음의 대응

이기문(1972:90~93)은 고대 국어에 유기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기문(1972)에서는 “居柒夫 或云荒宗(三國史記44)”, “厭鬻 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厭也(삼국유

13) 이와 같은 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수희(2004:265)에서는 ‘上’의 음가를 ‘사’로 재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14) 5都督府 : 義慈王 20년(西紀 660)에 百濟가 패망된 다음, 唐에서는 처음, 百濟 舊疆을 占有 統轄하기 위하여 熊津·馬韓·東明·金漣·德安의 5都督府를 설치하였고, 얼마 후에는 다시 熊津都督府下의 7州 52縣의 行政區劃을 하기도 하였는데, 실은 점령을 위한 卓上設計였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百濟 獨立軍 및 新羅軍에 의해서 削수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병도 역주, 두계학술재단)

사3)”의 예에서 확인되는 ‘居柒’, ‘異次’, ‘伊處’의 중세 국어 대응 양상이 ‘거츨-’, ‘잇-’임을 들어 고대 국어에서 유기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박병채(1971, 1989)에서는 중고한음에서 차정으로 규정되는 대기음(帶氣音)의 반영에서 대체로 무기음과 유기음으로 동요되는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고대 국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무표계열(無標系列)만의 단일 과정을 보유한 단선체계임을 들어 고대 국어에는 유기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조규태(1986), 김동소(1998)에서도 역시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한편, 박창원(1995)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김무림(1995:54~55)에서는 국어의 유기음 계열이 치음와 설음 계열에서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이후 순음와 아음으로 점차적인 음운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의 유기음은 7세기 무렵에 치음와 설음에서 시작하여 고려시대 초기 이전에서 순음와 아음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유기음의 발생 완료 시점을 13세기 이전으로 보았다.

- (10) (ㄱ) 朱蒙 : 鄒牟 : 鄒蒙(三國史記13, 三國遺事1)  
 (ㄴ) 羅人方言 讀涿音爲道(三國遺事1)<sup>15)</sup>

(10ㄱ)의 용례에서 朱 : 鄒의 대응을 보인다. 朱는 章母/tɕ-/에 해당하고, 鄒는 莊母/tʃ-/에 해당한다. 전승 한자음에서는 朱는 /ㅈ/으로, 鄒는 /ㅊ/으로 반영된다. (10ㄴ)의 용례는 ‘涿’음을 신라 사람들은 ‘道’음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고대국어의 유기음 계열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 (11) 上 : 車 : 佐

(11)을 바탕으로 성모를 정리하면 ‘上’은 전탁의 禪/z-/이고, ‘車’는 차청의 昌/tɕ-/이며, ‘佐’는 전청의 精/tɕ-/이다.

중고한음의 차청자는 한국 한자음의 유기음에 대응된다. 그러나 차정자가 무조건적으로 한국 한자음에서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세 국어의 한자음 자료인 <訓蒙字會>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 (12) 溪(/k’-/ /ㄱ/(107) /ㅎ/(6) /ㅇ/(1)  
 透(/t’-/) /ㅌ/(53) /ㄷ/(24)  
 徹(/t’-/) /ㅌ/(13) /ㄷ/(7) /ㅊ/(2)  
 滂(/p’-/) /ㅍ/(24) /ㅂ/(12)  
 敷(/f’-/) /ㅍ/(21) /ㅍ/(7) /ㅍ/(1)

15) 이 용례는 김무림(2004:55)에서 가져온 것이다.

16) 유기음의 대응이 현재와 다르다는 것은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이 무조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종호(2005, 2006)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점진적인 유기음화를 뜻한다. 그 내용은 본 논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밝히도록 한다. 최종호(2005)에서는 고려대장경 각성인의 인명을 대상으로 /p<sup>h</sup>/(확립단계)→/c<sup>h</sup>/, /t<sup>h</sup>/(혼란단계)→/k<sup>h</sup>/(생성단계)’로 추정하였고, 최종호(2006)에서도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유기음의 정착 과정을 설명하였다.

17) <훈몽자회> 한자음에 관련된 사항은 이돈주(1995)와 권인한(2006:62~64)을 참조하였다.



清(/tɕʰ-/) /ㄷ/(57) /ㅈ/(11) /ㅊ/(1)  
 初(/tɕʰ-/) /ㄷ/(20) /ㅊ/(3)  
 昌(/tɕʰ-/) /ㄷ/(26) /ㅈ/(3) /ㅊ/(1) /ㄷ/(1) /ㅈ/(1)

<훈몽자회>에 나타난 차청자를 빈도수 별로 정리한 것이다. 중고한음과 대비한다면 일괄적인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중고한음의 유기음 차청자가 한국한자음에서 유기음으로 변한다고 하기도 역시 어렵다. 특히 아음계열의 계모는 유기음 /ㄷ/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실제로 한국 한자음에서 초성의 /ㄷ/을 가진 한자는 ‘快, 嶺’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전청의 해당자가 한국한자음에서 유기음으로 출현하기도 한다. 일부의 예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3) 端(/t-/) /ㄷ/(85) /ㅈ/(10) /ㅊ/(2)  
 定(/d-/) /ㄷ/(118) /ㅈ/(28)  
 幫(/p-/) /ㅂ/(38) /ㅍ/(17)

(12)와 (13)의 예를 살펴본다면 한어의 전청자는 한국 한자음에서 규칙적인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sup>18)</sup>

따라서 (11)의 정리를 바탕으로 본다는 ‘上’과 ‘車’의 대응에서 치음 聲母의 유기성을 가진다고 할 근거는 없다.

- ① ‘上’ : ‘車’ : ‘佐’는 모두 치음 성모에 해당하고, ‘上’과 ‘佐’는 유기성이 없는 聲母이며, ‘車’는 유기성을 가지는 聲母에 해당한다.
- ② ‘上’ : ‘車’ : ‘佐’의 음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리값은 유기성이 없는 소리로 고대 국어에서는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3.3. 운미음의 대응

‘上’과 ‘車’의 음운 대응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운미음의 대응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上’의 韻母는 宕攝의 養韻/-iɑŋ/으로 운미음으로 /-ŋ/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車’는 假攝의 麻韻/-ia/에 해당하여 운미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대응은 앞의 예 ‘佐魯縣, 本上老’에서도 동일하다. ‘佐’는 果攝의 歌韻/-ɑ/으로 운미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車’와 ‘佐’는 모두 운미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미음 /-ŋ/을 보유하고 있는 ‘上’과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14) (ㄱ) 朱蒙 : 鄒牟 : 鄒蒙(三國史記 13, 三國遺事1)
- (ㄴ) 道同縣, 本刀冬火縣, 景德王改名, 今合屬永州(三國史記 지리1)

18) 이러한 현상이 한국 한자음 내부의 문제인지 한자음 수입에 관한 문제인지 아직은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한자음의 기층이 그만큼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4ㄱ)은 ‘蒙’과 ‘牟’의 대응이다. ‘蒙’은 通攝의 東韻/-uŋ/이고, ‘牟’는 流攝의 尤韻/-iəu/에 해당한다. ‘蒙’은 운미음이 /-ŋ/이 반영된 상태로 전승 한자음으로 나타나고, ‘牟’는 운미음이 없는 해당자이기 때문에 전승 한자음에서도 음절말 자음이 없는 상태로 계승된다.

(14ㄴ)은 ‘同’과 ‘冬’의 대응이다. ‘同’은 通攝의 東韻/-uŋ/이다. (ㄱ)의 ‘蒙’과 같은 운이며, 전승 한자음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된다. ‘冬’은 通攝의 冬韻/-uoŋ/이다. ‘同’과 같은 攝에 해당자이다. 전승 한자음에서도 운미음 /-ŋ/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14ㄴ)의 예는 (14ㄱ)과는 상반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창균(1981)에서는 백제 한자음의 자음 운미를 조사한 결과 /-∅, -r, -m, -n/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강신항(1990)에서는 -p, -t, -k는 외파한 것으로 보았고, 운미음 /-m, -n, -ŋ/을 인정하였다.

이장희(2005)는 특정 운미음 /-ŋ/의 실현 여부에 관한 논문이다. 이장희(2005)에서는 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접촉 등으로 인하여 /-ŋ/ 운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런 주장을 감안한다면 ‘上’의 운미음은 /-∅/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은 ‘佐’의 운미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上’ : ‘車’, ‘上’ : ‘佐’의 음대응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① 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운미음 /-ŋ/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上’의 운미음은 /-∅/로 실현된다.
- ② 운미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上’ : ‘車’ : ‘佐’의 소릿값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그 소릿값은 /자/이다.

#### 4. 결론

이 논문은 고구려 지명 ‘上忽’의 이표기에 나타나는 ‘車城’, ‘車忽’의 대응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지명 표기 연구에서는 ‘上忽’과 ‘車城’을 訓借에 의한 대응으로 판단하고, ‘술위, 수리’ 등으로 재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의 방식이 ‘上’ 또는 ‘車’의 訓借와 연관성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고구려 지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上忽’과 ‘車城’의 대응 관계는 통일신라 이후 개신된 지명으로 보아서 생략하였다. 고구려 멸망 이전의 음 대응은 ‘上忽’과 ‘車忽’의 대응 관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上忽’과 ‘車忽’의 대응 관계는 모두 音借에 의한 호응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사 연대의 백제 지명인 ‘佐魯’와의 대응 관계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끌었다. 이 논의의 과정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上’과 ‘車’는 모두 치음자에 해당한다. 전승 한자음에서는 ‘上’은 /s/으로, ‘車’는 /ʃ/으로 반영된다. 이들 차자 표기자들이 호응된다는 점은 고대국어의 치음계열이 지금과는 달랐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2) ‘車’는 유기음의 형성 조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車’의

19) 이장희(2005)는 삼국시대 세 나라 자료의 반영 양상은 동일하게 다를 수 있다고 하여, /-ŋ/의 실현 여부를 통시적으로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통시적으로 /-∅/ > /n/ > /-ŋ/의 발달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음가는 /자/가 된다.

3) ‘上’과 ‘車’의 대응에서 운미음 /-ŋ/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백제 지명의 ‘佐魯縣, 本上老’에 보이는 ‘上’과 ‘佐’의 대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이상을 종합한다면 ‘上’의 음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車’의 음가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上’과 ‘車’의 호용 양상은 훈차에 의한 대응 양상이 아니며, 음차에 의한 대응 양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90), '고대국어의 음절말 자음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25
- 김동소(1995), '고대 한국어의 종합적 연구', 한글227, 한글학회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무림(1998),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고대국어편), 국립국어연구원
- 김무림(1999), 「홍무정운역훈연구」, 도서출판 월인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도수희(2004), '지명, 왕명과 차자 표기', 구결연구13, 구결학회
- 박동규(1995), 「고대 국어 음운 연구1」, 전주대학교 출판부
- 박병채(1971), 「고대 국어의 연구(음운편)」, 고려대 출판부.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 박창원(1995), 「고대국어(음운) 연구 방법론 서설」, 「국어사와 차자표기」, 소곡남풍현선생회  
갑기념논총. 태학사. 533 ~ 549쪽.
- 박희숙(1984),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창균(1960), '고대지명표기용자의 모음 체계', 어문학6, 한국어문학회.
- 유창균(2007), 「한국지명연구」, '고대지명표기 자음의 상고음적 특징', 한국지명학회, 한국문  
화사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탐출판사
- 이돈주(2003), 「한중한자음연구」, 태학사
- 이장희(2005), '고대 국어의 /ŋ/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34, 언어과학회.
- 이장희(2006), '고구려어의 어말모음 교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39, 언어과학회.
- 조규태(1986), 「고대 국어 음운 연구」. 형설출판사.
- 천소영(1990), 「고대국어의 어휘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천소영(2003), 「한국 지명어 연구」, 이회
- 최남희(2005),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 최영애(2000), 「中國語音韻學」, 통나무.

## 고구려 지명 ‘上忽’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

임병준(건국대)

본 논문은 고구려 지명의 차자표기인 ‘上忽 : 車忽’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로서, 이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지명의 소릿값을 새롭게 조명한 논문입니다. 특히 발표자는 ‘上’의 해석에 주목하여, 이를 ‘車’의 새김과 같은 어형으로 보아 혼독으로 인정해 온 기존의 연구관점에서 벗어나서, 둘 다 음차자로 보고 두 글자의 대응이 새김의 대응이 아니라 한자음의 동음 대응으로 인식하여 당시의 한자음을 추적하고 이러한 대응의 가능성을 밝혀 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독특함과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에서 ‘上’과 ‘車’의 호용 관계가 혼차에 있다는 데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였으며, 이와 반대편에서 관련 지명 자료의 이표기들을 면밀히 색출하고 동음 대응 관계임을 증명하고자 한 발표자의 연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① ‘上 : 車’의 대응 관계를 기존의 시각인 동훈자의 이표기 관계가 아니라 동음자의 음차 표기로 보고 두 글자의 당시 한자음이 같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점.
- ② 구결과 이두에 나타나는 ‘上’의 독특한 독법인 /자/를 연관지어 이를 고대한자음의 유습으로 보아 당시 한자음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단서로 활용한 점.
- ③ ‘上’과 ‘車’의 대응에서 운미음 /-ŋ/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모의 치음은 유기음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두 /ㅈ/으로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두 글자의 당시 한자음을 /자/로 재구하여 음 대응을 증명한 점 등입니다.

이 논문의 논의 과정의 앞 부분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지명 표기 자료를 통해 ‘上 : 車’의 대응관계가 도출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대개 이를 혼차자로 보고 ‘/sVrV/(≒수리)’에 가까운 어형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왔으나, ‘上’자의 새김을 추적한 결과 어떤 자료에서도 ‘수리’ 형태와 같은 새김을 가졌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동훈차 대응이 아닐 수 있다.

[2] 그런데 이두와 구결 등에서 ‘上’자를 /자/로 읽는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 이는 고대한자음의 유습일 가능성이 있다.

[3] 따라서 ‘上 : 車’의 대응관계는 동음자의 대응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증빙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것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 ① /자/와 /ㅈ/에서 모음 /·/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 ② /자/와 /차/에서 유기음의 대립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③ /자/와 /상/에서 치음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 ④ /자/와 /상/에서 종성의 자음 /ㅇ/의 문제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토론자는 [1]에서 논의된, 기존 관점의 증거 불충분 지적에 공감합니다. 또한 [2]의 근거를 통해서 ‘上’의 고구려 한자음이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글자의 가장 오래된 새김은 ‘마딕’였습니다.(마딕 상<자회>) 그런데 이는 전후대의 새김(우 상, 우히라 등) 및 현대 한자 새김(윗 상)과도 전혀 다른 형태로서, 우리는 한자의 새김도 시공간적인 변화/변이를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혹시 이 ‘上’자에 대한 고구려와 신라의 새김이 달랐던 것은 아닐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 글자의 신라 시대 새김이 ‘마딕’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朴堤上>[或云<毛末>], #45卷-列傳5-朴堤上-01

이 신라 사람의 인명 이표기 자료에서 ‘堤上 : 毛末’의 대응을 통해 ‘上 : 末’의 관계가 도출됩니다. 왜냐 하면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서 ‘堤 : 毛(터럭 모<자회>)’는 /tV/를 표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漆堤縣>, 本<漆吐縣> #34卷-志3-地理1-15

<長堤郡>, 本<高句麗><主夫吐郡> #35卷-志4-地理2-12

<奈隄郡>, 本<高句麗><奈吐郡>, <景德王>改名, 今<堤州> #35卷-志4-地理2-33

<奈吐郡>[一云<大堤>].

‘末’의 고한어음은 상고음이든 중고음이든 입성 끝소리 /-t/를 가지는 소리였으므로 당시 한자음은 /mat(V)/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훈몽자회>가 전하는 ‘上’의 새김 ‘마딕’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차자표기에서 ‘上’자는 훈차자로 쓰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훈몽자회>의 새김인 ‘마딕’은 신라식 새김을 전승해 온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글자의 고구려식 한자 새김이 신라의 그것과 다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며, 단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훈차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가 지적한 [2]의 이두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첫음절이 아닌 두 번째 음절에서만 ‘上’이 /자/로 읽히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발표자가 2.1.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5) 捧上밧자<吏讀彙編>, 上자還上捧上外上皆曰자<高麗吏讀>, 外上외자<吏讀集例>

(두 번째 인용자료 -> ‘上’은 /자/이다. 還上, 捧上, 外上 이때 모두 /자/로 읽는다.)

또한 이들은 모두 독립된 낱말로서가 아니라, 앞말에 결합된 특정 형태소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捧上밧자’는 객체높임의 안맺음씨끝 ‘습’의 변이형태인 ‘즈’의 음상을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언즈와, 받즈와, 묻즈오나 등) 그렇다면 이는 ‘上’의 고대 한자음이

/자/여서 이를 쓴 것이 아니라, 안맺음씨끝의 원형태인 ‘습’을 표기하려는 의도로 이 글자를 쓴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유독 이두에서만 /자/로 읽히고, 전승한자음에서는 어디에도 첫소리가 /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마디 향, 상<백련초언해>처럼 속음 ‘향’이 나타나긴 해도 ‘자’는 나타나지 않음)도 이러한 의구심을 짙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3]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자는 ②,③,④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고대국어에서 거센소리의 대립이 없었다는 사실과, 운미음 /-ŋ/의 반영이 불투명하여 /-∅/로 실현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이러한 음 대응의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에 대해서는 토론자가 아무리 찾아 보아도 문제점만 제시하고 해결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① /자/와 /즈/에서 모음 /·/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이 문제점은 ‘上’의 소릿값이 /자/라고 하더라도, ‘車’의 홀소리는 /·/였는데 /ㅈ/와 /·/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발표자는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의 논지를 수용하여, ‘上 : 佐’의 음 대응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佐魯縣>, 本<上老>; #37卷-志6-地理4-19

발표자의 위 제시 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토론자는 아래 자료를 덧붙여 제시합니다.

<佐贊縣>, 本<上杜>; #37卷-志6-地理4-18

<尙質縣>, 本<百濟><上柒縣>#36卷-志5-地理3-19

이 글자들의 대응관계는 상고, 중고음 모두 홀소리가 /a/로 재구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음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글자와 달리 ‘車’에 대해서는, 이 글자의 두 음(거, 츠) 중 “거’의 경우는 ‘上’의 성모와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제외한다.” 즉 ‘上’의 소릿값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7) (ㄱ) 車 (古音)昌魚 (廣韻)尺遮切, 昌麻開三平假 를 선택한다는 발표자의 다소 주관적인 선택을 백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글자의 상고·중고음 운모 /-ie/, 조선 전승음 /츠/의 홀소리 /·/와 ‘上’의 고대한자음 홀소리 /a/(아마도 개모음을 반영하여 /ㅈ/였을 것입니다.)의 불일치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이 논리를 받아들여 이가 되면 고대 국어에서 홀소리 /ㅈ/와 /·/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변별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류로서, 중세국어에서나(달다[異] : 둘다[甘], 하다[多] : 헛다[爲] 등) 전승한자음에서나(鷺 가마오디 ㅈ : 蚱 밧도기 자) 명백하게 변별되었던 두 홀소리가 고대 국어에서는 변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 글자의 두 가지 발음 중에서 하필 /츠/를 선택할 근거가 있는지, 또한 차자표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혼란이 올 것을 감수하고 굳이 두 가지 발음을 가진 이런 다음자(多音字)를 음차자로 채택하여 쓸 이유가 있었는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지를 반드시 보완하여야 발표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③에 제시한 문제점을 논의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③ /자/와 /상/에서 치음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곧 고대국어에서 /ㅈ/과 /ㅅ/의 변별이 존재했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만일 변별이 존재했다면 발표자가 주장하는 동음자 대응이 성립할 기반이 되는 것이고, 만일 이 소리들이 변별되었다면 ‘上 : 車’의 동음설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많은 선학들이 고대국어에서 /ㅈ/과 /ㅅ/의 변별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규태(1986), 박동규(1995), 김동소(1995)등에서 그러하고, 토론자의 줄고(2000)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烏兒縣 本百濟烏次縣<백제>

次次雄 或作慈充<유사3흥법>

十四日吉士(或云稽知 或云吉次)<삼사38잡지>

火王郡 本比自火郡(一云比斯伐)<신라>

㉡ 異次頓(或云處道)<삼사4신라>

母城郡(一云也次忽)<고구려>

買召忽縣(一云彌鄒忽)<고구려>

㉢ 官狀(一云官昌)<삼사5신라>

成忠(或云淨忠)<삼사28백제>

欽春(或云欽純)<삼사47열전>

欽春(春或作純)<삼사5신라>

伊滄陳純(一作春)<삼사6신라>

選干(一作撰干)<삼사40잡지>

㉠에서는 ‘兒, 次, 慈, 士, 自, 斯’가 통용되고 있어서 이들 글자들이 같은 첫소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에서는 ‘異次’와 ‘處’의 대응에서 ‘處’의 새김 ‘이시-’, ‘살-’을 찾아낼 수 있어서 ‘次’의 첫소리가 /s/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고구려말 자료에서의 ‘母’와 ‘也次’의 대응에서 ‘母’의 고구려말에 증세국어 ‘어시’와 이어지는 낱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스’에서 변한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의 자료에서도 첫소리에 /tʃ/와 /s/이 변별되어 쓰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들 중에는 삼국 말엽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삼국 말엽까지 고대국어 닿소리에 /t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덕왕 이전의 전기고대국어에 불같이소리 /tʃ/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상 임병준(2000:31))

이러한 논지로 본다면, 발표자의 동음 대응 주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왜 그것이 /ㅅ/이 아닌 /ㅈ/인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전기고대국어의 닿소리 체계에 불같이소리인 /ㅈ/이나 거센소리인 /ㅊ/이 음소로서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잇소리에 오로지 하나로만 실현되었다면, 그것이 보다 간단한 같이소리 /ㅅ/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두 번에 걸쳐 조음을 해야 하는 불같이소리 /ㅈ/이었을 가능성이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

1) 處 살 처<자회下>; 處 : 살다, 머물러 있다, 남아서 지키다<자전>; 生死 트레 이션(處生死流)<원각序29>, 내 지비 이십 저귀<석보67>, 부터를 맞나 잇느니<석보611>, 在는 이실씨라<월석序10>



서 ‘上(=佐)’의 고구려 한자음은 /자/가 아닌 /사/로, ‘車’의 고구려 한자음은 /스/로 재구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거하여, 토론자는 발표자의 ‘上 : 車’의 음차 대응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분 인정할 수 있지만, 훈차 대응의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려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고대국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 즉 자료의 절대적 빈곤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일 ‘上’이 /surV/에 가까운 어형을 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고구려 지명자료에서 ‘上 : 車’의 대응은 훈차 대응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車’의 고대국어 새김이 /surV/였다는 명확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ㄱ) 술위 거(訓蒙字會), 술위 거(新增類合), 車輪 술위박회(동문해)
- (ㄴ) 술위 차(千字文), 술위 차(新增類合) (이상 발표자 제시 자료)

俗謂端午爲車衣(세속말로 단오는 ‘車衣’라고 한다) 삼국유사 2卷-2紀異-文虎王法敏-06  
이것은 ‘車’의 신라말 새김이 /surV/ 여서 ‘단오’의 순 우리말 ‘수릿날’의 ‘수리’를 ‘車衣’로 적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만일 ‘上忽 : 車忽’이 동음차 대응인 것을 입증하는 다른 표기용례가 발견된다면 이제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첫째, 동음차 대응이라면 그 발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인가 혹은 /사/인가. 둘째, 왜 모음이 /ㅏ/, /ㅑ/로 서로 다른 글자가 동음으로 이표기되었는가, 단순히 첫소리 대응만으로 비슷한 소리의 글자를 마구 자의적으로 썼다고 인정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시간을 헤매어 찾아내려고 해온 고대국어 차자표기의 규칙성은 많은 부분 허물어지고 맙니다. 셋째, 그것이 나타내는 어형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어형이 중세국어 또는 현대국어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져야만이 음차 대응 논의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몇몇 의문점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본 논문이 가져온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차자표기 연구에서 이러한 검증의 방법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우리말 모습을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자표기 연구는 중세 이전의 우리말 모습을 밝혀내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이며, 국어사와 계통 문제를 밝히는 밑바탕으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의 노력에 큰 지지와 깊은 경의를 보내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큰 성과를 내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지도

윤재연(건국대)

## 차 례

1. 머리말
  2.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3.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지도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는 글쓰기 능력이다. 글쓰기는 정보화 시대, 지식 사회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글쓰기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가 각 개인에게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글쓰기 관련 과목을 기초 교양 교육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학술적 글쓰기’와 같은 심화 과정을 두거나 ‘인문학적 글쓰기’, ‘사회학적 글쓰기’, ‘과학적 글쓰기’ 등 전공 영역별로 글쓰기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쓰기 교과와 현황과 수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건국대학교는 읽기와 쓰기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대학 국어를 개편, ‘글쓰기’ 중심의 기초 교양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 교양과정은 ‘대학에서의 학업 및 향후 전공 관련 활동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 및 분석력을 함양하여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학문에 접근하도록 하는 훈련’을 목적으로 세 영역 <학문적 글쓰기>, <창조적 사고와 표현>, <비판적 사고와 토론>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경북대학교의 글쓰기 교과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화과정은 계열별로

1) 여기서 언급된 대학 글쓰기 강좌의 교과 제목 및 수업 목표 가운데, 건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의 ‘제1회 글쓰기 발전 포럼’의 자료집을 참고로 하였고, 경원대학교는 2010년 2학기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였다.(강의계획서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였으며, 총 36개 강좌를 검토하였음.) 나머지 학교들은 ‘대학작문학회’의 창립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학교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다. 한편, 본문의 밑줄은 글쓴이가 임의로 표시하였다.

구분된다. 강의 전반부(1주-7주)에는 기초과정 강의가, 후반부(9주-14주)에는 심화과정 강의가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과 기술’의 세 계열로 분화되어 있다. 경북대학교는 글쓰기 교과의 목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글쓰기의 기본이론을 익히고, 발상에서 퇴고에 이르는 글쓰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실습함으로써 한편의 글을 완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②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완결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함양한다. ③ 대학 생활과 관련된 보고서나 자기 소개서,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평문, 제안서 제품 사용 설명서 등을 쓰는 능력을 갖춘다.

경원대학교의 글쓰기 강좌는 <읽기와 쓰기>이다. 2010년 2학기에는 총 36강좌가 개설되었고 23명의 교수 및 강사들이 담당하였는데, 그들의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핀 바를 종합해보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연세대학교 요람(2005)에 따르면, <글쓰기>는 학부대학 소속의 교과목이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표현능력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논리적 사유와 창의적 사유를 배양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강좌의 주된 목표는 글쓰기 능력의 배양에 있으며, 부차적으로 말하기 능력을 학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우리말과 글쓰기> 강좌는 교과 목표를, “이 강좌는 읽기와 쓰기의 기능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삶, 의식,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과로 학문의 실용성과 지식의 통섭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기초 교양과목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 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소양을 키움으로써, 학술적 글쓰기를 비롯한 언어활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교양필수 과목의 명칭을 <삶과 글>에서 <사고와 표현>으로 바꾸고, 이수학기를 확대하였는데, 조선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사고와 표현>의 개편 취지를 “① 사고 능력(지식과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② 사고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 방법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확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각 대학의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대체로 비판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sup>2)</sup>

비판적 사고는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대

2) 김병구(2009:6-9)는 최근 대학 글쓰기 교육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학술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논변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등의 명칭을 단 글쓰기 강좌들이 기존에 글쓰기 교육을 담당해 온 ‘대학 국어작문’ 강좌를 대체한 지 오래되었고, 나아가 ‘인문학 글쓰기’, ‘사회학 글쓰기’, ‘이공계 글쓰기’와 같은 학문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공별’ 글쓰기 교육의 제도화도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대학에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게 된 맥락은 ‘비판적 사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맥락과도 일정정도 겹쳐 같이 한다고 하였다.

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과정은 진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의도를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어떤 대상의 진위 여부와 의도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냉철한 자기 점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끊임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고의 과정을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그렇다면, 대학 글쓰기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글쓰기 자체가 곧 인간의 사고이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동일하다.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하여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사람, 사물, 주요 현상, 주요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통찰을 얻게 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고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생각을 보다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거나,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은 모두 사고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다. 결국, 글쓰기를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이루어지며,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인간의 사고 자체이자 인간의 사고력 발달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정보의 대량 생산, 유통, 소비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정보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정보화 기술이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가치관이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선별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습관적,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비판하고 분석하여 종합하는 능력,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즉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고등 정신 능력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은 글쓰기의 본질이자, 글쓰기를 통해 길러질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글쓰기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대학 글쓰기에서는 주로 사회 현상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앞에서 비판적 사고란

---

3)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탐구적(curious)’ 사고, ‘회의적(skeptical)’ 사고, ‘합리적(rational)’ 사고, ‘논리적(logical)’ 사고, ‘열린 마음을 지닌(open-minded)’ 사고, ‘공정한(fair)’ 사고, ‘지적으로 유연한(intellectually flexible)’ 사고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 모든 정의들에는 공통적으로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단 하나의 해석이나 지식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 또는 다른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란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복수의 관점에서 세심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함축한 건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method)’으로서의 비판적 사고와 ‘태도(attitude)’로서의 비판적 사고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의 교육 목표는 그 방법론을 학습시키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 및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태도의 함양을 지향하는 데도 있다. Alec Fisher, *Critical Thinking*, Cambridge Uni., 2001, pp.4-19. (김병구 (2009:15)에서 재인용.)

어떤 대상을 판단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을 필요로 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대상을 찾는 것은 흔히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특정 주제에서 쉽게 찾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각 대학별 수업내용에서도 쉽게 확인된다.<sup>4)</sup>

건국대학교의 <비판적 사고와 토론>은 토론과 논증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바탕으로 약 6~7주 정도를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할애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 매체를 이용하여 토론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 평가와 논의를 하고 있는 수업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창조적 사고와 표현>에서는 독후감, 서평 쓰기, 영화 감상문 쓰기 등의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경북대학교의 글쓰기 수업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심화과정은 인문학/사회과학/과학과 기술로 세분되어 있고, 세 분야 모두 '주제 글쓰기'가 2~3회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주제 분석, 주제문 작성, 개요작성, 글쓰기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문학에 '비평문 쓰기', 사회 과학 분야에 '시사비평문 쓰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다. 비평문 쓰기는 '이론 수업 및 글쓰기 과제(1000자), 조별 평가발표회'로 구성되며, 시사비평문 쓰기는 '시사비평문 쓰기의 방법, 글쓰기 실습(500자), 대표 학생 평가와 교수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글쓰기 교재(2008년 판)의 차례 가운데, 8장과 9장이 주목된다. 8장 '논점과 반론'은 '1. 논점 분석하기 2. 반론 분석하기 3. 논점 세우기'로 구성되고, 9장 '논증하기'는 '1. 논증의 과정 2. 논거 제시의 방법 3. 추론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우리말과 글쓰기> 수업은 ① 글쓰기의 기본 과정 수행(1주-7주) ② 유형별 글쓰기 수행 (4주-10주), ③ 조 발표 수행 (5주-10주), ④ 소논문 쓰기 수행 (11주-15주)로 구성되는데, 2단계 유형별 글쓰기 수행에서 '자기소개서, 서평, 문화 비평문' 시론의 네 영역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A4 1매 반 분량 정도의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유형별로 각각의 글 형식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와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관심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글을 구상하도록 하고, 유형별 글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1단계에서 학습한 글쓰기의 제 문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조선대학교의 글쓰기 교재 설계 가운데 12장 '의견 글'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글쓰기에서는 주로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광고를 활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sup>5)</sup> 따라서 이 글은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글쓰기 지도에서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여기서 언급된 각 대학 글쓰기 강좌의 수업 내용 가운데, 건국대학교는 2010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였으며, 총 66개 강좌를 검토하였음)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학작문학회'의 창립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경북대:박정선(2010), 연세대:김성수(2010), 이화여대:한수영(2010), 조선대:오문석(2010)) 한편, 본문의 밑줄은 글쓴이가 임의로 표시하였다.

5) 물론 실질적인 교과 운용에 있어서 교수자가 광고를 활용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강의계획서나 교과 운영 계획에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 2.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국어교육 차원에서 광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매체를 활용한 국어 교육의 하위 분야에서 시작되는데 이들 논의는 주로 광고 텍스트가 국어 교육 대상으로서 갖는 당위성을 증명하거나 광고의 비판적 읽기(또는 비판적 읽기의 대상으로서의 광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광고의 비판적 읽기에 대한 논의는 광고 텍스트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비판적 읽기의 하위 요소를 제안하고 이를 광고 텍스트 읽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논의하거나 이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와 같은 비판적 읽기의 하위 요소를 광고 텍스트를 읽기에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비판한다든가,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와 같은 비판적 읽기의 하위 요소를 광고 텍스트 읽기에 적용하여 광고의 수사법과 그 효과 또는 비교 광고의 효과를 분석한다든가, 광고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에 대해 학습한다든가 하는 논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에 대한 논의들이 비판적 쓰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판적 읽기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sup>6)</sup> 따라서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있어서 비판적 읽기는 훌륭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를 비판적 쓰기로 ‘언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하기는 사고가 불완전하더라도 시공간적인 현실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의 대강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쓰기는 그 행위 자체가 사고 활동에 명료한 언어를 부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히 읽어 내고, 사물의 논리적 절차를 탐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힘은 글쓰기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비판적 읽기’는 ‘말하기’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판적 쓰기’의 논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광고의 비판적 읽기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쓰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광고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한 김근하(2004)나 ‘비판적 읽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새로운 텍스트 쓰기’를 제안한 하숙자(2003) 등에서,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한 ‘쓰기’에 대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제안하는 ‘쓰기’는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수용에 관련한 논의, 즉 실제 광고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광고를 변용하거나, 새로운 광고로 바꾸어 보는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 말하는 ‘비판적 읽기를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쓰기’와는 차이가 있다.<sup>7)</sup>

6) 전점영(1992:6)에 따르면, ‘비판적 읽기’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행간 읽기(reading between the lines), 평가적 읽기(evaluative reading), 객관적 읽기(objective reading) 등으로도 쓰이는데, 대부분의 읽기 연구 논서에서 비판적 읽기가 비판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7) 하숙자(2003)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마지막 단계에 새로운 텍스트 쓰기를 포함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가치의 전유를 넘어서 전유한 가치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재전유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한다. 재전유한 가치, 해결 방안의 표현이 곧 새로운 텍스트의 생성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읽기는 이해와 표현,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적 언어활동의 관점에서 있다.”(2003:86) 그런데, 하숙자(2003)은 비판적 읽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새로운 텍스트 쓰기에, ‘비평문’ 쓰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문 쓰기’ 외에 ‘탈(脫)신화화하기, 다른 장르의 텍스트로 변환하기’ 등의 ‘창조적’ 쓰기가 비판적 읽기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이 글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글쓰기 지도에서 광고 텍스트가 그 대상으로서 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는 본질적으로 ‘설득’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고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거나 과장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광고의 내용은 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사실의 축소, 왜곡, 과장 등의 불합리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광고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명시적인 정보만을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은유와 함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광고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기, 허위와 과장 찾기, 다양한 언어 사용의 실태 찾아보기 등의 광고 분석을 통해 다양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광고 텍스트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적극적인 향유자인 요즘 학생들에게 뮤직 비디오, 광고, 영화, 대중가요, 만화 등은 ‘문화적 코드’가 잘 맞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 광고 텍스트는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게다가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한 편을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15초~20초에 불과하다. 이처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딱딱한 교과서에 식상해 하는 학생들에게 청량제 구실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광고의 장점이다.

## 2.1.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비판’은 ‘어떤 대상을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그러므로 ‘비판적 읽기’란 ‘어떤 대상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읽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상의 분석은 그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독립된 기호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통합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며,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하나의 텍스트로서 완성된다. 따라서 수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대상이 주는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내재한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지 그 타당성과 신뢰성, 적절성 등 텍스트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 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이 정확한지 자기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판적 읽기는 이상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네 단계는 간단히 ‘구성 요소 읽기, 의미 해석하기, 가치 판단하기, 자기 점검하기’라 부르도록 하겠다.

8) ‘비판’은 보통 용법으로는 ‘비평’과 같은 말이다. 유럽어로는 ‘비판’이나 ‘비평’은 모두 그리스어의 ‘분할한다’는 뜻을 가진 크리네인(krinein)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판’은 철학상의 용어로, ‘비평’은 주로 문학·예술상의 용어로 쓰고 있다. 비판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이고,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평가’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이다.

## 가. 구성 요소 읽기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 읽기’이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는 언어, 영상, 음악이 통합되어 의미를 완성하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는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언어, 영상, 음악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언어의 하위 구성 요소는 발화와 자막이다. 발화는 발화 유형이나 수사법에 주목하여 읽고, 자막은 문장의 유형, 자막의 크기나 배치에 주목하여 읽도록 한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영상은 어떤 모델이 등장하는가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모델의 수, 배경, 카메라 워크<sup>9)</sup>, 화면의 구도, 전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 등에 주목하여 읽도록 한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음악의 하위 구성 요소는 배경 음악과 효과음이다. 배경음악의 종류, 분위기, 소리의 크기 및 강약의 조절 등에 주목하여 읽도록 한다.

## 나. 의미 해석하기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두 번째 단계는 ‘텍스트의 의미 해석하기’이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영상, 음악의 기호들은 관계와 결합 방식에 따라 서로의 의미를 규정하고 생성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성 요소 읽기는 반드시 ‘의미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 텍스트 구성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성 요소인 언어, 영상, 음악이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 및 텍스트 구성 전략을 파악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생산자가 어떤 의도로 언어를 선택하고, 영상을 구성하고, 음악을 선택하였는가, 텍스트 수용자에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고자 하는가에 하는 텍스트 생산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가치 판단하기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세 번째 단계는 ‘텍스트의 가치 판단하기’이다. 텍스트의 가치 판단이란, 주어진 정보의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 또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전체 상황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광고 텍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약의 오남용, 과소비, 과도한 음주 행위 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폭력이나 범죄 행위까지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9) 카메라 워크란, 촬영을 위한 카메라의 위치 설정, 앵글 조작, 이동 따위의 모든 조작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카메라의 위치나 앵글의 조작,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사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양각’은 위엄, 지배의 의미를 나타내고,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은 왜소함, 억압, 실패, 멸시의 의미를 표현한다.



텍스트의 수용자는 제시된 정보들을 수용하기에 앞서 정보의 타당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둘째,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가, 광고의 내용에 허위나 과장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다. 따라서 광고 텍스트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이익을 과장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상품의 품질, 내용이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경쟁적 상품과 자사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등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을 주는 광고들은 의외로 매우 많다. 그러므로 광고 텍스트의 수용자는 제시된 정보들을 수용하기에 앞서 정보의 신뢰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셋째,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사회의 통념이나 관습, 문화적 척도 등에 비추어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는 성역할의 고정이나 그릇된 여성관 등 다양한 편견을 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텍스트의 수용자는 광고에 내재된 편견을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텍스트 언어 내용의 규범적 오류를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 라. 자기 점검하기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마지막 단계는 ‘자기 점검하기’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마친 후에는 자기 자신의 비판 태도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는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침은 없는가, 맹목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2.2.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쓰기

텍스트의 구성 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련의 활동을 비판적 읽기라 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조화된 글로 작성하는 과정은 비판적 쓰기가 된다. 비판적 사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를 비판적 쓰기로 ‘언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판적 읽기가 비판적 쓰기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리 훌륭한 사고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대체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를 비판적 쓰기 전환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읽기와 쓰기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읽기와 쓰기가 언어 처리 과정의 유사점, 사고 작용의 개입, 지식의 공유, 사고 작용의 개입 등에서 인지적 상호 관련성이 많다는 사실은 그간의 연구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또한 언어사용의 실제적 측면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은 분리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고 활동에 명료한 언어를 부여해가는 쓰기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 3.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지도

3장에서는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수업 설계는 수업 시간 180분, 수강 인원 45명~50명 내외의 수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3차시로 계획하였으며, 그 중 1차시는 비판적 읽기, 나머지 2차시와 3차시는 비판적 쓰기로 계획하였다.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는 본질적으로 비판적 쓰기의 과정에 포함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 운영에 있어서는 비판적 쓰기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전체 운영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수업 설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세부 운영	비판적 읽기	비판적 쓰기
수업 차시	1/3차시 (180분)	2/3차시(180분), 3/3차시(18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글쓰기의 과정으로서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읽기 방법에 대해 안다.</li> <li>-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읽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조화된 글로 작성할 줄 안다.</li> </ul>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및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발표</li> <li>- 평가 및 토론</li> </ul>
교수-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텍스트가 비판적 글쓰기를 위한 비판적 읽기의 대상이 됨을 안다.</li> <li>-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실재를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li> <li>- 비판적 쓰기 과제 안내.</li> <li>- 발표 준비 관련 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별로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다.</li> <li>- 광고의 비판적 읽기 내용을 정리하여 한 편의 글로 완성한다.</li> <li>- 완성한 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재구성하여 발표한다.</li> <li>- 글에 대한 학생 상호 평가 및 발표</li> <li>- 교사의 마무리</li> </ul>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글쓰기 읽기 자료</li> <li>- 비판적 쓰기 과제 작성 안내문</li> <li>- 카페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 구성 : 1개조 5~6명 총 8~9개조</li> <li>- 제출 과제 사전 준비</li> <li>- 개인별 평가지</li> </ul>

### 3.1.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 지도

#### 가.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의 수업 설계

[표2]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의 수업 설계

학습 주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	차시	1/3
학습 목표	-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글쓰기의 과정으로서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읽기 방법에 대해 안다. -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소요 시간	비고
읽기 전	- 배경지식 활성화 - 학습 목표의 탐색 및 확인	15분 ~ 20분	- 기자재 점검 - 학습 분위기 조성
읽기	- 시범 및 예문 활동 - 예제를 통한 비판적 읽기 연습	120분	- 광고 자료 준비 - 개인별 활동 - 소집단별 활동
읽기 후	- 비판적 쓰기 과제 안내 및 발표 준비 토의	25분 ~ 30분	- 과제 안내문 준비 - 소집단별 활동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 수업의 각 단계별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읽기 전’ 활동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업이므로, 수업에 앞서 교사는 관련 기자재를 점검하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와 관련된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진술된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인지하도록 한다.

#### ② ‘읽기’ 활동

읽기 활동에서는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에 적절한 학습 자료를 투입하여 비판적 읽기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다양한 예문 활동을 통해 이를 활성화한다. 학생들은 투입된 학습 자료를 시청하는 동안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비판적 읽기 기능 요소를 생각하면서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 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절히 조절해준다. 비판적 읽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도록 격려도 해주어야 한다.

③ ‘읽기 후’ 활동

학습 자료를 통한 비판적 읽기의 훈련을 마친 뒤, 본격적인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활동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과제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모둠 토의 활동을 통해 과제 수행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나.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의 실제

① ‘읽기 전’ 활동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비판적 글쓰기의 필요성을 논하고, 비판적 글쓰기가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한 쓰기임을 알리도록 한다.

② ‘읽기’ 활동

ㄱ.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의 원리 이해하기

<사례1\_구성 요소 읽기와 의미 해석하기>

아래의 예는 2009년 6월부터 방송된 ‘맥심 T.O.P’의 광고이다. ‘T.O.P’라는 제품명, 원빈과 신민아의 조화, ‘키스’의 은유와 함축 차원에서 텍스트 전략을 살피는 논의가 가능하다.



자막 : 리얼 에스프레소에 관하여 #1  
 여 : TOP?  
 리얼 에스프레소가 뭐지?  
 남 : 이게 그냥 커피라면  
 이게 TOP야  
 NA : 진하게 즐겨라  
 맥심 TOP  
 여 : 다른 애한테 가르쳐 주면 안 돼  
 남 : 응

‘이게 그냥 커피라면, 이게 티오피야.’라는 카피를 주목해보라. 다른 경쟁 제품에 대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의 의미를 내포하는 ‘그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티오피’가 다른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는 ‘키스’ 유형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함축적인 의미로 더욱 강화된다. 또한 광고에서는 ‘T.O.P’를 ‘티오피’라고 읽지만,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단어에 주목하면 ‘T.O.P’는 ‘top’ 즉 ‘최고’를 의미한다. 텍스트의 생산자는 명시적인 방법과 암시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T.O.P’에 ‘특별함, 최고’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원빈과 신민아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스타들이며, 기존에 한 작품에 출연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두 모델이 동시에 한 작품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매력적인 두 모델이 연인으로서 매우 예쁜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광고의 호감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두 사람의 진한 키스 장면은 쾌락적 자극을 통해 수용자의 주의를 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 수용자들에게 단순한 쾌락적 자극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광고가 매우 잘 만들어진 텍스트로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광고에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의 키스’를 ‘T.O.P의 품미’에 비유하고 있는데, 두 요소 사이에는 ‘깊고 진함’이라는 유사성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의미 전이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광고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게 된다.<sup>10)</sup>

#### <사례2\_가치 판단하기>

다음은 2009년 7월부터 방송된 KT ‘올레(olleh)’광고이다. 텍스트의 ‘가치 판단’의 차원에서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남 : WOW  
 alleh!  
 여 : 최고의 감탄사  
 alleh  
 NA : alleh KT

- 2009.07. | KT olleh

이 광고는 최고의 감탄사 ‘olleh’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금도끼 은도끼’를 차용하였다. 낡은 도끼를 깊은 강물 속에 빠뜨려 울고 있는 가난한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준다는 설정은 원전과 동일하지만, 또 한 번 도끼를 빠뜨리자, 금도끼를 든 선녀가 나타난다는 설정은 반전의 신선함과 재미를 준다. 그런데 문제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는 선녀들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10) 한국CM전략연구소의 TV광고 호감도 분석에 따르면, 동서식품의 맥심 티오피는 2009년 5월부터 원빈과 신민아라는 빅모델의 ‘키스’라는 이슈로 4편의 캠페인을 집행하면서 연중 내내 광고 선호도 1위를 기록하였다. 이 광고를 좋아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모델, 캐릭터가 매력적이다.’, ‘모델과 제품이 서로 잘 어울린다.’, ‘광고가 우아함이 느껴진다.’ ‘모델이 신뢰가 간다.’ 등의 순으로 꼽았다.

간에 아름답고 멋진 이성에게 매료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나, 이들을 선녀들이 과도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유혹하는 듯한 모습과 드러내놓고 이에 열광하는 남성의 모습은 여성의 성적 비하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도 2009년 8월 10일 KT 광고 ‘올레(olleh)’시리즈 가운데,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 편과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 편의 중단을 KT 측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편이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유희 거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였다.

#### 나.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연습하기

##### <비판적 읽기 연습 1>

- 다음은 2009년 10월부터 방송된 ‘농심 쌀국수 뚝배기’의 광고이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언어와 영상(모델) 요소를 중심으로 특성을 찾고, 텍스트 생산자의 전략을 분석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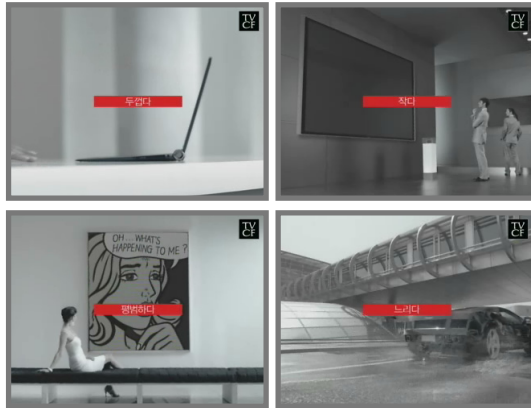
남 : 쌀국수 뚝배기  
 야~면발이 역수로 부드럽네  
 하..국물도 얼큰하네  
 뚝배기보다 장맛이네  
 자막 : 면 중 쌀 90%함유  
 남 : 동지 쌀국수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예?  
 자막 : 장수식품을 추구하는 농심

- 2009.10. | 쌀국수 뚝배기

이 광고는 모델과 모델의 발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쌀국수 뚝배기’는 ‘설렁탕’ 맛이 나는 라면으로, ‘설렁탕’, ‘뚝배기’는 한국의 ‘토종’ 이미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모델로 내세운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광고의 모델 ‘하일’은 귀화인이다. 미국 출신으로 부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다가 결혼, 1997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그는 국제 변호사이자 외국인 학교의 이사장인 동시에 방송인으로,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덕분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답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광고 텍스트에서 ‘하일’을 모델로 기용한 것은 광고에 대한 호기심을 끌고 호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다. 한국의 토종과 외국인의 결합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이 수용자의 관심을 끄는 동시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귀화인과 제품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 제품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모델의 범상치 않은 어투는 수용자들에게 늘 즐거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투리가 갖는 토속성이 제품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호감을 높인다.

<비판적 읽기 연습 2>

- 다음은 2005년 7월에 방송된 '현대산업개발 I'Park'의 광고이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언어와 영상을 중심으로 특성을 찾고 텍스트 생산자의 전략을 분석해 보자.



자막 : 두껍다  
작다  
느리다  
평범하다  
만족하지말라!

NA : I PARK  
INNOVATE  
현대산업개발

- 2005.07. | 현대산업개발 I'Park

이 광고 텍스트는 영상과 발화가 주는 정보가 서로 충돌함으로써 수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얇은 노트북을 '두껍다', 대형 벽걸이 TV를 '작다', 독특한 그림을 '평범하다', 속도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느리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집중을 유발하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 연습 3>

- 다음은 2008년 8월부터 방송된 '메리츠 금융그룹'의 광고이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특성을 찾고 텍스트 생산자의 전략을 분석해 보자.



자막 : 첫 도전이 태어났다  
첫 보금자리가 태어났다  
첫 드라마가 태어났다  
행복은 매일매일 태어납니다

NA : 금융은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남 : Merry MERITZ

NA : 메리츠금융그룹

자막 :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  
츠증권/ 메리츠금융정보/ 메리츠  
자산운용

- 2008.08. | 메리츠 금융그룹

이 광고 텍스트의 배경음악으로는 'Happy birthday to you'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배경음악과는 달리 텍스트의 메시지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 광고를 구성하는 장면들에서는 자막을 통해 무언가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생산자는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배경음악을 통해 '탄생'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 연습 4>

- 다음은 2010년 10월에 방송된 '페브리즈'의 광고이다. '텍스트의 가치 판단'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여 : 애기꺼 다 삶아야돼

유모차는 안돼!

유모차는 삶을 수도 없고...

자막 : 99.9% 향균력

NA : 99.9% 향균력 페브리즈

자막 : 페브리즈 비사용 시 / 사용 시

여 : 이런데도 페브리즈 뿌리니?

그럼~ 향균도 되잖아

그래~

JINGLE : 페브리즈

자막 : 향균력 99.9% 페브리즈

- 2010.10. | 페브리즈

우리 주변에는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광고들이 매우 많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광고에서 표현하는 고정관념이 자신의 것으로 굳어져 내면화될 수 있고, 이것이 편견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광고에는 고정된 성역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기를 돌보는 데 남편은 보이지 않는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아기 엄마일 뿐이고, 그 옆에서 아기 엄마를 돕는 것은 친정엄마이다.

③ '읽기 후' 활동

학습 자료를 통한 비판적 읽기의 훈련을 마친 뒤, 본격적인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활동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모둠 토의 활동을 통해 과제 수행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자료1] '과제 수행 안내문'

1. 과제의 주제

: 우리의 무의식을 조장하는 광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광고를 찾아보고, 그곳에 숨어있는 의도들을 비판적 읽기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봅니다.

2. 과제의 형식

: 광고 분석문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발표를 전제로 하는 과제이니 발표의 형식을 고려하여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3. 발표 시간

: 조별 발표 시간은 20~30분 정도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4. 발표 과제의 제출

: 제출은 카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 발표 과제' 폴더에 완성본을 올리도록 하세요.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파일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제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



우에 한하여 제 메일로 보내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동영상은 제외한 기타 과제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업로드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5. 제출 기한

: 발표가 시작되는 수업일 하루 전인 2010년 11월 23일 자정까지입니다.

6. 기타 당부

: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베껴오지 않도록 합니다.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 3.2.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 지도

#### 가.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의 수업 설계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의 수업은 쓰기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비판적 쓰기에 대한 것은 강의가 시작되는 첫 주에 대강의 윤곽을 예고하고, 본격적인 비판적 읽기 수업 이후에 1주~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 수업은 수업 시간 내에 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한 쓰기를 발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아래의 수업 설계에서 학습 단계가 ‘쓰기 전, 쓰기, 쓰기 후’가 아닌 ‘발표 전, 발표, 발표 후’로 구성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발표는 조별로 진행하며, 차시별 발표 시간을 약 120분으로 잡으면, 한 차시에 4~5개 조의 발표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다른 조가 발표를 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배포한 개인별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발표조가 평가의 내용을 확인하여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표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3]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의 수업 설계

학습 주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	차시	2/3, 3/3
학습 목표	- 비판적 읽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조화된 글로 작성할 줄 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소요 시간	비고
발표 전	- 과제물 수거 - 평가지 배포 - 학습 목표의 탐색 및 확인	15분	- 기자재 점검 - 학습 분위기 조성
발표	- 과제 발표와 평가 - 발표 : 1조당 20분 ~30분 내외. - 평가 : 개인별 평가지 작성	100분	- PPT, 발표원고 준비
발표 후	- 비판적 쓰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토론	30분	- 전체 활동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 수업의 각 단계별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표 전’ 활동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의 수업의 실체는 쓰기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에 앞서 필요한 기자재를 확인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는 과제를 준비하고자 애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대감을 표현하여 발표에 대한 자부심과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발표의 방식과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도록 한다.

② ‘발표’ 활동

발표는 조별로 진행하며,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배포한 개인별 평가지를 작성한다.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고, 그 발표의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는 평가지 작성의 과정은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판적 읽기 훈련 과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③ ‘발표 후’ 활동

조별 발표가 끝난 뒤에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의 내용을 종합, 정리, 평가한다. 발표 조가 평가지의 내용을 확인하여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별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및 비판과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는 발표 조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칭찬하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 위주로 토론 거리를 제공하거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 등에 언급함으로써 토론이 활발해지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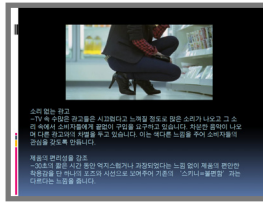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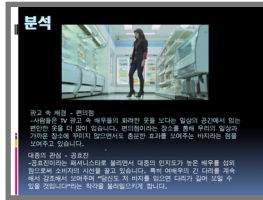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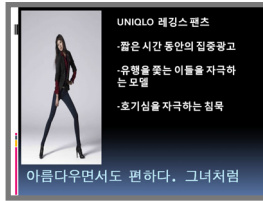
#### 나.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의 실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쓰기의 실체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는 2010학년도 2학기 경원대학교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상업 광고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어떻게 조작하는가.’라는 주제로 광고를 분석하고 이를 한 편의 글로 완성하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이다. 제적인원은 총 37명이었으며, 8개의 조로 나누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발표는 ‘분석 글’의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과제 수행의 결과물은 ‘분석 글’ 원본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총 8개의 조가 모두 결과물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분석 글’의 원본을 제출한 조는 2개 조에 불과하였다.

아래의 [자료1]~[자료4]는 학생들 과제의 일부만을 보인 것이다. [자료1]~[자료3]은 2010년 9월부터 방송된 ‘유니클로 레깅스 팬츠’ 광고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글쓴이 임의로 자료화하였다. [자료4]는 2002년 7월에 방송되었던 ‘롯데리아 크랩버거’ 광고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가 ‘분석 글’이

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였다. 제출한 조의 이름은 임의로 A,B,C,D로 붙였다.

[자료1] '유니클로 레깅스 팬츠' 광고(2010.09.) 분석 (A조)



• 광고 속 배경 - 편의점-

사람들은 TV 광고 속 배우들의 화려한 옷들 보다는 일상의 공간에서 입을 편안한 옷을 더 많이 입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장소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장소에 꾸미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는 바지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대중의 관심 - 공효진

공효진이라는 패셔니스타로 불리면서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배우를 섭외함으로써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배우의 긴 다리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며 "당신도 저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 소리 없는 광고

TV 속 수많은 광고들은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끝없이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음악이 나오며 다른 광고와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색다른 느낌을 주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 제품의 편리성을 강조

3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억지스럽거나 과장되었다는 느낌 없이 제품의 편안한 착용감을 단 하나의 포즈와 시선으로 보여주어 기존의 '스키니=불편함'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 CF의 마지막에 가격을 제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CF 속의 옷들이 비쌀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 구입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속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임을 각인시켜 실질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료2] '유니클로 레깅스 팬츠' 광고(2010.09.) 분석 (B조)



1. 텍스트의 최소화

텍스트와 대사를 최소화하고 영상만 보여줌으로서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

2. 저렴한 가격과 문구 노출

광고 마지막에 유니클로의 특징인 저렴한 가격과 문구를 노출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유도

[자료3] '유니클로 레깅스 팬츠' 광고(2010.09.) 분석 (C조)



- 편안한 자세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 레깅스바지의 기능을 알려주었다
- 제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간략한 문구  
짧은 문구로 이 바지의 특성을 알려주고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 제품의 가격  
보통 광고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알리진 않지만 유니클로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광고한다.

[자료4] '롯데리아 크랩버거'(2002.07.) 분석 (D조)

이 광고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우리 조는 광고의 언어 표현이 갖는 기능적 측면과 영상이 내포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 광고의 메인 카피는 “니들이 게맛을 알아?”이다. 이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문구가 아닌 제품의 주재료인 게살의 맛을 강조하는 문구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는 소비자들의 미각과 청각을 자극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광고의 영상에서 드러나는 광고제작자의 의도는 다음 세 가지 영상에 주목하여 살필 수 있다.

첫째, 이 광고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가 한 척 다가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첫 장면에서 먼 거리에서 다가오는 배의 정체를 궁금해 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CF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의도적 장치이다.

둘째, 배 가까이로 카메라가 다가가면 지쳐 누워 있는 듯한 노인이 보이고, 노인의 흡족한 미소와 한쪽 손이 다친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 노인의 흡족한 미소와 노인의 다친 손을 보임으로써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선원들이 커다란 게를 보며 놀라는 모습이 등장한다. 다른 선원들의 부러움의 시선은 곧 경쟁 회사의 부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고의 목적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데 있다. 이상의 광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고는 제품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비자들은 광고 모델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5] 조별 '발표'에 대한 개인 평가지

교과목 : 읽기와 쓰기 / 담당교수 : 윤재연 작성자 : 조진아 (수 1-3)

**[조 발표 평가지]**

☆ 평가기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 자료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였다.	4	2	3	3	3	3	3	3
2. 풍부한 자료를 살피 논의를 강화하였다.	4	3	3	2	4	2	4	4
3.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4	4	3	3	3	3	4	4
4.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발표하였다.	4	2	4	3	3	3	4	4
5.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였다.	3	3	3	3	3	3	4	4
조별 점수 계	19	14	16	14	16	14	19	19

★ 점수 ★ 매우 부족 1점 / 부족 2점 / 보통 3점 / 잘함 4점 / 매우 잘함 5점

☆ 조별 간략 평가

발표조	발표에 대한 총평
1조	관공을 전담한 두중음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어떤 개념을 이용한 재해석에 예를 들어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여러쪽으로 자료도 잘 준비하였고 발표도 깔끔하게 리듬이 느껴져서 발표만 들어보지 않아도 내용이 있었듯이 들었다. 명칭이나 의미 등으로 거론해서 설명을 할 때 수줍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2조	역리광고 - cesco Members, Alcon, CJ랜북클럽 등, PPL 광고 - 뉴리턴타, 인텔, 이명박 대통령의 연경, 인공위성 발표자가 너무 권위자만 보고 발표하여 듣는 사람들과의 교육?가 좀 어려웠던 거 같다. 나머지 광고를 발표할 때 소개자가 발표하는 동안 부끄러움에 된다면 편에서 웃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만 많이 강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핸드폰 광고 분석은 구매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한두번의 것이 아니라 광고의 문제점?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떤 발표 주제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였다.
3조	에어컨판매비하인드 현대자동차, Anyon인도문 전문한 하여 재미를 주던 것은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나 어떤 예에 좋은 점이었던 거 같다. 동영상은 다른 나라 광고로 봤을 때는 좋았으나 그 광고를 보지 못한 시선이 재미를 주는 것은 약점이 있었다. SKT 광고에 나오는 '피해?'는 오히려 더 하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은 분명히 다른 덕점들을 보여줬던 거 같다.

4. 맺음말

이 글은 대학 글쓰기 수업의 비판적 글쓰기 영역에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에 주목하고,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가 비판적 글쓰기의 효과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비판적 글쓰기 수업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도 국어 교육 분야에서 광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논의들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가 쓰기로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는 '비판적 읽기' 영역에서만 다루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글쓰기 수업에서 광고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글쓴이의 실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그 효용성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비판적 글쓰기는 비판적 읽기가 전제되는 활동이며, 비판적 읽기를 쓰기로 '언어화'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수업을 총 3차시로 구성하여, 1차시는 비판적 읽기로, 나머지 2차시는 비판적 쓰기로 진행하였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수업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과정이 '텍스트의 구성 요소 읽기 → 의미 해석하기 → 가치 판단하기 → 자기 점검하기'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을 실제 광고 사례를 통해 익히도록 하였다.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쓰기 수업은 실제 쓰기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고, 쓰기 결과물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 뒤, 수업에서는 그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이상의 3차시에 걸친 수업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비판적 쓰기의 과제를 발표로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이 '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적인 문장 표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업이 '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는 것은 장점이라 하겠다.

## ■ 참고문헌

- 고혜운,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읽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권순희,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근하, 「광고 텍스트 읽기·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 매체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성수, 「연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 『대학작문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대학작문학회, 2010, pp.45~62.
- 김혜선, 「비판적 읽기 전략을 활용한 고쳐쓰기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목영해, 「대학수업에 적합한 수업기법 연구」, 『교육과학연구』 9, 신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4, pp.31~44.
- 박정선, 「경북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 『대학작문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대학작문학회, 2010, pp.75~91.
- 송영아, 「광고 언어를 활용한 국어 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오문석,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의 현황」, 『대학작문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대학작문학회, 2010, pp.63~74.
- 이묘영,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광고언어의 효용성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영아, 「광고언어의 국어교육적 효용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행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활용한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초등학교 4학년 쓰기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점영, 「비판적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영신, 「광고 텍스트를 이용한 국어능력 신장방안 연구 -텔레비전 광고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미희, 「텔레비전 텍스트 읽기 지도가 비판적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상우, 「대중문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 <싸이월드>(cyworld)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2006, pp.559~587.
- 조현아, 「광고언어의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민아, 「광고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하숙자, 「영상 매체 텍스트 비판적 읽기 방법 연구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수영, 「대학 글쓰기 교육의 실제 -이화여자대학교의 <우리말과 글쓰기>-」, 『대학작문

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대학작문학회, 2010, pp.93~104.  
한국CM전략연구소, 『TV광고 호감도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광고자료

<http://www.tvcf.co.kr>



##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지도

최대희(건국대)

이 글은 대학 글쓰기 수업의 비판적 글쓰기 영역에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에 주목하고,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가 비판적 글쓰기의 효과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의 비중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 과정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읽기, 쓰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관련한 각 대학의 글쓰기 수업은 특정 주제에 대한 독후감, 서평쓰기, 영화 감상문 쓰기, 비평문 쓰기, 시사비평문 쓰기, 논증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판적 사고와 관련해서 글쓰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선생님께서 발표지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학 글쓰기에서는 주로 사회 현상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이 다소 지루해지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비판과 토론으로 동기의식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의 대상으로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매우 참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글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의 한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여 검증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론자도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하여 비판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논문을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발표지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고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의 과정을 구성요소 읽기, 의미 해석하기, 가치 판단하기, 자기 점검하기의 네 단계로 나누고 실제 광고를 통해 원리를 익히는 연습을 하였는데, 각 과정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하나씩 제시하여, 충분히 광고 텍스트 읽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여러 편의 광고를 통해 설명하다 보니, 이러한 과정이 한 편의 광고에 다 들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편의 광고를 통해 네 단계의 과정을 모두 설명하고, 이 광고에서는 특히 몇 번째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편이 수업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광고를 통해 전체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다른 광고를 분석하여 글쓰기를 진행하게 될 때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분석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제 수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수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예를 들어, 수업 시수의 적절성, 학생들의 호응도, 학습의 효과, 평가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글쓰기 교수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적인 글쓰기 교수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교수자는 자신의 경험과 전공을 바탕으로 한 수업 계획이나, 교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 특성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고를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광고를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전문가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